

진정한 삶의 책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

제10권

가르침 277 - 309

삶을 위한 도서 서비스

12권으로 구성된 『진정한 삶의 책』 (Libro de la Vida Verdadera)은 전 인류에게 남겨진 유산이며,
멕시코 D.F.의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에 26002, 20111, 83848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원본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 C.
Apartado Postal 888, México, D.F., - C.P. 06000

독일어 번역, 독일어판 서문, 해설, 각주, 주석 및 작품에 대한
참고 사항을 담당한 자:
발터 마이어(Walter Maier)와 트라우고트 겔텐보트(Traugott Göldenboth).

2017년 1월 기준

편집 (새로운 철자법 및 레이아웃):
부흐디엔스트 줌 레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 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

『진정한 삶의 책』은 이 버전을 바탕으로 DeepL Translator를 통해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트홀트 겔텐보트(Gotthold Gölttenboth)가 번역하고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에서 출간한, 저작권이 있는 진정한 원본 저작물입니다. 이 저작물은 본래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수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죄가 되며, 신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나 마리아 호스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2017년 3월 25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인)의 시대” ...

...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활용하라. 오늘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가르침을 받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리라.”*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 글들의 소유주이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안나 마리아 호스타입니다.

(이메일: hoanna64@yahoo.com)

DeepL - 다운로드 링크: www.DeepL.com/Translator

(비즈니스 버전)

DeepL은 현재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며, 데스크톱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24일

목차

내용

진정한 삶의 책.....	1
목차.....	4
서문.....	7
서문.....	9
가르침 277.....	17
가르침 278.....	27
가르침 279.....	36
가르침 280.....	46
가르침 281.....	55
가르침 282.....	65
가르침 283.....	76
가르침 284.....	85
가르침 285.....	94
가르침 286.....	104
가르침 287.....	113
가르침 288.....	122
가르침 289.....	132
가르침 290.....	142

가르침 291	152
가르침 292	165
가르침 293	174
가르침 294	184
가르침 295	192
가르침 296	202
가르침 297	211
가르침 298	220
가르침 299	231
가르침 300	242
가르침 301	250
가르침 302	260
가르침 303	270
가르침 304	281
가르침 305	292
가르침 306	304
가르침 307	315
가르침 308	324
가르침 309	334
목차	347
1866-1950년 멕시코에서의 신성한 가르침	355

서문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계명을 주시고, 창조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이 신성한 가르침을 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율법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600개가 넘는 인간적인 규칙을 만들어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입을 통해 신성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단순하고 구원을 주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잔혹한 전쟁과 비인간적인 박해는 그 슬픈 증거입니다.

신성한 진리를 인간의 교리와 혼합하고, 외적인 의식과 예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순수한 신의 말씀을 인간이 잘못 해석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영적 속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시금 계몽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66년(1884-1950) 동안 멕시코에서 이루어졌는데, 100여 곳 이상의 모임 장소에서 평범한 백성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하나님의 고양되고 교훈적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당시의 증인들은, ‘음성의 전달자’라고 불리는 전도자들의 입에서 이 신성한 말씀이 수정처럼 맑은 물줄기처럼 흘러나왔으며, 2~3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중단도, 아주 사소한 말실수도 없이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순수하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신성한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주님의 임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1950년 이전의 지난 10년 동안, 가르침들은 나중에 한데 모으기 위해 속기 기록과 회의록으로 남겼습니다. 366개의 가르침이 선정되어 1956년부터 1962년 사이에 12권으로 구성된 *『진정한 삶의 책』*에 출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것은 이 12권 중 하나로, 스페인어 원문을 꼼꼼하고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단 한 번, 어쩌면 대충 훑어보고는 금세 다시 옆으로 치워버릴 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작은 ‘한 입 크기’ 단위로 조금씩

음미하며, 그에 대해 명상하고, 내면에서 신성한 영과의 연결을 느껴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르침에 포함된 반복적인 내용들은 제2권의 서문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유익하지 않은 정보에 폭격당하고 세뇌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반복적이면서도 항상 고양되고 유익한 이 영적 양식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내적 가치를 일깨우는 데 지극히 중요합니다.

서문

특정 핵심 주제들은 ‘진정한 삶의 책’이라는 전체 계시 저작을 관통하는 붉은 실처럼 이어지며, 이는 제10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자들에게 지침과 개요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발췌한 몇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누구도 나의 새로운 메시지와 내 말씀의 의미에 놀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대의 예언자들은 두 번째 시대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지극히 명확하게 예고했기 때문이다. (279, 9)

나의 사랑의 가르침은 대변자들을 통해 그것을 들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 세상에 전해졌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메시지는 지구의 끝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질 것이니, 이는 인류가 지상에서 환난의 시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미 제2시대에 약속받았던 위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282, 57)

너희에게 지혜와 사랑, 고양을 의미하는 빛이 지극히 부족함을 보았기에, 나는 오지 않을 수 없었다. 너희에게 이 빛을 주기 위해,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 곁에 머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를 영성화로 이끄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이며 보이지 않으나 너희의 믿음과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내 현존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이다. (293, 57-58)

이 말씀이 세상에 퍼지고, 사람들이 누가 이를 영감으로 주었으며 누가 기록되도록 지시했는지 묻는다면, 그 말씀의 전도자들과 전파자들은 성령께서 에 의해 준비된 그 대변자들의 지성을 통해 이를 계시하셨음을 증언해야 한다. (295, 26)

제3의 시대

첫 번째 시대는 마치 인간의 영적 유년기와도 같아서, 이 시기에 인간은 눈을 뜨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지만, 그분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어 있다. 그 증거는, 인간이 영혼으로 그 본문의 의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단지 글자 그대로에 집착함으로써 그분께 순종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제2의 시대에 나는 “말씀”으로서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며(), 내 삶을 통해 너희에게 영혼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이 제2의 시대는 성장기, 즉 영적 청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어, 잠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의 현을 깨워,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강력한 충동 아래 그들의 마음이 새로운 감정으로 진동하게 하신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 물질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하는 “제3의 시대”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할 세계관 간의 투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295, 56-57+64)

인간의 악이 절정에 달한 이 ‘제3의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용서의 시대가 될 것이다. (305, 12)

여섯 번째 봉인

여섯 번째 봉인이 풀려, 지상에서 영성화의 길을 여는 너희에게 그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이 끝난 후에도, 그 빛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쏟아질 것이다.

(284, 46)

현재 나는 인류를 대신하여 이곳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내가 인류를 언급할 때, 단지 현재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영적 n 기간 동안 지구에 살았던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이 여섯 시대에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들은 바로 제가 “인장”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한 바로 그것이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중 하나가 아직 풀려야만 다른 모든 것들의 진의나 의미, 즉 영혼의 삶과 발전, 그리고 완성에 대한 그 고귀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303, 52)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사명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 가운데 다시 한 번 나타날 것이다. - 특정 인종에 의인화된 백성이 아니라, 혈통이나 인종, 언어가 아니라 영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나의 수많은 제자들, 곧 군단이다. 이 백성은 경전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에 생명이 깃들게 하려면,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 이 백성은 단순히 경전과 책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범과 행실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292, 28-29)

이 계시들이 맡겨진 이 백성은 나서서 이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깨어나, 이 시대에 특유한 영적 징표와 현현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77, 15)

영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세계는 이 지상의 골짜기에 거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빛의 존재들로, 뒤쳐진 민족들의 품에 환생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데, 그들의 사명이 바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288, 46)

영, 영적 영혼, 영혼

인간은 창조주의 반영이자,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을 낳으신 아버지를 닮게 된다. 이러한 닮음은 영혼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다. 물질, 즉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일시적인 외피에 불과하다. (295, 44)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앞장서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영적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삶이 바로 그 영적 영혼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305, 7)

영적 기도

영혼은 오래전에 창조주의 품에서 태어났다는 직관적인 지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여정을 헤쳐 나가야 함을 알기에,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교감할 수 있음을 알고 기도에 전념한다. 영혼은 기도 속에서 자신을 어루만지고, 힘을 주며, 치유해 주는 위로를 발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한다. 그들의 기도가 영적일수록, 내가 그들에게 느끼게 하는 평화는 더욱 커진다. 이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 신성한 존재의 현존을 느끼기 위해 형상이나 물건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현존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9, 1-2)

반면, 내 가르침 중 단 한 알갱이만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화하는지 보라. 그에 대한 예를 들어줄까?

평생 동안 말로만 기도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었고, 그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진정한 기도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집중하며 생각을 하느님께 올려드렸더니,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가슴이 울컥하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아버지, 제가 당신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데,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과 흐느낌, 그 내면의 기쁨, 심지어 그의 혼란마저도 아버지께는 그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러분이 인간의 언어로도, 책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주님과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그 더듬거리는 말은, 부모에게 기쁨과 황홀함을 주는 갓난아기의 첫 말과 닮아 있습니다. 부모는 생명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존재의 첫

발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281, 23-24)

완벽한 영적 소통

나는 너희에게 영적 대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왔으며, 너희가 이를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 갈망에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291, 81)

이 가르침이 널리 퍼지면, 이미 수많은 종교 공동체가 존재하는 만큼, 사람들은 이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 말씀이 인류에게 전해진 것은, 그들의 종교가 가르쳐 주지 않는 영과 영의 교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며, 이 메시지가 너희가 지닌 모든 영적 특성을 드러내 주는 신성한 빛임을 그들에게 밝혀야 한다. (294, 44)

날마다 더욱 완성해 나가야 할 영과 영의 교감을 실천하십시오. 너희와 인류가 나와 소통하는 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감을 통해 너희는 나의 영감과 사명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영혼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며, 너희의 영적 팔이 나를 감싸 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304, 51)

이 계시는 너희가 완전한 교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는 상승의 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계단이었다. (278, 44)

신성한 계시의 수용과 거부

과거의 경전을 통해 이 시대를 예고했던 예언들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 설령 그들이 나의 선포에 참석한다 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며, 그 예언들이 그 약속들의 성취라고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빛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발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다. 반면, 오늘날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예언한 예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이미 그 일에 대비되어 있었고,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98, 19)

이곳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 모두는 사랑을 갈망하고 빛과 진리를 목말라 하는 영혼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빛으로 양분을 얻어 강해지는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의 양식을 외면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와 무지, 광신주의의 삶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어, 이를 떨쳐내지 못하면 내 현존을 인식하고 느낄 수 없는 영혼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영혼 속의 고귀한 것에 집중하여 내 본질을 느낄 수 있겠는가? 결국 그들은 그 장소에서

나의 현존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그들이 - 비록 그곳에 있었음에도 -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생각과 관심사, 걱정과 열정이 그들을 붙잡아 둔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왔고, 분명히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나는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 즉 고통의 잔을 마시고 노예와 굴욕의 빵을 먹는 이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301, 2)

시련의 의미

때로는 너희의 평화가 투쟁이나 불안, 혹은 두려움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는 폭풍이 들판과 정원을 휘몰아치고, 나무들을 뒤흔들며 꽃잎을 떨어뜨릴 때 일어난다. 그러면 너희는 그 시련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회오리바람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와 시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정원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다. (278, 31)

시련 속에서 너희 양심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하며 모독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정화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말해야 한다. (293, 75)

너희는 경험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왔다. 경험의 빛을 얻음으로써, 맹목과 무지였던 그 순수함은 사라졌다. 게다가 너희는 스스로를 더럽혔으며, 이를 씻어내고 정화하기 위해 시련과 고통이 주어진 것이다. (301, 24)

모두를 위한 영적 영감

백성들아, 영적인 메시지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라. 세상에는 내가 이 대변자들을 통해 내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인류에게 계시로 쏟아질 준비가 된 빛의 임재를 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 영으로부터 필요한 준비를 받게 될 것이니, 너희의 간증을 듣고 너희가 그들에게 나의 신성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환호하며 “이것이 바로 내가 바랐던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283, 51)

모두를 아우르는 영적 조화

자선과 평화가 꽃피는 선과 사랑은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류는 보편적 조화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292, 5)

모든 존재들 사이의 영적 조화는 그들에게 위대한 깨달음을 드러내 줄 것이며, 거리를 좁히고 멀리 있는 이들을 가까이

데려오며, 대립과 경계를 없애 줄 영과 영의 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286, 3)

나는 내 모든 자녀들 사이에서 조화가 깃들기 시작하도록 노력하는 아버지이다. 이는 지구에 거주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사는 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86, 2)

영적 각성

이 인류가 수 세기 동안 불화를 겪으며 살아왔고, 그토록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모두 겪은 끝에, 이제 민족 간의 단결과 모든 사람 사이의 조화가 물질적 이익이나 세속적 가치에 근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인류는 오직 고귀한 영혼만이 인류의 평화가 될 수 있는 견고한 기초이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89, 3)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보다 너희 영혼의 발전을 더 잘 아는 이가 없기 때문이며, 나는 오늘날의 인간이 극심한 물질주의와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큰 죄에 이르기까지 발전한 정욕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보기에 ‘육신’과 물질적인 삶에 빠져 사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나의 사랑이 전하는 다정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는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그토록 갈망해 온 진리의 길을 따라 나를 따르기 위해 재빨리 내게로 올 것이다. (305, 36)

자비

사람들이 갱신되어 영적 고양의 경지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자비입니다. 영혼에 대한 자비, 육체에 대한 자비, 이웃에 대한 자비. (287, 31) 내가 병원, 감옥, 슬픔에 잠긴 가정, 파탄 난 결혼 생활, 고아들, 혹은 영적으로 굶주린 이들을 바라볼 때 - 왜 그곳에서 너희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의 은사도 주었고 치유하는 법도 가르쳤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너희가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의 존재만으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 왔다. (306, 27)

선구자 로케 로하스는 엘리야의 영감에 이끌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아, 이 말씀에는 진리와 빛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생애 동안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너희에게 확신하건대, 아무리 마음이 굳고 완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308, 52)

환생과 영적 발전

야곱은 꿈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들이 오르내리는 영적 사다리의 존재를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누가 그 내용을 이해했는가? 누가 그 비밀을 해석했는가? 그곳, 곧 그 족장이 보았던 그 형상의 의미 속에는 영혼의 발전, 영적 피조물들이 인간으로 끊임없이 환생하는 과정, 존재들의 속죄와 보속, 하나님과 인간의 교감, 그리고 영과 영 사이의 대화가 담겨 있다. (287, 59)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환생에 대한 확증을 가져다주었다. 인류는 비록 모든 시대에 걸쳐 이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영혼은 이 비밀을 “육신”에게 드러내 보였으나, 항상 불신하고 연약한 이 육신은 그것을 의심해 왔다. (309, 22)

그러나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그에 대한 확증을 전하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 왔다. “영혼의 환생 속에서 나의 완전한 사랑의 법칙이 드러난다.” (309, 22)

영적 세계

너희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혼의 삶은 인간에게 비밀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보시고, 계시와 영감의 은사를 통해 가르침을 시작하셨으며, 무수히 많은 형태로 너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첫 번째 인간이 존재했던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왔다. (289, 17)

깨어나라, 백성들아! 저 세상은 너희가 지상에서 내딛는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 그 세계들은 너희의 행실을 알고 있다! 그들이 이 인류가 적대감과 정욕의 바다에 빠져 침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큰 충격을 받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298, 41)

인류가 물질적 삶 너머의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몇 가지 현현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는데, 너희는 그들을 “천사”라고 불렀다. (301, 10)

또한 여러분이 혼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그토록 큰 영적 의미를 지닌 업적을 이루기에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할 길을 안내해 주고, 씨앗을 심어야 할 길과 장소를 알려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선구자들은 다른 세계, 다른 고향에서 온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로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여러분을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평화와 사랑, 형제애를 실천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순수하고, 더 큰 지식과 경험을 지닌 영혼들이며,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멈춰 서지 못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 여러분이 씨앗을 방치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297, 6)

사랑의 법칙과 힘

이웃에 대한 사랑, 이해, 용서로 귀결되는 사랑의 법칙은, 내가 너희의 영적 사명을 위해 영감을 준 토대이다. (291, 8)

두려움이 너희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너희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과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의 공로가 진실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05, 51)

평화, 가장 높은 영적 선

너희 마음에 안식을, 너희 영혼에 평화를 주는 것은 바로 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정해 놓은 가장 큰 것은 평화이다. 이 보물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이 영적 상태를 아는 자는 이를 세상의 가장 큰 재산과 보물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평화를 얻고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 비결이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고 말하리라. 그리고 만약 너희가 신성한 뜻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너희가 내 율법과 가르침을 너희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리라. (307, 1-2)

양심의 목소리

양심과 친해지라. 그것은 우호적인 목소리이며, 주님께서 아버지로, 스승으로, 혹은 심판자로서 그분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빛이다. (293, 74)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 앞에,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있음을 보라. 사람은 자유 의지와 양심을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의 모든 타락과 실족, 죄악은 바로 이 자유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창조주의 정의와 영원함 앞에서 덧없는 과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 후 양심은 육체의 약점과 영혼의 유혹에 맞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무지를 의미하는 어둠에 대한 지식인 빛의 승리가 올 것이다. 그것은 사랑, 정의, 조화인 선이 이기심, 방종, 불의인 악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이다. (295, 49)

영적 해방

각 교파가 신자들을 낳은 신앙 관념과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

체계라는 고착된 궤도에 묶어두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 능력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계시와 신성한 영감, 의심과 신비의 해명, 영적 해방의 시대를 맞이하도록 영혼을 깨우는 신성한 빛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가 사고와 정신,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형성될 그 물결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내가 여러 종교 공동체로부터 그들의 제자나 신자, 추종자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잊혀진 교훈들을 다시 드러내며, 쓸모없는 관습과 교리, 전통들을 제거하고, 영혼들을 모든 거짓으로부터 정화하고 벗겨내어, 항상 의식으로 대체되어 왔던 ‘영의 참된 양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시간이 도래했다. (290, 58-60)

이 시기에 내 말씀을 들은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에게, 해방의 날은 바로 이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바로 그날이었는가! 너희는 믿음으로 부활한 기적을 기억하는 그 축복받은 날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희 기억 속에 새겨 두었는가! (294, 24)

가르침 277

1. 나는 너희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나를 따르는 행렬의 선봉대를 보았다 — 지혜로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을 뚫어 나가는 유다의 투사 정신. 너희는 마지막 전투를 치르기 위해 왔으며,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너희를 사명의 정점에 이르게 할 나를 앞에 두고 있다.

2. 나는 인류가 가장 큰 위험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시련의 순간에 너희를 파송하였으며, 인류가 한동안은 여전히 권력에 대한 탐욕을 이어가다가, 그 후 고통스러운 피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다가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헛된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낭비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며, 영성화의 길을 통해 내게로 오도록 지혜롭게 가르칠 것이다.

영혼이 깨어나 깊이 성찰하게 되면, 무언가 확실한 것에 의지하려 할 것이며, 가장 짧고 안전한 길을 찾고자 할 것이며, 근원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기초와 미덕, 참된 과학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내가 인간에게 준 첫 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이 모든 완전함의 근원인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3.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며, 너희가 나 및 영적 세계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었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 세계의 영혼들이 연합하여, 그 연합을 통해 힘을 얻어 내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나는 너희가 자신의 개성을 부정하거나 세상과 단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단지 너희가 육체의 필요를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그래야 영혼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내면과 주변을 바라보며 내 사역 안에서 자신의 위대한 소명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함이 바로 그것이다.

5. 나는 너희에게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겠다. 나는 너희가 의무를 소홀히하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나의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그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중 가장 사소한 것조차도 너희 사명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너희는 투쟁과 활동, 그리고 노력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영을 섬기는 데 바치고, 너희의 모든 은사를 꽃피워야 한다. 그래야만 제2시대의 제자들에게서 이루어졌던 변혁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그들은 마치 하나의 영으로 연합된 것처럼 나와 하나가 되었다.

6. 너희는 거짓되거나 단지 겉으로만 꾸민 준비 상태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성숙해졌으며, 그들의 눈을 가리던 장막은 오래전에 이미 벗겨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영성을 전하고, 평화를 선사하며, 주변에 안락함과 형제애의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감과 힘이 깃든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 설교하고 평화를 가르칠 때는 너희 자신도 평화로워야 한다. 사랑에 대해 말할 때는 말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을 느껴라. 동료들이 너희에게 그 열매를 건네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마라. 너희가 접하는 모든 것을 살피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타당하고 옳은 것만을 따르라. 여러분은 또한 종교적 실천에 있어 광신적으로 변해, 의식을 지나치게 물질화함으로써 이해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지식을 넓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이 나의 가르침에 깊이 몰입할 때 그들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나의 보편적 영에 대해, 영혼의

불멸과 그 끊임없는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들에게 진정한 기도, 즉 영의 대화를 가르치고, 편견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사명이다. 사랑과 인내의 사명이다.

8. 너희 모두는 나의 자녀인 너희 영혼을 잘 지키라. 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지난 시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리로 오라. 그러면 이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고, 모든 시대의 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너희 안에 하나로 모아,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대한 또 다른 증거를 갖게 하려 함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힘을 활용하여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여 너희의 배를 조종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

10.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의 하느님 숭배가 꽃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처럼 순수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11.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믿음의 불꽃을 피울 준비가 되면, 신성모독은 그치고 전쟁은 끝날 것이며, 눈물의 골짜기는 점차 평화의 땅으로 변하고, 천국은 모든 이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12. 비록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너희에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나는 이 세상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 그 미래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며, 너희 작은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13. 너희는 현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거나 내 말씀이 예언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14. 이미 내 사자들이 세상에 오고 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서 어두운 눈가리개를 벗겨낼 것이며, 참된 사랑의 행실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바로 그 사자들이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알아보았는가? 오늘날의 그 아이들 속에서 내일의 예언자와 사도들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평화의 메시지와 각성의 외침을 지닌 나의 영적 빛의 군대들 또한 너희 세상에 다가왔다고 할 때,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희는 이를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15. 이 계시들이 맡겨진 이 백성이 나서서 이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사람들은 깨어나, 이 시대에 특유한 영적인 징후와 현현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이 씨앗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이니,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이 빛을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내 메시지를 지구의 여러 곳으로 전하기 위해, 너희 양심이 너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너희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17.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만이 이 사명을 수행할 유일한 대리인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 너희에게는 그 일부를 수행할 몫이 주어질 것이며, 너희 뒤에 오는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수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의 새로운 백성을 위한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18.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일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며, 그 영성과 순수함으로 드러나고, 온전한 진리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다.

19. 너희는 아직 내 가르침의 온전한 본질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영성이 결여된 조잡한 예배 의식을 통해 그 가르침을 왜곡해 온 이유이다. 그러나 너희의 이성과 영혼이 동시에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 둘 다 더 이상 내 사역에 어떤 불순한 것도 섞어 넣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0. 너희는 지상에 오기 전에 임무로 부여받은 것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 영혼이 가져온 메시지이다.

21. 이성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영혼들은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예정된 모든 이들이 이 세상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22. 영혼 속에 스승의 사명과 약속을 간직할 수 있었던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 안에는 내 영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을 다 마치면, 자신들 뒤에 새로운 “일꾼들”이 와서 시작된 일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후계자들을 통해 길이 깨끗이 정리되고 평탄해졌으며, 밭에 씨 뿌리기가 이미 시작된 것을 발견함으로써 오는 만족감과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23. 여러분은 선구자였기에, 이 시대에 동료들 중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길을 닦아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세대들은 — 길이 잘 닦여 있고 씨앗이 널리 뿌려진 상태를 마주하게 될 것이므로 —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더 큰 빛과 더 큰 명확성으로 알리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24.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기 시작한 가장 초창기부터, 그들은 그분이 사람이 되실 것이므로 모든 민족이 그분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제3의 시대에 내 영이 오셔서 모든 영혼과 교감하실 것이므로 모든 민족이 다시금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25. 기도와 회개, 선행을 통해 정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진정으로 자신의 오점을 씻어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길을 찾고 과거 시대의 무지와 어둠을 뒤로 남기기 때문이다.

내가 제2의 시대에 와서, 백성이 여호와와 제단 앞에서 바치던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 흘림과 제사를 끝내고, 그들에게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는 너희가 내 가르침의 진정한 성취를 대체하고 있는 온갖 쓸모없는 숭배 형식과 의례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려고 온다.

26.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놀라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영혼이 너희가 알지 못했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던 겉치레의 예배를 제거하기에는, 너희 지성에 비친 한 줄기 빛만으로도 충분했다.

27. 또한 너희가 진리를 더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상징주의는 너희의 예배에서 점차 사라지고, 너희는 순수하고 소박하며 영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예배를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28. 나는 아직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도, 모든 것을 계시하지도 않았으므로, 너희가 이론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처음에 받은 것만으로 안주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나의 보물창고에는 아직 많은 것이 간직되어 있으며, 너희 영혼은 이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길 위에서 아직 많은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식과, 내 말씀이 너희에게 계시해 준 영적이며 신성한 것을 인식하는 또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겠다. 나는 너희가 과학자나 신학자들의 방식대로 나를 탐구하려 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도를 통해 생각을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감추어진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 겸손과 경외심, 그리고 사랑으로 무장한 채 — 아버지께서 기꺼이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했던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혜의 문에 이르는 자는 빛을 갈망하는 어린아이로, 혹은 깨달음을 목말라 하는 제자로 여겨질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내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를 어루만지며, 너희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 주리라. 나는 그의 의심을 없애 주고, 그의 눈앞에서 수많은 비밀의 베일을 걷어내며, 그를 빛으로 채워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기도를 마치고 삶의 투쟁으로 돌아갔을 때, 스승과의 가르침의 시간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인간적 본성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리라.

29. 내 본질을 깨닫고 신성한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면서도, 필요한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내 면전에 나아가지 않은 자들은 항상 길을 잃었고, 결코 위대한 가르침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문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열려 있고, 교만한 자에게는 언제나 닫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삶에 비추어 볼 때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제자가 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30. 나는 너희에게 정신과 마음의 겸손을 요구한다. 그래야 빛을 갈망하며 영적 길로 나아오는 너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준비된 자들은 울 필요도 없을 것이며, 이 계시 시대가 지나가고 외국인들이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묻기 위해 찾아올 때, 그 시절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한 충실한 증언을 전하고, 그들이 신비에 싸여 있는 것으로 보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너희의 명철한 이성과 분명한 말에 놀라워하며, 그들은 너희를 “빛의 자녀들”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비록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였을지라도 신성한 스승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31. 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알게 하고, 그들의 영의 목소리를 통해 깨어나 이 생이 끝난 후 영혼에게 위대한 신성한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한다.

32. 나는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영적인 것과 교감하기 위해 기도하는 법을 아는 자도 똑같은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 이는 과학을 통해 자연의 신비에 깊이 파고드는 자가 증언하는 바와 같다. 이 두 가지 길을 통해 이성과 영은 더 많이 탐구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학문과 연구를 위해 사랑에서 영감을 받는 시기는 언제 올 것인가? 오직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의 업적은 세상에 오래 남을 것이다. 과학의 동기가 권력 추구, 오만, 물질주의 또는 증오인 한, 인간은 자신의 경솔함을 벌하는 거침없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끊임없이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33. 오늘날의 과학자는 자신의 저술에서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국가와 민족을 파괴하고, 수천 명의 동포의 생명을 앗아가며,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인간의 삶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초래하는 악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파장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경솔하다고 부른다.

34. 오직 나의 자비만이 이 인류를 도울 수 있었기에, 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 왔노라. 그리하여 그가 양심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목소리는 그가 에서 저지른 모든 악을 지혜롭게 깨닫게 해 줄 것이며, 동시에 실수와 악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35.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와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행위가 모든 이의 선을 위해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그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36.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악과 교만, 헛된 야망 속에서 부풀어 올랐으며, 비참하고 영적으로 별거벗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관을 씌웠는가. 너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과 나의 진리 사이의 대조는 얼마나 큰가!

37. 오, 백성아,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울고 있구나. 온 인류가 내 계시를 마주하고 언제 울게 될까? 나는 너희 모두를 용서하노라. 이는 은혜의 순간이니, 내 무한한 빛을 모든 세계와 내 모든 자녀들에게 쏟아 부으리라.

38. 이것이 바로 빛의 시대이니, 성령의 빛이신 신성한 지혜가 마음과 영혼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비추실 것이다.

39. 이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가 어디서 오는지, 이 생의 의미와 사명, 목적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이 '죽음'이라 부르던 것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인류는 곧 이론과 겉치레에 불과한 숭배 형식을 버리고, 대신 진리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인류는 자신의 존재를 선에 바치고, 행실을 통해 나를 숭배할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육신의 눈을 영원히 감는 사실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더 높은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순간임을 알기 때문이다.

40. 여러분 모두가 육신을 떠날 때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평화와 완전함의 고향에 다가가기 위해 필수적인 과도기적 단계임을 알게 된다면, 그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생겨날 것이다.

41.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항상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본성을 지닌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본질이자 이유인 도덕적 개선과 영혼의 완성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2. 인간의 발전과 진보, 과학과 문명은 결코 인간에게 있어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인 영적 영혼의 승화를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 인간의 열망과 야망, 소망과 근심은 언제나 이 세상에만 그 목표를 두어 왔다. 인간은 *이곳에서* 지식을 추구했고, *이곳에서* 보물을 쌓아 올렸으며, *이곳에서* 쾌락과 명예, 보상, 권력, 그리고 영예를 얻으려 했고, *이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찾고자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연은 끊임없는 발전의 법칙에 따라 정교함과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멈추지 않는 반면, 인간은 뒤쳐져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지상에서 겪는 운명의 역경이며,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장애물, 그리고 타격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주님께서 태초부터 명하신 대로 영혼의 상향 발전을 통해 만물의 주인이 되도록 유의하기보다는, 탐욕, 오만, 증오와 같은 저급한 정욕을 통해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자 군주로서의 자리에서 추락하여, 자신을 둘러싼 모든 자연의 힘에 대한 하인, 노예, 심지어 희생양이 됨으로써 스스로의 허영심을 벌하게 되었다.

43. 먼저 너희 본질의 핵심에서 정수를 찾아 스스로를 알아가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영혼,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임을 내가 장담한다.

44. 나의 말씀은 영적 지식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니, 너희가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보물창고에 간직해 두신 것들을 조금이나마 쌓아둘 수 있도록 하라.

45. 인간은 수많은 은사와 신성한 영광을 지닌 영적 영혼을 품고 있으며, 그 은총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46. 인류는 물질주의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비하해 왔으며, 높고 순수하며 참된 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가!

47. 영적 영혼은 미덕을 향하고, 육체는 죄를 향하며, 둘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격돌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말씀으로 둘이 하나의 이상으로 통합되는 방법을 가르쳤으니, 영혼에게는 마땅히 그 몫을, 세상에게는 그 몫을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이다.

“육체” 안에는 본능과 정열,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이는 그곳이 그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인간의 마음의 현을 민감하게 만들고, 마음을 고귀하게 하며 고양시켜 주면서도, 지상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을 준수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 가르침을 통해 영혼은 영원한 세계, 즉 그 기원이 있는 그 왕국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영혼이 “육신”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후 인간 육신의 껍질에서 이미 해방된 상태에서 단계별로 더 쉽게 상승하여 아버지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며 노예로 만들었던 세상을 점점 더 멀리 뒤로 남겨둘 수 있을 것입니다.

48. 인간을 창조주와 닮게 하는 영의 불꽃은, 그것이 솟아난 무한한 불꽃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며, 그 불꽃은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 자각적이며, 사랑으로 빛나고, 지식과 힘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존재는 가장 사소한 고통이나 가장 작은 고난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하고 참된 행복이 지배하는 완전함의 상태를 누릴 것이다.

49. 만일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표가 아니었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토록 많은 가르침을 통해 내 교리를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초기 시대’의 법만으로도 너희가 지상에서 평화롭게 살기에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살며 이 생을 넘어서서 무한히 더 나은 세상을 약속했음을 생각하고, 게다가 다른 때에 다시 와서 너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인간의 영적 소명이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높고, 훨씬 더 높으며, 또한 약속된 행복은 여러분이
짐작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가르침 278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라. 육신은 연약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영혼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깨어 있는 삶을 사는 법을 아는 영혼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해 놓으신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더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유산과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존재는 깨어 있는 삶을 살며 결코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전진할 수 있다. 깨어 기도하는 자는 삶의 위기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3.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을 잊은 사람의 태도는 얼마나 다른가! 그는 내가 인간에게 심어 놓은 최고의 무기, 즉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지식의 빛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는 직관과 양심, 그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이성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4. 인간이 자신 위에 존재하며 진동하는 더 높은 삶에 대해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영혼에게 묻는 법을 안다면 —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심연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의심과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바로 물질적 자연을 탐구했지만, 그들 내면의 영혼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 영적 삶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다.

5.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를 찾고, 투쟁을 돕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깨어나야 한다.

6. 오늘날 인간은 마치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바람의 놀릿감이 된 작고 마른 잎사귀와 같다. 수천 가지의 번덕스러운 운명에 휘둘리며,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약하고, 죽음 앞에서는 연약하고 비참하다. 그러나 그는 본래 내가 세상에 보내어 세상에서 완전해지도록 한 군주로서 지상의 주인이 되어야 할 존재이다.

7. 깨달음의 때가 왔으니, 너희는 진리를 찾아 서둘러야 하며, 너희의 야망과 절망, 무지가 너희를 이끌어 온 그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

8. 계시를 통해 세상을 뒤흔들기 위해 나타나는 나의 빛을 피하지 마라. 머지않아 너희는 영적 창공에서 이 난파된 세상을

구원할 별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인류는 너희 삶의 본질인 법칙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물질주의적이고 불모하며 이기적인 삶의 그늘 속으로 길을 잃은 것이다.

9. 축복받은 백성들아, 내가 인류에 대해 이렇게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너희가 수행해야 할 그토록 어려운 사명을 즉시 떠올리지 않는가?

10.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세상에 나의 사자와 사절들이 나타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절들 중에는 너희 중 일부, 즉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말씀을 들은 이들 중 일부가 포함될 것이다.

11. 오직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이 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으니, 그들은 이 사역의 진리에 대해 증언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이 사자들이 그들을 기다리는 나라들로 떠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종교적 광신이 지워져 있어야 하며, 아침이나 찬사를 바라는 사소한 욕망조차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들이 행하는 사랑의 사역을 위해 세상의 돈으로 손을 더럽히는 일조차 감히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기적을 팔아서는 안 되며,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가를 매겨서도 안 된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겸손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섬기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 실제로는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명 속에서 자유로웠으며, 그의 삶에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평화가 함께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3. 반면,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왕이자 주인이라 여긴 자는 — 비록 모든 민족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 노예이며 비참한 자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안식도, 평화도, 안전도,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14. 영적 투쟁에서 진정한 용기를 얻고 싶다면, 이웃에게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고, 병든 이를 치유하며, 길을 잃은 이를 구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깊은 만족감과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이고 작은 마음이 한 번이라도 이런 종류의 기쁨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고군분투하고 고양되었기 때문입니다.

15.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은밀한 질문을 발견한다. “이 말씀의 온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이유는 너희 영혼이, 나의 계시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썩게 할 고통의 시기를 미리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를 때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 길을 걷는 자에게는 내 빛이 비추며, 그에게는 내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것을 잊은 자들,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가진 영적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염려하라.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17.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 이웃들에게 창조주와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자신의 기도가 거의 항상 육체의 비명이며, 두려움의 표현이자, 믿음의 부족, 반항, 혹은 나에 대한 불신의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18. 너희 이웃들에게, 내 영을 감동시키거나 내 연민이나 자비를 일깨우기 위해 몸을 고문하거나 찢어발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육체적 고통과 참회를 자처하는 이들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기쁜 제물인지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19.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너희 눈물의 눈물과 마음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곧 나에게 냉혹함, 무감각함, 무관심, 이기심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러한 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

20. 너희는 나를 알기 위해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의 이성을 성령과 조화를 이루며 생각하도록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내가 너희에게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은, 기도에 내재된 모든 힘과 작용 방식을 너희가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 영이 세상에서 정해진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때가 왔으며, 기도는 그 싸움을 위한 가장 훌륭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22. 기도하는 법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군인이다. 왜냐하면 그의 영성화는 그를 무적의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의 무기는 한 세상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작용한다. 그의 빛은 어둠을 밝히고, 그의 힘은 악한 의도를 좌절시키며, 그의 사랑은 평화를 심는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물질적인 수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치 이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명을 완수한다.

23. 나는 인류에게 영적 각성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주었으며, 그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인류는 세상의 길에서 몇 걸음만 더 내디디면, 기꺼이 사랑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멈출 것이다.

24. 너희는 여전히 한 강자가 다른 강자를 덮쳐 그를 파멸시키고 지상의 지배자로 남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던 그 권력이, 자유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25. 싸움이 끝날 때 한 사람이 여전히 서 있어 승리의 함성을 지르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왕국이 폐허와 시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의 제국이 비참함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상 전쟁의 종말이 될 것이다.

26. 그때 인간은 더 이상 나 안에서 자신의 과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권력에 대한 야망과 위대함에 대한 갈망을 방해하는 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끝까지, 한계선까지 나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도 잘 알다시피, 모든 인간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상상대로 세상을 만들었으나,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그것을 파괴해 버렸다. 그가 나를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마주한 그의 마음이 공포에 휩싸일 때, 그는 자비와 용서를 간구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영혼은 자신이 감혀 있던 감옥을 깨뜨리고, 잊고 지냈던 그분을 갈망하며 뛰쳐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한때 그분을 기억했더라도, 그것은 오직 그분의 권능을 의심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27. 인간은 나의 보복이 아니라 나의 공의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내 안에 그러한 감정이 존재하여 내가 그것을 인류에게 쏟아부었다면, 나는 그들을 정화하기는커녕 더럽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공의는 너희 영혼에게 순수함을 되돌려주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28. 보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파멸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그들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고 있음을. 비록 그들이 이를 위해 해야 할 수 없는 고통의 시련을 겪어야 할지라도, 그 고통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율법에 충실하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29. 내 사랑은 모든 이를 구원할 것이며, 모든 이에게 내게로 돌아올 기회를 주리니, 그때 너희는 전능자이자 최종적인 승리자가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패배한 자나

죽은 자, 또는 굴욕당한 자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승리는 진실할 것이니, 이는 내가 승리자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30. 너희는 마치 공원과 같으니, 내가 가꾼 그 잔디밭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했다. 나는 방문객이 그 광경을 즐기게 하고, 산책하는 이가 험한 날씨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덤불이 자라고 꽃봉오리가 피며 꽃받침이 활짝 피어나게 허락했다.

31. 때로는 너희의 평화가 투쟁이나 불안, 혹은 두려움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는 폭풍이 들판과 정원을 휘몰아치고, 나무를 뒤흔들며, 꽃잎을 흩어뜨릴 때 일어난다. 그러면 너희는 그 시련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회오리바람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와 시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정원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32. 이 정원이 꽃을 피우고 내 뜻대로 열매를 맺게 되면, 나는 그 문을 열어 다른 지방의 주민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를 선물로 주어, 그들이 그것을 자기 지방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리라.

33. 나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렸음에도 굳건히 버텨낸 나무들과, 잠시 동안 가지에 잎이 떨어졌음에도 곧 다시 푸르름으로 덮인 나무들을 축복한다.

34. 시련이 지나가자, 너희는 썩은 열매와 마른 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35. 나는 너희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이 신성한 교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주었다.

36. 내가 너희에게, 너희 나무가 때때로 맺는 그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너희는 즉시,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새롭게 변하지 않았으며, 나에게 좋은 것을 바치지 않는 너희 형제자매들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나쁜 열매는 너희 형제자매들이 아니며, 회오리바람이 정원에서 날려 버리는 것도 그들이 아니다. 그 나쁜 열매는 그들이 내 사역에서 저지르는 나쁜 습관, 나쁜 감정, 그리고 실수들이다. 그리고 시든 잎사귀들은 여전히 내 제자들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모든 불필요한 예배 행위들, 즉 외형적인 숭배 형식, 의식, 상징적 행위, 그리고 매우 먼 과거에 속했던 행동 양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들은 이미 수분이 없는 시든 잎사귀처럼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37. 만일 내 가르침이 너희 중 한 사람을 나쁜 열매로, 내 의와 사랑의 나무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로 여긴다면, 그것은 참된 가르침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궁핍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며, 그를 회개하게 할 권능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8. 너희는 내가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며, 내 자녀 중 단 한 명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마음에서 모든 불순함을 몰아내고, 내 율법의 참된 성취를 방해했던 모든 악을 그들의 가슴에서 내쫓도록 가르친다.

39. 만일 내가 불완전한 자들을 물리치고 오직 선하고 의로운 자들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그 누구도 내게 선택받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모두 불완전하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의로운 자를 단 한 명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40. 내 가르침의 위대함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

41. 너희 아버지께 감사하라. 인류가 무한히 공정한 것을 마치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기에, 바로 그분께서 친히 너희에게 그 가르침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42. 너희는 나의 정원을 나타낸다. 너희를 가꿔 온 것은 바로 나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꽃을 피우지도 않았고, 열매를 맺지도 않았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정원의 꽃은 너희가 영과 영이 서로 교감할 때 비로소 피어날 것이며, 너희 나무의 열매는 너희의 행실이 진실과 사랑, 지식을 담고, 생명력과 영양, 그리고 좋은 맛을 지닐 때 비로소 익을 것이다.

43.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들었던 이 제3의 시대는 단지 준비나 성숙을 위한 한 단계에 불과했다 — 나의 “말씀”, 나의 영을 선포한 것이었으나, 여전히 인간화되고 물질화된 형태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 전달 방식이 너희 영적 추구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노라.

44. 이 계시는 너희를 완전한 대화에 더 가까이 이끄는 상승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준 단계였다.

45.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너희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시기가 끝날 때 너희가 한 주저함 없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때 너희는 나의 신성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대변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니, 그 말씀은 모든 영혼에게 직접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46. 그 빛을 통해 너희는 나의 명령을 받고, 나의 임재를 느끼며,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47. 그때가 되면 초심자는 제자가 되어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주님을 부르며 “아버지, 제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때 그는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 다가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스승이시며 아버지이신 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경청하고 당신으로부터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8. 백성들아, 내가 이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한 것이 내가 인간에게 계시해야 할 모든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49. 비록 내가 이 입들을 통해 많은 것을 선포했으나, 그것이 — 비록 방대하더라도 — 나의 비밀 보물창고도 아니며, 나의 지혜의 전부를 담은 책도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하노니, 그것은 영성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준비이자 서막이었다.

50. 너희는 이미 너희의 은사를 펼치기 시작했으나, 이 말씀이 끝날 때 비로소 가장 광범위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51. 우선은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을 때, 내 백성 가운데 슬픔이 아니라 축제가 펼쳐지리니,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이 형태로 나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2. 너희 영혼 속에는 백성이 천둥소리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번쩍이는 번개 속에서 그분의 빛을 보았으며, 돌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고, 만나에 영생의 양식이 상징되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53. 너희의 영은 이 세상에서 내가 — 사람이 되어 — 너희와 함께 살았던 내 존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보이며, 들리며, 이해받을 수 있도록, 내 기적의 힘을 통해 너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너희에게 내 사랑의 증거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믿음을 얻게 하려고, 나는 너희가 내게 구한 모든 것—용서, 인내, 기적, 축복, 피와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다.

54. 또한 너희는 내가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각자의 이해력에 맞추어 전달했던, 나의 전달자나 대변자를 통해 이 계시를 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55. 그때 너희는 슬픔과 기쁨으로 울게 될 것이다. 슬픔은 너희가 영적 길에서 얼마나 더디게 걸어왔는지를 깨닫기

때문이며, 또 너희의 완고함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너희의 비참함과 궁핍함 속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눈물은 기쁨에서 비롯될 것이니, 비록 더딘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도달했음을 깨달을 때일 것이다. 그 시대에는 더 이상 아버지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파멸로부터 구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거나 간청하지 않을 것이니, 이미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고 영혼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6. 이 선포의 마지막 순간에 왜 고통이 있어야 하겠느냐? 이 날은 더 큰 빛과 더 큰 완전함을 지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나는 이 날이 내 백성에게 영적인 축제가 되기를 원한다.

5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계시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대변자들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치고 드러낸 모든 것을 언제쯤 깊이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너희는 언제쯤 이 가르침의 핵심을 이미 이해했다고 내게 말할 수 있겠느냐?

58.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진정으로 내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전념한다면, 너희는 그 여정의 끝까지 나에 의해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길을 비추는 빛임을 기억하라.

59. 백성아, 나는 너희가 태초부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 받은 축복받은 유산을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는 그 때부터 제3의 시대에 내 진리를 증언하도록 표식을 받은 자들이다. 내 빛은 너희의 긴 여정 내내 모든 길에서 너희를 따라왔다.

60. 너희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의심 때문에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준비되어 왔다. 그러므로 때때로 너희는 되돌아보며, 너희를 얹매던 수많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너희는 내 사역의 명료함과 내 말씀의 선하심을 깨달았기에, 너희가 내딛은 그 한 걸음을 후회할 수 없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따르는 길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내 계시에는 비밀이 없으며, 내 말씀에는 모호한 점이 없다.

61. 내 가르침의 명료함과 상세함은 너희의 영혼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을 차츰 드러내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은사를 꽃피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잠들어 있었기에, 비로소 지금에서야

너희가 나의 빛을 보았음을 깨닫고 있다.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놀란 것이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비밀이 아니었으나, 너희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러 왔으니, 너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려 함이다.

62. 다시금 그 길 위에 서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하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가 그 길을 따라 내게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영적 가르침의 제자들이나, 그 목표를 아직 멀리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이 너희 곁에 있으며,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용기를 주고, 나의 자비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여 너희에게 실패가 없도록 한다. 너희가 영성의 정점에 도달해야 비로소 너희의 결실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63. 현재 내 말씀이 지구를 비추고 있으며, 이는 예고된 때에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비록 인류의 수에 비추어 볼 때 이 메시지의 증인이 되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내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나를 듣는 데 만족해 왔다. 그러나 나의 선포가 일단 끝나면, 너희 가운데서 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지키는 제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단호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이 사역 속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64. 오늘날 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내 가르침에 본래 속하지 않는 의식과 전통을 덧붙임으로써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너희가 연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너희의 신 숭배와 예배 행위에 정화와 진실함이 찾아올 것이며, 그 결과 백성의 영적 일치이 이루어질 것이다.

65. 이제 너희는 너희가 지닌 책임을 이해하고, 이 사역의 위대함을 파악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가르침의 시기가 지나고, 들은 바를 깊이 숙고한 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66. 너희는 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발견하게 될 것이며, 어떤 점에서도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인류에게 찬란한 빛과 평화, 그리고 참된 위로를 담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에 대해 일정 기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오, 백성아, 이것이 바로 이 계시의 증인으로서 네가 맡게 된 사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오래전에 아버지께 맺은 이 의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깨어 있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내 말씀을 온전한 순수함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렇게 전한다면 그 말씀은 승리할 것이니, 그때야말로 모든 비난과 적대감, 그리고 조사에 건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전파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비방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자신의 행실로 이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광신이나 비밀주의 없이 내 말씀을 너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79

1. 너희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으며, 고통을 겪을 때마다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그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법을 이행하기에는 아직 멀었기에 비틀거리고 있다고 말해 준다.

영혼은 오래전에 창조주의 품에서 태어났다는 직관적인 지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와의 교감을 나눌 수 있음을 알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영혼은 기도 속에서 자신을 어루만지고, 힘을 주며, 치유해 주는 위로를 얻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나는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한다. 그들의 기도가 영적일수록, 내가 그들에게 느끼게 하는 평화는 더욱 커진다. 이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 신성한 존재의 현존을 느끼기 위해 형상이나 물체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현존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내가 한때 말했으니, 이제 다시 말하노라. 세상의 것들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며, 나의 영적 임재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느끼고 기뻐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지상의 사람들은 언제쯤 직접적인 기도, 혹은 — 이는 같은 의미이지만 — 영과 영 사이의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서 나를 느끼는 그 기쁨을 자신의 영에게서 박탈하는 것을 그만두게 될까? 바로 내 빛이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자신의 오류를 깨달을 때이다.

5.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명상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그러나 광신과 우상 숭배가 배어 있지 않은 기도로, 그리고 나의 신성한 말씀에 대한 차분하고 깊은 성찰로 말입니다.

6.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는 기도하고 명상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나는 내 가르침 속에서, 이를 위해 특별히 정해진 장소나 순간이 있다고 너희에게 말한 적이 결코 없다. 너희가 사는 세상보다 너희의 영이 더 큰데, 도대체 왜 세상 어딘가의 특정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해야 하겠느냐? 내가 무한한 존재인데, 왜 나를 형상이나 것처럼 제한된 장소에 가두려 하느냐?

7. 사람들의 영적 빈곤과 세속적인 역경의 가장 중대한 원인은 그들의 불완전한 기도 방식에 있으니, 그러므로 나는 이 깨달음이 온 인류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다.

8. 너희는 영적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9. 누구도 나의 새로운 메시지와 내 말씀의 의미에 놀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대의 선지자들은 두 번째 시대의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지극히 명확하게 예고했기 때문이다.

10. 많은 이들이 이제야말로 그 예언들이 성취될 때임을 깨닫고 세상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사람이 성경의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인데,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 했던 해석과 비슷합니다.

11. 내가 땅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말했노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또 다른 기회에는 이렇게 말했노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야 하노니, 너희가 갈 곳을 준비해 두러 함이니라.”

12. 그러니 제자들아, 내가 더 높은 삶에 대해 말하고, 영적인 삶을 드러내며, 그 길을 따라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보여준 가르침을 전했을 때 — 너희가 이해해야 할 그 길은 단지 나의 말씀만이 아니라, 태초의 법과 영적 삶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한 나의 사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진 모든 예언이기도 한데 — 왜 너희는 그 계시들의 신성한 의미를 물질적으로만 받아들였느냐? 나는 과거 시대에 비유와 상징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영혼도 이성 기관도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언어와 형상, 비유들을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 놓고,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까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13.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나라는 영적인 곳에 있으니, 본질상 나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본질의 자녀들이므로, 너희도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곳에 이르도록,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붙여놓고 지혜를 계시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인간적인 상태에서 초월하게 하여 단계적으로 영적인 왕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함이다.

14. 기도하고 명상하라, 백성아. 그러면 너희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혼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산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새 시대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15. 이제 어둠과 심연에서 영혼들이 솟아올라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을 넓히고 있으니, 그 자녀들 안에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엘리야, 그리고 그들의 행실로 백성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알았던 모든 이들의 씨앗이 담겨 있다.

16. 한 목소리가 너희를 깨웠으니, 그것은 자비롭고 위로가 되는 목소리로, 너희를 빛과 생명의 왕국으로 부르나,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 영혼을 비하하고 율법을 무시하기를 고집한다면, 그 목소리는 정의의 목소리로 변할 수도 있다.

17. 순종하고 겸손한 자에게 내 말씀은 이러하니라: 굳건히 버티라. 그리하면 내 은총을 풍성히 얻게 될 것이며, 네 형제자매들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룰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 목소리가 말하노니, 네가 이 축복받은 기회를 활용하여 네가 살고 있는 죄의 더러움이나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전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 그분이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었던지도 알지 못한 채, 네 영혼 위로 시대와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8. 비록 모든 이에게 구원을 얻고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적절한 때가 주어지겠지만, 이 날을 미루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몰두하느라 영혼의 성장을 이룰 기회를 놓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야 할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괴로움도 알지 못한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소한 보복이나 가장 가벼운 형벌이 아니라, 그분의 엄격하고 무자비한 정의가 담겨 있다.

19.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너희가 이미 과거의 기회들을 놓치거나 활용하지 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또한 너희 영혼이 오래전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나 이성엔 너희 영혼의 과거, 그 운명, 빛, 과제, 그리고 속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의 완성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세상의 재물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을 유혹해서도 안 된다. 영혼은 다른 길, 다른 목표, 다른 이상을 따라야 한다.

20. 지금은 인류에게 눈부시게 밝아오는 시대의 첫날들이다. 이 시대는 폭풍과 번개, 격변과 고통 속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어두운 구름은 걷히게 될 것이며, 진리의 빛은 그 위엄을 온전히 드러내며 빛날 것이다.

21. 오늘날 너희는 아직 빛을 앞둔 어두운 날들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빛은 구름 낀 하늘의 드문 틈을 타, 짧은 광선을 뿜어내어 지구의 몇몇 지점에 닿아,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뒤흔들며 깨우치고 있다.

22. 이 빛에 깜짝 놀란 모든 이들은 자신의 길을 잠시 멈추고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영원의 빛이며, 진리이자 사랑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다.”

23.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의 사울처럼, 그들은 모든 자만심을 꺾고 오만을 극복하며, 겸손히 고개를 숙여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야 제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박해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4. 그 순간부터 그 마음들은 작은 제자들로 변모했다. 왜냐하면 이 제3의 시대에 들어 오늘날까지 내 새로운 제자들 가운데서, 내

제자들 안에서 나를 그토록 심하게 박해하다가 그 후로 그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 자와 같은 위상을 지닌 사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 너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랑의 행위로 영적 사명을 이루어내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여 목숨을 바친 분, 곧 그들의 스승 곁에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작은 본보기가요.

26. 나는 여러분에게 과거의 시절에 대해 때로는 큰 틀에서, 때로는 세부 사항까지 들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위대한 교훈의 사례들로부터 불멸하고 변함없는 영적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7. 여기, 모든 간구와 모든 근심,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28.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이자 스승, 친구, 간병인, 의사, 그리고 조언자이다. 너희의 모든 곤란을 내게 맡기고, 눈물을 닦으며, 희망과 소망을 내게 맡기고, 나를 너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아라.

29. 기도하라, 내 자녀들아. 기도를 통해 지혜와 건강, 그리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니라.

30. 나는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즉,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존재, 이 땅에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영혼을 고양시키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31. 기도하는 사람은 심연이나 벼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영혼은 언제나 평온하다.

32. 너희 모두가 언젠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너희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성소를 세우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는 형제애와 고양감, 조화를 증언하는 영적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33. 너희는 아직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는 너희가 가는 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시련을 마주했을 때, 나의 말씀 속에서 그 시련을 극복할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의 이 초보자들은 내일이면 제자가 되고 심지어 스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배워야 할 것이 많다.

34. 나는 너희의 마음을 다듬고, 너희의 지성을 단련하며, 너희의 감정을 다스려, 제3의 시대에 내가 오심을 증언하기 위해 너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리라.

35. 나의 새로운 말씀은 아직 땅 위에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나는 민족들에게 나의 오심을 알리는 선행하는 표징들을 주겠습니다. 영적 세계는 현재 사람들을 영적 삶의 현실로 깨우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6. 여기 너희 가운데서 나는 나를 상세히 드러내 보였다. 너희는 그것이 단지 암시나 징조였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은, 비록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의 메시지일 뿐이지만, 분명하고 명료했기 때문이다.

37. 확실히, 이 대변자들을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은 상세하고 심오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시된 진리들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시들도 주었습니다.

38. 나는 너희에게 영적 소명, 존재들의 발전, 환생, 그리고 영혼의 속죄에 대해 말해 주었다. 나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겪어 온 다양한 시험과 가르침의 단계들에 대해,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으로 상징되는 바를 통해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나는 지금이 제3의 시대임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이 시대에는 내가 너희가 나의 영적 현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영으로 너희에게 다가가는 시기이며, 너희는 온 율법을 두 가지 규율, 즉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라’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39.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표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위대한 드러남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0. 단지 표적만을 받은 이들은 다른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은 자들이며, 우주를 탐구하고 모든 중대한 사건의 의미를 주시하며, “스승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41. 세상은 나의 새로운 현현에 얼마나 무관심한가! 깨어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는 이들은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잠들어 있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42. 나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이 시대에 내 현현의 실제 형태를 모두 예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오래된 신앙관의 영향으로 내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내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며, 오직 극소수만이 진실을 짐작하고 내 오심이 영적인 것임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43. 어떤 이들은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할지, 어느 시각이나 어느 날에 지상에 나타날지, 또 어느 장소에 나타날지 궁금해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특정한 모습이나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의 영이신 그분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44. 이 메시지가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니, 그들은 이 메시지에서 자신들의 모든 예감과 믿음이 확인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내 메시지의 진실을 부정할 것이니, 그들이 믿었던 일과 그것이 드러날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45. 사랑하는 백성아, 그들 모두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 영혼들에게 기다림이 고통스럽다는 것과, 그들이 ‘이 시기가 어찌면 나의 재림의 때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고통받는 동안, 너희는 날마다 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인류에 대한 너희의 책임은 얼마나 클 것인가!

46. 깨어나라, 백성아, 그리고 지상의 다른 민족들을 깨우라. 그것이 당분간 네가 해야 할 전부이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구름” 속에서 모든 이에게 나타나리니, 모든 이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47.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영으로 오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인간으로서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영적 존재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라.

48.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선교 임무를 위해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준 그 계시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49. 내가 떠난 후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슬펐다. 눈물이 끊임없이 그들의 얼굴을 흘러내렸고, 매 순간 가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은 나를 배신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부인했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나를 버렸다는 것을.

50. *그들* / 어떻게 그 모든 완전함의 스승의 증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신앙관과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51. 바로 그때, 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의 고통을 달래고, 그들의 믿음을 불태우며, 나의 가르침이 지닌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셨다.

52. 나는 제자들에게 내 영을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에게 인간의 형상을 부여했으나, 나의 현존은 여전히

영적인 것이었으며, 보라, 그 나타나심이 나의 사도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 중요성을 보라.

5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날 나는 그 당시처럼 내 영을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의 영적 성숙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비록 나의 임재가 미묘하고 만질 수 없더라도, 너희의 육신의 눈으로 스승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모든 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

54. 영혼에는 더 높은 감각이 있어, 이를 통해 너희는 영적인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너희가 바로 이러한 예민함을 통해 나의 현존을 감지하기를 원한다.

55. 너희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면, 슬픔과 나약함에 빠지게 될 것이며,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도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길을 가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56. 그 ‘두 번째 시대’에, 제자들이 스승 없이 세상을 떠돌던 그때, 나 외에 누가 그들을 격려했느냐? 그들 각자의 업적이 너희에게 경이롭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그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졌기에, 세상에서 마치 늑대들 사이의 양처럼 지내며,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 속에서 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을 낙담시키지 않았다.

57. 그들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가졌으며, 그 은총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58. 내 사도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전해진 내 가르침은 변함없이 온전한 순수함과 진실함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영혼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신의 내면에서 힘과 지혜, 위엄이라는 낯선 감정을 체험하였다.

59. 갈릴래아 출신의 그 가난하고 겸손한 어부들은 여러분에게 본받을 만한 귀한 모범입니다. 사랑으로 영적 어부로 거듭난 그들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통해 민족들과 제국들을 뒤흔들었으며, 그들의 끈기와 희생으로 민족들의 회심과 영적 평화의 도래를 준비했습니다. 왕들부터 거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참된 기독교의 시대였던 그 시절에 나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60. 사람들 사이에서 펼쳐졌던 그 영성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으나, 모든 것을 아시는 나는 너희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할 것임을 알았기에, 내 재림을 예고하고 약속해 두었다.

61. 나는 사람들이 대대로 내 가르침을 점점 더 신비화하고, 내 율법을 변질시키며, 진리를 왜곡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않으며, 가장 잔혹하고 비겁하며 비인간적인 무기로 서로를 죽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62. 그러나 이제 그 때와 약속된 날이 왔으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을 비난하지 말라. 세상을 심판할 자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인류를 심판하는 자이니, 지금이 바로 인류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이다.

63.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국을 세우고 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다. 그 왕국의 권능은 세상의 세력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에서 비롯된다.

64. 어떤 이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는 것을 보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항상 나를 비단과 금,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으로만 상상하려 하는가? 내가 정반대를 계시해 주었음에도, 어찌하여 너희는 언제나 내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일 것이라고 고집하는가?

65. 나는 너희가 지상에서 영적으로 사는 법,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참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새로운 교훈을 전한다.

66. 나는 이미 너희에게 “영성화”가 위선이나 종교적 광신, 혹은 초자연적인 관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영성화는 영혼과 육체의 조화, 신성한 법과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 삶에서의 소박함과 순수함,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이고 깊은 믿음, 이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신뢰와 기쁨, 도덕과 영혼의 완성을 향한 이상을 의미합니다.

67. 내가 너희에게 내 가르침의 순수함을 보여 주면, 너희는 자신의 잘못이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질 것이다. 자, 제자들아, 너희가 내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며, 너희 행실의 순결함을 통해 내 가르침의 진실성을 드러내려 한다면, 나는 너희의 모든 과오를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68. 고귀하고 나의 법을 준수하는 백성이 나타나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성화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인간 본성의

갱신이 희생이 아니며, 영적 봉사가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69. 너희는 오랜 과거와 긴 발전 과정에서 비롯된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나의 사역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0. 너희는 영성주의를 알게 되기 위해 많은 길을 걸어와야 했다. 여러분도 한때는 우상 숭배에 빠져 상징의 도움 없이는 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의식 없이는 나를 공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은 갈림길에 다다랐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다시금 길을 안내해 주신 스승의 그토록 기다리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71. 너희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동료 인간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72. 나는 이미 그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너희에게 예언한 바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를 완전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을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만약 그랬다면 나는 이 시대에 와서 너희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73. 나는 영감을 통해 너희에게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을 전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예배 형식 속에 이교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가 편협한 신념이라는 악한 씨앗으로 너희를 무지와 증오의 감정으로 오염시켰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74. 나의 오른손에는 빛의 검이 들려 있다. 나는 모든 반항과, 존재하는 모든 악, 그리고 모든 거짓을 파괴하는 전사이자 왕이다. 나의 싸움이 끝나고, 마음들이 기도하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 되는 법을 배웠을 때, 너희 영혼의 시선은 무한한 빛과 영원한 평화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곳이 나의 왕국이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며,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곧 다스리기 위함이다.”

75. 내가 인간의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내 정복을 이루어내는지 깨달아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기 위해, 두려움이나 폭력으로 너희를 굴복시키는 대신,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사람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고 입맞추었으며, 너희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달아라.

76. 나는 너희에게 온전히 내어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결국 나에게 자신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노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80

1. 내 말씀의 의미를 너희 영혼에 새겨, 그것이 너희 마음에서 넘쳐 흘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동료 인간들을 위한 가르침으로 변모되게 하라.

2. 이 백성이 땅 위에 남길 발자취는 평화의 발자취가 될 것이며, 이 백성은 인류에게 내세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 줄 것이다. 이 백성의 사명은 인류가 바벨이 남긴 유산을 완전히 없애기까지, 경계를 허물어 민족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그들의 지성을 내게 바쳤고, 그들 안에서 영과 영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그 길 위에서 그것은 영성을 심고, 빛을 남기며, 길을 잃은 이들의 갱신을 위해 길을 닦고,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릴 것이며, 그 열매는 인간 간의 조화와 형제애가 될 것이다.

4. 내가 이 백성의 사명에 대해 말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서 말하며, 아버지로서 가르치고, 재판관으로서 명령한다.

5. 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아우른다. 그러나 다른 시대에 나의 법과 가르침이 한 민족 안에서 시작되었듯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이 지닌 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해석하며, 완벽하게 실천에 옮길 것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될 것이다.

6. 지혜롭고 강하며 강력한 가르침이 이 세상의 삶을 비추어야만,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하며 일어설 수 있고, 그들의 영혼 속에 더 높은 발전의 이상이 깨어날 수 있다.

7. 너희는 내가 제2의 시대에 사랑의 메시지로 너희에게 전했던 그 가르침의 효력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나는 그것을 다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책 속에 묻어두고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을 통해 그것을 다시 너희에게 돌려준다. 다만 내가 그것을 심어 놓는 곳이 더 이상 너희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될 뿐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니, 영혼을 기르는 양식이 그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8. 물질적 삶에서 알려지지 않고 미미한 이 목소리의 전달자들을 통해 내 지성 기관으로 전해진 나의 계시는, 내가 세상에 선물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즉, 학자나 박사들 가운데서도 내 뜻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지성으로 내 신성의 광선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어 왔습니다.

9.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나의 뜻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항상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때때로 인간의 뜻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10. 인간의 자유 의지의 길, 지상에서 인간의 지배, 오만의 승리,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여 강요하는 억압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 덧없는 것이어서, 비록 어떤 면에서는 신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이나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 영의 뜻은 선을 보존하고 불순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피조물 위에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11. 인간이 지상에서 세운 그 왕국은 머지않아 나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곳에서 오직 선한 것, 즉 허용되는 것, 진리를 담고 있는 것만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오만과 이기심, 거짓을 담고 있는 모든 것, 즉 독과 죽음인 모든 것은 파괴되어 무자비한 소멸의 불길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악을 파괴하는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과학이 발견한 것 중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괴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이 지나가면, 인간이 발견한 진정한 빛들만이 남아 계속 빛나며, 앞으로도 인류의 길을 비추게 될 것이다.

12. 내가 사람들이 일단 나의 길을 걷게 되면, 이 인류의 불순종과 타락의 모든 세기와 시대가 단지 한 순간처럼 보이게 하리라. 나는 제3시대의 절정에 이르러 인류의 영적 시대를 비추는 나의 빛의 신성한 광채 아래에서, 인간의 영적 삶을 어둡게 가렸던 그 실로 짚은 기간이 사라지고 없어지도록 할 것이다.

13. 너희가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그 수가 매우 적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 뒤에는 너희가 빛으로 이끄는 수많은 영혼들이 따르고 있다.

14.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안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덜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가장 큰 고통의 시기가 닥쳐오도록 내버려 둔 채, 눈멀거나 나태한 상태를 고집해 왔다.

15. 나의 가르침은 너희를 깨우쳐,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예고되었던 그 큰 고통들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16. 내가

자연의 힘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별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나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에 빠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발전하고 변화하며, 그 변화나 전환 과정에서 격변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격변이 너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신의 벌로 돌립니다. 비록 그 안에 나의 정의가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희가 — 너희 영혼을 비추는 신성한 불꽃으로 축복받은 존재들로서 — 너희를 둘러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면, 너희의 영은 자연의 변화와 자연의 힘의 위력 위로 너희를 끌어올렸을 것이며, 너희는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다.

17. 오직 너희 삶의 개선을 통해서만 너희는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그 힘이나 능력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나 기도만이 운명의 타격과 삶의 역경에 대한 승리를 안겨주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믿음과 기도는 덕이 있고 순결하며 선한 삶과 함께해야만 한다.

18. 너희가 믿음이나 기도를 통해 여러 번 무사히 넘어갔다면, 너희가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공로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자비 덕분이다.

19. 내가 모든 가르침에서 너희에게 준비하라고 말하며, 동시에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를 깨달아라. 그래야만 너희는 영적 경지에 이르러, 삶 속에서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자연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힘으로부터 무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싼 물질적 자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21. 여러분을 품고 있는 이 고향이, 미래에 더 높은 존재들을 맞이하기 위해 현재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격변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22. 지금은 혼란의 시기로, 이는 사람들의 삶, 즉 그들의 이성과 영혼, 감정, 육체,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둘러싼 모든 것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준비도, 믿음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도, 기도도 없이 시련의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23. 오직 나의 능력과 사랑만이 너희가 혼돈 속에서 파멸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

24. 백성아, 너희의 삶을 고양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빛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단련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향력과 보호가 많은 동료 인간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25.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던 때를 기억하라.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바다는 거품을 일으키며, 파도는 거세게 몰아쳤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믿음이 부족했다. 그러나 스승의 사랑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분은 오른손을 뻗어 물결에게 가라앉으라고 명령하시며, 자연의 요소들에 대한 그분의 권능을 증명해 주셨다.

26. 그 교훈들은 인류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시대의 제자들은, 내가 배에 있던 제자들처럼 결국 연민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는 믿음에만 의지하여 살아서는 안 되며, 너희 본성 속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혼의 힘을 스스로 꽃피워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7. 그 제자들은 나의 교훈을 배웠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교의 길에서 동료 인간들을 괴롭히던 큰 시련들을 마주했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영의 권능을 드러내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8. 너희도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너희 삶에 영성을 불어넣으라. 그래야만 너희 존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힘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29. 사람들이 영성을 얻게 되면,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단지 약한 존재에 불과하여, 인간보다 우월해서는 안 되는 자연의 법칙과 힘, 영향력에 내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인간 위에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30. 이 가르침은 짧지만 그 내용이 심오하다. 제자들아, 이를 깊이 연구하고 가르쳐라.

31. “길을 잃었을 때 나를 바라보라. 오늘 나와 함께 있으라.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로 향하고,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친구에게 믿음으로 말하듯 나와 대화하라.”

32. 나는 때때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신 신성한 스승이다. 너희가 매우 쓰라린 잔을 비울 때, 그것은 내가 너희를 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나아가기 위해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3.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길로 돌아올 때 비틀거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 곁에서 도와주어야 하며, 바로 계시와 영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나의 빛을 너희에게 보내줌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

34. 너희는 이제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길은 이미 닦여 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에 시련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거나 고통의 잔을 비울 때마다, 너희를 격려하고 조언해 주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너희 곁에 있어 너희를 도와 일으켜 세우는 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치유 연고가 주는 부드러운 어루만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35. 내일, 이 목소리가 더 이상 내 대변자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지 않을 때, 너희는 그 의미를 기억 속에 간직할 것이며, 그것이 계속해서 너희를 격려하고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할 것이며, 영과 영 사이에서 나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너희 생각의 연합을 통해 빛과 조화로 가득 찬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모임 장소들이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나, 비록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희가 계속해서 그곳을 모임 장소로 삼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모두 한데 모인 이곳에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힘과 빛, 믿음과 용기, 그리고 온기를 나누어 줄 것이며, 나의 가르침을 배운 후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스승과 대화를 나누기에 또 다른 적합한 장소인 여러분의 고향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들판과 초원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라고 너희를 초대할 때, 너희는 그곳에서도 경건한 기도를 드리기 적합한 장소를 찾게 될 것이며, 너희 안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되어 항상 나의 법에 따라 살아가라.

36. 점차 너희는 형제애와 연합에 익숙해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 내 뜻에 따라 형성해야 할 영적 가족은 점점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3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일단 서로 사이에 이러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인류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내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하는 대로 펼쳐지며, 모든 것은 내가 정하신다.

38. 기쁨과 믿음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너희의 길에서 유혹에 시달릴 때면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 기도를 통해 너희는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39.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비틀거리거나 심연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진정으로 알아가라.

40. 너희는 첫 번째 업적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영혼을 완성하기에 충분한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매일 새로운 교훈을 배우고 더 큰 계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작품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라.

41. 지식을 갈망하는 제자는 언제나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이며, 시련의 순간마다 나의 아버지 같은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42. 성숙한 제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원천이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셨음을 실감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위대한 영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설 시기를 알아차릴 것이다.

43. 모든 “일꾼”에게는 빛과 위로, 평화를 주어야 할 영혼들이 할당되어 있다. 이 무리는 결코 너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일생에 걸쳐 서서히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4. 오늘 나의 가르침은 아버지로서의 조언과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단순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그 깊이를 헤아린다면, 내가 제2시대에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전했던 그 설교의 엄숙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5. 영적인 구름 위에서 나는 내 영의 광선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것이 너희 존재 위로 흘러내려 너희로 하여금 내 말씀을 듣게 할 것이다.

46. 나는 그 당시 너희에게 계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너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

47. 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고귀하고 순수한 삶을 살도록 지도한다. 또한 이 가르침은 영혼이 내세에 있는 고향을 찾게 되었을 때, 완전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48. 지금부터 너희의 미래 삶을 위한 공덕을 쌓아라.

49. 어떤 이들은 인류의 큰 고통을 보며, 그 고통 중 가장 작은 것조차 덜어줄 능력이 없다고 느껴 괴로워합니다. 스승께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평화를 주고, 어떻게 치유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0. 일단 자선 활동으로 너희의 길을 가꾸기 시작하면, 인류의 모든 고통과 비극에 비추어 볼 때 너희의 행위가 매우 미미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겉보기에는 미미해 보이는 너희의 행위가 인류에게 짓누르고 있는 고통을 덜어줄 것이며, 동시에 전쟁의 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51. 너희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이 끝나고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52. 영성주의의 사도들은 홀로 서 있지 않을 것이다. 이 가르침이 펼쳐지는 데 유리한 사건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53.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 주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말씀에 깊이 몰두하여, 내가 예정한 바와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남았다.

54. 삶의 시련과 나의 말씀이 너희를 준비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서 버렸는데, 이는 승리하기 위해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스승에게서 들은 말씀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평안함 속에서 시련을 헤쳐 나갑니다. 시련은 영혼에게 인내력과 끈기를 심어준다는 사실, 그리고 내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승리를 거둔 이들의 빛의 말씀과 증언이 필요한 수많은 패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잊지 마라.

55.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깨어나라. 영적 깨달음은 너희가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육체적 필요를 덜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56.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방패이자 무기이다. 원수가 있다면 기도로 스스로를 방어하라. 그러나 이 무기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왜냐하면 그 유일한 임무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57. 너희는 순수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불순한 종교 의식도 내 가르침에 결코 섞어서는 안 된다.

58.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으로 이곳에 왔기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빛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59.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내 모든 말씀 속에 나의 치유와 평화를 너희에게 주었다.

60. 너희의 영혼은 고개를 들고 내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그 영혼들이 참된 성소로 변모하는 것을 보는데, 그곳에 나는 “말씀”의 빛인 내 말씀의 울림을 스며들게 하여, 너희가 아버지의 숨결을 가까이 느끼며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하려 한다.

61.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온전히 깨달은 채,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 나섰으니, 이는 너희의 영적 영혼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영적 가르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곧 내가 오랫동안 인류에게서 기대해 온 경배를 나에게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62. 나는 너희가 지식과 믿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나의 계시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예정해 두었으니, 나중에 “스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셨던 시간이 너무 짧아 그분의 진리를 확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63. 영성으로 가득 찬 나의 가르침은 이 백성의 마음속에 싹트어, 장차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져 나가, 정화하고, 깨우치고, 바로잡지 않는 곳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64. 그러면 민족들은 참되고 영원한 영적 삶으로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다양한 숭배 형식의 외형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오직 내 율법의 본질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65. 인류는 영성이 부여하는 힘을 깨닫게 될 것이며, 수 세기 동안 그들을 가로막아 온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릴 것이다.

66. 사람들이 선한 뜻을 품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지구상에 수백만 개나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67. 겉모습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하며, 존경심도, 선의도, 상처를 준 것에 대한 후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상징과 숭배의

형태들은 그 시대가 지났으므로 사라질 것이며, 내면의 경배야말로 사람을 빛으로 끌어올리고, 고양시키며, 나를 향해 인도할 것이다.

68. 이 시대에 나는 그 존재의 가장 순수한 부분인 영 안에서 나의 율법을 기록하고,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에 없는 것, 그의 영혼에 없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내 영광을 위해 거대한 물질적인 교회를 세우든, 화려함으로 가득 찬 축제와 의식을 나에게 바치든 — 그러한 제물은 영적이지 않으므로 내게 닿지 않을 것이다. 모든 외적인 숭배에는 언제나 허영과 과시가 내재되어 있다. 반면, 세상이 보지 못하고 너희가 영에서 영으로 내게 바치는 은밀한 제물은, 그 겸손함과 진실함, 성실함, 한마디로 말해 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내게 닿는다.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주어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로 알려진 그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이 모든 시대에 걸쳐 변함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69. 너희가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마지막 십자가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 대신 서로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그 상징을 대체한다면,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의 신앙과 외적인 하나님 숭배는 영의 숭배와 신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의 예배와 상징들이 적어도 너희의 전쟁을 막고, 너희가 악덕에 빠지지 않게 하며, 너희를 평화 속에 머물게 할 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보라, 너희는 너희 말로는 거룩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너희가 신성하다고 여겼던 것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보라.

70.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온 세상()에 단 한 채의 교회도, 단 하나의 제단도, 단 하나의 상징이나 형상도 없이, 대신 영으로 기도하고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며, 중재자 없이도 그분을 믿을 줄 알며, 내가 내 가르침에서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더 좋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이며, 내 피의 발자취로 표시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발자취는 내가 내 가르침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남긴 것이다.

71. 이 인류가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를 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광야의 고독 속에서 백성을 먹여 살렸던 그 만나가 아니라, 시련의 날들에 너희 영혼 위로 내려오는 그 만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영과 영 사이에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양식이다.

72. 태초의 만나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이 신성으로부터 직접 영적 양식을 받게 될 때, 나와 인간 사이의 영적 교감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다.

73. 이 민족이 인류에 대해 지고 있는 책임은 매우 크다. 진정한 영성화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내면적인 종교 실천과 기쁘게 드리는 제물, 하느님께 합당한 경배를 바치는 방법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너희의 행실을 판단하고,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충실히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도 나의 가르침의 진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74. 단 하루 만에 영성의 정점에 도달하려 하지 마라. 절제되고, 차분하며, 확고한 발걸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며, 후회하며 되돌아가야 할 이유도, 너희가 행한 일로 인해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매 걸음을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내딛도록 유의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여러분이 이론 일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81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비록 많은 종교가 있지만, 법은 하나이며 나의 가르침도 하나뿐이다.

2. 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영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인류는 나의 가르침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그들은 그것을 형식적인 관습과 의식, 겉치레의 기도로 변질시켰고, 그 이면에 위선을 숨기고 있다.

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유일한 진리는 사랑이며, 비록 말과 노래로 내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할지라도 사랑의 행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진리의 길 위에서 있지 않을 것이다.

4. 진리는 우주에 드러난 신성한 사랑이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5. 사람들이 전례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착각인가!

6. 하나님은 지상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7.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며, 그분은 본질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8.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더라도, 너희는 이 시대의 민족들이 그들의 물질주의적 문명 속에서 사랑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가르침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씨앗이며, 세상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갈망하는 물이다.

9. 사람들이 느끼는 이 굶주림과 갈증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진실함을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영적·도덕적 비참함은 전쟁과 소외, 그리고 야망에 찬 세속적 추구들의 결과이다.

10. 잠시 동안, 사람들이 마침내 서로 전쟁을 벌이는 데 지치고, 파괴에 싫증을 내며,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 쓰라림을 느낄 때,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 가르침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미신적인 의식과 무익한 숭배, 그리고 나를 경배하기 위한 겉치레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11. 모든 영혼 속에서 자유를 향한 외침이 솟아날 수는 없었다. 그들을 둘러싼 안개가 너무나 짙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빛은 강력하여, 인간 마음의 가장 감수성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어둠을 뚫고 나갈 것이다.

12. 이 빛은 어떤 성질일까요? 그것은 나의 새로운 말씀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방법을 가르쳐 주는 새로운 계시가 담긴 나의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정처럼 맑은 물을 찾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13. 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방식과, 신성한 법에 따라 사는 올바른 방식을 심어 줄 것이며, 그 법을 지키는 것만이 주님께서 너희 각자에게 인정해 주실 유일한 일입니다.

14. 마침내 너희는, 오 인간들아, 내 말씀의 내용이나 진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가르침이 단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신성한 음성이 아니라, 모든 영들의 표현이기도 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5. 나의 말씀은 용기를 북돋우는 목소리이며, 자유를 향한 외침이며, 구원의 닻이다.

16. 나의 가르침은 어떠한 의례주의도 배제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본질을 잃게 될 것이다.

17. 이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순수하고 완전한 가르침을 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루 일과가 끝날 때 너희에게 인정받는 것은 오직 너희가 생애 동안 참된 사랑으로 행한 것뿐일 것이니, 그것이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음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인간은 영의 빛인 나의 계시 없이 지낸 적이 결코 없으나, 그것을 깊이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가 영적인 것을 완고하게 피한다면 진리와 영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19. 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대”의 계시들이 오직 신성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계시들에 대해 내린 유물론적 해석을 살펴보라. 보라, 너희가 물질적 본성을 영적인 것과 혼동하고, 얼마나 경외심 없이 심오한 것을 피상적인 것으로, 고귀한 것을 천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러나 너희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일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속적인 삶과 인간적인 안락함에 내 가르침을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20.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래야 너희가 영성주의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너희 입술로 선포하는 바를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 되리라.

21. “나는 영성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22.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훌륭하게 해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들은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최고의 제자들이 아니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신성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23. 반면, 내 가르침의 단 한 알갱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화하는지 보라. 그에 대한 예를 들어줄까?

평생 동안 말로 기도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었고, 그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진정한 기도의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옛 습관을 떨쳐 버리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느꼈다.

그는 주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가슴이 울적하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데,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과 흐느낌, 그 내면의 기쁨, 심지어 그의 혼란마저도 아버지께는 너희가 인간의 언어나 책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24. 주님과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그 더듬거리는 말은, 부모에게 기쁨과 황홀함을 주는 갓난아기의 첫 말과 닮아 있다. 부모는 생명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존재의 첫 발성을 듣기 때문이다.

25. 사람들은 태초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들에 대해 참되고 올바른 해석을 내리지 못했으므로, 오늘 내가 영으로 임하여 그들에게 내가 가르쳐 온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올바른 해석을 주려 한다.

26. 오늘날 너희는 영적 영혼의 능력과 육체의 능력을 서로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27. 내 가르침이 마침내 새로운 날의 빛이 되어 이 잠든 인류를 깨울 때, 영과 이성과 감정은 진정한 조화를 찾게 될 것이다.

28. 너희는 오늘 너희 마음속에 화합과 평화를 얻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를 통해 목소리의 매개자가 가진 이성적 능력을 통해 내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존재로서 내 앞에 서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영혼을 받아들인다. 너희가 기도와 행동을 통해 순수하고 소박하게 나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나는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정당한 공물로 받아들인다.

29.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가장 절실한 간구는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해 달라는 것, 즉 사람들에게 옛날의 가부장적 삶이 되돌아오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평화는 너희,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기초를 다질 때 비로소 돌아올 것이다.

30. 너희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너희와 타인 사이의 차이를 없애며 그들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너희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될 것이며, 인간의 삶은 즐겁고 가벼워질 것이며, 나는 아버지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31. 이 시대의 내 말씀은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과 같다. 그것은 너희가 팔레스타인 땅을 가로질러 나를 따랐을 때 너희 영혼을 휩쓸었던 그 맑고 투명한 물결과 같다. 그 의미는 너희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너희는 그 “맛”을 결코 혼동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영혼에 신성한 인장을 새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남자와 여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려왔고, 너희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자, 너희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왜 내가 이 시대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나에게 묻는다.

32.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나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덕을 지닌 사람이 없다고 내게 말한다. 모세도 없고, 초기의 선지자들도 없으며, 베드로나 요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든 시대에 덕이 있는 영혼들을 보내었으며, 그들 중에는 겸손하게 나를 섬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의 짐은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성과 마음을 맑은 샘물처럼 지켜왔으며, 종종 고통이 그들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시대의 나의 사자들을 닮아 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내린다. 나를 이렇게 따르고, 내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복이 있다!

33. 나는 너희를 내 왕국으로 초대한다. 나는 어떤 편애도 없이 지상의 모든 민족을 부르나, 모든 이가 내 말을 듣지는 않을 것임을 안다. 인류는 등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오류가 드러나는 곳에는, 내가 비추신 이가 나타나 주변에 빛을 퍼뜨릴 것이다. 그는 깨우고 뒤흔드는 경보음을 울리기 위해 내 신호를 기다리며 깨어 있는 영적 파수꾼이다.

그 사자들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게 하라.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가 현재 알지 못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이며, 너희를 얹매고 있는 물질주의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며, 너희를 나에게로 끌어올리는 영적 자유를 얻도록 도울 것이다.

34. 나를 듣는 너희는 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이 세상이 나의 제자로 변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너희는 내가 어려운 사명을 띠고 다른 나라로 보낸 자들 중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나에게 청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기다리는 싸움이 매우 거대할 것이므로, 너희는 먼저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전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목소리를 통해 내 말씀을 들었을 것도 아니다. 그들 중 많은 이는 직관을 통해 말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며, 내 빛이 온 곳에 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혜롭게 배치했기 때문이다.

35.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는데,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민족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나의 영은 만물을 포용하며 모든 피조물을 감싸고 이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나 밖에 있다고 믿으려는 것이냐? 모든 것은 살아 있으며 나로부터 양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보편적인 광선이 온 지구상에 내려왔고, 영혼들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에서 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36. 나는 너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발자취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씨앗의 진정한 돌보미가 되기를 원하며,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동료 인간들의 영혼 속에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울 때까지 계속 일하기를 바란다.

37. 나는 너희를 내 지시에 엄매이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단지 사랑으로 너희를 격려할 뿐이다. 왜냐하면 내 가르침으로 준비된 너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사명 수행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법 안에서 자유로워라. 그러나 순종을 습관으로 삼아라. 인간을 다스리는 두 가지 법을 지키라. 이 두 법은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둘 다 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38.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이가 나를 향한 조화와 이해를 갖기를 바라며, 너희의 기도가 마치 노래처럼, 열렬한 찬송가처럼 치솟아 올라 영혼들을 비추고, 그들이 운명의 목적지에 도달할 길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39.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씀의 권능에 이끌려 이곳으로 온다. 너희가 반드시 이 모임 장소에 와서 내 임재를 찾고, 나에게 너희의 근심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너희는 내가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40. 너희가 이곳으로 오는 것은 내 말씀 때문이며, 너희가 찾는 것은 너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신성한 본질이다.

41. 너희는 모두 내가 이 형태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만두게 될 시기를 이미 알려드렸음을 알고 있기에, 내 말씀이 대변자를 통해 올려 퍼질 때마다 서둘러 이곳으로 모여든다. 이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마지막 계시조차 너희 영혼 속에 간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42. 너희가 성취하기 위해 온 영적 사명에 대한 내면의 깨달음이 서서히 너희 안에서 깨어나고 있으며, 너희는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나의 법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깨달았기에, 너희의 책임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다.

43. 머지않아 너희는 나의 말씀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스승께서 떠나신 후 하나로 뭉쳤던 제2시대의 제자들의 본보기를 통해 영감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단합을 통해 서로에게 힘과 용기, 기력과 믿음을 주었다.

44. 너희가 모임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계시가 전해지는 시간을 놓치지 않을지는 너희의 화합에 달려 있다.

45. 지금까지 너희는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었으나, 내일은 말씀을 연구하며 더욱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가르침의 핵심을 파고들면, 내 모든 가르침의 진의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6. 나는 이미 이 시기를 위해 연합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지금부터 축복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통해 제자들은 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씀이 빛을 발하듯이, 너희의 해석 또한 너희 이웃들의 길을 밝게 비출 것이다.

47.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들은, 일상적인 예배 의식에 젖어 잠들어 있는 동료 인간들을 깨우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색의 부족으로 인해 혼란 속에서 좌초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다.

나중에 이 백성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가, 그들이 들은 바를 증언하며, 동시에 분명한 말로 나의 율법과 가르침을 설명할 것이다. —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겪어 온 시대 동안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온 모든 것을 말이다.

48. 동료 인간들에게 조롱받거나 배척당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49.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노니, 이 영성주의자들로 이루어진 백성이 인류 가운데 나타날 때, 나는 이미 그들에게 많고도 매우 위대한 영적 현현들을 베풀어 놓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현들은 영적으로 나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내가 이미 오셔서

말씀하셨음을 예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오는 것을 보고 너희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를 나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5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신학자들조차도 이토록 많은 사건들의 원인을 스스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51. 내 백성은 땅 위에서 마치 거대한 군대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내 영이 그 백성 위에 임하여 그들의 싸움에서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니, 이는 내가 이 시대와 과거에 너희에게 주신 내 말씀 중 마지막 한 마디까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

52. 너희는 더 이상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날들을 생각하며 왜 울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 오 수많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니.

53. 내가 제2시대에 세상을 떠난 후, 사도들의 품에 마리아를 남겨 두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54. 사랑이 넘치는 조연자이시며, 어머니이시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한동안 그 제자들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55. 골고타에서 겪었던 고통, 즉 스승도, 그분의 말씀도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의 아픔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땅 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가 이미 인류에게 유산으로 남긴 사랑이 가득한 온유함을 보시고, 그녀를 땅에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56. 신성한 보좌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제자들아, 너희는 내가 대변자의 입을 통해 전하는 내 계시를 ‘빼앗기게’ 되면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리아는 죽지 않았으며, 너희의 영적 어머니는 너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곁에 없다고 느낄 때, 비록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너희 곁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날들 속에서 너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의 모성애는 너희가 강함을 느끼고, 내가 말과 행동으로 너희 앞에 보여준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57. 너희는 내 율법의 전사이자 영성화의 씨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이미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영성주의는 지상에 그 거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인간을 그 대표자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그 통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너희의 유일한 인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양심일 것이다.

58. 너희의 직관적인 시선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새로운 “일꾼들”을 알아볼 줄 알 것이다. 그러나 “기름을 부어”

축성하거나 성별하는 일은 너희의 손이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영혼에게 은사나 임무,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나, 곧 모든 존재의 운명을 기록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59.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담지 않은 오류나 행동 방식, 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60. 너희는 오직 나의 씨 뿌리는 자, 나의 예언자, 나의 사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 비밀의 보물창고는 여전히 너희 주님의 손에 있을 것이다.

61. 내 뜻은 너희 가운데 완전한 조화와 형제애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이 질서와 사랑, 영성화되어야 할 한 민족 안에서 주인이나 통치자, 폭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62. 너희가 내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한다면, 너희의 모범은 인정받을 것이며, 너희의 힘은 영성주의에 길을 열어줄 것이다.

63. 우상들의 그릇됨을 폭로하고, 오만한 통치자와 전제적인 주인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며, 물질주의 통치의 덧없는 권력을 파괴하는 것은 반드시 내 가르침의 빛이어야 함을 깨달아라.

64. 내가 오늘 내일을 위해 영적 삶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백성은 부유하지 않을 것이며, 보물이나 물질적 재물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가 너희의 허황된 부의 힘에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65. 사랑과 믿음,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인류에게 이 사역을 알리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모범을 따르고, 그들이 살았던 삶과 너희에게 전해 준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66. 내 손은 단 한 번도 동전을 만진 적이 없다. 어떤 때, 황제에 대한 의무에 대한 내 견해를 밝히도록 요청하기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동전 하나를 내게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 동전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만지지도 않은 채 질문한 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황제의 것은 황제께 바치라.”

67. 이것은 나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이지만, 마지막은 아니다. 나는 아직 잠시 동안 너희에게 계속 말할 것이며, 그 후에는 분명히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말하지 않을 것이다.

68. 그때 나는 너희가 나의 작별 후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의 시간을 줄 것이다. 그 시기에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직관이 점차 다양한 형태로 되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69. 지금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을, 그 영적 성찰의 날들에 깨닫게 될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계시와 예언들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70. 한 사람의 영감은 다른 사람의 영감에 의해 확증될 것이며, 그리하여 제자들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71. 로케 로하스와 다미아나 오비에도는 이 시대에 나의 영적 계시를 전한 최초의 대변자들이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지성 속에서 엘리야의 광선을 받아들였고, 그 처녀는 스승의 빛을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나는 내 사도 무리 안에서 여성이 남성만큼이나 내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영적 영혼은 둘 모두에게 동일하다. 내가 영적 영혼들을 찾는 이 제3의 시대에, 왜 내가 둘 사이에 차별을 두어야 하겠는가?

72. 로케 로하스와 다미아나 오비에도는 너희의 선구자들이다.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신성한 음성을 들었고, 그것이 진리인지 묻지도 않고 믿었다. 한 사람은 예언자의 음성을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승의 자비의 손길을 느꼈다.

73. 그 이후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비밀을 밝혀 주었는가! 최초의 전도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다른 이들이 나타났으며, 그렇게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렀다. 모두가 순수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열정, 진리에 대한 사랑, 자기 부인과 희생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허영심에 사로잡혀 아침과 보상을 탐했다.

74. 나는 처음부터 청중들에게 참된 열매를 분별하도록 가르쳤으며,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은 내 진리를 양식으로 삼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며, 동시에 진리의 불길 속에서 흔적들을 태워버려야 한다.

75. 너희는 그들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의 대변자들을 결코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 마음들을 위로하거나 보살피는 법을 알지 못했으니, 적어도 앞으로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 곧 나의 말씀인 '새로운 만나'를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76. 지구상에서 영매들이 늘어나면, 그들을 평범한 점쟁이와 혼동하고 미래를 묻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들에게 영들의 삶과 다른 세계나

행성에서의 삶에 대해 질문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은, 너희가 어리석은 질문들에 시달릴 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말해야 할 것—즉, 동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나 호기심 앞에서 전해야 할 그분의 뜻—을 영감으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77. 나는 너희에게 내 계시 중 단 하나도 변경하지 말며, 아직 계시될 때가 되지 않은 것을 탐구하려 시도하지 말라고 명한다. 너희는 항상 너희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마치 너희가 빛에 대한 동료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정처럼 맑은 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샘과 같이, 그리고 신비의 베일을 걷어 올리는 것이 너희의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상에는 일곱 봉인된 책을 열 자격이 있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오직 어린 양만이 그 자격이 있었으니, 즉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할 권능을 가지셨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계시될 가르침이 많다는 것을 알되, 또한 그들이 영의 높은 거처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드러날 다른 가르침들도 많다는 것을 알라.

78. 너희는 어디에서나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 나의 임재는 길의 모든 곳에 있다. 나는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고, 폭풍우 치는 밤의 등대가 되기도 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82

1. 신성한 빛이 너희를 위해 빛나며,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말씀이 된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성소인 것처럼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내 말씀을 들었을 때 참된 삶으로 향해 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2. 모두 와서 나의 사랑의 기적을 깨달으라. 나는 죄인들의 입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3. 이 시대에 나는 너희가 상속받은 것이거나 내가 너희 안에 심어 놓은 선물인 그 능력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리라. 그것은 물질의 능력이 아니라 영의 능력이다. 사람은 육신을 통해 강력하거나 위대하거나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 그러하기 때문이다.

나는 선의 길로 발걸음을 돌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 즉 삶을 이기고 다스리는 법칙을 따르는 자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언제나 빛과 평화, 진리의 길로 인도할 강력한 힘의 지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4. 제자들과: 내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너희에게 영적인 선물로 가져온 이 소박한 말씀은, 그 단순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함 속에서 나의 또 다른 걸작이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그에게 신성을 알리기 위해 사람을 찾는 이 방식에는, 너희 모두가 발견해야 할 의미와 내포된 뜻, 그리고 중요성이 담겨 있다.

5. 보라, 나의 신성한 생각이 어떤 인간의 입술에서 목소리가 되어, 비록 불순할지라도 이 봉사의 순간에 순수해져서, 너희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을 주는 모습을.

6. 너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정화되어 나를 맞이하게 될 그날, 그날이 너희에게 무엇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7. 너희의 믿음은 작았고, 너희의 사랑과 준비는 미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 안에서 얻은 열매는 너희를 무기력함에서 끌어내어, 너희의 역경 속에서 황량한 사막과 같았던 영혼의 삶을 — 이제 투쟁과 끊임없는 시련으로 가득 찬 너희 삶 속에서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 삶을 — 이해하고, 사랑하고, 연구하며,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8. 너희가 이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시대에 너희는 '나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

9. 이 세상을 보라 — 이 세기는 모든 인간의 업적에 대해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자만하여, 이 세기의 여러 세대를 경탄하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는 영적인 것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나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학의 힘을 빌려 창조해 낸, 기적들로

가득 찬 세상을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한다.

10.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과학, 투쟁, 전쟁, 그리고 눈물을 통해
그들이 세워 온 이 경이로운 인간의 세계는, 결국 그들 자신의
손과 무기로 파괴될 것이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완성을
 향한 열망이 결여된 그들의 업적이 얼마나 지속 불가능하고
허약한지 인류가 깨닫게 될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

11.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인간의
영과 육체 사이에서 조화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한 힘과 생명,
지성을 오직 나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2. 나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나의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온다. 인류는 수세기와 시대를 거쳐 오직 죽음만이
지배하는 것을 지켜보아 왔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에서 죽음이
지배해 온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사랑의 결핍이다.

1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은 우주를 움직이는
변함없는 힘이다.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자 의미이다.

14. 이제 나는 모든 이를 위한 영적 부활의 시대를 열겠다 —
내가 십자가의 높이에서 세상에 쏟아 부어, 너희에게 “사람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죽음’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명*이 사람들을 지배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에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 축복받은 사랑의 씨앗을 꽃피울 시기이다.

15. 오늘날 너희는 날마다 ‘지식의 나무’가 맺은 쓴 열매를 먹고
있다. 그 나무는 너희가 *모든* 은사를 조화롭게 꽃피우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 그토록 불완전하게 가꿔져 왔다.
그러니 지성만 단련하고 영혼과 마음은 소홀히 한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발견과 업적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겠느냐?

16. 너희 중에는 마치 야생 동물처럼 자신의 정욕을 완전히
방종하고, 이웃을 증오하며, 피에 굶주려 형제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있다.

17. 만일 누군가가 *나의* 가르침이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큰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의심하는 자들과
유물론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나는
그들이 과학의 열매를 거두어 배불리 먹을 때까지 내버려 둘
것이며, 마침내 그들의 영혼에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할 것이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권능만이 저희가 무분별함으로 풀어놓은 그 세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8. 그때 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평화를 베풀어 주리니, 그들의 오만함이 이미 그들에게 고통의 잔을 많이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영혼의 평화와 자기 성찰로 이끌어, 그들이 — 그때는 이미 새로운 삶 속에서 — 영적인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그들의 행위에 적용하는 법을 깨닫게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삶이 마치 거문고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거문고의 현은 사랑, 영성, 그리고 과학을 상징하지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영성의 송고한 소리인 사랑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이다.

19.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어떤 이들에게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왜 나를 박해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자가 내 왕국의 존재를 부인할 권리가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무지는 크고 너희의 오만함은 지극히 크다.

2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부인하는 자는 스스로를 부인한 것이다. 스스로를 독립적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오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 안에서 힘을 얻으려는 자의 세상에서의 발걸음은 매우 짧은 것이다. 그는 곧 길을 잃게 될 것이며, 그의 고통은 매우 참기 힘들 것이다.

21. 참된 학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22. 지식이란 내 존재를 느끼는 것이다. 지식이란 내 빛의 인도를 따르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지식이란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식이란 사랑하는 것이다.

23. 사랑으로 이웃에게 기꺼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삶이 제공하는 다양한 길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선에 헌신한다. 그는 자신이 신의 뜻에 따라 매우 높은 목적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인간 존재임을 안다. 오, 제자들아, 내가 너희가 지식을 얻기를 원하노니, 그리하여 상승 발전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들의 오류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란다.

24. 진정한 사랑, 즉 마음속의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사랑은 지혜의 열매이다. 보라,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너희의 상상 속에 지혜의 씨를 뿌리니, 그 후 나는 너희 사랑의 열매를 기대한다.

25. 선을 행하는 방법도, 위로하고 섬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뿐인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은 바로 영의 지혜이다.

26. 어떤 이들은 과학의 길을 걷고, 어떤 이들은 영성의 길을 걷고, 또 다른 이들은 감정에 이끌리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영적 조화를 이룰 것이다.

27. 존재하는 다양한 길을 구별하고, 동료들이 수행하는 각기 다른 사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 이를 위해 열린 마음, 올바른 판단력, 평온한 마음,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종교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의식과 숭배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28. 준비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전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그날, 너희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29. 이해하려는 관심 없이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설명하는 자들의 대열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하며, 그것을 느끼고, 사랑하며, 영혼과 마음, 그리고 두뇌 속에 간직한다. 이들은 날마다 내 가르침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30.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이 갈망이 이 제자들 사이에서 드러날 때, 너희는 그들의 얼굴에서 선함과 이웃 사랑이 지닌 아름다움, 그리고 영성화의 위엄이 비치게 될 것이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순간에도 영적 영혼의 미덕, 즉 모든 사람 안에 깃든 그 더 높은 존재가 비치는 진리의 거울로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을 넘어 존재하며 활동하고, 또한 여러분의 행위와 말, 생각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겠는가? 그 존재들에게 있어 모든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육신을 입은 모든 영혼은 연합의 끈이고, 모든 뇌는 인간 세계와 소통하는 수단이다.

32. 사람들의 생각이 선을 향할 때, 그들은 고귀한 목표에 헌신하는 고상하고 빛나는 존재들에 의해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선한 영향을 거부하고, 자신의 감정과 능력이 저급한 영혼들에 의해 이용되도록 허용한다면, 이들은 오직 저급한 정욕만을 키우게 될 것이다.

3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 세계의 영향 아래 살지 않는 인간의 이성만은 단 하나도 없다.

34. 많은 이들이 이를 부정하겠지만, 인간의 지성이 영적 존재들과 자신의 동료 인간들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진동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35.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널리 퍼지면, 이를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가진 이들을 만날 것이지만, 동시에 완고한 반대자들과 적대자들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6. 그러나 그들은 영적 왕국의 빛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빛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불신자들은 그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힘인 우주적 영향력 밖에 있다고 여기는 자가 누구인가?

37. 나는 너희의 영과 영혼, 그리고 이성에 말하고 있으나, 너희가 다른 존재 차원에서 메시지, 사상, 영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주노라. 또한 너희 영혼이 이 육신에 환생하기 위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채로 너희 영혼에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38.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영감이 그들의 지성 기관 속에서 진동한다고 해서 그 목소리의 전달자들이 의롭고 순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들은 단지 내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그들은 다가올 시대를 위한 약속인 그 영적 계시의 선구자들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빛이 항상 그들의 존재 속으로 비추어 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다.

39. 인류여, 너희는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내가 말하건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영적 세계의 존재와 영향력, 그리고 계시를 감히 부정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40. 수많은 빛의 존재들이 너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너희가 기도와 생각, 믿음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법을 알게 되는 그날,

너희는 삶 속에서 무적의 힘, 초인적인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결코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41. 사람들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과 혼란의 세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 세계가 가하는 교활한 공격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그날부터, 여러분은 삶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42. 지성은 나의 신성과 영적 세계의 진동과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아두라.

43. 인간은 물질적인 것을 사랑해 왔으며, 그곳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그곳에 마음과 이성, 감각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만약 인간이 영을 이상으로 삼았다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중 그 어떤 것도 낯설지 않을 정도로 감각을 정교하게 다듬었을 것입니다.

44.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본성상 우주 속의 모든 영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을 것이며, 이를 깨닫고 믿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더라면, 모든 피조물을 생동하게 하는 힘이자 생명이며 빛인 내 영의 광채가 자신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4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라: 내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46. 제자들아, 너희의 임무는 영혼과 이성을 민감하게 만들어 모든 영적 진동을 감지하고, 느끼고, 믿고, 실천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47.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설령 온 인류가 영적인 빛이 자신들에게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쓴다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생명 그 자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진동하는 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48. 너희는 지금 내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모든 면에서 낯설게 보일지 모르나, 너희는 이를 이해하고 있다. 너희는 알고 있다. 비록 이 모임 장소처럼 초라하고 소박한 곳에서 드러나더라도, 이곳은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천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 수 있도록 경건함과 영성 함양, 그리고 준비에 전념하는 소박한 안식처임을.

너희는 내가 현재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있지만, 말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내 영감의 빛을 받는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빛은 이성을 비추면 생각이 되고, 입술에 닿으면 말로 변한다.

49. 이것이 바로 내가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계시해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였으니, 이는 너희가 너희 영 안에 있는 속성들과, 앞으로 너희 영에 주어질 것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50. 너희의 영적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너희 자신을 더 잘 알아가라. 만일 너희가 단지 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위대함을 부정하고 너희 본질의 핵심을 오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1. 너희가 영의 진리를 알아가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한, 너희는 연약하고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며, 너희가 누구이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육체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52. 인간의 유물론적 과학은 사람들의 어깨에 견딜 수 없는 짐을 얹어 놓았다. 너희 모두는 지쳐 있으며, 이 시대에 힘겹게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53. 백성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네 이웃들을 이 영적인 잔치에 초대하라. 너희는 그들이 마음속에 지식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

54. “죽음에 지치고 마음속으로 실망한 지성인들이여, 내게로 오라. 혼란스러워하며 사랑해야 할 때 미워했던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고, 내 계명에 순종하는 영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지성을 결코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학문으로 인도하리라.”

55. 너희는 마음이 차갑거나 판단이 엄격하다는 이유로 내게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이 부족하여 실망한 그 마음들을 비추는 빛줄기 같은 한 문장, 한 마디를 준비해 두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내 식탁에서 배제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함이다.

56. 나는 많은 이들이 오만함으로 인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여 배우러 오는 것을 거부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메시지 중 하나만 듣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여전히 마음이 남아 있음을, 참된 사랑에 대해 죽지

않았음을, 그들이 여전히 내 곁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이며, 여전히
울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57. 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대변자들을 통해 그것을 들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메시지는 지구의 끝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질
것이니, 이는 인류가 지상에서 환난의 시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미 '제2의 시대'에 약속받았던 위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58. 오늘날, 내가 사람들이 광란의 속도로 그들의 정욕과 악덕,
그리고 적대감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며, 나는
그들에게 구원의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안다. 그들이 아무리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더라도, 나는
그들의 영혼에 내 목소리를 전하여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내게로 오라. 빛을 찾으라. 내가 너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니, 그 후 너희는 나의
평화의 방패 아래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59. 나의 목소리는 그들 존재의 내적 성전 안에서 들릴 것이다.
그 성전은 인간 스스로가 파괴할 수 없는 곳인데, 바로 그들
자신의 영적 영혼이기 때문이다.

60. 기억하라. 너희가 어린아이였을 때, 너희는 모두 순수함
속에서 살았으며, 마치 장미꽃과 같았다. 그러나 나중에 즐기에서
가시가 자라나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되었다. 인류가 다시
한 번 나에게 바치는 것은 바로 가시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봄에
다시 장미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원사의 현명한 가위가 이
식물들을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61. 오늘은 잠시 동안 이 땅을 뒤로 하고 영으로 내게로 오라. 수
세기 동안 인간은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 잘못을 저질러 왔기에,
영이 아닌 감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힘을 얻지도 못했고, 내
사랑으로 삶의 길을 밝히지도 못했다.

62. 인간이 그토록 큰 경향을 보이는 우상 숭배는 마치 독과도
같아서, 내적 기도가 주는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63. 사람들은 단지 기도하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지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아: 내 영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삶의 시련을 이겨낼 영적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심연과 어둠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하지만, 정상에 올라 빛 속에서 나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64. 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 얼마나 많은 초인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물질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 신성함마저 만지고 볼 수 있도록 물질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65. 과거 시대의 나의 종들—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으며, 인류에게 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모든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그들의 기도 방식을 남겼다.

66.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주님의 성전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자비의 근원에 다가가기 위해 찾은 길은 믿음이었다. 곧, 나의 현존과 나의 정의, 나의 섭리, 그리고 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었다. 나는 그들 각자에게 큰 시련을 주었는데, 그 시련은 너무나 거대하여 후세에까지 그 증언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은 창조주에 대해 충실하고, 순종적이며, 겸손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지켰습니다.

67. 그 종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은 언제나 즉각적이었으니, 나는 그들을 오직 큰 믿음과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나의 권능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68.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인해, 나는 이 시기에 너희를 찾아와 협곡과 심연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 마치 목자가 지극히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말이다.

69. 그러나 내가 너희를 통해 창조하고자 하는 백성에 대한 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너희가 이 천상의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해 내가 현재 너희를 지구의 여러 곳에서 불러 모아 한자리에 모으고 있음을 알아두라.

70. 무수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나뉘어 있는 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를 이 가르침의 제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존재가 이 본질로 충만해지고, 전통과 오류를 뒤로 한 채 영성을 살아가고 느끼기 시작할 때, 나는 너희가 각 지방과 민족, 국가로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와 시기를 알려 주리라.

71. 너희는 하늘의 별들처럼, 혹은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며, 평화와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는 가정과 민족, 조국에 축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72. 그러나 너희가 이 싸움을 위해 나설 때, 이는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금 다시 상기시켜 준 대로, 너희가

이미 영적인 기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73. 기도의 힘이 없다면, 너희는 싸움에서 이겨낼 수도 없고, 시련을 견뎌낼 수도 없으며, 하물며 동료들에게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칠 수도 없을 것이다.

74. 그러나 과거에 너희가 족장, 지도자, 예언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영적 기도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러분을 통해 실현될 증거들은 과거와 똑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시대이며, 인류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발전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얻게 될 증거와 기적들은 과거의 것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놀라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75. 여러분이 그토록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단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의롭고, 유익하며, 언제나 선과 이웃 사랑에서 영감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너희를 우월하게 만들고, 때가 되면 위험에서 너희를 구해 내며, 모든 비참함을 초월하게 하고, 고통에 무감각하게 하며, 심지어 죽음마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믿음일 것이다.

7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함과 믿음으로 너희는 강력하고 초인적인 일을 이루어낼 것이며, 이를 통해 이 시대에 기도와 사랑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증거를 보여 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 283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각기 다른 길을 통해 이곳에 왔으며, 기도의 순간에 하나가 되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맞이하니, 내 목소리를 들어라. 길을 잃었을 때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너희는 내 곁에 있다.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불러왔으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 왔다.

2. 이곳에 모인 너희를, 나는 인류를 대표하여 맞이한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은, 이를 통해 너희의 모든 이웃에게도 베푸는 것이다. 이 나무 그늘 아래로 온 자들과, 이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 모두, 나에게는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3. 기도하라, 백성들아, 이것이 영혼의 언어이다. 그러나 이 언어를 배워라. 그래야 너희가 나에게 말할 때, 동시에 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될 것이다.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그러나 아버지께 품는 신뢰와 같이 — 친구에게 말하듯 친근하게 나에게 말하라.

4. 너희 마음을 열어라. 이것이 바로 나의 성전이며, 그 안에서 조연이자 영감과 계시인 나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허락하라.

5. 너희가 내 가르침의 진의를 깊이 깨닫고,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알게 된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 삶의 모든 때와 매 순간마다 너희에게 말해 왔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6. 내 눈에는 인간이 언제나 위험과 추락의 위협에 처한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에, 비록 그 아이의 마음이 때때로 나의 조언과 부르심,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인도한다.

7. 오늘날 사람들은 큰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는 내가 그들의 고통을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을 때 마땅히 스스로를 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8. 너희 모두는 내가 순결한 것을 사랑하며, 오직 순결한 것만이 내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양심이 너희에게 말하는 바이다.

9. 내 영의 빛은 모든 육체와 모든 영 위에 부어졌으니, 이는 너희가 삶이 매일 교훈으로 주는 시련들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스스로를 깨닫고 이 땅에 가져온 사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0. 왜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너희의 운명이 *나*에 의해 시련과 고통, 형벌, 혹은 불행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두려워하는가?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너희에게 가시발길을 안겨주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길하고 시련으로 가득 찬 길은 바로 너희가 자신의 뜻대로 선택한 길이다. 너희는 그 길에서 기쁨과 자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너희에게 정해진 길, 즉 진정한 평화와 안전, 힘과 건강, 안녕과 풍요가 있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1. 내가 내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제시하는 이 길은, 너희가 마침내 그 길에서 너희가 갈망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너희 영혼이 창조된 순간부터 미리 정해져 온 길이다.

12. 이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돌아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외면했던 유산을 다시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 나의 길에도 시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영혼을 위한 지침이며, 빛이자 계시로서, 삶이 너희를 파멸로 이끄는 광란의 질주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 주는 자극이다.

14. 제자들아, 너희는 천 가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 영적 영혼의 모든 능력이 깨어나고 너희 마음의 모든 현이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15. 이 백성은 예언과 가르침을 지닌 강한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자신들이 받은 은사의 가치를 깨닫게 하며, 내 가르침의

진의를 부지런히 탐구하여,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어 과거의 계시들을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약속했던 그 빛들을 발견하도록 하라고 말한다.

16. 나는 이 백성이 인류가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은밀하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침묵을 깨야 할 때가 올 때까지 말이다. 그 침묵은 이 사람들이 진리와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깨질 것이다.

17. 너희가 나를 들으면, 사랑으로 인해 너희의 존재가 떨리며, 너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 다른 이들은 나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한다. “마치 강가나 산 위에서 스승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내가 그분을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

18. 그렇다, 백성아, 너희는 내가 육신을 입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나임을 믿음이 말해 준다. 내가 “구름 속에서” 오겠다고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 내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여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영과 영으로 너희에게 말했더라면 너희가 나를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계시는 짧았으며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는 단지 몇몇 사람이 나를 듣고, 장차 내 뜻에 따라 나와 어떻게 교감해야 할지 알게 되며, 이를 인류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21. 나는 너희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같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2. 너희 백성아, 형제애와 일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라. 너희가 이를 이루지 못하는 한, 너희가 처해 있는 은둔의 상태에서 너희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길의 빛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23. 이 영적 가르침에서 발산되는 빛은 인류의 영을 비추며,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너희의 모든 종교를 능가할 이 가르침의 본질을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스승님, 그렇다면 종교들은 참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것들이 진리라면 오직 하나만 존재할 것이니,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각각은 그 지극한 빛의 일부를 담고

있으며, 모두 영혼을 인도하여 지식의 근원에 더 가까이 이끄는 길들이다.

24. 절대적 진리는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으며, 어떤 책에도 담겨 있지 않다. 이 신성한 명료함, 이 전능한 힘, 이 무한한 사랑, 이 무제한한 지혜, 이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25.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라. 모든 종교는 진리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보게 된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만일 그들이 지극한 진리를 담고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 같았을 것이며, 나께 이르는 단 하나의 개념, 단 *하나의* 세계관, 단 하나의 길을 나타냈을 것이다.

26. 그러므로 내 가르침이 세상에 인정받게 되면, 인간은 그 가르침을 어떤 종교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든 형상화하거나 물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가르침을 삶 그 자체에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 가르침이 상징을 통해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느끼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과시나 위선, 이기적인 이해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참된 내적 경배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7. 영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영혼의 삶 모두를 위한 실천적인 가르침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완전한 가르침은 없다. 이 가르침은 너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너희와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의 온갖 일과를 거치는 동안 너희를 따르고, 너희 영혼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영혼과 하나가 된다.

28. 여러분의 예배에서 전례와 전통을 제거할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의 발전의 길을 비추는 더 큰 빛이 필요함을 깨닫고, 저절로 기존의 관념을 초월하게 될 인간의 영일 것이다. 머지않아 인간은 자신이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은 선과 자비, 지혜, 그리고 정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9. 영성주의는 그리스도께서 한때 선포하신 말씀 중 단 하나도 지워버리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에 대립하는 것이 되므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스승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저 말씀과 상충될 수 있겠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 가르침의 진의를 진정으로 깊이 헤아린다면,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한때 말했던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자 해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미래의 인류는 과거 세대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율법을 더 순수하고, 더 높고, 더 진실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30. 너희가 동료 인간들이 종교를 실천하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그들이 과거에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제는 내적 공감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영혼이 스스로 깨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양육해 줄 수 있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인류의 외형적인 예배 실천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31. 이 말씀을 받는 너희에게는, 나의 사역을 그 모든 소박함, 영성, 순수함, 그리고 단순함 속에서 제시할 임무가 주어졌으니, 그 안에서 의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전통이나 상징을 창안하여 너희를 참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수에 빠질 여지를 전혀 남기지 말아야 한다.

32. 신성하거나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형태로 표현하던 시대는 지났다. 인류가 상징과 형상을 창조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 돌에 새겨져 있었고 예언자들은 인간이었으며,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영으로 오며, 나의 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너희에게 온다. 너희는 무한하고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 어떤 새로운 상징이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33. 영의 가르침은 영적 영혼의 표현이자 진정한 양식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물질화와 모든 호화로운 숭배로부터 분리된다.

34.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통해, 너희는 이웃에 대한 너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이다.

35. 내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따르라.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내 사역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6. 자비를 베풀고, 빛을 나누며, 오류에 빠져 넘어진 이를 구해주십시오. 평화와 형제애, 화합의 일을 이루어 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사랑이 너희의 발걸음을 함께할 것입니다.

37.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빛임을 깨달으라. 나는 고통에 짓눌린 이들에게 위로가 되노라.

38. 오랫동안 나는 말로 세상에 나를 드러내지 않았기에, 이제 다시 그 소리가 들리자 너희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새로운 메시지를 알기 위해 간절히 모여든다.

39. 때때로 내 영이 너희의 이해력에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말해야 할 이 필요성은, 내 법에 대한 너희의 불순종과 참된 길에서 벗어난 데서 비롯된 것이다.

40. 인간은 누리고 있는 자유 의지 때문에 창조물 중 가장 반항적인 존재이다. 오늘날까지도 인간은 양심의 지시에 복종하려 하지 않았다.

41. 나의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제동을 걸고, 다른 이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이를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심연에서 구원하고자 한다.

42. “제2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 내가 드러내는 방식에 불쾌감을 느끼지 마라. 내가 결코 두 번 같은 형식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아두라. 그것은 너희를 똑같은 가르침에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고, 너희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도록 돕기 위해 온다.

43. 너희 영혼이 나를 들을 때 느끼는 기쁨이 내게 전해지니, 이는 내 모든 가르침이 그것을 잘 활용하는 이에게 빛과 용기, 깨달음, 그리고 준비가 된다는 것을 너희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44. 의심할 여지 없이, 이를 활용하는 제자는 삶 속에서 확신을 느끼며, 자신의 소명을 믿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적인 삶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45. 내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죽어 나가는 법을 알게 되며, 때가 되면 영원 속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46. 내 말씀에 깊이 몰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고통의 원인과 속죄와 보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절망하거나 신성모독을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대신, 믿음과 희망으로 일어나 싸워, 자신의 죄의 짐이 날마다 가벼워지고 고통의 잔이 덜 쓰게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47. 기쁨과 평화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본래 주어진 것이다.

48.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 너희의 자유 의지 중 일부를 희생하고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 너희의 삶은 얼마나 빛날 것이며, 너희의 과학은 얼마나

위대하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는가. 그때 비로소 너희의 과학은 물질적 경계를 넘어 초월적인 영역에 닿을 것이니, 지금까지는 그 경계에조차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49. 과학자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마침내 신성한 진리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당혹감을 느끼겠는가! 그곳에서 그 영혼은 부끄러움에 가득 차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오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지식이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책, 즉 창조주의 무한한 작품 앞에 서게 되니, 그녀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절대적인 지혜이신 분 앞에서 겸손으로 몸을 감싸야만 한다.

50. 내가 허락하고 명한 바와 같이, 왜 이미 이곳에서 이 책을 훑어보지 않는가? 왜 영성화를 통해 그 책에 다다를 준비를 하고, 그 페이지들에서 깨달음을 주는 교훈이나 비밀을 설명해 주는 계시를 배우지 않는가?

51. 백성들아, 영적인 메시지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라. 세상에는 내가 이 대변자들을 통해 내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인류에게 계시로 쏟아질 준비가 된 빛의 근접함을 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 영으로부터 필요한 준비를 받게 될 것이니, 너희의 증언을 듣고 너희가 그들에게 나의 신성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환호하며 “이것이 바로 내가 바랐던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52.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준비시키는 것은, 서로 마주칠 순간이 왔을 때, 너희가 연합의 유대를 맺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3. 이 시대에 내 영으로부터 깨달음을 받는 것은 너희뿐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하노라. 왜냐하면 각기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진 모든 메시지가 합쳐져 이 세상에서 하나의 영적 힘을 형성하게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몫을 다할 것이다 —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는 것, 즉 나의 새로운 계시들이다. 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상기시켜 준 위대한 진리의 유산이다. 사랑하는 백성아, 그 법은 내일의 세상을 위한 씨앗이다.

54. 오늘 너희는 여전히 의심과 회의주의, 불신의 시대를 겪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혼에 비추는 이 신성한 빛은 불확실성의

마지막 그림자마저 흩어 버릴 것이며, 그때 진리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배하게 될 것이다.

55. 나의 평화의 말씀과 사랑의 교훈을 듣는 너희는 결코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의 노력은 언제나 단합하고, 평화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야 한다.

56. 자연 속에서 인류의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의 말은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그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과 현상의 원인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57. 자연이란 거대한 피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아, 자연은 그 품에 내일의 인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스스로 발전하고, 정화되고, 펼쳐지며, 완성되어 가는 피조물입니다.

58. 너희는 그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한 자연의 과도기적 현상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불만을 품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여기는가? 너희 자신도 자연과 창조물과 함께 정화되고, 발전하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59. 비록 오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가 되면 충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주변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아무것도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것도 너희를 짓누르거나 병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물질적 차원을 초월하여 자연의 힘에 지배받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60. 너희는 너무나 미숙하여, 자연이 주는 징조를 경탄하기보다는 종종 두려워하곤 한다.

61. 언제쯤 너희는 지금처럼 노예가 아니라, 이 창조의 한 가운데서 왕자처럼 서게 될 것인가?

62. 너희는 내가, 너희가 자연의 힘이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것을 볼 때 공포에 질려 기도하며, 하느님께 자비를 간청하는 모습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가 영혼의 평화를 가득 안고, 너희 아버지의 업적을 경탄하며, 너희의 삶이 서서히 시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평화와 순종, 이해로 가득 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너희에게서 받고 싶다.

63. 아, 너희가 이 생의 빛을 보기 위해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와 자연과의 진정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대들은 창조주가 그대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는 이제 제3의 시대에 와서 나의 이전 가르침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나의 오심은 제2시대 때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본질과 임재, 그리고 능력을 너희에게 드러내기 위해 영으로 온 것이다. 나는 현재 불신자들과 죄인들 가운데서 내 자신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다시금 나의 가르침과 교리를 전하고 있다. 제2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나를 믿었고 다른 이들은 나의 임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로 알아본 이들 중에서, 나를 증거할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64. 보라, 인류는 다시금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감각적인 예배 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사랑의 가르침만을 주어 그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65. 성령께서는 남녀와 어린이들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들에게 내 은총이 쏟아져,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나의 임재를 증언하는 이들이 되게 하셨다.

66. 나는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율법을 보여주고, 같은 가르침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다. 왜냐하면 지고하신 지혜를 지니신 아버지는 결코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오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빛이 너희를 비추어 내 모든 가르침을 설명해 주었으니, 너희가 그리고 그 후 온 인류가 사랑과 행동과 생각의 완전함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7. 인간은 타락의 절정에 이르러 살고 있다. 그는 오직 물질과 금, 그리고 지상의 권력만을 추구하지만, 그의 영적 영혼은 나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너 또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나,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서로를 배척했기 때문에 아직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를 내 식탁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너희를 어루만져 주었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고, 너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하려 함이다.

68. 백성아, 축복받은 자녀들의 마음을 잘 돌보아,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과 정의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하라.

69. 이 시대에 내 말씀이 너희에게 다시 빛을 비추리라. 내가 너희가 순결하고 고상해지도록 내 은총을 풍성히 부어 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시 죄에 빠진다면, 백성아, 너희를 내 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비록 이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너희 스스로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임을 깨달아라. 그러나 나의 용서와 사랑은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이를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린 문과 같다.

70.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시대의 사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나의 충실한 종들이 되게 하였다. 너희가 마음속에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 축복받은 자녀들아. 사람이나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택하고 내 은총으로 입혀, 너희가 일어나 모든 시대에 영성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그들이 세상의 혼란과 광신에서 돌아서게 하려 함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영성으로 가득 찬 너희의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나의 참된 가르침을 보여 주라.

71.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너희 양심을 통해 내 목소리를 듣고, 영적인 귀로 하늘의 선물을 들어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과 영이 기뻐하고 평화를 느끼게 하라. 나는 평화 그 자체이며, 너희가 그 평화 안에서 살도록 초대하노라. 나는 인류를 향해 언제나 품어 온 사랑을 너희에게 드러내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2의 시대’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랑을 가르치며, 너희의 영과 마음에 참된 가르침을 심어 주기 위해 그 가장 소중한 피를 흘리신 이유이다.”

72. 사랑하는 백성아: 네 길에서 시련과 고통이 클 때면,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참된 기도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힘을 얻고 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84

1. 백성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건네주시는 영생의 빵을 먹으라. 내 말씀을 잘 활용하라. 너희는 이 형태로 전해지는 나의 계시가 끝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현재 모든

영혼과 모든 이성 속에 쏟아 부으시는 빛으로 너희 영혼이 온전히 깨어나게 하라.

2. 내 영의 빛의 불꽃, 곧 신성한 말씀의 반영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내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대변자의 영 위에 내려오는 것이다. 어떤 인간의 대변자가 “말씀”의 온전한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아직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3. “말씀”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대변자는 이 모든 것 중에서 단 한 원자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빛줄기 속에서, 그 본질 속에서 너희는 무한한 것,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해 말하기 위해, 나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도, 작고 제한된 표현을 통해서도 이를 행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에 있으며, 모든 것이 나를 말해 줍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똑같이 완전합니다. 사람은 단지 관찰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4. 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지상에 보내진 너희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 이는 나중에 그 영혼이 사랑과 자비의 행실을 통해 인류에게 나의 가르침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불멸의 본질과 성질을 지닌 너희의 영적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 영혼에게, 이 세상에서 지탱해 주던 육신을 땅에 맡긴 후 맞이하게 될 그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해방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축복하고 시선을 무한으로 향하며, 높이 날아올라 자신의 공로로 얻은 고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법칙을 따를 줄 알도록 세속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하되, 그러나 높은 영적 세계에서 거하는 고귀한 목표를 항상 간직하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육신의 껍질을 벗을 때 동요하지도 않고, 이 행성에서 사랑했던 것들에 유혹되어 이끌리지도 않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혼은 더 이상 속하지도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누릴 수 없는 세상에 묶여 쇠사슬에 얽매인 채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한 민족이 나서서 모두 진리의 길을 가르친다면, 인류는 그 길을 따라 일어설 것이다. 인류는 자신이 발자취를 잃었고, 길에서 벗어나 고통받고, 비틀거리며, 절망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7. 인류는 형제이자 친구이며 조연자인 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분은 구원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8.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 혼란은 아버지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주셨던 계시를 외면한 탓에 깊고도 심각하다. 그들은 물질주의적 과학에 몰두하면서 자신과 삶의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9. 내가 너희를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으로 보내어, 내 가르침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증언이 진실하다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인도자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목소리에 이끌리는 백성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발걸음과 행적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진실로, 이 사람들이 전하는 바는 참되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10. 너희가 세상에 경종을 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내 망토가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너희를 가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불완전함은 의심과 조롱, 박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너희의 연약함은 원수들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준비하라. 싸움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며, 내가 내 망토를 걷어내어 세상이 너희를 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1. 모든 “일꾼”은 입술에 내 말씀의 불꽃을 머금고, 손에는 내 신성한 가르침을 상기시켜 줄 내 지혜의 책을 쥐고 있을 것이다. 나를 통해 영감을 받은 그 책은 내 제자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편찬될 것이며, 그 힘은 위대할 것이므로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견고한 보루를 갖게 될 것이다.

12.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흘러나올 것인가! 얼마나 많은 치유와 위안이 사람들의 마음에 쏟아질 것인가! 이는 언젠가 나의 말씀을 발견했으나 그 후로는 더 이상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13. 그것을 읽음으로써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며, 길을 잃은 자들은 올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맡겨진 이 책의 진리를 지키며, 이 시대에 나의 계시를 증언하라.

14. 이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 나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게서 받은 가르침에 대해 묻는다면 — 너희는 나에게 어떤 대답을 하겠느냐?

15. 너희는 침묵하고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는 너희의 일이 나에게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왜 두려워하는가? 너희가 사명을 다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며, 반대로 실수를 저질렀다면, 내가 직접 너희를 바로잡아 주는 편이 낫다.

16. 이름뿐 아니라 행실로 영성주의자가 되려는 의지를 가져라. 세상은 거짓 추종자들과 거짓 제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영성화를 기치로 삼고 빛과 사랑을 무기로 삼는 가르침을 마음에 품었다면, 너희는 세상에 이러한 미덕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수확을 받아 주시기를 원한다면 뿌려야 할 유일한 씨앗이어야 한다.

17. 제2시대에 나를 따랐던 이들을 본보기로 삼으라 — 단지 나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들의 행실과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 나의 진리를 증언했던 수많은 남녀들의 모범을 따르라.

18. 지극한 순결과 지극한 진실함이 바로 그 마음들의 열망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실에서 스승께서 가르침을 빛나게 하셨던 그 빛이 비추도록 신경을 썼다.

19.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자들도 그들을 무기력함에서 끌어내어 준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진 그 이름을 공경해야 한다.

20. 너희가 내 사역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참된 제자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좋은 열매는 지체 없이 맺어질 것이며, 그 열매는 갱신과 양심의 빛 속에서 선으로의 회귀, 건강, 화해, 그리고 평화의 열매가 될 것이다.

반면, 진리를 가리기 위해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려 하고, 내 사역을 통해 너희의 불완전함과 약점을 숨기려 한다면, 너희는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해 냈던 어둠과 더러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21. 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빛이자 힘으로, 너희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다. 나의 말씀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의 빛이다.

22. 너희는 영혼으로 나를 경청하여 영혼이 양분을 얻고 이 가르침의 의미를 활용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을 정화하고, 이성을 맑게 하며, 양심이 너희를 인도하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존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말이다. 영혼이 깨달음을 통해 점차 얻어가는 그

고양감, 서서히 도달하는 그 순수함은 마음의 감정과 육체의 건강에 반영될 것이다.

23. 정욕은 점점 약해지고, 악덕은 서서히 사라지며, 광신과 무지는 내 율법 속의 참된 믿음과 깊은 깨달음 앞에 점점 더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24. 만일 너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고, 너희의 말이 설득력을 발휘하여 깊은 감동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 청중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 말이 동료 인간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들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깨우칠 수 있을까? 매우 간단하다. 그 비결은 너희가 항상 진리를 고수하고 사랑의 행실로 증언하는 데 있다.

25. 나의 아버지 영이 너희에게 다가와 가르치고 “다듬어” 주시며, 너희의 영적·육체적 감각을 일깨우고, 갱신과 율법 준수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려 한다.

26. 나는 너희가 일어나, 이 생과 너희를 기다리는 내세에서 너희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음을 알게 하려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27. 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 곧 내 말씀이 발산한 빛으로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서 순종하는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28. 오늘, 너희가 오류와 혼란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법에 따라 살도록 이끌었다. 그러면 너희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너희를 인류에게 보내어, 내 가르침을 분열시키고 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모든 이들에게 내 빛을 보여 주게 할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보는 모든 차이점은 사라질 것이며, 사람의 마음은 변화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일에서 거둔 수확이 그에게 씹쓸한 맛만을 남겼을 때, 그는 에서 정화된 땅에 나의 씨앗을 뿌리고 가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성화가 시작될 때이다.

29. “일꾼”으로서 너희 삶에서 겪는 모든 시련은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닦칠 것이다. 단지 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데 그친다면, 너희는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말하고, 너희의 행실로 그 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침으로써 나의 가르침을 증언할 것이나, 나는 여러분에게 피의 제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

곧 너희는 굶주린 늑대들 사이의 양처럼 인류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너희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한 등불이 끊임없이 너희의 길을 비출 것이며, 가장 어두운 밤에도 이 빛은 빛날 것이다.

30. 나는 영적 지식에 있어 잠들어 있는 인간을 발견했다. 그는 물질적 과학에 몰두하여 자연의 가장 큰 비밀들을 밝혀냈으나, 자신의 영적 영혼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았다. 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는가! 나의 사역은 이 인류에게 수정처럼 맑은 물줄기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며, 그들의 지식에 대한 갈망은 채워질 것이며, 준비하는 모든 이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31. 나를 듣는 너희여 - 깨어 있으라. 내 가르침에 어떤 외부의 영향도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본질과 진리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 인류가, 나의 선한 제자들의 행적을 알게 될 때 내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의 왕국이 오기를 갈망하는 너희 모두여, 기도를 통해 이러한 미덕을 끌어당기라. 그 때가 가까웠다. 너희가 나의 신성 외에는 다른 지도자가 없을 그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너희 이웃들을 바로잡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라.

32. 나의 영감이 모든 영혼에게 내려오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고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일어나 내게로 오라. 너희의 영이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려 줄 것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완전해지는 계단을 보게 될 것이다.

33. 너희 가정을 부모가 나를 대변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너희의 예배가 되는 낙원으로 만드라. 그러나 이 사랑을 가족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너희가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

34. 나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 사랑과 존중에 기초한 공정한 법을 제정한다. 14만 4천 명의 영혼이 준비되었다. 어떤 이들은 영계에 있고, 육신을 입은 다른 이들은 내가 온 세상에 흩어 놓았으니, 때가 되면 그들이 풍성한 영감을 얻고, 내가 그들의 입을 통해 말하며, 나의 말씀이 배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5. 엘리야는 모든 이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2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너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도다! 내 왕국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왔느니라. 이번 시대에도 너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느니라.

36.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려는 욕망을 품지 말라. 눈에 띄지 않게 너희의 길을 가되,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향한 큰 사랑을 품으라.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며, 너희 마음이 방주와 같도록 하고, 그 안에서 병든 자와 죄인들, 곧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진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모든 이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표로 영성화를 보여주라. 그러면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이번에도 다시 멀리 떨어져, 이 시기에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 후, 시련과 사건들이 나의 모든 계시를 말해 줄 것이다. 그때 어떤 이들은 회개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계속해서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다.

37. 나는 모든 직책을 맡은 자들—통치자, 교사, 판사—를 축복한다. 깨달음을 얻고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38. 이리 와서 내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이 시대에 내 계시를 전하기 위해 가장 부적합한 수단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진보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9. 내가 인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너희의 영과 이성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너희 영혼이 이론 발전의 수준을 짐작하게 하지 않는가?

40. 영적 소통의 시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작되어야만 했으며, 그 방식은 1866년부터 너희가 경험해 온 것이었고, 1950년에 끝나야만 영혼과 영혼 간의 직접적인 대화에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41. 내 뜻에 따라, 대변자들을 통한 나의 계시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 백성에게 이 진리를 증언하고 전파하며 세상에 “제3의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규범, 법, 그리고 기초가 될 짧은 준비 단계여야 한다.

42.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가 번개처럼 덧없이 지나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계시에 참석하여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은 것은 오직 몇몇 집단뿐이라는 것도 예정되어 있었다.

43. 반면, 영과 영 사이의 대화는 시간적 제한 없이 온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니, 나를 찾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느끼는 이 방식은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이다.

44. 내 말씀을 듣고 내 가르침을 모아 온 이 백성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영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너희가 나중에 연구할 수 있도록 내 대변자들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내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이 준비 단계에서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45. 오,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 주님과 조화를 이루도록 준비하라. 보라, 나는 내 몫을 다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 온 인류를 준비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현재 스스로 정화되고 있다. 가장 크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는 영적 세계는 나의 사역을 돕고 나의 뜻을 따르고 있으니, 나는 너희가 깨달은 사람들, 내 말씀의 충실한 증인들, 영적 빛의 씨 뿌리는 자들로 이루어진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의 사역은 세상을 깨우고, 그들에게 증언하며, 경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6. 여섯 번째 봉인이 풀려, 지상에서 영성화의 길을 닦는 너희에게 그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이 한 번 끝나더라도, 그 빛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쏟아질 것이다.

47. 여섯 번째 봉인은 미래의 인류에게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너희를 지혜의 보물을 상속받을 자들로 삼았음을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위대한 계시들이 될 것이다.

48. 여섯 번째 봉인이 열렸으니, 아무도 그것을 다시 봉인하거나 그 빛이 영혼들에게 닿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니, 마치 아무도 시간의 흐름을 멈추거나 왕성의 빛이 너희 세상에 닿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49. 너희 영혼들이 그 책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동안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지식의 책’ — 내가 그것을 열었으며, 너희 스승이시며 어린 양이신 분의 사랑이 그것을 펼쳐 놓았으니, 그분의 빛은 지상의 많은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강렬하게 비추고 있다.

50. 머지않아 직관력 있는 자들, 영감을 받은 자들,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이 일어나 각 나라에서 그들이 영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받아들이는 바를 증언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내 백성은 이 대변자들을 통해 나를 들은 자들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나는 나중에 씨 뿌리는 자들이 와야 할 길을 준비하고 밭을 갈아엎기 위해 내 종들을 지구의 여러 곳으로 보냈노라.

51. 나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축복하노니, 그들의 하루 일과가 고통스럽고 그들의 길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조롱과 비웃음, 중상모략과 비열함이 어디를 가나 그들을 따라다닌다. 그러나 그들은 — 예감을 품고 영감을 받아 — 자신들이 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으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길의 끝까지 나아가기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52.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사명을 완수하고 너희를 위해 길을 닦기 위해 애쓰는 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은 너희가 오랫동안 들어온 이 말씀의 신성한 격려를 세상에서 받지 못했으며, 영적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영감을 받기 위해 세상의 많은 안락함을 희생해야만 했다.

53. 너희는 모든 교훈을 수천 번이나 들었다. 만약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 오신다면,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반항이나 저항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통해 정화되고, 서로 섬김으로써 새롭게 되어 고통을 통한 정화를 피하도록 가르쳤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4. 어떤 이들은 내 말씀이 사랑이 담긴 정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혹하고 매섭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는 법을 알지 못했고,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를 심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5. 너희가 불순종과 신성 모독, 허영심, 그리고 이웃 사랑이 부족했던 결과로 인해 — 내가 너희에게 제안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 고통의 잔을 비워야 할 때, 너희는 확신에 차서 외칠 것이다. “스승님의 책망에는 진리와 정의가 담겨 있었다!”

56. 나는 너희 공동체로 이루어진 모든 인류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사명을 너희에게 맡겼으나, 너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의 공의를 의심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너희가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나, 지금까지 너희는 이를 실천할 마음을 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 정의가 너희를 깨우고, 정화하며, 하나로 뭉치게 하기를 원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는 백성아, 비록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불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 진리를 증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7. 마찬가지로, 나쁜 글들도 증거로 남아서서는 안 된다. 거짓과 불완전함이 섞인 증거는 불태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럽혀지거나 부정된 것은 내게로 오지 못하며,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내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먼저 너희는 씨앗을 꼼꼼히 깨끗이 씻어낸 뒤에야 비로소 뿌려야 한다.

58.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은 쓴맛이 나는 잔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씻어 더 큰 순결을 얻고, 너희 영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수정처럼 맑은 물의 샘이다.

59.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힘을 더 얻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85

1.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 속에 이 평화를 품은 자는 내 임재를 느낄 것이다.

2. 이 가르침의 시기에 너희는 시련 속에서 나의 평화를 느꼈고, 고통 속에서 위로를 얻었다. 이와 같이 나는 너희에게, 선한 뜻으로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일에서 전진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는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이지는 않을 것이다.

3. 때때로 너희는 내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주님, 우리가 다른 민족들만큼이나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여러분을 위협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맡겨 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영적 준비에 활용해야 할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

4. 이 시간을 너희와 이웃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주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너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할 모든 점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희 삶의 다양한 행동에 내 가르침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인류가 처한 상황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전쟁으로 인해 서로를 파괴하고 있는 나라들의 고통을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공덕을 쌓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보내 주십시오.

6. 지금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위협하는 것이 재앙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내가 말하건대, 여러분이 종종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은 선한 것입니다.

7. 고통과 비참함, 심지어 죽음조차도 방종하게 살며 끝없이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의 문 앞에 축복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8. 아, 여러분이 육신의 껍데기를 덮치는 고통이 영혼에게는 치유제이자 안도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하고 안녕을 누리던 동안, 영혼은 종종 파멸로 끌려가곤 했거나, 즐거움과 억제되지 않은 정욕으로 가득하지만 영혼을 비추는 빛이 없는 삶 속에서 갇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다 고통이 인간의 정욕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다가와, 맹목적으로 달려가던 사람을 멈추게 하고, 영혼이 해방되도록 하며, 그 고통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지혜로운 정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9. 어떤 이들은 곧 이 깨달음에 이르러 많은 고통을 피하지만, 다른 이들은 고집이 세고 이해가 더뎌 결국 신성모독과 저주를 퍼붓고, 그로 인해 고통의 잔을 더욱 깊게 채우게 된다.

10. 백성들아,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고통받는 민족들이 그 고통 속에서 정화되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너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이 고통이 그들을 정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의 기도와 생각이 그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야만 그들이 고통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개선에 대한 결심과 형제애로 이끄는 영감이 솟아날 수 있다.

11. 너희가 바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영혼이 해방되어 평화의 비둘기, 건강과 빛의 사자로 그들에게 다다르게 하리라.

12. 너희 마음은 이러한 승리들로 인해 교만해질 수 없을 것이니, 너희가 영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오직 나만이 너희 공로록에 차례로 기록되는 이 일들을 알고 있다. 그 공로록은 점차 너희 영혼에 새겨지고 있다.

14. 너희는 중대한 사건들 앞에 서 있다. 인류가 어떤 사건이나 시련, 혹은 징조로 인해 뒤흔들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나에게로 돌리도록 촉구하는, 나의 정의가 끊임없이 내뿜는 목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 시련의 날들에 직관이 깨어나고, 깊이 생각하여 이러한 시련들을 신성한 정의의 소행으로 돌린다는 결론에 이르는 모든 이들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영적 무기력함으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15. 인류여, 나의 정의가 임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을 꺾어, 그가 자신의 악함과 물질주의 속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깨닫게 할 것이다.

16. 그렇다, 백성아, 나는 그릇된 위대함에 빠져 있는 인간을 꺾어 버리리라. 이는 내가 그로 하여금 나의 빛을 보고 일어나, 진정으로 위대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빛과 너그러움, 선함, 힘, 그리고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17. 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 것이니, 이는 태초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이며, 내가 제자들에게 계시했던 바와 같다.

18. 이제야말로 내가 영 안에서 재림을 약속했던 그 때가 왔다. 너희가 내 안과 밖에서 내 임재를 느끼게 될 때이며, 영과 영으로 나와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될 때이다.

19. 나는 현재 겉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천민도, 비참한 자도, 정신적으로 약한 자도 없는 백성을 길러내고 있다. 나는 각자에게 그만의 은사를 드러내어, 그가 내 제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길을 떠나게 한다.

20. 나의 새로운 백성은 예언자, 조언자, 교사, 영혼의 의사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21. 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의 불꽃을 지피는 산들바람처럼 이 마음들에 닿는다. 이는 내가 그들을 언제나 등불처럼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22. 제2시대의 내 말씀은 내 행적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으며, 오늘날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져다주었다. 너희는 영적 세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너희가 그토록 멀고 불확실하다고 여겼던 그 세계의 가까움을 느끼지 못했느냐?

23. 너희의 영적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빛과 사랑으로 너희 곁에 나타났는지 깨달아라.

24. 너희는 그 빛의 영들, 즉 수호천사와 평화의 수호자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더 높은 저 세상에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25. 그렇습니다, 인류여, 그들은 여러분이 완전함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이 사는 곳보다 더 높은 고향과 세계에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른 지구 세계에 거주하며, 마찬가지로 더 높은 깨달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26. 만일 누군가 이 강의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지는 나의 가르침을 나쁘다고 여긴다면, 나는 진실로 그에게 말하노니,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신성한 스승도 알지 못한다고. 너희는 그 존재들과 세계들의 영적 근접성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모든 이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려는 신성한 계획을 짐작하지 못하느냐?

27. 내가 너희에게 이 계시들을 주는 것은, 너희가 지상에서 오랫동안 물질적 삶의 향상에 몰두해 왔던 것처럼, 이제 너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8. 영적 세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그것은 영혼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니, 영혼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잘못을 속죄하며,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 한마디로 말해, 아버지께 다가감으로써 —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29. 성령의 계시 시대인 이 제3의 시대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깨달으십시오.

30. 오직 이 가르침만이 인간을 정욕과 탐욕, 교활함, 오만, 그리고 불의한 음모로 뒤얽힌 격동하고 거친 바다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정욕의 바다에서 전복된 난파자들을 구하기 위한 구명정으로서 찾아왔다.

31. 제자들아, 내가 내 말씀을 너희에게 말기니,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나를 느껴라. 내일 이 목소리의 전달자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사명은 변할 것이며, 오직 내 뜻에 따라 황금 붓들이 기록한 그 글들에 담긴 내 말씀만이 남을 것이다.

32. 제자들아, 이 계시를 통해 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제 인간의 악으로 인해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시기가 왔음을 또한 깨달아야 한다.

33. 영혼에 양식을 주는 음식이 차려진 주님의 식탁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가 서둘러 찾아온다면,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지만, 초대받은 모든 이가 온 것은 아니다.

34.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너희가 그들에게 부르심을 전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너희를 외면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35.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식탁에 앉아 내게서 배우기 위해 끈기 있게 내 말씀을 경청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재건하고 더 빛나고 높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부르는 이 가르침의 진의와 내 말씀의 위대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36. 너희가 대변자들을 통해 더 순수한 말씀과 더 순수한 선포를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영성화와 소박함을 권고하였다. 그러면 그들의 입술에서 사랑이 넘치고 내용이 풍부한 말씀이 마치 익은 열매처럼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37. 내 말씀의 진리와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것은 형식의 단순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군중의 감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겉으로만 인상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 나는 너희가 내 가르침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행실에는 오직 진실함만이 지배해야 한다고 말한다.

38. 비록 그 신비들이 너희에게 미지의 세계가 주는 매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너희 영혼을 신비로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39. 왜 너희는 동료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겉치레로 감동을 주려 하는가? 왜 겉보기에는 초자연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실상은 빛도 진리도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가? 내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이 충분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너희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경이로워 보이지 않는가?

40.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얼마나 감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러나 너희는 내 계시가 내 것이기에 그토록 소박하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그 계시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마치 거칠고 투박한 베일처럼 주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을.

41. 이 사역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과 너희가 행할 일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내 법에 어긋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42. 순종하는 제자라고 자처하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 채 — 내 뜻에 반항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성주의의 사도라고 자처하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의 행실로 인해 오히려 그것을 가장 먼저 거부하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설교하는 교리의 적이 되고 있는지.

43.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자기 통제와 그의 능력 및 영적 은사의 발현을 기대한다. 인간의 지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깨달아라. 영혼에 관해 말하자면, 영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발전에 대한 그 갈망은 마치 본능과 같아서, 신성한 법칙이 제시한 길을 따라 완전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도록 이끍니다.

44. 제자들아,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너희는 단순함과 순수함의 길에서 영성을 추구해야 하며, 너희가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감정적 기대를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너희가 나로부터 듣는 말을 믿고, 내가 현재 너희에게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느끼며 불필요한 복잡함을 버리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45. 내 말씀이 선포하고 표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의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내 계시를 믿기 위해 비범한 사건들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바다가 갈라져 그 심연을 드러내기를 기대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내렸다”고 말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왜 그런 사건들에 공포를 느끼느냐? 평화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런 사건들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냐?

46. 그렇다면 이 시기에 나의 작별이 신성한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47. 차라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인류를 전율하게 하는 믿음의 불꽃이 되어,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새벽의 빛을 보게 하기를 바라라.

48. 나는 너희가 모든 것에서 신성한 자비의 표현을 찾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영적인 이 신성한 사랑을 발견하기에는 미숙하므로, 너희를 둘러싼 자연을 바라보아라. 그 자연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창조주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에게 말해 주고 있다. 때로 이 자연이 너희에게 가혹하게 대한다고 느껴질 때, 그 자연 또한 너희와 마찬가지로 발전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피조물임을 알아두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걷는 길 위에 놓인 완성의 사다리를 오를수록, 자연은

점점 더 지적인 존재들과 영적으로 더 발전한 존재들을 위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9. 내 말씀이 글로 남도록 하라. 그래야 미래의 인류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을 예언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50. 백성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나태함을 극복하라. 위대해지고자 한다면 너희의 행위에 내 원칙을 적용하라. 서로를 알아가고자 한다면 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탐구하라.

51. 사랑과 지혜, 조연과 도움을 주는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아라. 그러나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라.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는 너희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을 갈망하고 목마르게 기다리는 이들이 많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2. 인내심을 가지고 고통의 잔을 비우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괴로움 속에서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은 너희로 하여금 양심의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나, 너희가 지고 온 그 짐—너희가 겪은 그 고통과 너희 눈에서 흘린 그 눈물들은, 내 발자취와 내 율법으로 제시된 생명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너희에게 말해야겠다. 너희가 걷고 있는 고난의 길은,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선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생명의 길에 이르기 위해 너희 영혼이 반드시 거쳐야 할 속죄와 정화의 길이다.

53. 이 모든 것을 명심하여,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섬기려면 먼저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정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라. 너희의 모범은 후세들이 깨끗하게 정돈된 길을 만나, 덩불 속에서 길을 잃거나 길가의 바위들에 다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4. 나는 너희 영성가들에게, 인류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쌓아 올린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맡긴다. 그 장벽은 잘못된 믿음, 영원에 대한 겉으로만 보이는 믿음, 물질주의, 그리고 불필요한 숭배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55. 백성아, 너희에게 나는, 비록 자신들이 우상 숭배와 이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 ‘황금 송아지’를 그 받침대에서 밀어내라는 사명을 부여한다.

5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투쟁에서 권력이나 폭력, 혹은 상처를 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무기는 진리를 드러내는 빛의 말씀이어야 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로 감싸는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하며, 너희의 기도와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힘이 되어야 한다.

57. 사람들을 영적 길에서 벗어나게 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너희는 인간 삶에 매우 큰 변화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영적 영역, 도덕, 과학, 제도, 그리고 너희의 통치 형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58. 제3의 시대에 이 백성이 남긴 발자취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을 것이니, 그들의 행적 속에 내 진리의 힘이 깃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9. 고통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정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여러분의 사명은 내가 정해 놓았습니다.

60. 나는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죽음’을 뜯어내어, 너희를 생명으로 채워 주었다.

61. 그 죽음은 너희 안에 있었는데, 이는 너희 영혼 속의 믿음과 희망이 꺼져 있었고, 깨달음의 빛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앞에 생명나무를 세웠으니, 그 열매는 풍성한 영양과 천상의 맛, 그리고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어, 듣는 자들의 무리를 향해 풍성하게 쏟아져 내려 그들의 영적 결핍을 해소해 줄 것이다.

62. 나는 지금 너희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고 있다. 그곳에서는 나의 임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고, 내 목소리의 음색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으며, 온 인류를 위한 빛과 평화가 그곳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63. 초기에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그 위대한 성소의 기초를 계시해 주었다. 내가 스승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시절, 나는 너희에게 그 높은 성벽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를 계시해 주노니, 그 일이 일단 완성되면 너희 아버지의 임재에 합당할 것이다.

64. 내가 성령의 성전을 세우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주었던 이 세 가지 교훈 각각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백성아, 너희는 모두 내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하며 진리에 다가서고 있으니 축복받으라. 성소의 기초는 초기의 법이 가르쳤던 바로 그것이었다.

높은 성벽은 메시아께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신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이 건축물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했던 돔과 기둥, 제단은, 이 시대에 내 영이 빛의 메시지를 통해 너희에게 영감을 준 지혜와 영성화, 그리고 고양입니다.

65. 내가 세 시대에 걸쳐 세운 이 성전은, 내가 불신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말했을 때 언급했던 바로 그 성전이다.

66. 내 성전은 곧 완성될 것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기초 벽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내 사랑과 영성화의 법칙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성전도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67. 이 시대의 광채가 얼마나 큰지 보라. 내가 주신 모든 예언과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들이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의 빛을 보라.

68. 진리를 찾아 내게로 오기 위해 너희는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가! 과학도 철학도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했고, 너희의 탐구 끝에 너희는 이 진리가 내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나를 통해 모든 존재에게 퍼져 나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69. 나는 인간이 참된 삶을 살고, 내가 그에게 정해 놓은 축복받은 운명을 깨닫도록 그를 깨우쳐 주었다. 그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며, 따라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그는 내 영의 숨결을 지니고 있어, 그로 인해 나와 유사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 너희는 지성을 발휘하여 행동하고, 내 목소리인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며, 이를 통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분별하고,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의지와 자유 의지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지상에서 삶을 시작한 첫날부터 물질주의에 치우치고, 너희 존재의 주된 이유인 영적 사명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71.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평화와 영적 행복으로 이끄는 나의 계명을 남겼으며, 훗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드러내 보였노라.

72. 이 시대에 나는 엄격한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했으나, 너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사랑은 인내와 너그러움이며, 오직 선만을 원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그 선을 쏟아붓는 사랑이다.

만약 너희가 마땅히 나의 자녀라고 자칭하고 싶다면, 사랑하라. 너희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 신성한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너희에게 드릴 수 있도록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보호하며, 축복해야 하는 너희의 소명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나에게로 돌아와 나와 함께 하나의 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73. 아주 초창기부터 나는 너희에게 영적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며, 이 세상에서 덕을 갖춘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대변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형식적인 의식이나 숭배를 가르치지 않았으며, 오직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영혼을 높이 들어 올리고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거기서부터 너희가 간구하는 모든 은사와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74. 그 당시 나는 너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으니, 죽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창조물 속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가고, 자라나며, 완성되어 간다. 육체의 죽음은 단지 영혼이 겪는 한 시기의 끝일 뿐이며, 그 후 영혼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발전의 길을 이어간다. 믿고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너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너희는 시련과 어려움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정화해야 할 자연의 힘들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며, 인간을 이성과 선, 정의로 되돌려 놓을 때까지 그 힘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75. 교만을 떨쳐 버리고 겸손과 소박함이 꽃피게 하여, 반드시 닥칠 모든 시련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라. 너희가 순수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오늘, 너희는 또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영적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으니, 과거에 내가 했던 말씀들과 오늘 너희에게 주는 말씀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6. 내 가장 깊은 뜻을 알고자 하지 마라. 너희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전지전능하며, 내 영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동시에 모든 영혼 안에 거하며, 내가 모든 이를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베풀어 이 빛이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주게 한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

77. 나는 너희가 겪는 모든 것과 바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너희의 고통을 느낀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힘을 활용하기만 하면, 너희의 시련은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하노라.

78. 이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받은 너희는 깨어 있고 준비해야 한다. 1950년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너희의 동료 인간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란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고 사방에서 탄식이 들릴 때, 발이 갈아엎어진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9. 나는 이 시기에 너희에게 지극히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을 지닌 영적 존재들의 현존을 특권으로 허락해 주었다. 나의 광선을 통해 인간과 연결된 나의 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너희를 돕기 위해 찾아왔으며, 이를 통해 매우 고귀한 사명을 완수했다. 많은 이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존재들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머무름으로써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그 세계를 이 세상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게 하여, 언약을 맺고 너희를 덕의 길로 끌어올렸는지!

80. 그들의 계시를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은 너희는 — 사랑으로 그들에게 봉사하고 준비하라. 너희는 그들의 영이 발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들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나와 영적 세계가 인류를 위해 가져온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81.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찾던 진리를, 나는 이 소박하고 단순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알려 준다. 나는 사랑 그 자체인 이 진리를 너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너희가 영원히 이를 소유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느끼고, 너희 영혼 속에 소중히 간직하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양식을 얻게 될 신성한 정수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86

1. 나의 신성한 빛은 온 곳에 비추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나는 모든 자녀들 사이에서, 지구에 거주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사는 자들 사이에서도 조화가 깃들도록 노력하는 아버지이다.
3. 모든 존재들 사이의 영적 조화는 그들에게 위대한 깨달음을 드러내 줄 것이며,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는 거리를 좁히고, 멀리 있는 이들을 가까이 하며, 대립과 경계를 없애 줄 것입니다.
4. 나는 너희가 지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인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5. 제자들아,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영적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승화를 위해 내가 준비해 둔 모든 것을 발견할 수도 없을 것이다.
6. 사랑과 자비, 고귀함의 행실로 공덕을 쌓아, 내 비밀 보물창고의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추라.
7. 영이 이성을 이끌어야 하며, 오직 인간적인 위대함을 갈망하는 마음에만 이끌리는 이성이 너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라: 만일 너희가 뇌가 명령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려 한다면, 뇌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뇌의 미약한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왜 선을 행하도록 영감을 받았는지, 왜 너희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불타오르는지 알고 싶다면, 너희의 마음과 이성의 힘 이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능력 앞에 놀라게 될 것이다.
8.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야망과 그토록 조금만 경의를 표하며 사랑과 겸손함으로 나에게 묻는다면 — 그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지식을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실 때, 얼마나 단순하고 수월하게 그 응답을 받게 될지.
9. 너희가 나에게 묻거나 간구할 때, 너희의 문제를 나에게 명확히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또한 너희의 이성으로 가장 잘 표현된 문장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마라. 그 순간 너희의 마음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마음과 뜻이 순수하여 내 영감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나에게서는 충분하다. 너희 내면에서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나에게 훌륭한 말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0.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11. 너희는 기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나에게 묻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대답하노라. 너희의 영혼이 자유롭게 아버지께로 솟아오르게 허용하는 것; 완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행위에 온전히 맡기는 것; 마음과 이성으로 성령을 통해 받아들여진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 참된 겸손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매 순간 내 현존을 누리며,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12.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종종 사람들에게 다가가곤 했으나, 이제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내게 다가올 때이다. 그들은 영적 성장이 그들을 아버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13. 이 '제3의 시대'는 부활의 시대이다. 영혼들은 죽은 자와 같았고, 육신은 무덤과 같았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스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빛과 자유로 일어나라!" 그들 중 진리의 눈을 뜨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과 행실,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유배지나 눈물과 속죄의 골짜기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의 평화가 주는 참된 평화의 기쁨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에서 누리는 그 고양된 상태는, 영혼이 더 나은 세상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와 빛의 반영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나 자신이 그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공로에 걸맞은 안식처를 선사할 것이다.

14. 이 은총의 날에, 너희는 엘리야가 로케 로하스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신성한 스승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상기시키며, 너희에게 기도와 갱신을 촉구했던 그날을 기념한다.

15. 모세는 백성을 시나이 산 기슭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정화하게 하여, 그의 주님이신 여호와와 임재를 기다리게 하였다.

16. 모세는 영성화의 선구자이자, 여호와와 길을 닦은 자이며, 율법을 제정한 자였습니다. 그가 율법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던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해 왔으며, 여러분이 지금 로케 로하스를 통해 모세의 유언과 예수의 유산, 엘리야의 메시지가 하나의 책, 즉 '진리와 생명의 책'을 이룰 것임을 계시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17. 모세가 여호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오늘날 엘리야가 너희로 하여금 신성한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었듯이, 요한, 즉 세례 요한으로 환생한 바로 그 엘리야가 군중들에게 회개와 기도를 권면하며,

하늘나라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선포한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과 내 교훈 속에는 아버지의 임재와 하늘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18. 그리스도는 완전함의 현현이시니, 그분 안에서 너희는 영원한 율법을 엿볼 수 있고,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며, 절대적인 지혜를 경탄할 수 있다.

19. 예수께서는 그분의 삶으로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밝히셨으며, 훗날 위로자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중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너희에게 알려 주셨다.

20.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를 아우르시며,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시기에 모든 시대에 존재하십니다.

21. 엘리야는 길을 닦는 자요, 비밀을 설명하는 자이며, 여러분이 심오한 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는 모세가 시작한 인류의 영성화가 완성되는 시기에 보내진 영적 해방자입니다.

22. 축복받으라, 백성아. 너희는 제3시대의 도래를 기쁨으로 기념하며, 이 날을 그분을 기리는 날로 삼는다. 단순한 전통을 넘어, 이 날이 너희에게 성찰과 연구, 내적 침묵의 날이 되게 하라. 이 날, 너희가 걸어온 온 길 위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저울질하고 기록하시는 그 신성한 저울의 현존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23. 오늘 너희가 나로부터 듣고 깊이 성찰해야 할 내용들을 통해, 너희는 지식의 보물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투쟁의 때가 왔을 때, 너희가 ‘영성주의’라고 부른 이 가르침이 세워진 견고하고 영원한 기초가 무엇인지 설명할 논증이나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24. 너희는 영적 명료함이 강렬하게 빛나며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3의 시대의 여명을 보고 있다.

25.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거대한 투쟁과 격렬한 고통, 혼란과 갈등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평화의 결과로 영혼의 꽃피움이 올 것이며, 이는 믿음과 사랑, 영성화가 가득한 행실을 통해 영혼의 상향적 발전을 드러낼 것입니다.

26. 너희 중 많은 이들이 고통을 저주한 뒤 울면서 내게로 다가온다. 나는 너희의 실수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여 그것을 용서한다.

27. 너희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생명의 제자들아: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이 고통으로 꿰뚫리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동안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떨어져 홀로 머물러라. 거기, 너희 침실의 아늑한 공간에서 너희 영혼과 대화를 나누고, 마치 어떤 물건을 손에 들어 살펴보는 것처럼 너희의 고통을 직시하고 탐구하라. 이런 방식으로 너희의 슬픔을 탐구하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왜 찾아왔는지 깨달아라. 너희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찰을 통해 너희 마음은 빛과 평화의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28. 빛은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며, 평화는 시련이 끝날 때까지 인내할 힘을 줄 것이다.

29. 그러면 너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생각을 나에게로 돌릴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스승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불의는 제 운명 탓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불의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30. 제자들아, 너희는 이 가르침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성을 영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태도임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의 실제 상황과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것은 오직 영뿐이기 때문이다.

31.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관찰하여 자신을 깨닫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너희 존재의 핵심에서 삶의 위대한 교훈을 발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32.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고통을 저주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들은 그 고통을 높고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 준 스승으로 축복할 것이다.

33. 나는 항상 스승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삶의 길과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고통이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이 쓰라린 스승을 뒤로 하고, 사랑과 섬세함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34. 당분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견뎌내라. 그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의 오점을 씻어내고, 믿음과 덕과 인내 안에서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35. 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 없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 교훈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을 깊이 고려하셨으며, 사람에게 지혜로운 교훈을 남기지 않는 고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6. 사랑하는 백성들아, 더 이상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이 너희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상태로 맞이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라.

37. 너희가 더 이상 추측과 간접적인 진리에 의존하여 살지 않고, 현실의 세계로 승화될 때, 비록 너희의 발이 여전히 눈물과 고통의 세상의 흙 위를 걷고 있을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평화의 왕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38. 나를 듣는 백성아, 형제상쟁의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나라들의 처지와 삶을 너희의 상황과 삶과 비교해 본다면, 너희는 행복해야 마땅하다고 내가 말하노라.

39. 너희에게는 사랑이 있고, 빵이 부족하지 않으며, 지붕도 넉넉하고, 내 말씀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빵이 없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으며, 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희망이자 치유제이며 용기와 격려가 되는 내 말씀을 들을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들은 너희보다 더 온순하다.

40. 너희의 고통을 마치 기쁨인 양 축복하는 법을 배우라. 모든 것을 축복하라.

41. 내가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온 인류를 축복하지 않는가? 그 축복의 '망토'는 선하고 온유한 자들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과 범죄자들까지 감싸고 있다. 왜 나를 본보기로 삼지 않는가? 혹시 다른 이들의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가? 너희도 인류의 일부이며,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너희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웃에게서 보는 모든 것은, 너희 자신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 너희 영혼과 도덕적 모습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는 스스로를 판단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권리도 갖게 될 것이다.

42. 이웃에게서 결점을 찾지 마라. *너희*가 가진 결점만으로도 충분하다.

43.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라. 나의 가르침은 의인이나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그들에게는 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할 것이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에게 구원의 가르침을 주며, 그것을 죄 많은 입을 통해 전한다.

44. 인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다. 너희가 숨 쉬는 공기조차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자녀들의 거쳐이자 안식처가 되어 온 이 땅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이

땅을 훼손했다면, 그들 스스로가 이 땅에 저지른 마지막 죄악까지도 속죄해야 할 것이다.

45. 인류는 그들을 덮치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큰 가르침이 필요함을 깨달아라. 이제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예언자들이 예견했던 그 위대한 때가 왔으니, 그 때 사람들의 고통은 절정에 달할 것이며, 아버지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쏟아 부을 것이다. 바로 이 땅에서 악의 종말과 선의 시작을 알리는 그 때이다.

46. 오, 백성들아! 언제쯤 너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연고와 평화의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될 것인가? 나는 여전히 너희 마음속에서 참된 이웃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며,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매 순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47. 내가 원한다면 너희 각자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런 식으로 망신시킨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스승이 아닐 것이라고도 말하노라.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를 진정으로 알고, 너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심판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지도 않으신다면 — 그런데도 왜 어떤 이들은 고집스럽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행복감을 파괴하며, 타인의 삶을 판단하려 드는 것일까?

48. 오늘 너희는 아직 나의 어린 제자들일 뿐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웃에게 고통을 줄 수 없게 되고, 대신 모든 아픔을 달래주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제자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며, 내 사역을 맡기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쯤 너희는 마음속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느끼게 되어, *너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될까? 너희는 아직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베풀기에는 미숙하다. 너희의 연민도 크지 않고, 용서도 크지 않다.

49. 만약 여러분이 배수로에 쓰러져 있는 마비 환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집으로 데려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먼저 그의 삶을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가르침을 끊임없이 들어온 자들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오점을 보지 않고 오직 너희의 상처만을 찾아내어 내 사랑으로 치유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내 씨 뿌리는 자들 중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너희는 선함에 내재된 힘을 알고 소유해야 한다. 자비를 품은 그

힘과 마음이 일으키는 기적은 오로지 타인의 고통을 느끼거나 나누는 데에만 있다.

50.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로부터 받는 가르침은 수업이 거듭될수록 너희에게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 빛은 1866년에 빛의 불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나의 계시가 끝나는 이 마지막 몇 년 동안, 너희에게 전해지는 것은 불꽃이 아니라 총명한 빛 그 자체이다.

1950년이 되면 내 말씀의 계시는 이러한 형태로 끝날 것이나, 가르침은 계속될 것이다. 그 후 너희가 내 사역에 깊이 몰입하면,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말해 온 신성한 본질을 발견하고 그 맛을 즐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1. 나는 너희가 단지 나를 들었다는 것을 증언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예언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영성화의 시대를 알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미래의 세대들은 너희가 남긴 사랑과 선의의 발자취를 따라와, 확고한 발걸음으로 안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52. 너희는 현재 가는 길에서 가시덤불을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과 가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이웃 사랑이 너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내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53. 너희는 선과 빛, 진리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저항에 부딪혀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듯이, 어둠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니, 결국 빛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54. 인류는 현재 정화되고 있다. 고통의 잔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오점을 씻어내어,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거듭날 것이다. 평화와 정의의 영적 왕국이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55. 사람들을 움아매고 있는 광신과 우상 숭배의 족쇄가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훗날 내 빛이 말씀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너희는 그 말씀이 비록 소박하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떨게 할 것이며, 그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동일한 마음마저 뒤흔들어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맑은 물이 흘러나오게 할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56. 울지 마라, 제자들아. 너희는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너희의 고통 위에 내 말씀이 쏟아내는 꿀 몇 방울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동안 준비하여, 내가 떠난 후에도 내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라.

57. 지금은 성찰의 시간으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58. 때때로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주님, 누가 온 인류를 깨워 그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염려하지 말라. 내 영이 이미 그들이 깨어나도록 그들을 찾아가고 있다. 너희는 나의 일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에, 오직 나만이 보는 그 깨어남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59. 모든 이가 새로운 날의 빛, 더 나은 시대의 시작이 될 평화의 여명을 기다리고 있다. 억압받는 이들은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병든 이들은 건강과 힘, 삶의 기쁨을 되찾아 줄 치료제를 희망하고 있다.

60.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잃은 것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대를 축복하노니, 그것은 나를 믿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61. 오늘 너희는 나의 말씀 중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 내 가르침 하나하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62. 제2시대의 나의 사도들은 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 많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떠난 후, 그들이 연구와 묵상에 전념했을 때, 신성한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는 것을 느꼈고, 그때까지 그들에게 뚫을 수 없는 신비였던 모든 것을 지극히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63. 지금까지 너희는 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위로, 치유, 어루만짐이었다. 나중에, 너희의 궤양과 상처가 치유되고, 너희가 고통을 달래줄 나의 치유제를 갈망하기보다 이웃을 위로할 지혜를 추구하게 될 때, 비로소 너희는 내 가르침의 진의를 파헤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 될 것이다.

64. 내가 보기에 너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너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보를 받아들인다. 머지않아 너희가 그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 내 말씀의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87

1. 너희 양심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 영의 목소리는, 인류를 깨우쳐 주는 종소리와 같다.
2. 영적 지혜의 책은 펼쳐진 채로, 빛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군중과 거대한 순례 행렬이 그 책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3. 내 말씀을 맛보라, 맛보라. 그 본질에서 달콤함과 지혜, 치유와 평화가 흘러나오니.
4. 나는 인간에게, 그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자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본질적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낯선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시기에, 오랫동안 그에게 닫혀 있던 책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 한다. 그 책에는 모든 비밀이 간직되어 있으며, 나는 이미 제2의 시대에 내 영의 빛을 통해 너희에게 그 비밀들을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알아가고, 너희 영혼의 내면으로 들어갈 때가 왔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기원과 소명, 사명, 은사를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의 주변에서 살아 숨 쉬고 얹혀 있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 전체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웃을 모욕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동료 인간의 존재를 침해하지도 않을 것이며, 주변의 그 어떤 것도 모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 담겨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제서야 비로소 영혼이 경이롭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원 속에서 그 영혼을 위해 정하신 고향 또한 경이롭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7. 너희는 왜 내가 너희가 걸려 넘어지고, 오류를 범하고, 추락하는 일을 면하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영적 성숙과 발전이 부족했던 한, 너희는 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너희를 무궁무진한 지혜와 영원한 계시의 근원으로 인도해야 할 바른 길로서, 나의 율법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너희에게는 충분했다. 나의 지혜는 너무나 광대하여 너희가 한 순간에 깨달을 수 없었기에, 나는 시대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걸쳐 그것을 가르쳐 왔다.

8. 나는 생명이며, 권능이며, 정의이기에, 내 자녀 중 그 누구도 내 지혜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다. 너희의 영적 영혼은 나로부터 나왔으며, 너희의 발전의 길과 영적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생명 세계와 육체 또한 나로부터 나온다.

9. 사람은 넘어져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그로 인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아무도 죽지 않으며,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0.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들 중 오늘날 빛으로 가득 찬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죄와 악덕, 범죄의 오점을 흔적으로 남겼던 이들 중 이미 정화를 이룬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11. 너희는 내게 묻는다. “왜 그 길은 그리 멀고, 영혼의 여정은 시련으로 가득한가?” 그것은 영혼이 누리게 될 완전한 왕국에서 누릴 행복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며, 그 왕국은 영혼을 기다리고 있고, 영혼은 자신의 공덕을 통해 그곳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12. 최초의 인간들—인류의 조상들이었던 이들은 한동안 그들의 영혼이 ‘영적 계곡’에서 가져온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평화, 그리고 황홀함에 대한 인상으로, 그들의 삶에 육체의 정욕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 안에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 사람들의 영혼은 비록 빛의 세계에서 왔지만, 너희가 오직 공덕을 통해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향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첫발을 내딛을 때 간직했던 순수함, 평화, 안녕, 그리고 건강의 상태는 빛의 시대로서 잊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 증언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또 그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다.

13. 그 증언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한,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성결국은 결국 첫 인간들이 살았던 낙원이 지상의 낙원이었다고

믿게 되었으나, 그것이 바로 그 피조물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4. 너희는 지상으로 오기 위해 떠났던 영적 고향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스승님,” 너희는 내게 말하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15. 그렇다, 백성들아, 너희가 순결과 무죄함에서 멀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 그 평화로운 삶과 안녕의 상태를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았으니, 나를 향하는 자들을 약속된 왕국으로 이끄는 그 길은 너희에게도 열려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람들”이 떠났던 그 평화의 낙원이 아니라, 영의 무한한 세계, 지혜의 세계, 참된 영적 행복의 낙원, 사랑과 완전함의 천국이다.

16. 지구의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여행하기 위해,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높은 산과 낮은 산, 바다, 민족, 도시, 나라들을 가로질러야 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긴 여정을 거쳐야 하며, 그 긴 여정 속에서 영혼의 경험과 깨달음, 성숙과 발전을 얻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투쟁과 눈물을 흘린 끝에 마침내 누리게 될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것이다.

17. 제자여, 스승께로 오라. 양들아, 너희 목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18. 스승은 한 분이지만 제자는 많으나, 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이므로 모두를 위한 것이다.

19. 나는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찾고 있다. 나는 너희 영혼에 그토록 많은 은총과 은사를 담아 두었기에, 내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는 내 영의 일부이며, 내 본질의 일부이다 — 그토록 열정적이고 깊은 사랑으로 너희를 찾는 이가 어찌 악할 수 있겠느냐?

20.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내려올 때마다, 무리들 가운데서 “마지막 사람들”을 발견하곤 한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에게 가장 많이 묻는 이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항상 그들의 질문에 답해 준다. 오늘, 가장 늦게 온 이들이 내게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기에, 나는 그 의미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21. 태초에 그에게 생명의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면, 오늘날 그의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영의 빛 속에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고, 그의 경험이 매우 풍부해진 지금, 그는 다시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스럽지만 정의를 요구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번성하고, 번식하며, 땅을 정복하라.”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공로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22. 인간은 공로와 노력, 그리고 희생을 통해, 수많은 비밀을 깨닫고, 투쟁과 고통, 노동을 거쳐,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 떠났던 낙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는 떠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바로 그 낙원으로 말이다.

23. 깨달아라. 이 인류가 순수하고 고귀한 곳으로의 귀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투쟁과 격동, 그리고 혼란이 있을 것이다. 나의 명료하고 사랑 넘치며 설득력 있는 가르침은 세상에 귀환의 빛나는 길을 보여 줄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씩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시선을 높은 곳으로 향하며, 마음속에 믿음을 품고, 어깨에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다.

24. 문은 활짝 열려 있을 것이며,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영은 그 영혼을 신성한 품으로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니, 그 영혼은 다시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25. 오, 인간들아! 만일 본능만이 너희 삶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것이라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계시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본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힘들이 너희의 행동을 결정하며, 그 힘들은 영적 영혼 안에 있다.

26. 영혼은 구원을 얻기 위해 공덕을 쌓아야 하는 수단인 의지의 자유를 누립니다.

27. 영혼이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그로 인해 길을 잃지 않도록 자유로운 발전의 길에서 영혼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조언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심입니다.

28. 양심은 신성한 불꽃이며, 더 높은 빛이자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힘입니다. 만약 양심이 사람을 선한 길에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는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에게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조언하는 데 있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데에 공로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해하듯이, 그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으려면 훈련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 현재 이러한 순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29. 양심은 언제나 인간 안에서 드러나 왔으나, 인간은 자신의 온 삶을 그 빛에 따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발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법, 가르침, 규율, 종교, 그리고 조언이 필요하다.

30. 사람들이 자신의 영과 교감할 수 있게 되고, 외부에서 영적인 것을 찾기보다 내면에서 그것을 찾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온화하고 설득력 있으며 지혜롭고 공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목소리가 항상 그들 안에 살아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영 안에 하나님의 한 임재가 있으며, 그분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와 소통해야 할 진정한 중재자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31. 사람들이 영적 고양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갱신의 첫걸음은 자비이다. 영혼에 대한 자비, 육체에 대한 자비, 이웃에 대한 자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이 감정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았다. 자비는 너희가 행하는 특정 행동들에 붙이는 이름일 뿐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 본질에는 연민이나 곤경을 덜어주려는 진정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

32. 너희의 인간적인 감정은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행적을 자비의 생생하고 참된 본보기로 삼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33. 진정한 자비를 위선만을 담은 형식들로 가려버린 영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영혼이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무자비한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날, 그 깨달음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34. 사람들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족들이 화해하고, 통치자들이 합의하며, 전쟁이 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35. 사람들이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더 높은 이성의 목소리, 즉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정반대의 것을 명령한다는 것을 알기에 듣기 싫어하는 그 심판자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겠는가?

36. 게다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양심의 지시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너희는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도 순종적이고 기꺼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너희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실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가르침에 신성한 본질을 부여하며, 그리스도가 지극히 위대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이 완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스승처럼 위대해지려 하지 않으며, 그분을 진정으로 본보기로 삼아 그분께 나아오려는 이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단지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온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위대해지도록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7. 사람은 자신의 영적 본성을 알지 못한 채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8.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영원을 위한 공덕을 쌓는 데 바치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의 믿음은 전적으로 죽은 후 영혼이 내세로 간다는 사실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낭비한 시간을 모두 만회하고, 참회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오점을 지워버리려 한다.

39. 이는 슬픈 오해이다. 왜냐하면 과오들은 양심의 가책에 순종했고, 저지른 죄를 속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속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자들의 회개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순간에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는 극소수일 뿐이며,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처벌이나 심판, 혹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40. 내가 내 말씀을 통해 그러하듯이, 너희에게 상세히 말씀하시고, 너희를 준비시키며, 빛을 볼 수 있도록 너희의 눈을 열어 주는 가르침이 너희에게 부족한가?

41. 이 메시지를 지구 곳곳에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자비의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42. 영적 가르침이 마치 무지와 기만, 속임수에 기반을 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라. 내 가르침은 그 온전한 순수함과 숭고함 그대로 보여 주어,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자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막고 그로부터 모든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린 무지, 광신, 그리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내게 하라.

43. 너희는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머지않아 너희가 오직 영이 될 것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무지에 대한 책임이 항상 너희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너희를 이끄는 자들에게 있다.

44. 그들은 본질적인 가치들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진리가 진리와 모순된다고 믿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5. 너희는 때때로 물질적인 사물들을 마치 신성한 것처럼 대하지 않는가? 너희는 덧없는 재물들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해했다고 믿지만, 사실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

46. 내가 세상의 부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너희에게 위대함의 증거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예수께서는 물질적 부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며, 이 세상에 가장 극심한 가난 속에서 나타나셨다. 그분은 그분의 행적과 말씀, 가르침으로 인해 위대하셨지, 결코 겉모습으로 인해 위대하신 것이 아니었다.

47. 이 땅의 재물들이 아버지께서 인간 피조물을 위해 창조하신 것인데, 내가 왜 그것들을 이용해야 했겠느냐? 이 자연이 나로부터 양분을 얻고 있는데, 내가 이 자연에서 무엇을 필요로 할 수 있었겠느냐?

48. 나는 인간적인 삶보다 더 높은 삶의 아름다움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고귀한 행실을 고무하며, 사랑을 일깨우는 말씀을 가르치고, 희생과 믿음과 사랑의 산을 오를 수 있었던 영혼을 기다리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을 약속하기 위해 왔노라.

49.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하며, 마침내 너희의 선한 행실이 너희 영혼을 참된 행복에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50. 첫 번째 교훈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게 되면, 그것은 너희에게 달콤한 열매를 맺어 줄 것이며, 그 열매는 너희로 하여금 다음 단계를 밟도록 격려할 것이다.

51. 오늘, 세상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사고의 더 큰 자유를 추구할 것이며, 자신의 영혼이 짊어지고 다니던 속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제는 영적 양식과 참된 빛을 갈망하는 민족들이 광신주의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될 때이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생각하며 탐구하고 행동할 자유를 단 한 순간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누구도 다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의 눈은 빛을 보았고, 그의 영혼은 신성한 계시 앞에서 황홀해했기 때문이다.

52. 백성들아, 세상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비록 너희가 오늘날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나의 사랑의 법이 모든 영혼을 감동시킬 것이다.

53. 이 영적 빛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나, 이는 너희가 강해졌을 때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 누구도 이 일이 진리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감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니, 그렇다면 아무도 너희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확고하고 확신이 진실하다면, 아무도 너희가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54. 너희 인간 자녀들아: 너희는 항상 공간을 떠돌며 때로는 너희에게 다가오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존재를 짐작해 왔으며, 그들이 고통받는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 왔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 자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지식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혼란에 빠지거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존재들에게 빛을 밝혀줄 올바른 방법과 방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55. 여러분은 그들에게 눈에 띄는 의식과 예물을 바쳤고, 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달랠 수는 있었으나, 세속적인 것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닿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영적인 공감과 위로, 사랑, 이해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나의 말씀은 너희가 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도 설명해 준다.

56. 너희가 영적 형제자매들에게 진정으로 선을 베풀고자 하며, 동시에 그들의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연민과 고양된 생각으로 가득 찬 진심 어린 기도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의 인간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모습을 드러낸다고 느낀다면,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와 선한 행실을 보여 주어, 그들이 영혼을 위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 그들에게 너희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하고, 너희를 모욕한 자를 용서하는 것을 보게 하며, 너희 마음속에 고귀한 생각이 빛나는 것을 보게 하고, 너희 입술에서 오직 선한 말만 들려지게 하라.

57. 너희는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다해야 하며, 그들은 너희에게 어떤 사명을 다해야 할까요? 너희는 서로에게 어떤 빛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겠지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사람들의 길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들이 인간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갈 때면 항상 그 이유가 있다.

58. 너희가 “영적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환영을 받고, 너희가 *그들에게* 베푼 자비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받는 것은 너희 영혼에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때 빛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너희의 기쁨은 클 것이다. 그러나 혼란으로 인해 어둠에 휩싸인 그 수많은 존재들을 마주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사랑의 행위를 기대했으나 너희가 그들에게 베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비통할 것인가. 이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 너희는 내가 이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주는 지식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존재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물질화하라고 권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덕이 있고 순수한 삶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영성화시키는 방법을 영감으로 주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혼란과 어둠을 제거하여, 그 기도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그들의 이해력 속에서 빛을 밝혀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59. 야곱은 꿈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들이 오르내리는 영적 사다리의 존재를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누가 그 내용을 이해했는가? 누가 그 비밀을 해석했는가? 그 족장이 보았던 그 형상의 의미 속에는 영혼의 발전, 영적 피조물들이 인간으로 끊임없이 환생하는 과정, 존재들의 속죄와 보속, 하나님과 인간의 교감, 그리고 영과 영 사이의 대화가 담겨 있다.

60. 너희가 과거 시대의 계시들에 올바른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

61. 영혼들이 내 가르침의 핵심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하는지 깨달으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88

1. 나는 너희의 마음이 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온다. 나의 말씀은 너희가 착수해야 할 하루의 일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킨다. 이 준비는 영적인 것이며, 너희가 수행하게 될 사명과 조화를 이룬다.
2. 첫 번째 시대에, 백성들은 이미 포로 생활과 시련이 있던 이집트를 떠나 사막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여정 중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지팡이와 샌들, 그리고 여행용 짐 꾸러미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3.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사막 횡단” 중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 그러나 그 백성이 먼 여정을 위해 식량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회개하여 마음을 정화하며, 언제나 단합하여 하나의 가족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다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백성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싶다면, 나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단합 덕분이었다고 말하리라.

5. 그 영적인 씨앗이 너희 가운데 있다. 새로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 본보기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6. 너희는 너희를 기다리는 것이 모래 사막이 아니라 인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찾게 될 것은 지상의 어떤 땅도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영의 조국이다.

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인류 한가운데 햇불처럼 서기 위해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8. 내가 지금 너희를 깨우는 것은, 너희가 나의 자녀이며, 평화와 빛과 영성화의 백성 중 일부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9. 인류를 움직이거나 괴롭히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으로 느껴라. 모든 이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의 생각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게 하라.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사명을 다하는 이들을 미리 축복한다.

10. 나는 너희의 존재가 평화를 이루고, 위로하며, 이웃이 축복을 얻도록 돕는 데 쓰이기를 원한다.

11. 오늘 너희는 아직 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일 뿐이며, 고통과 악덕, 비참함, 이기심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볼 때 그 투쟁이 두렵게 느껴진다. 너희 양심이 너희에게 영적 성취와 일, 활동을 요구할 때,, 너희 마음이 두려움에 차서 묻는다: “이토록 큰 혼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 왜 두려워하며 왜 의심하느냐, 백성들아? 내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삶이 끊임없이 너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투쟁과 시련이 너희를 기다리는 매일의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내력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깨달아라.

12. 나는 너희가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사명을 수행하라고 너희를 보내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너희가 강해지면 이렇게 말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따르라.” 그때까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자를 고치는 법을 안다면, 그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십시오. 자신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해, 너희가 길을

떠나 십자가를 지게 될 그 순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십시오.

13. 오늘, 너희가 아직 영적 사명에 전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나는 너희가 기도가 지닌 힘과 능력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권한다. 너희의 투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빛을 얻어야 한다.

14. 기도를 통해 영감을 얻는 자는 시련 속에서 무적이며, 이웃들에게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15. 나는 나로부터 깊이 가르침을 받은 이 백성이, 영적 왕국과 연결되는 그 완전한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자신의 여정에서 얻은 모든 경험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16. 물질 너머에 빛의 세계가 열려 있는데, 왜 너희의 사고의 세계를 지구상에만 국한시키느냐? 너희의 시야와 이성을 넘어 무한한 공간이 열려 있는데, 왜 영혼을 인간 생활에 종속시키느냐?

17. 이 생각과 영혼의 세계들은 여러분이 그곳에 도달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 기도 속에서 하나로 합쳐진 사고력과 영은, 인간에게 그 어떤 *인간의* 힘보다도 우월한 힘을 만들어 냅니다.

19. 기도를 통해 약한 자는 힘을 얻고, 겁 많은 자는 용기를 얻으며, 무지한 자는 깨달음을 얻고, 수줍은 자는 거리낌 없이 당당해집니다.

20. 영이 이성과 조화롭게 협력하여 참된 기도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사가 되어, 잠시 *자신의* 본성에 관한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육체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고, 악과 위험을 물리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의 불꽃 한 줄기, 향유 한 방울, 혹은 평화의 숨결을 전하는 데 전념하게 된다.

21.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 인류를 휩쓴 혼돈 속에서 너희가 정신과 이성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깨달아라. 너희는 상반된 사상과 아이디어가 공존하고, 정욕이 거세게 휘몰아치며, 증오의 감정이 충돌하고, 사고가 물질주의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영혼이 어둠에 휩싸인 세상에 살고 있다.

22. 기도를 통해 생각과 영적으로 빛의 영역, 평화의 경지로 올라가는 법을 배운 자만이, 모든 인간의 정욕이 반영된 투쟁의 세계에 들어가도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영의 빛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23. 사랑하는 제자들아,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그 고통과 비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리라. 너희 영혼은 나의 사자로서 그곳에 이르러 빛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24.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데, 굳이 영적인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영혼의 발전과 해방을 이루지 못한 채 날과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라. 너희는 너희 몫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리라.

25. 나는 능력이니, 너희의 생각 하나, 기도 하나를 너희 이웃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26.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 과연 너희 존재의 핵심 속에 평화의 천사가 실제로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백성이 전체적으로 진정한 조화와 형제애를 바탕으로 그 영적 투쟁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단결한다면, 이 백성은 무엇이 되겠느냐?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될 것이다.

2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미 영과 생각과 의지에서 하나 되었다면, 서로를 덮치려 하는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나라들을 막아내는 데 너희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너희는 적대감을 없애고, 동료 인간들의 온갖 사악한 계획에 걸림돌이 되며, 권력자들을 물리치는 보이지 않는 검과 같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와 같을 것이다. 인류는 이러한 더 높은 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고 잠시 멈춰 성찰할 것이며, 그 성찰은 자연과 그 원소들로부터 받게 될 수많은 심각한 타격과 재앙을 피하게 해 줄 것입니다.

28. 과학의 나무는 폭풍이 몰아칠 때 심하게 흔들리며 그 열매를 인류에게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인간 외에 누가 그 원소들의 사슬을 풀어 놓았겠는가? 비록 최초의 인간들도 현실을 깨닫고, 양심의 빛으로 깨어나며, 법칙에 순응하기 위해 고통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발달하고, 의식이 있으며, 교양 있는 인간이 — 어떻게 감히 *생명의 나무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29. 최초의 인간들의 삶은, 인간이 자신이 살던 순수의 낙원을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명상과 평화의 세계를 어떻게 투쟁과 노동, 발전과 공로의 세계로 바꾸어 버렸는지를 너희에게 드러내는 그 비유 속에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일어날 일이었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거부는, 인간 내면의 신성한 빛인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영혼이 깨어나, 공로를 쌓으며 더 깊은 삶의 차원에서 창조주가 영혼을 위해 정해 놓은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30. 그러므로 인간이 삶의 투쟁과 자신의 존재의 발전 및 고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시기를 위해 모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길에서 첫 번째 필요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첫 순간부터, 마치 아름답고 활력을 주며 달콤한 과실처럼,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 세상과 자연, 삶을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 두어, 마치 아름답고 활력을 주며 달콤한 열매와 같게 하려 했던 것이며, 그 열매의 속에는 지혜와 사랑, 정의에 관한 무수한 교훈이 담겨 있을 것이다.

31. 생명과 과학의 나무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그들과 열매를 주었는가! 그런데 왜 오늘날, 세상에서 문명화된 인류로 존재하는 인류가 마치 눈이 먼 것처럼 보이며,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 요소들을 거스르고, 지혜의 열매를 결코 거절하지 않았던 그 나무를 학대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 주겠다: 인간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영적 영혼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후 인간이 지상 생활에 전념하게 되자, 강력하고, 부유하며, 학식이 풍부하고,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것이 그의 최상의 목표이자 가장 큰 야망이 되었으나, 이 모든 것이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으니, 이는 그가 덧없는 명성을 좇았기 때문이다.

32. 나는 너희가 열망을 품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위대하고 강하며 현명해지기를 꿈꾸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영의 영원한 선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선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 겸손, 용서, 인내, 너그러움, 한마디로 말해 ‘사랑’과 같은 모든 미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미덕은 영혼을 고양시키고, 정화하며,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비참한 세상, 이 일시적인 거처에서 인간은 — 위대하고, 강력하고, 부유하거나 학식이 풍부해지기 위해 —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복수심에 불타고, 잔인하고, 무관심하고, 비인간적이며, 오만해야만 했으며, 이 모든 것이 그를 진리, 사랑, 평화, 참된 지혜, 그리고 정의와 극명한 대립 관계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3.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숭배가 그들을 비통한 실패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으려

애쓰고, 등진 그 원칙과 법칙들을 되찾으려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 속에서 교리를 창안하고, 규율을 세우며, 철학, 세계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새롭고 거대한 전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속적 권력에 대한 부당한 탐욕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살인적인 무기가 더 이상 생명을 앗아가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전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거대한 종교 공동체들이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종교들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4.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어떤 종교도 이 분쟁에서 승자로 남지 못할 것이며, 마치 오늘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살육의 전쟁에서 어떤 민족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여기서 언급된 제2차 세계대전에는 소위 승전국들이 있었지만, 세속적 패권을 둘러싼 투쟁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투쟁에서 결국 어떤 세계 강대국도 승자로 남지 못할 것이다.*

35. 세속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위에는 나의 정의가 지배할 것이며, 나중에 어떤 교리나 종교를 관철하기 위한 그 전투에서는 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36. 유일하고 지극히 높은 진리는 폭풍우 치는 밤의 번개 빛처럼 번쩍일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이 신성한 번쩍임을 보게 될 것이다.

37. 그때까지 너희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동료 인간들의 여정 속에서 천상의 빛의 전령이자 길 닦는 자, 예언자로서 자신을 드러낼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38. 어떤 이들은 길에서 장애물을 치워낼 것이며, 다른 이들은 영적인 씨앗을 뿌릴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나의 메시지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기에 싸울 것이다.

39. 때로는 너희의 존재와 말이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씨앗이 일단 뿌려지면, 조만간 싹을 틔울 것이다. 왜냐하면 — 그것은 신성한 기원을 가진 것이므로 —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땅의 씨앗처럼 썩어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40. 너희 가운데는 ‘구원자’도, 재판관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통해 구원하고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길을 떠나 각 지방으로 가야 한다.

41. 너희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자비롭다면, 너희의 행실과 말, 그리고 생각은 비록 단순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진리를 어긴 자들의 영혼을 감동시킬 것이다.

42. 너희는 길을 가다 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실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학식 있다고 여겨지는 학자들에게서 무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재판관들의 정의 부족과 권력자들의 허세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43. 나의 자비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리하여 인간의 고통과 약함에 진심으로 감동받은 너희 마음이, 내가 너희 영혼에 심어 놓은 그 사랑을 치유하는 향유처럼 흘러넘치게 하리라.

44. 다른 이들이 너희 동료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알아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온 땅에 퍼졌을 때 비로소 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에는 아직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한 곳이 여전히 존재한다. 구세주가 그분의 말씀과 피로 너희에게 주신 신성한 사랑의 씨앗을 먼저 받지 않은 채, 오늘날의 이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그 민족들에게 닿을 수 있겠느냐?

45. 내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전해질 것이며, 너희 모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다가올 시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며, 내가 영혼과 세계, 인종과 민족의 주님이시기에 모든 이에게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46. 영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한 세계가 이 지상의 골짜기에 거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빛의 존재들로, 뒤쳐진 민족들의 품에 환생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니, 그들의 사명이 바로 잠든 자들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47. 아버지의 지혜로 뿌려지고 흠여진 이 거대한 빛의 영들 군단이 지상에 머무르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과, 이해와 조화,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나의 모든 자녀들이 도달해야 할 보편적 통합의 징표가 될 것이다.

48. 누가 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으며, 내가 예정한 일을 좌절시킬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나는 너희가 이제 자유 의지의 은사를 오용함으로써 만들어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는 것이다.

49. 인간의 광란적인 질주는 그를 이 지점에 빠르게 이르게 했으며, 그는 자신의 행실의 열매를 통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50. 나를 들었고, 따라서 주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 중에서, 세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누가 동요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들은 자들 중에서, 영적 지침이 필요한 세상 한가운데서 누가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침묵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는 곧 ‘더 높은 도덕성’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51. 나의 의와 사랑은 사람들의 악보다 강하므로, 나는 너희에게 내 뜻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52. 언젠가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인류가 기도와 금식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면, 너희는 내가 생명의 나무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나무의 가지들은 무한히 뻗어 있는데, 그 가지들 속에서 너희는 스승의 두 팔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팔은 마치 그 십자가 위에서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그분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양심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새기셨다. “나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53. 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할 씨앗이다. 그 백성은 세상에 그들을 드리우고 영적 생명의 열매를 선사할 것이다.

54. 너희는 여전히 매우 서툴고 겁이 많으며, 믿음은 미약하고 지식은 제한적이다. 그 증거로, 오늘날까지 너희 가운데서 한 민족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만한 덕행과 내 율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선함을 지닌 조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초창기에 그 형태와 이름을 정립했던 그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처럼 말이다. 모든 씨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뭉치게 한 지도자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또한 믿음과 힘, 그리고 사랑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한 모세를 기억하라.

55. 영적 통찰력의 은사가 너희 가운데 부어졌으나, 그 목소리가 아직 매우 미약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다.

56. 내가 이러한 형태로 너희에게 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본보기가 될 만한 업적을 너희에게 기대하기 위해, 나는 먼저

너희로 하여금 발전의 길을 걷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너희가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즉, 여러 번 지상으로 보내어, 깨달음의 빛이 되는 경험을 쌓게 하고, 영혼의 상향 발전을 의미하는 시련을 통해 너희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57. 너희 중 누구라도 자신의 현재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첫 번째 삶이라고 믿는가? 아니, 백성들아,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58. 너희의 현재 삶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걸어온 영적 성장을 향한 여정 중 또 하나의 단계이다. 나는 너희의 의심을 용서하노니, 그것은 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59. 너희가 인류 중 가장 가난한 자일지라도, 무학자나 무지한 자로 여겨질지라도, 너희의 일이 지금까지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지라도, 너희의 신앙이 다소 모호할지라도, 이제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판단하여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나의 계시와 계시를 전할 자로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60. 나는 내 말씀이라는 골로 너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이성을 다듬으며, 너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 그리고 너희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너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도록 충분한 지식을 준다.

61. 내가 너희에게 지식과 신뢰에 대해 말한 것은, 너희가 양심이 가리키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마음을 다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겸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부족과 혼동하여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우월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허영과 오만, 자만은 빛의 영혼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빛에 눈이 멀어버린 영혼들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62. 이제 너희는 너희가 “순례자”이며, 이번 기회에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내 계시의 전달자, 중개자, 대변자가 될 행운을 얻었음을 알게 되었다.

63. 너희의 영적 사명에 관해 어떠한 불확실함이나 의심도 너희에게 닥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말해졌으며, 모든 것이 맑고 분명한 길처럼 닦여 있다. 너희는 기도와 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강해져야만 하며, 그래야만 족장들, 민족의 지도자들, 예언자들,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걸어온 그 길을 온전히 밟을 수 있을 것이다.

64. 나는 이 영성주의 백성의 자녀들을 지구의 모든 곳에서 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이 백성은 어떤 인종도 아니며 인간적인 기원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영적인 군단으로, 그 수는 끊임없이 갱신되어 세상에는 언제나 영에서 영으로 나의 영감을 받는 이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65. 육체적으로는 누가 이 백성에 속하는지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들의 영성화와 은사 및 능력의 발휘를 통해서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66. 주님의 사자인 이 백성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영혼의 속박이든 사교의 속박이든, 인류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들에게 율법을 상기시키고, 신성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 경고하고,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며, 사랑과 지혜와 평화의 왕국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모든 존재와 모든 민족, 모든 세계가 모여 하나의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될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가르침 289

1. 인류여, 너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2.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비록 모두가 형제애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신이 받은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며,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새겨진 법과 계명,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어떤 종교적 신조에도 복종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에 자유를 허용하고, 계명과 법칙 밖에 서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찰과 과학, 그리고 정의를 통해 모든 것, 모든 곳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힘과 조화, 법칙, 그리고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가르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 인류는 수 세기 동안 불화를 겪으며 살아왔고,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모두 겪은 끝에, 민족 간의 일치와 모든 사람 사이의 조화가 물질적 이익이나 세속적 가치에 근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인류는 오직 고귀한 영혼만이 인류의 평화가 될 수 있는 견고한 기초이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모든 민족이 어떤 식으로든 다투고, 전쟁을 벌이며, 서로를 비난한다면, 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법이 가르쳐 주신 바를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5. 진리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성하며, 사랑이며, 조화이며, 자비이며, 양심을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6. 영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간의 의무는 물론 종교적 의무를 넘어, 모든 이가 마시는 근원에 도달하여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7. 산 정상에 올라 그 장엄함을 바라본 사람은, 다시 내려와 동료 인간들과 함께 살 때, 필연적으로 판단에 있어 더 관대하고, 더

이해심 깊으며, 더 자비로워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를 조화롭게 하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요소이다.

8.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화합은 영적인 것이며, 여러분의 정열과 고집을 초월할 때 비로소 이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9. 각자가 자신의 것만을 유일한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것을 그릇된 것으로 치부하고 반대한다면,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10. 광신주의는 어둠이며, 맹목이며, 무지이며, 그 결실은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11. 여러분은 모두 현실로 깨어날 수 있는 큰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12. 너희 마음은 내가 왜 종종 큰 시련과 사건들에 대해 말하는지 묻고 있으니, 나는 너희에게 고통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무기력함에 빠져 잠들어 있는 것보다 미리 경고를 받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노라.

13. 어떤 이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미래에 닥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너희 앞에 보여 줄 때, 너희는 내 예언이 실현될 수 없다고 여기며, 내가 시련과 고통의 시기에 대해 말할 때면, 너희는 그것이 단지 두려움을 통해 너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는 위협일 뿐이라고 믿는다.

14. 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의심이라는 바다에 표류하는 자들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믿는 자는 언제나 그로부터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고귀한 의도로 그것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15. 제자여: 제2시대에는 인류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3년이면 충분했고, — 너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 나는 마지막에 나의 희생의 죽음으로 그 메시지를 확증하였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희생의 죽음은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다 — 아버지는 피의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니 —, 오히려 인류에게 드린 것이었다. 인류는 그토록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16. 나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나, 단지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두꺼운 신비의 장막 뒤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영적 왕국으로 이끄는 길을 닦아 주기 위해 왔다. 나의 가르침은 첫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대로 영으로 다시 오실 때를 위해 너희에게 준

준비였으니, 그때 나는 다시금 비밀의 보물고를 열고, 봉인된 책을 펼쳐 너희가 영적 지식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했다.

17. 너희의 물질적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혼의 삶은 인간에게 있어 비밀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보시고, 계시와 영감의 은사를 통해 가르침을 시작하셨으며, 무수히 많은 형태로 너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첫 번째 인간이 존재했던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왔다.

18. 내가 이제야 비로소 영적 삶에 대해 너희에게 계시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큰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신성한 가르침은 첫 번째 인간이 태어났을 때 시작되었으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인 영들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

19. 혹시 너희는 과거의 가르침들이 너희에게 인간적인 지식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를 위해 너희에게는 과학의 은사가 주어졌다. 아니면 너희는 초기의 계명과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이 단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뿐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 계시들의 핵심을 찾아보라. 그러면 그 의도가 바로 너희에게 영생과 영혼의 불멸로 이끄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0. 나는 영의 삶이 너희에게 말해 주고,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연락하도록 가르치며, 너희를 물질적 삶 위로 끌어올려 주는 계시를 ‘영성주의’라고 불렀다.

2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성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직 이 시대에만 속한 것도 아니라, 인류의 영적 발전에 발맞추어 점점 더 드러나 온 계시이다.

22.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은 영성주의로서, 너희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르치고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로 초대하는 것이므로, 영성주의는 ‘첫 번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르쳤던 것이기도 했다.

23.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은,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교훈들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토록 많은 지혜에 눈이 부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분이 시대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때 인간의 영혼은 해방과 승화를 이루고 물질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아무도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와서 나의 새로운 계시를 통해 설명하기 전까지 영적 삶이 비밀이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비록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희에게 많은 가르침이 주어졌음을.

25.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은 과거 시대의 계시들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 수수께끼를 풀며, 이를 현재의 사건들과 비교해 보려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26. 제자들아, 이제 너희는 “영성주의(Spiritualismus)”라고 말할 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영적 계시를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27. 나는 도둑처럼 아주 조용히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가 잠든 틈을 타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했다.

28. 모든 시대에 내가 찾아왔을 때, 인류는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한 등불처럼 깨어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던 마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29. 백성아, 너희의 과거를 조금만 되돌아보아도 경험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 후에는 다시는 오류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0. 내가 너희에게 ‘제2의 시대’에 내 피로 적어 놓은 그 종이 한 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너희는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양심이 너희에게, 너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리를 결코 실천하지 않았다고, 너희 마음이 그 말씀들을 모아 두지 않고 마치 생명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처럼 바람에 날려버렸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3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미 내가 ‘말세’라고 예고했던 그 시대에 들어섰다. 그 시대는 심판과 속죄, 그리고 회복으로 특징지어졌다.

32. 나는 옛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이 시대를 예고하였으며, 내 말씀의 새로운 선지자인 이 대변자들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들 중 많은 것을 성취하셨다.

33. 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여, 너희는 이제 나를 이해하려고 있다. 예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너희의 양심이 오늘날 너희 존재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육신의 충동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34. 나의 새로운 사도 무리는 구명정에 올라타, 그곳에서 손을 뻗어 인간 정욕의 바다에서 난파당한 이들을 구할 것이다.

35. 나는 너희를 선택하여 차츰차츰 나의 백성을 이루어 나가게 하려 했으나, 너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계획들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단지 너희 영혼 속에 수많은 길 중에서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빛이 존재한다는 것만 말해 둔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인류에 대해 지는 책임이다.

내가 모든 가르침에서 너희에게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산의 정상에 오르라고 촉구하는 이유를 깨달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높이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인류의 끊임없는 탄식을 듣고, 그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36. 이웃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그 고통을 달래줄 수 없다, 제자들아.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웃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들이 너희 영혼이 수많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때이며, 마음이 공감과 이해, 자비와 온유함으로 깨어나게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37. 내 백성은 영적 고양이 필요하다. 그들은 여전히 인류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울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궁핍과 고난 때문에 우는 것이다.

38.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씀에 무감각한가? 내가 너희에게 낯선 왕국을 제시하는 것이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왕국이,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왕국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39. 이것이 너희가 듣는 마지막 가르침임을 명심하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한다. 그래야 이 계시가 끝난 후에도 내 말씀의 아름다운 울림을 계속 듣고 그 의미를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40. 만일 내가 너희의 이성이 과거를 인식하는 것을 가로막는 베일을 잠시 걷어낸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면전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의 배은망덕함, 불순종, 신의 없음, 그리고 내 사역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 대한 회개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공로는 직관을 키우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너희 안에 살아 있으며 너희가 ‘영혼’이라 부르는 본성을 꽃피우는 데 있다.

41. 너희가 일단 육신에서 해방되면, 너희는 “영적 계곡”에 거하게 될 것이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던 그 장막이 너희 눈에서 벗겨질 것이며, 너희는 모든 것을 맑고 투명한 명료함으로 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너희 영혼의 공로는 믿기 위해 보거나 만지기를 기대하지 않고 믿는 데에 있다.

42.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으라.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나의 무자비하지만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공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3. 나는 양떼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목자이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며, 양들이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44. 나는 너희를 보살피고 지키며, 너희가 양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

45. 너희는 한 번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졌으며, 그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벌하거나 영원히 저주하는 대신—너희가 예전에 생각하곤 했던 것처럼—너희에게 선물을 주었고, 너희 존재가 실수를 만회하고, 영혼을 정화하며, 온전해질 기회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46. 이 가르침을 알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에 더 혹독한 속죄를 자초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 땅에서의 사명을 저버리겠는가? 왜냐하면 나의 정의가 여러분에게 오점을 지우고 실수를 만회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가 늘어날수록 시련의 횡수도 늘어나고, 저지른 실수가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매번 겪는 고난과 고통도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 또한 맞기 때문이다.

47. 너희의 의무—처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는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만회하며, 마지막 죄까지 갚아내는 데 있을 것이다. 누구도 —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지상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나 “영적 계곡”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항상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 말씀드리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며, 영적 세계는 언제나 여러분의 십자가 짐을 지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48. 나의 신성한 광선은 너희 가운데서 말씀이 되나, 그 빛은 우주 전역에 퍼져 나간다.

49. 쉬어라, 인류여. 나는 너희가 기도하고 내 율법을 묵상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곱 날마다 하루의 안식일을 허락했다.

50. 보라, 내가 여기 있으며, 종교를 가리지 않고 너희 모두를 찾아간다. 나는 육체와 영혼의 신성한 의사이다. 나는 병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나의 위로를 쏟아 붓는다.

51. 내 목소리는 온 인류에게 내려오나, 진실로 말하건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52. 무한한 공간에서 영과 영의 대화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나의 가르침이다.

53. 내 말씀을 인간적인 형태로 듣는 백성아,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이 일어나 내 빛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해 온 광신과 물질주의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해야 할 이는 바로 너희임을 알아두라. 너희가 동료 인간들에게 다다를 때,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진 나의 계시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본질은 — 지혜의 말과 치유의 연고로 변모하여 — 나의 진리에 대한 최고의 증거로서 너희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54. 너희의 임무는 동료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켜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함으로써, 영성화의 길을 닦고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다.

55. 제자들아,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법을 배우라. 그래야 나중에 물질주의와 불필요한 것, 쓸모없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어둠의 짙은 안개를 뚫고 영혼의 양식이자 생명인 신성한 빛을 찾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56. 이러한 고양 속에, 여러분 모두—약한 자, 무지한 자, 그리고 “죽은 자”들까지도—참여하게 될 “대격전”으로 예고된 투쟁의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 여러분 모두는 깨달음을 얻고 정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57. 나의 왕국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나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을 다스리고자 한다. 나는 참된 왕에게 마땅한 대로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순종을 얻고자 한다.

58. 이제 싸움은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사람들은 나의 권능과 나의 공의를 불신했으며, 끊임없이 그들의 무기를 나의 무기와 겨루려 했으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의 죄와 싸워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 내가 그들을 정복함으로써, 나는 그들을 그릇된 길에서 구원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59. 이 싸움 속에서 우상들은 무너지고, 생각들은 혼란에 빠지며, 몸들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야자수가 꺾이듯 짓눌릴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영혼은 정화되어 빛으로 가득 찬 채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그 영혼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영혼이 전투 중에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나는 생명이요,

죽은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들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60.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단 하나의 문만이 열려 있을 것이다.
바로 영성화의 문이다.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오만과 허영,
저급한 정욕,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61. 사람들이 그 큰 전투에서 마셔야 할 잔은 매우 쓰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잔을
마시고 정화된 자로서 이 땅을 떠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다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돌아올 때, 그들의 메시지는 빛과
평화, 그리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2. 이 행성의 주민들에게서 들려오는 탄식의 외침은 실로 크다.
억압받는 자들과 평화를 꿈꾸는 자들은, 권력자라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조화와 자유의 빛이 비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마음들은 차라리 기도로 내게로 향해야 한다. 오직 나만이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의 근원과 의미, 목적을 알지 못하거나, 설령
이를 안다 해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은 진정한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할 수 없으므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63. 이 시대의 인류는 완고하고, 매우 완고하며, 영적인 것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다. 내 말씀을 들어라. 그것은 너희
마음을 인내심 있게 다듬어 가는 끌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그토록 자주 듣는데도 — 보라, 너희가 얼마나 무감각한지!
나는 이 메시지에 담긴 마지막 말씀을 다 전할 때까지 너희에게
계속 말씀할 것이니,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때, 내
말씀이 너희에게 계시해 준 모든 것 속에서 참되고 완전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리라.

64. 오, 백성들아, 이 샘에서 마시라. 내가 너희를 씨앗으로 삼아,
너희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세대를 낳게 하였으니.

6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성 또한 대대로 전해질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순결함과 영적인
것에 대한 수용성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너희가
그들에게 정욕에서 자유롭고, 맑은 이성과 감수성 있는 마음,
양심의 소리에 깨어 있는 영혼을 지닌 몸을 선물함으로써 자비를
베풀어 주었기에 너희에게 감사할 것이다.

66. 너희 모두는 하느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받았다.
어떤 이들은 이 백성의 자녀이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다. 너희 모두는 오직 하나의 근원, 곧 하느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그분의 군대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하며, 너희 모두를 그 대열 속에서 보고자 한다. 내 백성은 빛의 자녀요, 평화의 사도요, 내 지혜의 상속자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내 모든 자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67. 제자들아, 지치지 않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내가 떠나는 그 순간에, 내 부르심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68. 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기도하며, 열정과 사랑,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찬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영성, 경건함, 그리고 이해가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내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서 끝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르침에 감사할 것이다.

69. 내 목소리가 너희의 영 안에서 울려 퍼지며 깊은 애수를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도록 너희를 파송하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랑스럽게 안아 주려는 아버지의 목소리일 것이다. 내 말씀이 끝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제2시대에 스승님의 죽음으로 슬퍼했던 모든 이들이, 곧 그분이 영광스럽고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고향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 내가 계시를 전하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이 보낸 시간과 활용하지 못한 교훈에 대한 회개의 눈물일 때에만, 나는 너희가 울게 할 것이다.

71. 제3시대에 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1950년의 마지막 날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계시의 종결 시점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든 모임 장소에서, 그리고 무수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이를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72. 신성과 영성이 세속적인 시간에 종속되어 있어서도 아니며, 너희 영혼의 발전이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될 수 있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며, 영적 시기의 끝이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체험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73. 이제 제자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영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나의 현존을 느끼고 싶습니까? 이를 위한 조건은 여러분이 형제처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나의 현존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이 영적 감정에서 뿔어져 나오는 힘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74. 이 시기에 너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영적으로 받고 싶으냐? 영성을 갖추면, 너희는 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75. 버림받은 듯한 순간과 침묵의 순간들이 올 것이다. 이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 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아직 내 영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믿음과 영성을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굳건히 버티십시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는 빛줄기처럼 찬란하게 나타나 너희의 이성과 마음에 깃들며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으라. 너희는 스승께서 어떤 부르심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었으니.”

76. 용기, 믿음, 인내는 너희 안에 항상 깃들어야 할 미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관의 대립, 신앙적 신념의 전쟁, 영적 전투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나의 가르침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과 경험을 통해 강해져 있는 편이 더 낫다.

77. 백성들아: 나의 가르침은 이제 끝났다. 잠시 동안 ‘영적 계곡’에 머물며, 그곳에서 너희의 동료 인간들이 싸우고 고통받으며 마참가지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지구의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의 생각을 보내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90

1.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정의이시다.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속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대변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2.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부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너희 모두는 정의와 사랑,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너희 모두는 신성한 법이 변함없음을 이해해야 하며, 그래야만 그 법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운명을 바꿔 달라고 청하지 않을 것이다.

3. 명심하라. 너희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신 분이 그분의 법 중 어느 하나도 결코 바꾸지 않으시니, 너희에게는 그것을 바꿀 권리가 조금도 없다.

4. 너희 영혼은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기에 행복하다. 왜냐하면 영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마다 전생에서 얻은 지식을 가져오며, 영적 계곡에서 받는 빛은 경험이자, 그 발전의 길을 비추는 등대이기 때문이다.

5. 삶에 대한 깨달음은 진정한 과학이며, 영혼의 영원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합쳐져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습득해 나가는 지식이 됩니다.

6. 결국 영혼이 간직하는 유일한 보물은 삶의 투쟁 속에서 얻은 지식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인 이 빛을 무익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선하고 고상하며 고귀한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에 대한 비유는 세상의 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돈은 잘 사용되면 축복이 되지만, 낭비되면 오직 해악만을 초래한다.

7. 또한 정화의 시간이 더디게 흘러갈 때 절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그때 영혼의 많은 미덕이 마음속에서 시험을 받기 때문이며,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진정한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영에서 영으로, 침묵 속에서, 고요히 이루어지는 그 기도 말이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내면의 존재, 즉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서 군대를 조직해야 하며, 너희 중 많은 이를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세속적인 권력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빛을 위해 돌파구를 열고, 평화와 설득력으로 승리하며, 파괴하되 해로운 것을 파괴하고 선한 것을 세우기 위한 전사로서 말이다.

8. 너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정의이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완전한 정의이자 지혜이심을 이해한다면, 왜 때때로 신성한 법들이 변경되기를 요구하는가?

9. 너희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피상적으로 판단하며, 너희를 괴롭히는 시련들이 바로 *너희* 자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시련들이 너희에게 닥칠 때면, 너희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운명이 바뀌어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너희가 영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해, 너희가 거두는 모든 것은 너희 스스로 뿌린 것이며, 모든 고통은 너희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0. 아니, 너희는 진실 속으로 파고드는 법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고통이 너희 마음속으로 스며들 때, 너희는 스스로를 신의 불의의 희생자라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불의도 존재할 수 없다.

11.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하다. 그러므로 신성한 영이 분노와 격노, 걱정으로 사로잡힐 수 있다고 믿는 자는 큰 오해에 빠진 것이다. 그러한 약점은 영혼이 성숙하지 못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에게서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12. 때때로 너희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행위의 결과를 ‘대가’를 치러야’ 하며, 왜 다른 이들이 맺은 쓰라린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까?” —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너희는 과거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너희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13. 두려움과 형벌, 무지로 가득 찬 교리를 설교하는 자들은 내 공의의 진리를 얼마나 심하게 왜곡했는가!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그들은 타인을 지배할 필요가 있고, 겸손을 알지 못하며, 대신 스스로를 진리의 소유자이자 타인보다 우월한 ‘선택받은 자’라고 칭할 만큼의 허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4. 그들은 특권층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무지를 선전하고 사람들을 위협한다.

15. 오직 나의 빛과 자비만이 수많은 군중을 그들이 이끌려 가는 파멸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16. 나는 맹목적인 믿음, 즉 깨달음이 없는 믿음, 두려움과 미신으로 얻어진 믿음을 설교하는 자들을 질책한다.

17.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과 모든 재앙, 기근, 전염병을 하나님의 형벌이나 진노라고 규정하며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18.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라.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지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다.

19. 이것이 바로 과거의 경전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내린 결과이다. 그 경전들의 신성한 언어는 계시와 예언이 기록된 인간 언어의 핵심 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진리에 대한 가장 작은 지식도 없이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죽음, 지옥에 대해 이야기한다.

20. 나는 사람들이 결국 갖게 될 빛에 대한 갈망을 알고 있었기에, 그 당시 그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는 내가 지킨 약속이며, 끊임없이, 매일, 그리고 너희 각자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너희에게 말씀하시려 한다”고 말한다면, 제자들아, 그들이 너희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왜 너희에게 ‘너희의 준비가 매우 철저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깨달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눈이 멀고, 어리석고, 광신적인 자들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말씀이라는 진정한 은사와 영적 영감을 받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 이성을 밝히고, 영혼을 뒤흔들며,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21. 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죽음’은 없으며,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불도, 죄인을 위한 형벌도 없습니다. 평화, 시련,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22.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예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겪는 각 성장 단계를 거치며 변화하고, 그 단계가 끝나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3.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미완으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버지가 완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을, 어느 날 그분이 스스로 파괴하시리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24.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이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무엇이 너희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일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온유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25. 너희는 진리가 얼마나 다른지 보고 있다. 만일 너희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의 행실을 향한 한 두려움이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부터는 너희가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영혼이 무한함을 묵상하며 황홀해져, 지상에서 아직 찾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 잠시 동안 그 상태에 머물도록 허락하노라.

26. 제자: 비록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너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영성화는 육체에 속한 것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법칙을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27. 내 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법과 하나로 통합하는 법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건강하고, 강하며, 너그럽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28. 이 시대에 인류는 법칙에서 벗어난 탓에 실패와 방황, 온갖 질병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나의 법칙은 빛이 되어 영혼들에게 다가와 사람들을 평화의 길로 부른다.

29. 이 시대의 나의 계시는 나의 지혜의 책에 새겨진 새로운 장이며, 그 책에서 떼어낸 새로운 인장이다.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쏟아져 나와 영혼을 정화하고 해방시키며,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

30. 신성한 빛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보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사람들이 내 빛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는 큰 증거를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더라도, 깨어나지 않은 영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31. 백성아, 너희 가운데서 내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은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만일 인류가 이 메시지를 알고 이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32. 나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우월함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내 임재와 영감에 대해 영적인 감수성을 지닌 백성들 속에서 나를 드러내야만 했다. 그 감수성은 스스로를 위대하고 강하며 지구의 주인이라 칭하는 민족들과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을 결코 다른 이들에게 영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만심에 빠진 자는 제자리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겸손한 자는 자신이 한 일이 미미하다고 항상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진한다.

33. 이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말고, 너희 세상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예고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34. 너희가 잠들 때 — 그때 시련이 어떻게 찾아와 너희를 깨우고, 지금이 깨어 살아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지 보아라.

35. 머지않아 너희는 더 이상 더듬거리는 제자가 아니라, 그 길에 투쟁과 음모, 박해가 따를 감동적인 스승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도 너희는 내 진리의 지워지지 않는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6. 나의 사자들은 온 땅에 퍼져 나갈 것이며, 영성주의는 사람들의 물질주의 위에 평화의 비처럼, 상쾌한 이슬처럼 내려올 것이다.

37. 이 어리석고 모든 영적인 목소리에 귀를 막은 세상도 제3의 시대에 내가 오심을 믿게 될 것이며, 나의 메시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백성아, 너희에게는 동료 인간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인류의 길에 용기와 자극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38. 땅 위에서 영혼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너희 임무를 다하라. 너희는 이미 법칙과 그 길을 알고 있다.

39. 너희 마음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라. 오직 너희 자신과 관련된 것만을 느끼기 위해 분주하고 애쓰게 두지 말라. 인류가 겪고 있는 시련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말라.

40. 언제쯤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피를 이어받고 너희의 삶과 빠인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많은 이웃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커질 것인가? 너희가 육체보다 영혼으로서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많은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육신의 겉질보다 영혼의 차원에서 형제자매임이 분명하다. 영혼은 영원에 속하는 반면, 육신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41.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족은 오늘은 생겨나고 내일은 다시 해체되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42. 오늘날 너희는 아직 이 가르침을 느끼거나 실천할 수 없다. 그러나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영원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너희는 조금씩 마음을 바쳐야 한다.

43. 영적 형제애의 길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면,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 자신조차 아직 알지 못하는 가르침과 심오한 계시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44. 내게 충실한 자들, 강인한 자들, 진정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 그들에게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을 맡기리니, 그들이 이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이를 수호하며, 외부의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막게 하려 함이라. 내 가르침은 인류를 회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에 다른 사상을 섞어 넣고 진리를 숨긴다면, 너희 입술과 행실 속에 담긴 모든 설득력과 빛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보아라. 그러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너희 몫이다.

45. 머지않아 너희는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겉보기에는 목자 없이 생명의 길 위에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으니, 이 선포가 끝나는 작별 인사가 전해지는 첫 순간부터, 내 영이 너희의 인도자가 될 것이며, 내 빛이 너희 영 안에서 비추어 너희를 격려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46.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폄하해 온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하며 탄식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여기 내 사역이 있고, 여기 너희의 임무가 있다. 일어나 이를 완수하라. 아직 그럴 시간이 남아 있으니.”

47. 어리석음이나 교만 때문에 회개의 날을 미루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밭 대신 가시풀을 뿌린다면, 과연 무엇을 거두게 되겠느냐?

48.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미래의 책’을 읽어 주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일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49. 내 왕국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내 말씀을 보내었으며, 너희를 하나로 모으고 정화하기 위해 엘리야의 영을 보내었다.

50. 내가 곧 길이며, 그 길을 따라 너희는 모두 내게로 올 것이다.

51.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제3의 시대’는 위대한 비밀들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52.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계시하는 진리 앞에서 그들의 지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내 지혜의 빛을 향해 눈을 뜨아야 할 때이다. 그 빛은 내가 가르침으로 변환한 것으로, 너희가 이를 통해 영적으로 참된 삶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3. 이제 세상은 ‘육체의 부활’, 즉 영혼의 환생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54. 환생이란 물질 세계로 돌아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혼이 인간 육신 안에서 부활하여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말했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진리이며, 그들은 이에 대해 왜곡되고 터무니없는 해석들을 내놓았다.

55. 환생은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에게 주신 선물로, 영혼이 물질의 비참함, 지상에서의 덧없는 존재, 자연적인 결함에 결코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영혼은 더 높은 본성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세상에서 자신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많은 물질적 육체를 사용할 수 있다.

56. 이 은사를 통해 영혼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 또 하나의 육신을 거치며, 아무리 많은 육신이 자신에게 맡겨졌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음으로써, “육신”과 죽음,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해아릴 수 없는 우월성을 증명한다. 영혼은 시간과 저장,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자이다.

57. 영성주의의 빛은 이제 환생에 대한 영혼의 능력에 내재된 진리, 정의, 이성, 그리고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당분간 이 계시를 완강히 반대하며, 선의의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를 낯설고 그릇된 교리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58. 각 교파가 신자들을 낳은 신앙 관념과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 체계라는 썰렁한 궤도에 묶어두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 능력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계시와 신성한 영감, 의심과 신비의 해명, 영적 해방의 시대를 위해 영혼을 깨우는 신성한 빛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9. 또한 인류가 사고와 정신,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형성될 그 물결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60. 아무도 내가 여러 종교 공동체로부터 그들의 제자나 신자, 추종자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결코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잊혀진 교훈들을 다시 드러내며, 무익한 관습과 교리, 전통들을 제거하고, 영혼을 모든 거짓으로부터 정화하고 벗겨내어, 그들에게 항상 의식으로 대체되어 왔던 진정한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한 시간이 도래했다.

61. 이 빛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민족들은 화해하며, 원수들은 서로 용서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거의 2,000년 동안 말과 행실로 너희에게 가르쳐 온 교리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62. 이 시대의 인류가 영적인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기 어려운 일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직관과 여러분의 영이 계시해 주는 바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상의 민족들이 증오와 악덕, 무지, 미신, 광신주의의 심연으로 추락한 후, 그리스도의 영감을 받고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 빛과 희망의 멈출 수 없는 흐름처럼 여러 민족과 나라로 퍼져 나갔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3. 그리스도는 사랑의 신성한 씨앗을 뿌리고 전파하기 위해 살았던 제자들과 순교자들의 입에 오르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그분의 신성한 수난을 사랑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셨습니다.

64.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 사이에서 그 평화와 조화가 결실을 맺었던 시간은 짧았으니, 이는 배은망덕과 불경함이라는 잡초가 다시 발을 뒤덮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성, 조화, 이해, 형제애가 넘치던 그 시절에는 —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평화와 영감, 빛이 있었는가! 만약 그 조화와 영성이 너희 삶의 본질이 된다면 — 내 드러나지 않은 지혜가 사람들의 영혼에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질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65. 새로운 시대가 약속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이 진실되지 않다면, 너희는 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자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66. 너희 영혼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라. 내가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주리라.

67. 신성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치지 않고 내 말씀을 경청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너희가 영적 지식에서 상당히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68. 이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 길에 이르러 나의 계시를 알게 되기 위해 너희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명심하라.

69. 이제 그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은 끝에 너희는 달콤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것을 낭비하지 마라. 내일 너희는 평화와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 열매를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70. 고통이 너희를 정화시켰다면, 영혼과 마음속의 그 순수함을 간직하라. 나는 너희가 인류 앞에 새롭게 태어난 백성으로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는 현재 내 메시지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고통을 통해 정화되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열린 책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71. 고통의 잔을 바닥까지 비워낸 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그토록 많은 고통 위에 꿀과 향유를 부어줄 나의 새로운 계시를 머지않아 알게 될 소명을 받았다.

72. 이미 제2의 시대에 주어진 나의 말씀은 땅 끝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이 나의 재림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표징이었음을 알거나 기억하라.

73. 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며, 그들의 치욕을 따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라. 오히려 그들의 궁핍함이 나를 그들에게로 이끌었으며, 나는 그들 각자를 위해 내 곁에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하라.

74. 그 사랑의 선물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하라. 이는 너희가 언젠가 낯선 땅에 나의 가르침을 전할 때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75. 내 말씀의 핵심에서, 너희가 사고와 경배, 행실과 일 면에서 순수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신성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76. 나는 너희가 공덕을 쌓도록 영감을 주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이기적인 소망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는 이웃을 생각하며, 다가올 세대를 생각하며 행해야 한다. 그 후손들은 ‘선구자들’이 닦아 놓은 길을 마주하게 될 때, 지극히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때 *너희의* 행복은 끝이 없을 것이니, 형제자매들의 기쁨과 평화가 너희의 영혼에도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의 구원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경우는 얼마나 다른가? 그들이 자신의 행실로 얻어낸 곳에 도달하더라도, 뒤에 남겨두고 온 자들이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단 한 순간도 평화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7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르침의 참된 제자들은 내 빛인 그들의 영과 같이, 그들의 행실에서도 의롭고 순결할 것이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 291

1. 백성들아, 내가 떠나는 날 너희는 주변에서 공허함을 느낄 것이다. 오랫동안 용기와 위로, 치유와 지식을 얻어왔던 이 말씀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너희는 약함을 느낄 것이다. 삶의 투쟁 속에서 너희에게 그토록 큰 용기를 주었던 이 계시가 너희에게 그리워질 것이다.

2.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미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내 영이 너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영감이 단 한 순간도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이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이다.

3. 내가 왜 너희에게 내 말씀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습관적으로 내 말을 듣지 말라고 그토록 자주 말해왔는지 깨달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해 온 자들은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안고 이 말씀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너희에게는 아직 짧은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시간 동안 너희는 많은 가르침을 이해하고, 의심을 떨쳐내며, 결심을 굳건히 하고, 내 율법이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의 확고한 기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5. 내가 너희에게 강요된 종교적 행위나 단순한 습관에 불과한 모든 것을 거부하라고 가르쳤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종교적 행위와 경배의 형식, 신앙 고백을 단순화했으며, 너희의 양심이 너희 삶의 작은 배를 조종할 키가 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6. 나는 너희가 비록 너희 생각에는 허용되고 선해 보일지라도 불확실한 가르침을 시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의된 원칙들을 주었다.

7. 내 말씀에 온전히 신뢰를 두는 자는 비틀거리지도,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며, 머지않아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8. 이웃에 대한 사랑, 이해, 용서의 근원이 되는 사랑의 법은, 내가 너희의 영적 사명을 위해 영감을 준 기초입니다.

9. 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학식도, 책에 담긴 사람들의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은 진리를 직관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나의 말솜은 이해하기 쉽고, 나의 가르침의 원리들은 완벽하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여러분이 확고한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나는 너희의 마음을 읽어보았으며, 너희가 내가 전해 준 이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어 기도하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깊이 성찰하여, 시련의 순간에 너희의 선한 결심이 어떤 약점 때문에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하라. 제2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이해한 듯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순간, 결정적인 시기에 스승을 홀로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도들조차도 그 순간 자신의 힘과 심지어 믿음마저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여 강한 영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3. 그러므로 내 말솜의 포도주를 마셔 강해지라. 그리하여 시련이 닥쳤을 때, 기도와 투쟁, 자기 성찰과 실천을 통해 단련된 제자임을 증명하라.

14. 호화로운 수단이나 공개적인 집회를 통해 내 사역을 찬양하려 하지 마라. 너희의 승리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15. 기적적인 치유나 명백한 기적의 증언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광신주의를 퍼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진정으로 진리를 구현하고, 진실한 하나님 숭배를 드릴 줄 알며, 진정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퍼뜨리는 이들은 너무나 소박하고 겸손하며 온유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볼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병자를 치유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6. 걱정하지 마라, 백성아.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잘못된 것만을 바로잡을 뿐, 너희가 내게 바치는 선한 것은 모두 받아들인다.

17. 여기에서 내 말솜을 통해 주의 깊게 가르침을 듣고 배우라. 그러나 삶의 행동에 있어서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양심이 너희가 선하게 행동하는지, 악하게 행동하는지, 너희의

사명을 다했는지 아닌지를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웃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통받는 이들과 나눈다면; 인간의 비참함을 이해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덜어주려고 노력한다면 —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며, 양심이 주는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8. 제자: 비극과 전쟁, 고통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영성주의자는 자신이 실천하는 가르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 모두가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힘과 빛이 세상에 뚜렷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19. 인류를 보라: 영적 진보에 무관심하다 —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전통과 관습을 법으로 삼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20. 보라, 과학과 인류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과의 형제애나 우정의 유대를 끊으며, 한쪽의 세계관이 다른 쪽의 세계관과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다.

21. 신성함에게는 겉보기에는 불모의 땅처럼 보이는 이곳도, 영적인 씨앗을 뿌리기에는 여전히 적합한 곳이다. 길을 나서면, 너희는 발걸음마다 빛을 갈망하는 마음과 비참함, 무지, 그리고 온갖 형태의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선한 소망과 빛나는 사상, 영적인 영감으로 가득 채워 보내십시오. 빛과 위로, 치유로 가득 찬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말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인류가 여러분의 영을 위한 일하기에 적합한 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2. 너희 삶의 여정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라. 그러면 그 여정 중에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경험하게 될 평화가, 너희 영혼이 저 세상으로 떠날 때 훨씬 더 커질 것임을 내가 장담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23. 영혼이 인간 몸으로 지상에서 보내는 짧은 여정 때문에 영원한 보상이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한심한가!

24. 이 시대에 내 말씀은 인류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오늘날의 이 세상 — 물질주의적이고, 적대적이며, 이기적인 — 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때로는 폭풍우처럼 거세게,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불어와, 불의한 것을 쓸어내고 선한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들이 사랑과 조화의 토대 위에 그들의 미래를 세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5. 사람들이 사랑을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을 완성하고, 타인을 더 잘 이해하며 섬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념 때문에 법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류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26. 지금까지 인간의 오만함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지식의 부재는 그가 완전해지는 것을 방해해 왔다.

27.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 힘과 영적 힘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삶에서 마땅히 유지되어야 할 균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8. 내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 백성아. 이를 이해하라. 그러나 혹시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기도하고 명상하며 내 빛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29. 믿음으로 인내해 온 순례자여, 환영하노라. 여기 너희의 흔들림 없는 신뢰에 대한 보상이 있나니, 바로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나의 말씀이다. 이제 배부르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마시라.

30. 스승의 말씀을 믿는 자들아, 환영하노라. 그들은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니라.

31. 이제 너희는 오랫동안 간구해 온 것을 받았도다. 내일, 너희가 수많은 군중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진정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나만이 복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나는 그들이 내 증인들의 입을 통해 내 말씀을 듣기도 전에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궁핍함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32. 세상은 내 목소리가 그들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비록 믿음에서 멀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다가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33. “죽은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자들과 천민들은 매우 큰 무리를 이룬다. 나는 그들에게로 갈 것이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야말로 나의 임재를 가장 잘 받아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권력자들—권력과 부, 세속적인 영광을 가진 자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나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몇 가지 영적인 선물이나 영원 속의 자리라도?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34. 이것이 바로 내가 육체와 영혼이 병든 가난한 자들의 무리를 찾아가 그들에게 내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이다. 그들은 나를 갈망했고, 나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인류에게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내 임재를 느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35. 때가 되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병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그리고 천민들로 이루어진 무리가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적의 민족으로 일어설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시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영과 영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 어떤 인간의 힘도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해 선택한 대변자들을 통해 전하는 준비의 메시지와 나의 가르침 때문이며, 이 메시지는 세계 각지에 있는 나의 사자들에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36. 내 증인들의 입술에 담긴 내 말씀은, 이 백성이 대변자의 입에서 직접 그 말씀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실함으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도와 이웃 사랑 속에서 너희는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며, 불신자들은 오직 성령의 제자들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할 것이다.

37.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는 평화도, 사랑도, 형제애도, 조화도 없는 인류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 전파자로 삼은 신성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갱신의 기적이, 내 말씀이 마찬가지로 전해질 민족들과 국가들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 악덕, 무지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8. 내가 너희를 스승으로서 이 세상에 남겨두게 될 때,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9. 오늘 너희는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이지만, 내일은 가르침을 연구하는 제자가 될 것이며, 나중에는 받은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스승이나 사도가 될 것이다. 내 말씀의 소박함이 너희 영성화의 시작이 되었음을 잊지 말라. 그러니 그 말씀에 결코 불필요한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40. 너희의 현재를 항상 과거와 비교하여, 너희가 진전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시험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잠들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내가 무기력하고 무관심할 수 있었는가?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부정할 수 있었는가?”

41. 내 말씀의 힘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니, 그 말씀은 영혼을 깨우고, 가장 굳고 무감각한 마음조차도 느끼게 하여 떨게 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너희를 징계할 필요가 없었으며, 너희를 이 길로 이끌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말이나 위협으로 너희를 겁주지도 않았다. 나의 목소리는 사랑이 넘치고 설득력 있었으며, 그 목소리는 너희 안에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을 일깨워 주었다.

42. 내일 너희도 같은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말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일깨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씨앗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3. 나의 사역은 인류에게 순수하게 전해져야만, 인류가 나의 율법을 이행하고 구원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

44. 나는 사람, 즉 온 인류에게 약속을 했으며, 내 말씀은 왕의 말씀이므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는 제자들을 통해 내 말씀의 황금 밀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사람들에게 준비가 되어 곧 영과 영의 대화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1950년 이후로는 내가 이곳에서도,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더 이상 *발성자의 지성 기관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5. 백성들아, 단결하라. 시련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 말씀의 적들도 너희를 대적하고 흩어뜨리기 위해 단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의 힘을 믿고 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너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힘은 영적인 것이 될 것이며, 결코 돈이나 세속적인 권력에 기반하지 않을 것이다.

46. 백성들아, 이 기회를 활용하라. 다른 때를 기다리지 말라. 너희가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가져다줄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7. 너희 스승이 너희에게 계시해 주신 수많은 것들로부터 항상 배우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을 품고, 내 식탁에 앉아라.

48. 나의 계시가 이루어진 이 마지막 몇 해는, 나의 영을 통해 그들 안에 흘러들어온 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49. 나의 제자들은 스승께서 그들에게 계시하고 알려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할 것이다.

50.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 살며, 하루하루가 똑같고 교훈도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계시의 마지막 날들을 위해 아껴 둔 영광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들은 또한 내 말씀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변화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는 열망을 품은 적이 없으며, 영혼의 진보와 완성을 의미하는 성장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51.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나도록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이 백성 중 일부만이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파멸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의 소망은 너희 모두가 빛으로 치솟는 것이다.

52. 각자는 동료 인간들에게 열린 책이 되어야 하며, 그 페이지들에는 각자가 영혼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책의 페이지들은 너희의 행실이 될 것이며, 너희 존재 속에 영성, 사랑, 지혜가 깃들어 있다면, 세상은 너희를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이자, 빛과 영적 발전의 시대를 알리는 전령으로 인정할 것이다.

반면, 여러분에게 전통에 따른 걸치레의 신 숭배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책에는 광신, 무지, 혼란, 그리고 어둠만이 담길 것입니다. 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아직 빛이 비치지 않은 한, 나의 사역에 대해 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씨앗은 —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 타인의 일에 유익하기보다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 오,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씀을 어떻게 대했기에, 내 계시가 곧 끝날 이 시점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가?

54. 너희는 잠들어 있었다, 백성들아. 이 계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내 말씀으로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에게 찾아오는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임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현실이 너희를 깨웠다. 1950년 — 내 계시의 마지막 해라고 수천 번이나 예고되었던 해 — 가 코앞에 다가왔다.

55. 1950년을 기대하며 ‘깨어’ 있고, 그들에게 있어 이 시기의 끝을 의미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극소수,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56. 이 해는 단지 이 민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 아니다. 너희에게 있어 한 시대의 종결과 또 다른 시대의 탄생이라면, 교회들에게는 심판과 자기 성찰의 해가 될 것이다. 과학과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는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57. 이 사역이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내가 1950년에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 시절 너희 삶 속에서 드러난 모든 것이 성령의 부르심과 그분의 빛의 불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신학자들조차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58.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오 수많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시간이 이미 매우 가까워졌지만, 진심 어린 자기 성찰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59. 이것은 너희가 감당해야 할 그 날의 일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준비에 관한 가르침이다.

60. 축복받으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너희 영혼에 위로와 양식이 되는 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왔다. 너희는 그 말씀에서 본질과 진의를 이끌어내고 나의 뜻을 깨닫는 법을 배웠다.

61.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너희 영혼을 깨운 이 말씀은 오늘 너희의 기쁨이 되었으며, 너희 마음을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 이 말씀은 추위에 떨던 자들을 감싸 안았고, 빛을 갈망하던 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해 내 보물창고에 간직해 두었던 계시이다.

62. 이 시대에 나는 저 세상에서 천사들에게 말하듯이 너희에게도 말하였다. 너희 영혼이 내가 너희를 보낸 이 땅의 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 동등하게 사랑받고 있다. 너희는 성장하며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길의 끝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의 신성한 품은 너희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마음, 너희 하나님의 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아가라.

63.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낸 것은, 너희가 언제나 살아 계신
하나님, 곧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 왔기 때문이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숨지 않으시며, 항상 인도하시고,
조언하시며,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너희를 양육하고
구원한다.

만약 내 자녀들 중 세 명이 인류 가운데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찾았다면, 나는 그들을 통해 이미 나의 은혜를 쏟아 부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있음을 본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온전해질 것이다 — 내가 표를 찍은 14만
4천 명이 산기슭, 빛나는 “계곡”, 선택받은 도시에 모일 것이다.
그때 나의 기쁨은 클 것이다.

64. 너희가 준비하면, 나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을
너희 안에 쏟아 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큰 권능을 주어, 제3의
시대에 내 재림에 대해 말하게 하리라.

65. 나의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너희는
깊은 연구를 시작했고, 나의 가르침이 무한하며, 그것이 제시하는
지평이 날마다 더 넓어지고, 너희가 그 진리의 전모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너희는 가르침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순간에 너희가 이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그때 너희의 설득력은
대단해질 것이다.

66. 태초에 나는 땅에서 나를 대변할 자, 곧 모세를 택하였고,
그를 통해 나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엄격함을 드러내 보였노라.
너희는 너희 영혼의 미약한 발전 수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를 이해하였노라. 나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노라. 백성들은
나의 계시와 계명을 받았노라. 나는 너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
너희로 하여금 광야를 건너게 하였고, 너희는 영혼을 성장시키며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체험하였다.

67. 긴 방랑과 수년간의 인내와 경험을 거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내 영이 날마다 되풀이하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축복받고 준비된 땅을 찾았다. 그것은 너희가 믿고
번성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평화의 오아시스였다. 그 후

너희는 나의 사자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에 대한 증언을 전파했다.

68. 이처럼 나는 언제나 나의 약속을 통해 너희를 격려해 왔다.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인류 가운데서 평화의 사역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가 준비되는 대로, 나는 너희를 통해 이를 이루어 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대만이 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평화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넓은 길을 보여준다.

69. 내가 백성 전체에게 맡긴 사명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마주하게 될 역경은 크니, 너희는 운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강하고 힘차야 한다. 너희는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온전한 기도로 살아가며, 결코 광신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오직 너희 마음의 성전에서만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70. 내면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모든 이 안에 있을 것이니,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사역을 쉽게 설명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줄 것이다. 너희는 영혼과 육체의 병을 치유할 것이다.

사람은 이 시대에 신성한 법과 도덕적 법, 자연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 세상의 허상 속에서 도움을 찾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의 근원이 영혼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법과 질서, 영적 의무 이행이라는 근본 원리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으며, 모든 선이 솟아나는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마음의 감수성 있는 현이 굳어 있으며, 믿음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류에 빠지고, 병들며,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에게 용기와 평화, 치유의 힘을 가득 채워 남겨두니, 네가 내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네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라.

71. 잠시 멈춰 서서, 심연으로 치달는 이 세상의 광란을 바라보라. 인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노력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오직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죽음뿐이다. 양심의 목소리는 잠잠해졌고, 그 등불은 꺼져 버렸다. 인류는 속죄의 큰 날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은 크다.

72. 백성들아, 그들이 더 깊이 추락하기 전에 그들을 막아라! 기도와 생각으로 싸워라. 모범을 통해 가르치고, 시련이 닥칠 때면

믿음과 희망의 표징을 보여주고, 그 시련 속에서 오직 너희 영혼을
정화할 기회로만 삼아라.

동료들이 너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행동에 있어 단순하라.
너희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아이들과
노인들처럼 단순하라. 이 미덕들은 영성화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73. 또한 자신의 씨앗을 기뻐하며,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사는
농부처럼 되십시오. 농부는 새로운 하루의 빛이 비추어 새로운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정오와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 다시금 영혼을
드높입니다. 그에게 있어 받는 모든 것은 훌륭하고 완전하다.
태양과 물, 모든 원소들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 주며,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임재를
엿본다. 영적 밭에서 일하는 너희도 그와 같으라.

74.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경작할 물질적인 농지를 주지
않았다. 너희의 손으로는 물리적 씨앗을 심기 위해 고랑을 파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마음속에 내 말씀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들로 부르셨다. 너희의 일과가 영적인 만큼, 나는 너희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빛과 사랑, 말씀—을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내
자녀들 중 몇몇이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75. 내 은혜는 그들에게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나에게서 이를 기대해 왔으며, 시련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라고 말하였다.

너희는 고통을 ‘적’이라 부르지 않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보낸
셀 수 없이 많은 시련에도 지치지 않았다.

76.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서 살고 있으며,
내가 너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고 있음을 안다. 시련이 너희
마음속에 자기 성찰과 강인함의 열매를 남기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자비가 너희를 일으켜 세운다. 너희는 나의 말씀과 나의
율법을 알게 되었으며, 나의 사랑과 자비 곁에는 나의 정의와
엄격함도 있음을 알고 있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잘못된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

77. 나는 매일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지만, 인류는 나의
언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나와 대화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 실천은 불완전하지만, 오늘날 나의 빛과 정의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은 깨어나기 시작하여 그들 위에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 내고
있다.

인류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법은 불완전한 과학과 내가 파괴할 물질주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 머지않아 인간 정신을 위한 빛의 시대가 밝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순종하고 나의 뜻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수호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발걸음을 나를 향해 인도하게 하리라.

78. 나는 영적 세계가 잠시 동안 인간과 교감하도록 허락하였다. 너희의 영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는 그들의 영은 온전한 순수함과 고양된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제3시대의 위대한 투쟁에서 너희를 돕기 위해 내려왔으며, 너희는 그들을 분명히 감지하였다. 그들의 축복된 영향력은 많은 마음을 회심시켰고, 그들의 모범은 진실하다.

79. 나는 영적 일꾼들, 즉 자신의 은사를 펼치고 이 영적 존재들이 드러나도록 한 일꾼들을 축복한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내 눈에는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1950년까지 너희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후에는 영원히 너희 곁에서 도울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려운 사명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영적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신성한 인도자는 모든 영들 위에 계시며, 그분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명의 천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 인간 마음의 냉혹함을 바라보며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나 그들은 나를 사랑하며 인내심 있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0.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다른 “계곡”에 거주하는 영적 존재들이 너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때이다. 모든 경계가 무너진 이 시대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너희의 언어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81. 195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언어로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점차 알게 될 더 높고 우월한 표현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바로 더 이상 물질적인 단어가 필요 없는 그 ‘언어’로 말이다.

너희는 이 시대에 나의 가르침을 받은 영적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영성화를 요구한다.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드러날 수 있고, 발전의 길에서든, 기도에서든, 영적 행위에서든 어떠한 방해도 겪지 않고, 그 길 위에서 자유로워져 내게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 대화에 대해 많이 말해 왔으며, 너희가 그것을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 소망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82. 나는 너희를 ‘만민의 빛’으로 준비된 자들로 남겨 둔다. 준비하라. 이 시대의 나의 말씀은 유언이 될 것이며,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책이 될 것이니 — 너희 손에 있는 것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지식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83. 내가 제2시대에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고, 어린 양처럼 내 몸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제3시대에는 모든 영혼을 위해 빛으로 나 자신을 바칠 것이다. 준비하는 제자요, 나를 이해하는 제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은 나를 위한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92

1. 지혜의 책에서 또 한 페이지를 받아라. 나는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다가올 세대들에게 전하라고 명한다. 그들은 영적으로 더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나의 사역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대들은 영성화의 씨앗을 지니고 올 것이며, 그들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낙원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2. 나는 현재의 세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으나, 내일의 백성, 곧 나의 미래 제자들을 위해 더 큰 계시를 남겨 두었으니, 그들은 그때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너희는 종종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주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저 별들이 너희의 세상과 같은 세계들인지 나에게 물었다. 너희의 호기심에 대한 나의 대답은 신비의 베일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는데, 이는 너희가 아직 그것을 이해할 만한 필요한 성숙도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성도 갖추지 못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주는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다른 세계들을 찾으려 한다. 너희는 같은 세계의 주민들끼리 형제가 되는 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존재를 발견하려 한다. 우선은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고 말했던 것과, 지금 그 말씀을 재확인하며 너희가 우주의 유일한 거주자가 아니며 너희 행성이 유일한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4. 미래 세대들은 다른 세계로 이끄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5. 자비와 평화가 꽃피는 선과 사랑은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류는 우주적 조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6. 여러분의 삶과 영적 숭배, 과학, 그리고 일에 적용된 선과 사랑은 인간을 진정한 지혜로 이끌 것입니다.

7. 오늘날 여러분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기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혼의 자유와 고양을 추구하지 못한 채 오로지 ‘세상’만을 위해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8. 인간의 결점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전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게 된다면, 허영심에 사로잡힌 여러분—물질주의로 인해

작아져 버린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뿌릴 씨앗은 무엇이겠습니까? 불화, 무분별한 야망, 허영심입니다.

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그 지식과, 그를 괴롭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로부터 그의 생각을 해방시켜 줄 그 계시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은 스스로를 깊이 정화하고 깨어 있으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10. 내 비밀을 그에게 밝혀 주는 것은 과학만이 아닐 것이다. 지식에 대한 그 갈망이 영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11. 사람들의 삶이 일단 영성을 반영하게 된다면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넘어 탐구하기 위해 애쓸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더 높은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12. 나는 이 짧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내용은 단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뿐이다.

13. 당분간 너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정하신 바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힘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발휘되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데 여전히 너무 서툰 모습을 봅니다. 이는 여러분이 영혼이 스스로 표현하거나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 너희 안에는 진정한 보물, 즉 너희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데, 무지함으로 인해 너희는 궁핍한 자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도의 힘과 생각의 힘에 대해 너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영혼과 영혼 사이의 깊은 대화에 담긴 깊은 의미에 대해 너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지, 이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류여!

15. 먼저 영혼의 은사를 꽃피워 영혼을 고양시킨 다음, 그 후에야 비로소 너희의 세계와 이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라.

16. 인간의 이성은 작고 한계가 있다. 왜 오직 영적 영혼만이 발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그 이성에 맡기려 하는가?

17. 아아, 이 땅의 어리석은 자녀들아, 너희 중 많은 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스승으로 삼기를 원치 않았고, 나를 믿지도 않았구나! 이제 너희가 내가 곧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18. 제자들아, 삶은 무한한 지혜의 교훈처럼 너희 곁을 지나가고, 너희 영혼은 지식을 쌓아가며, 그 결과 너희는 더 큰 고양을 얻게 된다.

19. 너희 자신의 행실을 스스로 판단하라. 양심의 목소리는 언제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너희가 너무 느리게 나아가고 있는지, 너무 빨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지 깨닫게 해 줄 것이다.

20. 자신을 알아가고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해야 한다. 그 사람은 모든 행동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삶의 여정에서 그의 발걸음은 확고해질 것이다.

21. 영적 영혼이 육신을 이기기 시작하면, 매우 큰 만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22. 그러나 스승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행위의 가치가 크든 작든 얼마나 잘 알고 있든 간에, 오직 지극히 높으신 심판자이신 아버지만이 이 최종 심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23.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순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가 행한 선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어떤 행위도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24. 언젠가 너희가 영의 왕국에 이르면,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듯한 작은 행위가 얼마나 자주 선행의 사슬의 시작이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사슬은 다른 이들이 점점 더 길게 이어나가겠지만, 그것을 시작한 이에게는 영원히 만족감을 안겨줄 것이다.

25.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 바로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릴 너희 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종종 동료 인간들에게 말을 건네면서도,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열매를 맺었는지 아닌지, 그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죽어버렸는지, 아니면 그것을 간직하고 퍼뜨릴 줄 알았는지 — 알지 못한 채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은 일하십시오. 이웃들 사이에서 선한 행실을 배가시키고, 그들을 위해 발을 준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맡긴 씨앗이 그들의 행실을 통해 번성하게 하십시오.

26. 너희가 빛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길은 멀다. 어떤 존재도 영혼이 걷는 길보다 더 긴 길을 걷는 이는 없으니, 그 길 위에서 아버지이시며 신성한 조각가이신 분께서 너희 영혼을 빚고 다듬어, 그분께서 너희 영혼에게 완전한 형상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27. 내가 너희에게 자세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뿌려야 할 밀이 너희 여행 가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8.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 가운데 다시 한 번 나타날 것이다. — 특정 인종에 국한된 백성이 아니라, 피나 인종, 언어가 아니라 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의 수많은 제자들, 곧 군단이다.

29. 이 백성은 글을 통해 내 가르침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에 생명이 깃들게 하려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이 백성은 글과 책만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모범과 행실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30. 오늘 나는 너희를 모든 불필요한 것, 불결하고 그릇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너희 영혼이 그 위를 날아오를 수 있고, 그 행실을 통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단순하고 순수한 삶으로 인도하리라.

31. 때가 되면, 나는 내 백성을 인류 앞에 드러낼 것이며, 스승은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제자들도 스승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은 세계관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와 겹칠 것이며, 그 전쟁 속에서 평화의 숨결과 같은, 빛의 광선과 같은 영성주의가 솟아오를 것이다.

32. 이미 아버지의 정의가 사람들의 세속적 권력과 그들이 쌓아 둔 보물을 찾아가고 있으니, 이는 내 말씀이 결코 지배권이나 물질적 부를 이용하여 통치하거나 확산되지 않을 것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33. 인류의 그 모든 도덕적·물질적 구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오점을 지우고, 모든 죄를 제거하며, 오직 선한 씨앗을 품은 것들만 남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4. 내 임재와 내 의의 빛나는 광채가 온 땅에 비칠 것이며, 그 빛을 마주하여 우상들은 무너지고, 익숙했던 전통들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의식은 버려질 것이다.

35. 나를 볼 수 없었으나,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았기에 마침내 나를 보게 된 모든 이들의 영혼에서 “새로운

노래”가 솟아날 것이며,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나를 찾는 자는 언제나 나를 찾게 마련이다.

36. 나를 부인하고, 나를 피하며, 내 이름을 감추고, 내 현존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길 위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할 시련이 닥칠 것이다.

37. 어떤 이들은 불완전한 관념으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은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내가 그들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임을 알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38. 거대한 전투가 코앞에 다가왔으니, 모두 무기를 준비하라. 이 싸움에서 너희 모두는 각자의 몫을 맡게 될 것이며, 통치자, 성직자, 과학자, 부유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39.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양심에 새겨진 율법에 대한 지식뿐이었다. 의례, 전통, 제사, 헌금 —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지성소와 제단은 파괴되었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은 보존되었다. 바로 그것들이 인류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시켰고, 새로운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발을 갈아엎어야 했기 때문이다.

40. 이스라엘 백성이 무적이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은,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전과 마찬가지로 파괴되었다. 이는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다스리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성소를 세우기 위해 물질적인 성전을 파괴해야만 했다.

41. 이제 그 당시 나의 사도들이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으나, 말씀과 영과 행실과 진리를 표현하는 믿음과 미덕과 사랑의 성전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웠던 이유를 깨달으라. 그들에게는 금도, 향도, 전례도 없었다. 그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은 치유되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할 때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성소를 세웠다.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 말할 때면, 그것은 마치 불의 흔적처럼 영혼 속에 남았다.

42.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라. 성령의 성전은 물질적인 기초가 없으며, 땅 위에 제단이 없다.

43. 이 시기에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외형적인 숭배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차서 “왜 하느님께서서는 이를 허용하셨는가?”라고 묻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씨앗이 퍼져 나가고 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44. 땅은 내 씨 뿌리는 자들의 씨앗을 기다리며 축축하고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자들의 책임에 대해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가 광신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숭배에서 벗어난 후, 이 백성이 새로운 우상 숭배를 내세운다면 옳은 일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학습자들아. 그렇기에 너희가 가는 길의 매 걸음마다 교훈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45. 너희의 사명은 위대하다! 그러나 불길한 징조들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다가오는 괴로움의 날들이 인류의 각성과 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것 없이는 영성화의 시대가 승리를 거두며 도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라.

46.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낙담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말며, 건강을 잘 챙기라.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과 희망을 불태우는 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북돋워 주라.

47.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한 채로 살고 있는지 보라. 그들은 삶의 투쟁에서 패배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일찍 늙고 백발이 되었는지, 얼굴은 시들고 표정은 우울한지 보라. 그러나 강해야 할 자들이 약해지면, 청춘은 시들어 버릴 것이며, 아이들은 주변에서 오직 슬픔만을 보게 될 것이다.

48. 백성아, 비록 덧없을지라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건전한 기쁨을 너희 마음에서 빼앗지 말라. 평안 가운데 너희의 소박한 빵을 먹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너희는 그 빵이 더 맛있고 풍요롭게 느껴질 것이다.

49. 내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확신과 믿음, 낙관주의, 마음의 평화와 힘이며, 너희의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속에 쓴맛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만일 너희 마음이 고통과 근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떤 친절이나 격려를 줄 수 있겠느냐?

50. 특히 시련 속에서 너희는 고양된 마음, 믿음, 그리고 겸손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51. 자신의 삶에 이러한 영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느끼며, 잠을 잘 때조차도 그 잠은 평온하고 상쾌하여,

영혼은 이를 통해 육체에서 벗어나 저 세상으로 향하며, 그곳에서 영혼은 자신을 양육하고 육체와도 나누는 그 신성한 힘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52. 누구도 나의 예언이 너희의 삶을 어둡게만 만든다고 말하지 말라 — 오히려, 나의 말씀은 너희를 어둠에서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준비시켜, 투쟁의 순간에 너희가 연약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깨달아라.

53. 전투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너희의 마음이 겁에 질려서는 안 되며, 평화가 너희의 세계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

54. 나는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한 세상의 끝이자 다른 세상의 시작에 서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행성은 여전히 같을 것이며, 자연도 같고, 빛도 같겠지만, 인류의 삶의 방식은 달라질 것이며, 그들의 목표와 투쟁, 그리고 이상도 달라질 것이다. 정의와 진실이 지배할 것이다.

55. 그 시절 인류 속에 환생할 영혼들은 대다수가 선에 깊이 헌신할 것이므로, 악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영혼들이 그들 앞에 제시하는 진리의 빛 앞에 굴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통해 선한 자들을 질식시키고, 오염시키며, 짊어 묶어두는 힘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56. 너희의 세상은 앞으로도 영혼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투쟁과 속죄의 세계가 될 것이다. 여전히 너희 지구는 이곳을 떠날 때 의인들의 거처에 다가갈 수 있는 고귀한 영혼들을 나에게 바칠 수 없다. 여전히 이 지상의 골짜기는 이곳에 머물러야 할 위대한 영혼들을 품을 수 없다. 이곳은 끝없는 환생의 세계인데, 영혼들이 느린 상승 과정에서 시작한 일들을 돌보지 않은 채, 빛을 갇지 않은 채,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남겨두기 때문이다.

57. 내일 이 땅은 그 주민들의 행실을 통해 나에게 아름다운 영적 꽃들을 바칠 것이며, 그들은 아버지께와 이웃에 대한 사랑 속에서 인내의 삶을 살며 거둔 익은 열매를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58. 내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이들이 바로 너희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룬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가? “네, 아버지”라고 너희 마음이 내게 말한다. 너희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이 생각을 품고 있으니, 그들의 길을 깨끗이 하고 평탄하게 하라.

나는 그들이 너희 발자취를 발견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남긴 겸손한 유산을 거두기를 원한다. 그 유산은 후세들이 지극히 존중할 것이다.

59. 너희의 이름이 잊혀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행실일 것이니, 이는 너희가 닦아 놓은 길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60. 나의 정의가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이 흔적을 지울 수 있겠는가?

61. 영성주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비밀을 설명해 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계시를 선사하는지 보십시오.

62. 이는 일곱 봉인의 책이 너희 영혼 위로 내려보내는 광선들이다. 이는 어린 양의 음성이 말하며, 여섯 번째 봉인의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이다.

63. 오직 어린양만이 하느님의 깊은 신비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계시해 주십니다.

64. 제3시대의 제자 여러분이 한 번 여러분이 받은 바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온 인류를 위한 이 메시지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지체 없이 나설 것입니다.

65. 이처럼 거대한 물질주의의 한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하며, 삶의 사건들을 탐구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아두라. 그들은 내가 곧 올지, 현재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왔다가 다시 떠났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66. 이 계시의 형태로 나를 체험하고 오랫동안 이를 기뻐해 온 너희에게, 나는 말하노니: “사람들, 곧 너희 형제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67.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내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초기’에 계시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내가 움직이고 영감을 준 너희 입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시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68. 조롱과 가혹한 비판에 노출되지 않고 어떻게 동료 인간들에게 너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 참된 사도이자 이 진리의 전도자로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이 빛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빛을 그들도 흠도 없이 사람들의 영혼에게 전해야 한다는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말이다.

69. 너희가 지상의 민족들을 구원할 구세주는 아니겠지만, 너희는 이 세상과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신 분과 함께, 너희 자신과 모든 영혼을 위해 협력하게 될 것이다.

70. 나는 내 자신의 업적을 기뻐하며,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의 불꽃을 주신 모든 이들에게서 사랑받고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고자 한다. 나는 모든 이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며, 내 왕국에서 신성한 업적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 묵상을 통해 주님께 이르는 온 길을 다 걸어왔다는 사실에 대해 그들 모두가 지극한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71. 나의 사업은 영원하며, 너희 가운데서 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72. 대변자들의 입술은 더 이상 나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겠지만, 나의 영감은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게 할 것이다.

73. 이 이성의 기관들을 통해 내 영이 계시하신 취지는, 바로 너희가 이 가르침을 통해 훗날 영과 영 사이에서 나를 찾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93

1. 나의 사랑은 끝없이 큰 태양처럼 너희를 비추며 너희 모두를 감싸 안는다.
2. 내가 여기 있으며, 너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영적 영혼에게는 지극히 사랑스러운, 또한 너희 입에 그 어떤 쓴맛도 남기지 않는, 내 생각이 말씀이 되어 너희의 이성애 흘러들게 하노라.
3. 별들이 별집을 짓고 한 방울 한 방울 꿀로 채우듯이,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말씀을 전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정수로, 영적 사랑을 갈망하는 백성의 마음을 한 방울 한 방울 채워 나갑니다.
4. 아직 내 백성의 수는 적지만, 나는 마치 수많은 군중을 대하듯 너희에게 가르침을 준다. 내 사랑은 이 적은 수에 의해 막힐 수 없으니, 스승에게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편견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5. 시련과 투쟁, 의심과 불확실성,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아, 구세주의 빛 앞에 오라.
6. 너희는 영혼을 위한 약이 필요하며, 나는 그 ‘두 번째 시대’에 왔던 것처럼 — 몸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 너희에게로 온다.
7. 너희가 심각한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가난에 짓눌리거나, 시련의 고통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게로 올 때, 너희는 내 말씀

속에서 너희의 아픔을 달래줄 어떤 문장이라도, 내 시선이 너희를 발견했고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이라도 찾으려 한다. 그때 나는 너희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내게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음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인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부어 주고, 나의 가르침이라는 정성스러운 식사를 베풀며, 힘을 얻어 다시 삶의 길, 투쟁의 길, 속죄의 길로 너희를 보내 드린다.

8. 나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는 시련 속에서 믿음과 소망, 인내와 굳건함의 작은 부분을 기여할 뿐이며,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9. 나를 신뢰하는 자는 절망할 수 없으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할 줄 알았던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10. 너희가 올 때 너희 마음에 다가가는 이가 바로 나다. 나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사랑을 의미한다.

11. 그러므로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리라. 왜냐하면 때가 올 것이니, 그때 나는 가장 잘 준비된 자들과 가장 열정적인 자들, 내 말씀을 가장 깊이 탐구한 자들 중에서 내 백성을 택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첫 번째 사자이자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며, 또한 영과 영으로 그들의 아버지께 대화하는 첫 번째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내가 어떤 이들은 택하고 다른 이들은 거절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결코 그렇지 않다, 제자들아. 그러나 나는 너희가 점차적으로 달성하고, 나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준비의 정도에 따라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13. 오늘날 스스로 준비할 수 있었던 이들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영적 계시를 얻었듯이, 장차 내 목소리가 천상의 화음처럼 너희 영혼에 닿아, 내 계시의 지혜와 내 영이 너희에게 보내는 빛나는 영감으로 너희의 이성을 경이와 감탄으로 사로잡을 때가 올 것이다.

14. 그 때가 올 것이니, 의심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그 시기를 정하지는 않는다. 그 때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너희에게, 즉 너희의 열정과 사랑에 달려 있다.

15. 그러나 내가 현재 형제자매인 대변자들의 겸손한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주는 것을 경시하지 말라. 내 가르침은 너희 영혼이 성장하여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너희를 단련하기 위함이니라. 아, 너희가 스승의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비밀스러운 뜻을 찾아내는 법을 알기만 한다면 — 얼마나 놀라운

계시들을 발견하게 될까! 너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빛이 얼마나 많이 너희에게 주어질까!

16. 이 사역의 제자이자 이 말씀의 증인인 너희에게, 너희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노니,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한 이 교훈을 이해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영에게 약속된 새로운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며, 그 가르침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질 것이며, 외적인 수단이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7. 너희는 아직 내가 현재 너희에게 선포하고 있는 가르침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은총의 선물을 소유하고자 하는가?

18. 만일 너희가 내 말씀이 요구하는 진보의 단계에 도달했다면, 너희는 영적 자아의 빛 안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너희의 유익한 영향을 뚜렷이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너희의 큰 유감 속에 교훈들이 반복되고 있다.

19. 단일한 신성한 영의 세 가지 다른 발현이 바로 인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계시들이며, 이는 세 시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잘못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진리에 대해, 여러 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20.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주었듯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우주적 창조주이시며 유일하게 피조되지 않은 분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시며, 너희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은 그리스도, 즉 아버지가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사랑의 계시이며, 너희가 ‘성령’이라 부르는 것은, 너희의 영이 나의 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너희에게 보내시는 지혜임을 설명해 주었다.

21. 그 성령의 빛, 곧 하나님의 지혜는 곧 여러분이 도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 제3의 시대에 통치하게 될 것이며, 영성을 필요로 하고 진리를 갈망하며 사랑을 굶주리는 인류의 사고를 비추게 될 것이다.

22. 나는 사람들 가운데 세 개의 “왕국”을 세웠는데, 이 왕국들은 머지않아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23. 첫 번째는 권능과 법의 힘이며, 두 번째는 사랑이며, 세 번째는 지혜이다.

24. 사람이 내가 “각 왕국”에서 그에게 전해 준 법과 가르침, 계시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늘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5. 또한, 백성들아, 비록 세 가지 다른 측면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오직 한 분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참된 것이다: 그 첫 번째 시대에 아버지의 행적 속에서 사랑을 찾으면, 너희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며, 지혜의 빛을 찾으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 속에서 너희는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과 지혜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시대에 성령의 사역 속에서 힘과 법과 권능은 물론, 사랑과 다정함, 치유의 연고까지 발견한다고 해도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26. 이것이 가장 고귀한 왕국이다. 빛 때문이 아니라 — 빛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을 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27. 그것은 지성의 기관과 영혼을 비추는 빛의 왕국이 될 것이며, 그 빛은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 밝기는 너무나 커서, 나를 부인했던 모든 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어리석었던 자들은 맑은 대낮의 빛 속에서, 마치 창공처럼 선명하게 드러난 진리를 보게 됨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28. 당분간 나는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때가 되면 영성화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봉사할 선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 바로 이곳, 고요함과 겸손함 속에서 나는 그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있다.

29. 농부가 자신의 땅을 경작하듯이, 장인이 자신의 일에 전념하듯이, 학자가 사색에 잠기듯이, 철학자가 꿈에 빠져들듯이 — 모든 사람이 근심과 절망에 찬 삶의 투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듯이, 나는 영성, 평화, 선함, 그리고 삶에 대한 더 높은 깨달음에서 영감을 받아, 선한 씨 뿌리는 사람처럼 일하고 깨어 있으며, 학자처럼 고심하고, 철학자처럼 꿈을 꾸며, 인류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투쟁하듯 영혼의 진정한 양식을 위해 분투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한다.

30. 진정한 영성가는 영의 법칙과 물질의 법칙을 통합하여, 그것들로 미덕이 넘치고 양심적이며 고귀한 삶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31. 오늘 너희는 나의 작은 제자들로서, 고독한 명상 속에서 점차 자신의 영혼을 다듬어, 그 후 동료 인간들을 돕고 그들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2. 예수님의 제자란, **말씀**을 통해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하고 위로하며, 고양시키고 깨우치는 자로서, 정복당한 자를 자기 자신과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자로 만드는 자이다.

33. 그리스도의 사도는 오직 자신의 고통이나 걱정만 생각하며 마음속에 이기심을 품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일을 뒤로 한 자에게 아버지께서 지체 없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희망의 미소, 슬픔에 대한 위로, 고통에 대한 한 방울의 치유제를 전하기 위해 자신을 잊은 사람은, 돌아왔을 때 축복과 기쁨, 평화 그 자체인 빛으로 밝혀진 자신의 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4. 사람들이 이웃을 형제자매처럼, 온 세상의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그들은 내 가르침 속에서 확고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 될 것이다.

35. 사랑이 그 힘과 근원이 되는 삶의 위대한 과학을 아는 이는 얼마나 적은가.

36. 내 가르침에 담긴 신성한 교훈을 바탕으로 선택되는 법을 배우는 자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식탁 위에서 나누어지는 빵과 같아야 할 것이다.

37. 너희가 아직 온전히 선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 성장을 소홀히 하며 — 다른 이들의 행동을 옳고 그름을 가리고 비난하는데만 신경 쓰고 있는 한, 너희가 나의 사랑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38.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지 않는 한, 내 빛이 너희 존재에 닿아 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두라. 악한 생각과 말, 감정은 온전히 순수함 그 자체인 이 빛이 너희 영혼에 거할 수 있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39.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거처를 깨끗이 해야 한다 — 단 한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말이다. 나는 너희 마음의 은밀한 방에 거하고 싶다. 그러나 단지 짧은 순간 동안, 즉 너희가 준비하는 동안만 거기에 머물러 달라고 나를 부르다가, 너희의 정욕이 깨어나자마자 쫓겨나는 일은 그만두어라.

40. 세상과 그 유혹은 강하므로, 싸움과 시련 속에서도 너희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너희의 선한 결심은 그보다 더 강해야 한다.

41. 때때로 나는 너희 영혼을 민감하게 만들고 너희 마음을 떨리게 하고자 내 가르침을 반복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말씀의 진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오직 무자비한 정의와 엄격함, 그리고 가혹함만을 보았고, 주님에 대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느냐?

42. 너희는 이미 아버지가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그들이 빠졌던 그 오류를 잘 알고 있다.

43. 너희는 이미 하느님을 심판자라기보다는 완전하고 무궁무진한 사랑을 지닌 아버지로서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하느님을 너희 아버지로서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말씀드리건대, 너희도 그 옛 백성들처럼 새로운 잘못에 빠질 수 있으며, 이 잘못은 너희가 도덕적·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사랑이시며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중대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

44. 확실히,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아무리 중대한 죄라도 그분이 용서하지 않으실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신성한 사랑에서 무자비한 정의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명심하여, 여러분이 내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으로 받아들인 바가 진리에 부합하고,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그릇된 생각을 없애도록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점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남아 있으며, 여러분은 공덕을 쌓아 그 오점을 씻어내야만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5. 너희는 자신의 악한 행실과 죄에 대해 눈을 감고, 원치 않는 짐을 짊어지다가 낯선 집에 남겨두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너희는 그 오점을 자신의 마음에 새긴 사람보다 더 잘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46. 구원의 문과 너희를 기다리는 은총의 샘이 있는데도, 왜 너희의 발걸음은 그리 느린가? 그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느껴지는 냉담함과 세속적인 회의주의가 너희를 감염시켜, 너희가 때때로 내 자비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47. 오늘 나를 듣는 백성들아 — 즐거움으로 가득 찬 덧없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너희들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환상과 정반대로 너희의 추구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될 때, 결국 너희 입에는 오직 — 쓰라림과 양심의 책망만이 남을 것이다.

4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아가고, 투쟁하고, 즐기며, 고통받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너희는 영혼을 마치 지팡이처럼 의지해야만 견딜 수 있을 것이며, 영혼은 언제나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49. 너희는 오직 믿음 속에서만 필요한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0. 오,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어두워진 슬픔에 잠긴 인류여! 눈을 떠서, 빛의 왕국과 진리의 영이 오는 것을 보라. 그분은 오늘날까지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과 이성을 깨우기 위해 내려오신다.

51.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내 말씀을 계시할 수 있는 무수한 방식 중 하나로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 내일, 이 계시의 형태가 지나가면 내 말씀은 기록될 것이며, 그렇게 글로 남아서 지방에서 지방으로, 집에서 집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어떤 이들은 깨우치고, 어떤 이들은 회개하게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위로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도 해야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에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를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아. 사람들이 경전을 통해 내 말씀을 간절히 찾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있는 이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의 삶의 광야에서 만나가 되어 주었던 그 말씀의 의미와 울림을 떠올리고자 할 때, 너희가 내 말씀을 기록해 둔 페이지들을 사랑과 존경심으로 모을 것입니다.

52. 인간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며, 나는 과거에 인류가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에게 지혜를 준다.

53.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셨다. 사람은 더 높은 지식을 필요로 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심오한 교훈을 계시해 주셨다. 사람은 믿음의 강화가 필요했고,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의 믿음을 굳건히 해 주셨다.

54.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너희의 귀가 증언하고 너희 마음이 느낀 바로 그 형태로 나를 드러낸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라.

55. 오늘 너희는 내가 한 사람 안에 육신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제3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현존은 영감과 내 영과 하나 되는 능력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내 자녀들 중 일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56.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잘못 해석한 탓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파헤치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그리고 물질주의라는 벽 너머에 있는 영원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57. 지혜와 사랑, 고양을 의미하는 빛이 너희에게 지극히 부족함을 보았기에, 내가 오지 않을 수 없었다.

58. 너희에게 이 빛을 주기 위해,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 곁에 나타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를 영성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이고 보이지 않으나 너희의 믿음과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내 존재를 드러내야 했기 때문이다.

59. 이 제3시대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제1시대에 자연의 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강력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와, 제2시대가 시작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인간이셨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영적 현현이다. 오늘 나는 다시 사람들에게 오지만, 성령으로 온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그분이 너희와 직접 교감하실 때 그분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60. 지금은 빛의 시대이며, 그 빛의 명료함으로 인해 너희는 이전에는 헤아릴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지난 시대의 교훈들의 정수를 남겨 두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 교훈들을 둘러싸고 키워 온 광신주의는, 인류가 발전의 길을 계속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인류 스스로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61. 나는 여기서 종교 공동체나 신조로 너희를 구분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말하고 있다. 영적 분열과 갈라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며,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 싸우며, 서로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62. 나는 너희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걷고 있음을 보기에,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찾는다. 너희는 진리와 율법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온갖 종교들로 말이다. 나는 이를 너희에게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각기 다른 수준의 이해와 진보, 영성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한* 종교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을 적으로 여기고, 서로를 위협하고, 해치고, 죽이는 것 — 이는 나의 가르침이 결코 명한 바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은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적들입니다.

63.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왜 너희는 서로 원수가 되는가? 왜 다른 이들이 완전함을 이루고 그들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방식을 반대하는가? 누가 자신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멸망하도록 정해져 있는가?

64. 서로를 정죄하는 너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65. 빛이 충만한 이 시대에, 너희 영혼이 이미 인간의 비참함을 초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66. 백성들아, 여기 성령의 음성이 있다. 이는 너희의 이성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로서, 너희에게 *새로운 법이나 새로운 교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다가가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새롭고, 더 진보적이며, 더 영적이고, 더 완전한 방식을 계시하는 것이다.

67.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스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설교하셨다면, 그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영적인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법칙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칙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군대조차 갖지 못한 힘이 있으며, 사랑의 토대 위에 세운 모든 것은 영생을 누릴 것이므로, 그 정복은 확실하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8. 인류는 불행에 빠져 있고, 인간의 이성은 혼란스러우며, 인간이 지구상에서 이룬 능력들 때문에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제는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으나, 인간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영적 지식입니다.

6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있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각하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의 등불을 밝힐 책임자들이다.

70. 너희의 영혼은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거의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그 능력, 은사, 그리고 가능성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71. 나의 말씀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과거나 영적 미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내진 이 세상 안에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가르친다.

72.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너희 영혼의 삶에서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너희를 감명시키려 하는 모든 생각들을 물리쳐라.

73. 제자들아, 영성화는 양심이 더 큰 명료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하며, 이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는 자는 속지 않을 것임을 알아두라.

74. 양심과 친해지십시오. 그것은 우호적인 목소리이며, 주님께서 아버지로, 스승으로, 혹은 심판자로서 *그분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빛입니다.

75. 시련 속에서 너희 양심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정화되고 있음을, 그리고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하며 신성모독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너희를 정화하기 위한 시련임을 말하게 하라.

76. 오직 영혼의 순결함만이 그 빛나는 빛의 옷을 발산하게 할 수 있다.

77.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화를 추구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94

1.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에, 나의 사역은 난파당한 자들에게는 등대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방패처럼, 궁핍한 자들에게는 식량이 가득 담긴 여행 꾸러미처럼 될 것이다. —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해 비유적인 의미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희에게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도 산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2. 너희는 이 진리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궁핍한 자들과 육체와 영혼이 병든 자들이 너희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육체적 고통은 영혼의 고통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영혼의 고통은 비참함, 굶주림, 벌거벗음, 추위, 두려움, 그리고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너희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숨기고 있는 것,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양육하고, 치유하며, 그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라고 가르쳤다.

4.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는 영혼의 인도자, 의사, 조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는 빛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평화와 위안의 선물을 갖게 될 것이다.

5. 여러분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신성한 말씀을 들려줄 때, 많은 영혼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감동받아, 자신도 모르게 지니고 있던 보물과 은사를 발견하는 부활의 순간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솟아날 것이니, 그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오랫동안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자인 한 형제의 단 한 마디 말만으로도, 그들의 온 존재는 사랑과 생명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7. 나의 부르심은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전해지며 모든 이에게 닿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내 영적 임재에

대한 소식이 조용히 퍼져 나갔고, 이제 제3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8. 나는 너희가 나의 오심을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며, 영성화와는 거리가 먼 수단을 사용하여 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원치 않는다.

9. 사랑의 행실과 빛으로 가득 찬 말, 그리고 진리를 반영한 글들을 통해, 신성한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증언을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했던 나의 사도들을 본받으라.

10. 연약한 백성아, 너희는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희생인가? 내가 너희 각자에게 맡긴 임무는 참으로 간단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무게가 너희의 힘을 넘어서는 십자가처럼 보인다.

11.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시련을 주어도, 비록 그것이 온화한 것일지라도 너희는 절망하며 내 뜻에 반항한다.

12.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요구했을 때 기꺼이 내게 순종하려 했던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던 모세의 힘과 믿음은 어디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스승이 남긴 발자취를 죽음까지 따르던 내 사도들의 충성심은 — 다시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13. 보라, 나는 너희에게 자녀의 목숨을 요구하지도 않고, 내 이름으로 너희의 피를 바치라고도 하지 않는데도,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 너희에게는 무겁게 느껴지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다.

14. 나는 너희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이를 통해 너희 영혼을 위한 영원한 평화를 얻고, 동료 인간들이 영성의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만을 보여 주었다.

15. 너희 양심의 목소리를 말하게 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사명이 너희에게 멍에가 되는지 내게 말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내면의 목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너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내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배은망덕했고,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불공평했는가!”

16. 너희가 이러한 성찰을 하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너희는 영혼 속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축복하시는 빛을 느끼게 될 것이다.

17.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아.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등대처럼 너희의 길을 비추리라.

18. 오늘의 이 교훈을 스승의 질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러나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들면, 거기서 내가 내 사역에서 너희에게 맡긴 부분에 대한 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열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9. 지금이 바로 제3의 시대, 영적 빛의 시대임을 깨달으라.

20. 기뻐하라. 너희는 많은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이며, 수많은 계시를 받을 은총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21. 너희의 마음은 굳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이성에는 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으며, 너희의 영혼은 잠들어 있지 않다. 눈을 열어 빛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감각을 예리하게 하여, 너희 위에 드러날 나의 영광과 영적 세계의 징후와 부르심, 그리고 계시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라.

22. 이 시대에 모든 피조물에게는 영적 해방의 날이 정해져 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며, 유혹의 노예가 아니며, 육체와 그 쾌락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23. 영혼이 세상의 허영을 경멸하고 영성화의 고귀한 망토를 두르기 때문에, 거짓된 장신구들은 너희에게서 떨어질 것이다.

24. 이 시기에 내 말씀을 들은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에게, 해방의 날은 바로 이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바로 그날이었는가! 너희는 믿음으로 부활한 기적을 기억하는 그 축복받은 날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기억 속에 새겨 두었는가!

25. 많이 울었지만 기다리는 법을 알았던 자들은 복이 있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할 것을 미리 감지하고 기꺼이 정화의 과정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내 계시를 처음 목격한 그날부터, 내 첫 말씀부터 나를 느끼고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삶의 고통과 역경으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해진 그들의 마음의 현을 나의 본질로 어루만졌을 때, 그들은 온 존재를 통해 스승의 신성한 생명력이 흐르는 것을 느꼈으며, 그들이 강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영혼에서 비참함과 흠, 악덕, 고통, 어둠, 그리고 오점이 떨어져 나갔고, 그 후 빛의 영혼에게 고유한 옷인 '진리'를 입게 되었다.

26. 영적인 삶에서 죽은 사람들이 내 곁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은 마침내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들로 변해 있었다. 믿음은 영혼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27. 영혼이 믿음으로 부활할 때,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렇게 생명으로 돌아온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여정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에서 마주치게 될, 삶에서 확고한 목표 없이 방황하는 모든 지상의 순례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었습니다.

28. 이웃을 구원하지 못한 자, 동료 인간에게 잃어버린 믿음이나 건강을 되찾아 주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의 기쁨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 영혼의 구원자, 위로자, 스승, 그리고 영원한 부활이 되는 기쁨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지는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속성 중 일부를 너희와 나누었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위로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도록 너희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내 천국이 모든 이를 기다리듯이, 나의 기쁨도 모든 이의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9. 백성아, 너희가 더 높은 힘이 너희 존재를 감싸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현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영혼을 준비시키고 너희 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순간, 나의 말씀에 감동받아, 나의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힘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명심하라: 너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러한 영성을 지니고 있다면, 어디서나 내 임재의 느낌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정의가 너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30. 나는 지금 지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있으며, 나의 빛으로 모든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다. 그러나 심판이 임했음을 깨닫는 이는 극소수이며, 이미 지난 시대에 예고되었던 그 시기가 다가왔음을 예감하는 이는 더욱 적다.

31. 나는 모든 이에게 양심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만일 고쳐야 할 점이나 만회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주었다. 통치하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영적으로 이끄는 이들, 과학자들, 그리고 지식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나의 정의가 그들에게 던질 질문들에 답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2.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냉혹하고 무감각하지 않았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며, 때로는 사람들의 각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33. 어떤 이들은 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부르고, 다른 이들은 “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비천함으로 인해 마음속으로 느껴야 할 세계가 멀고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4. 나는 이 모임 장소의 소박함 속에서 나를 듣기 위해 모인 이 백성들을 세속적인 재물과 허영에서 해방시켜야만 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즉 나의 가르침에 이끌릴 수 있기 때문이다.

35. 나는 너희가 잃어버린 재물 때문에 울고 있는, 가난한 모습을 보았다. 그로 인해 너희는 세속적 영광의 허황된 광채에 다소 실망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조금 덜해져 있었다. 이는 너희가 영적인 존재의 임재를 느끼고, 너희 영혼의 성장과 개선을 갈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너희가 부유하고 건강하며, 안락함과 잔치, 오락 속에서 살았다면 — 과연 내 부름에 달려왔겠느냐?

36. 군주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내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내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지 깨달으라.

37. 내가 너희가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삶과 생존에 필수적인 것조차 부족하여 궁핍에 시달리기를 바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인간적인 것보다 영혼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은 육체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육체는 영혼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8. 나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법을 알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되,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양쪽 모두에 진정한 가치와 위상을 부여하기를 바란다. 한 사람이 소유한 것이 이웃의 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해야 할 수 없이 부유하더라도 어떻게 그 영혼이 스스로 해를 입을 수 있겠는가?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려나 기도할 줄 알고, 기도를 통해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강력한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겠는가?

39. 이 계시를 듣는 너희는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난파당하는 이들이 많으니,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많은 배가 침몰할 것이며, 두려움과 탄식, 저주, 절망과 눈물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무도 파멸하지 않을 것임을 너희에게 확신시켜 주노니,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빛이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빛은 별이자 광선이며, 바로 그 영으로부터 믿음과 희망의 불꽃이 마음속으로 내려올 것이다.

40.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에게 향하는 도움의 외침이 치솟아, “나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는 파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들에게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나의 무한한 자비를 드러내며, 그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리라.

41. 나는 너희의 믿음과 회개, 그리고 사랑을 갈망한다. 이는 너희가 오늘까지 해소하지 못한 갈증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물을 청할 때마다, 너희는 내게 담즙과 식초가 담긴 잔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42. 나의 갈증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해도 충분하며, 그러면 즉시 너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고난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갈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43. 제자들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 보아라. 내 영이 그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 있으니, 너희도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라.

44. 이 가르침이 널리 퍼지면, 이미 수많은 종교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 말씀이 인류에게 온 것은, 그들의 종교가 가르치지 않는 ‘영과 영의 대화’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며, 이 메시지가 너희가 지닌 모든 영적 특성을 드러내 주는 신성한 빛임을 그들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45. 이 백성은 내 말씀의 기쁜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과 영적 세계 사이에는 단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과,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무한한 거리는 단지 그들의 상상, 무지, 그리고 외형적인 종교 실천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6. 과거에는 인류가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적절한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하도록 준비되었을 뿐이다. 이제야말로 너희 영혼이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양되어 더 높은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적절한 때이다.

47.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진 나의 계시는 방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으며, 나를 들은 이 백성에게 자극제가 되어, 그들이 영적 교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왔다.

48. 내가 너희에게 처음 가르쳤던 것처럼, 훗날 너희가 내 길에서 더 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내 말씀을 전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 일이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되었을 때, 그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의 아버지 및 영적 형제자매들과 교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9. 나의 모든 대변자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 준비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종종 나는 쓸모없는 일, 심지어 최악에까지 몰두하고 있던 불순한 지성의 기관들에 나의 빛을 내려보내야만 했다. 그들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나의 공의를 불러일으켰으니, 그들의 이성은 모든 영감을 상실했고, 그들의 입술은 신성한 메시지를 표현할 모든 웅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청중들은 그 초라한 선포들에 귀를 닫았으나, 대신 내 존재를 느끼고 내 본질을 받아들이기 위해 영혼의 문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순간 나의 자비가 그들에게 보내준 본질로 양분을 얻었으나, 대변자는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은 메시지를 막아 버렸고, 그로 인해 참석자들은 아직 그러한 형태로 나의 영감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며 스승과 대화를 나누도록 강요당했다.

50. 아직은 목소리의 전달자들과 공동체들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리하여 내 계시의 마지막 해에,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가 그때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높고 빛나는 가르침을 통해 내 말씀이 정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준비한다면, 나는 그 준비와 그 갈망을 허락함으로써 너희에게 상을 주려 한다. 나의 빛은 물줄기처럼 쏟아져 내려 너희 영혼을 감싸고, 힘과 지혜, 영성으로 가득 채워 줄 것이다.

51. 이 계시 시기가 끝날 무렵, 내 말씀과의 이별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혼과 이성을 최대한 준비시켜, 너희가 더 이상 이 형태로 나를 듣지 못하게 될 때, 내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해아릴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고, 그 갈망이 너희로 하여금 무한한 곳, 신성한 곳에서 나를 찾도록 이끌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영적인 하나님 숭배와,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의 진정한 대화로 향하는 확고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2. 너희가 한때 나를 느낄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던 인물, 사물, 형상들이 더 이상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기도를 통해 나의 임재를 느끼며, 나를 갈망하는 삶의 매 순간마다 나의 영감을 받게 될 때, 너희는 마음속으로 기쁨을 터뜨리며 외칠 것이다. “스승님, 어떻게 이토록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지요!”

53. 나는 계속해서 너희의 스승이 되고, 너희의 의사가 될 것이며, 너희를 통해 너희가 내 앞에 데려오는 병자들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에 영감을 주고, 너희 입술에 말씀을 실어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보호해 줄 영적 수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54. 처음에 이론 것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를 완성하는 데에 시선과 노력을 기울이라. 왜냐하면 나를 찾는 이 새로운 방식 또한 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5. 이제 제3의 시대가 도래하여, 너희 영혼은 이미 이 땅에서 매우 높은 세계들과 지대한 깨달음을 꿈꾸기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영혼 속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것들에 대한 지식과 영적 은사의 개화를 품고 있는 자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많은 세계를 가로질러, 자신의 공로에 따라 거할 자격이 있는 그 세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자각하게 될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줄 알게 될 것이며, 사랑과 조화, 정의의 언어를 알게 되고, 생각 그 자체인 영적 언어의 순수함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혼란도, 눈물도 없을 것이며, 영원한 유산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고향에 다가가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56. 나의 사역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영성의 성소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의 종들은 많은 투쟁을 겪어야 할 것이며, 나의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다.

57. 우선 세상은 이 가르침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내가 이미 지금 너희에게 알려 주었듯이, 이를 거부하는 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이나, 그것은 인간의 영적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혼은 내 약속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58. 나는 너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정에 깊이 몰두해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너희 마음에 다가와 평안을 주고, 내 말씀을

통해 길을 열어주며, 너희가 이미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내기 시작한 장애물들을 허물어 주려 한다.

59. 깊이 생각하고, 고통받으며, 나의 일을 염려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일을 마음속에 간직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들의 영혼을 격려하고 어루만져, 그들이 다시 믿음과 평화, 확신을 가득 느끼도록 한다.

60. 나의 사랑의 식탁에서 너희는 너희가 준비한 대로 얻은 신성한 빵을 먹었다.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희의 준비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가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너희가 그 보상에 합당하게 될 줄 알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날 내가 다른 모임 장소들에 내 빛을 쏟아 부은 것은, 그곳의 청중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며, 반대로 그러한 영적 성숙이 없었던 곳에서는, 내 말씀이 정의로 가득 찬 내 자녀들의 양심 속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95

1. 인류여, 너희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두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보기에, 내 말씀이 너희를 고양과 영성화로 초대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2.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할 그 삶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가르침은 너희 마음속에서 인간의 육신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야 한다. 나의 말씀은 너희를 모든 오류에서 해방시키려 한다.

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께서 곧 생명이시며, 그분의 작품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인간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죽음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그 빈약한 이해력에 따라 지옥과 천국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인간이 내 존재와 나의 정의,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혼란만이 있을 뿐이며, 이 혼란은 대다수의 신앙적 신념이 기반을 두고 있는 토대의 일부를 이룹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참된 길에서 멀어지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직 비참함과 혼란, 고통뿐이며, 그들은 지상에서 겪는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 이미 그 맛을 보고 있습니다.

5. 성령의 가르침, 곧 나의 가르침은, 백성아, 너희가 빠져든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의 광선이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소명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가르침을 얻고, 나의 의로움의 존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6.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가시적인 형상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유혹에 대해 말할 때, 영혼을 타락시키는 임무를 가진 존재로 악의 영향을 의인화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자의 속죄에 대해 생각할 때도,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지옥의 불길이라는 형벌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7. 사람들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오류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영이시므로 물질적인 형상 속에서 그분을 찾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루시퍼나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상상의 존재는, 과거의 나의 말씀과 계시, 메시지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자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 세계”에는 불화와 증오, 타락을 퍼뜨리는 거대한 어둠의 영들이 있다.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악한 행실을 부추김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악마가 아니다. 이들은 고통, 시기, 또는 복수심에 의해 어둠에 휩싸인, 불완전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들의 본성은 너희 영혼이 가진 본성과 같으며, 너희가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가진 본성과도 같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라.

8. 지상에 사는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유혹하고, 악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며, 참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왜 그들을 악마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들은 저 세상의 혼란에 빠진 존재들처럼 불완전한 영혼들이지만, 위대함에 대한 이상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권력과 폭력을 얻게 된 것이다.

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서도, 영적 세계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원수가 없다. 나를 모욕하는 것 자체에서 순수한 기쁨을 얻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이웃을 선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거짓말이다!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웃의 마음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며, 영적인 세계와 싸우는 자들은 나를 모욕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 추구와 위대함, 그리고 인간의 영광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할 뿐이다.

10. 사랑의 길로 이끄는 빛에 깨어나지 못한 저 너머의 존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위대해지려 했으며,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주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때,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나의 권능과 경쟁하거나, 선을 이기는 악의 승리를 기뻐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동기는 비록 나쁜긴 하지만, 나를 모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너희는 평생 동안, 내게 속한 것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는 강력한 적이 내 앞에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1. 어떻게 내가 인간들 앞에 그들보다 무한히 더 강력한 존재를 세워,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여 결국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12. 나를 알고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너희는, 나와 나의 공의에 대해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13. 비록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유혹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며, 불의한 자들이 순진한 자들을 조롱하고, 부정한 자들이 순결한 자를 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유혹일 뿐이며, 이를 마주하는 자는 싸우고 방어할 무기와 방패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리칠 수 있다. 그의 검은 양심이며, 그 뒤에는 악한 영향에 유혹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도덕, 신앙, 이성이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이것만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행실로 미덕을 심고 가능한 한 악에 저항해야 한다. 어떤 이들이 파멸과 악덕, 파괴를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빛을 심고, 길을 잃은 자를 구원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14. 이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의 영원한 투쟁이며, 상승하여 완전함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쟁이다.

15. 나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과오의 흔적으로 더럽혀진 존재가 높은 이상에 고무되어 정화되는 것은, 처음부터 빛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함없이 순수함을 지켜온 존재가 정화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16. 혼란에 빠진 영들이 빛의 영들과는 다른 본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17.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불의하신 분이 되실 것이며, 또한 더럽혀진 자들과 불결한 자들, 불완전한 자들을 구원할 지혜와 사랑이 부족하여 그들을 모든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나이자 동일한 고향에 모을 수 없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하신 분이 아니실 것이다.

18. 제자: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진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허영에 눈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는 — 만일 이 비천한 감정이 자신의 내면에 스며든다면 — 자신의 지성이 흐려지고, 발전의 길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제자리에 머물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19. 허영심은 수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고, 번영하던 많은 민족을 파괴했으며, 여러분의 문명을 몰락시켰다.

20. 민족들이 행동력, 유능함, 진보를 이상으로 삼았던 한, 그들은 풍요와 영광,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오만함이 그들을 우월하다고 느끼게 하고, 상향 발전이라는 이상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끝없는 야망으로 대체되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으면서도 단계적으로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결국 심연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21.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에 위대한 이상을 가진 민족이 등장하여 — 비록 자신의 선한 행실을 항상 자각하고 있더라도 — 그것에 자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민족의 행보는 막히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이론 영광은 내일 더 뛰어넘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금 더해질 것이다.

22.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단지 물질적인 목표만을 고무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말이 올바르게 해석되어, 너희가 그것을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적용할 줄 알기를 원한다.

23. 허영심은 사람의 물질적 삶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 기초가 허영과 오만, 그리고 허울뿐인 화려함에 갇혀먹힌 거대한 종교 단체들의 몰락과 실패를 살펴보자.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고 믿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들의 오류와 그릇된 길, 법과 진리에서 벗어난 점을 눈앞에 드러내 보여주었다.

24. 양심 앞에서 내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할 때에만, 이 인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빛인 양심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의로우며, 결코 허영에 빠지거나 비뚤어진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다.

25. 사람들이 진리에 다가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냐, 내게 말하라. 인류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가르침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로 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26. 이 말씀이 세상에 퍼지고, 사람들이 누가 이를 영감으로 주었으며 누가 기록하도록 지시했는지 묻는다면, 그 말씀의 전도자들과 씨 뿌리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분의 대변자들의 준비된 지성을 통해 이를 계시하셨음을 증언해야 한다.

27. 이 인류가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산과 광야, 강가와 계곡에서 설교하셨던 그 겸손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물질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드러나고자 하는 곳마다, 듣는 무리의 마음속에서 내면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들의 마음은 햇살 아래 꽃받침처럼 활짝 피어났기 때문이다.

28. 이제 나는 모든 마음의 문 앞에서 있지만, 인류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기억할 때, 내가 다시 인간으로서 임할 것이라고 결코 예고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재림이 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 주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29. 이제 이해와 영혼과 이성의 깨달음의 때가 왔으니, 인간은 마침내 영적으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인물도,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며, 무한하고 절대적인 우주적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0.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고 인류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가르침은, 곧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연고처럼 전해져 위로를 주고, 믿음을 불태우며,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 가르침은 너희를 죄와 비참함, 고통, 그리고 죽음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31. 그럴 수밖에 없으니, 바로 나, 신성한 의사이자 약속된 위로자가 너희에게 이를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32. 모든 시대에 걸쳐 나의 가르침은 너희의 가장 내밀한 본질이 사랑임을 분명히 밝혀 주었다.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이다. 모든 피조물은 이 힘에서 생명을 얻으며, 이 힘에서 생명과 온 창조물이 솟아났다. 사랑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기원이자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고, 비추며, 생기를 불어넣는 그 힘

앞에서 죽음은 사라지고, 죄는 증발하며, 정욕은 사라지고, 불순물은 씻겨 나가며, 불완전한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33. 나는 제2의 시대에 이 세상에 와서, 너희 영혼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나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사랑의 힘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세상과 죽음의 고통을 극복한 내가, 아직 성장해 가는 너희 인간들에게 묻노라. 너희는 이미 세상과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는가?

34. 나는 너희가 여전히 죽은 자들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왜인가? 그것이 과연 너희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방식인가? 아니, 인류여,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것으로 육체의 숭배와 세상에 대한 사랑을 기념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지구 내부로 내려간 자들을 위한 이 숭배를 통해, 너희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영혼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내가 너희가 눈물로 무덤을 적시거나 꽃으로 덮는 것을 볼 때, 나는 에 있는 내 말, 즉 “너희는 죽은 자를 지키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말을 너희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35. 내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이들에게, 나는 물질주의에 빠져 진리의 의미를 왜곡하고, 과학에 대한 오만과 허영으로 결국 스스로를 지혜롭고 창조적이며 강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께 간구를 올리는 자들을 조롱하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한다. 그들은 인류의 운명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지만, 자신들도 나의 신성한 정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너희의 기도와 영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36. 이 사람들은 몸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길을 잃었으니, 이는 과학을 통해 행해지는 숭배이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큰 시련 속에서 깨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마침내 인간 안에는 지성을 초월하는 무언가, 즉 영적 영혼이 존재하며, 세속적인 과학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적 삶에 대한 지식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37. *이성*이 더 이상 *영*을 자극하여 과학을 관찰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이성*을 고양시키고 인도할 때 비로소 인간은 현재 탐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그가 지성을 영성화하자마자 그에게 계시되도록 예정된 것이다.

38. 너희가 나의 가르침 중 어떤 것을 듣게 된다면, 너희에게 닥쳐올 세계관의 혼란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지어 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9. 우상 숭배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으며, 영성화의 시대가 머지않아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모든 우상들은 무너져 내리고 진리를 위한 자리를 내어줄 것이며,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40.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펼쳐진 책이다.

41.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과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의 이유를 찾아왔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이성의 힘, 지성의 빛을 활용했다. 그 결과로 그들의 과학과 철학이 탄생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오직 영만이 이해하고 꿰뚫을 수 있는 진리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학이 이 진리에서 발견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예 불과했다.

42.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 빛을 찾지 않았으나, 나는 영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진리의 빛,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나를 찾아야 한다. 기도를 통해, 영혼으로 지식을 갈망하며 나를 찾아야 한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잘 봉사하며, 인간 삶의 고난을 초월하기 위함이다. 그에게는 다른 이들이 이성을 쥐어짜며 수세기에 걸쳐야 비로소 발견해 낸 가르침들이 계시될 것이다.

43. 나는 사랑이며, 나를 찾는 자는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 그렇게 해야 한다.

44. 인간은 창조주의 반영이자,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을 낳으신 아버지를 닮게 된다. 이러한 닮음은 영적 영혼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영적 영혼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다. 물질, 즉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위한 일시적인 옷에 불과하다.

45. 아버지는 영혼들이 이 땅에 거주하도록 보내셨는데, 이는 그들이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강해지기 위한 시련을 겪으며, 빛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교훈을 얻고, 이 생을 초월하여 물질로부터 해방되고 영의 왕국으로 인도받을 공덕을 쌓을 끝없는 기회를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물질을 지배하지 못했으며, 세상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보다 낮은 차원의 힘과 요소들에게 지배당해 왔다. 인간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지만, 실상은 물질의 노예에 불과하다.

46.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그는 영적인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47. 그러나 내가 사람들이 세속적인 법칙을 저버리고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전념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요,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것을 너희의 유익과 발전, 그리고 승화를 위해 활용하기를 원한다. 즉, 자연의 영역과 힘, 존재들로 이루어진 물질적 삶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지성이 도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영적 영혼을 통해 작용해야만, 아버지께서 너희의 고귀한 목표—너희가 행위에 담는 사랑과, 너희가 영적 영혼에게 부여한 자리를 보시고, 그 비밀 보물창고의 휘장을 걷어내시어, 너희 영혼을 비추게 될 그분의 지혜의 불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48. 올바른 것은 영이 인간의 이성에 지혜를 계시하는 것이지, 이성이 영에게 “빛”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이미 오랫동안 삶의 질서를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49.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 앞에,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있음을 보라. 그는 자유 의지와 양심을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의 모든 타락과 실족, 죄악은 바로 이 자유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창조주의 정의와 영원함 앞에서 덧없는 과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결국 양심이 육체의 약점과 영혼의 유혹에 맞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무지를 의미하는 어둠에 대한 지식인 빛의 승리가 올 것이다. 그것은 사랑, 정의, 조화인 선이 이기심, 방종, 불의인 악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이다.

50. 너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창조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 투쟁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영혼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투쟁이며, 금을 정제하기 위한 불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다.

51.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 중 누가, 영혼이 온전히 꽃피우고 완성되기 위해 단 한 번의 인간 삶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52. 아, 인간들이여, 너희는 인간 삶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마치 영원히 이 땅에 머무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물질화된 상태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만 이전 기회에 이루지 못했던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53. 그러나 수많은 환생이 영혼에게 절대적인 완전함을 주는 것도 아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생을 마친 후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여전히 무수한 생명 세계와 새로운 가르침, 계시, 기적들로 가득한 ‘영적 계곡’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54. 일단 그 길을 다 걸어 순수하고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너희는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55. 이곳 지구에서 나는 인류의 영적 삶을 세 단계, 시기, 또는 시대로 나누었으며, 그 기간 동안 너희 모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혜를 한 단계씩, 한 교훈씩 차근차근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56. 첫 번째 시기는 마치 인간의 영적 유년기와도 같아서, 이 시기에 인간은 눈을 뜨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지만, 그분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인간이 영혼으로 그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파고들지 않은 채, 단지 글자 그대로에 집착함으로써 그분께 순종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57. 제2의 시대에 나는 “말씀”으로서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며, 나의 삶을 통해 너희에게 영혼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 제2의 시대는 성장기, 즉 영적 청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어, 잠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의 현을 깨우고,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강력한 충동 아래 그들의 마음이 새로운 감정으로 진동하게 하신 시기입니다.

58. 나는 이 두 가지 사랑의 형태, 즉 생명의 근원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 속에 온전한 율법과 나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였다.

59. 율법은 언제나 양심 속에 존재해 왔다. 세대는 지나가고 세대는 오며, 영혼들은 떠나가고 영혼들은 오지만, 나의 말씀은 확고하고 변함없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해력이 둔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내 가르침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이해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60. 사람들은 번성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지성이 깨어나자마자, 그들은 영적인 것에서 등을 돌리고 세상의 영광이나 부, 또는 과학을 추구한다. 그 결과, 그들의 열매는 너희 마음이 바라는 만큼 달콤하지 못했다. 너희 입안에는 언제나 쓴맛이 남았다.

61. 그러나 내 말씀이 너희의 행실을 근본적으로 비난하거나, 너희 과학이 이론 성과를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백성들아, 너희가 심연에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다고 말로
일러주는 것은 내가 아니다 — 그것은 바로 너희의 영성 결여가
초래한 결과인 사실들이다.

62. 그러나 바로 너희가 심연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영원의
시계에서 요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제3의 시대 — 성령이 양심 속에서 빛을 발하며, 지혜로서,
빛으로서 쏟아져 나와 비밀을 밝혀 주고, 사람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며, 위로하고 구원하는 힘으로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63. 이는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가장 미묘하고도 높은 형태이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두 시대가
지나갔으며, 그들은 영혼의 성숙에 도달했다. 이제 그들은 더
심오한 교훈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64.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 물질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하는 “제3의 시대”이다.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할
세계관 간의 투쟁을 초래할 것이다.

65. 타락, 이기심, 오만, 악덕, 거짓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가렸던 모든 것들은, 겸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숭배하던 자들의 발치에 부서진 우상들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66. 이 투쟁에서 너희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기도의
강력한 무기로 —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고양시킴으로써 말이다.

67. 여러분을 둘러싼 공기보다 무한히 더 미묘한 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것을
평화와 이웃을 위한 치유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68. 너희의 생각은 공간 속에서 빛의 불꽃이 되어, 사고에
명료함이 필요한 그 이성에게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다.

69. 너희의 중보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니, 내 왕국의 평화가
땅에 임하고, 너희의 행위는 마치 제3의 시대에 땅의 품에
떨어지는 영성화의 첫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96

1. 나는 너희의 길을 비추는 빛이며, 너희의 이성에 닿는 지혜이며, 너희의 고통을 달래주는 치유제이다.

2. 나는 스승이며, 너희를 나의 제자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너희에게 온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너희가 진정으로 무지의 어둠을 뚫고 나가고자 한다면,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빛을 주리라. 너희의 믿음이 크기를 원한다면, 이리 와서 내 말을 듣고 지치지 않고 나를 따르라.

4. 태초에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했다. 최초의 인간들은 그 신성한 힘, 즉 모든 피조물의 근원인 영의 본질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는 한참 멀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께는 오직 권능과 정의만을 돌렸다. 사람들은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 신성한 언어를 이해한다고 믿었기에, 자연이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일 때면 주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연의 힘이 거세게 휘몰아칠 때면,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여겼다.

5.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품고 계신 무시무시한 신에 대한 관념이 자리 잡았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믿을 때면, 그분을 달래기 위해 번제와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 제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신성한 정의에 대한 두려움, 즉 형벌에 대한 공포가 초기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님께 공물을 바치게 한 것이었다.

6. 그들은 신성한 영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뿐, 결코 ‘아버지’나 ‘주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7. 하나님께서 정의이시긴 하지만 – 그렇다, 그러나 완전한 정의이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로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시작한 이들은 족장들과 최초의 예언자들이었다.

8. 인류는 영적 발전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며 순례를 계속했고,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그 자녀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신성한 신비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처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0.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그들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이 사람이 되고, “말씀”이 성육신하여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신을 취하는 것이 필요했다.

11.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임재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스럽게 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수들에게는 강하고 교만한 분으로,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무서운 분으로 여겼다.

12.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한 이들이 많았던 것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 그 말씀을 믿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고통과 불치병을 단지 한 번의 어루만짐, 끝없는 연민의 눈빛, 희망의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그 방식, 새로운 세상, 빛과 정의로 가득 찬 삶에 대한 약속이었던 그 가르침은, 그 신성한 사람이 아버지의 진리이며,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따라서 사랑할 수도 없었던 분의 신성한 사랑 그 자체임을 깨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서 더 이상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13. 그 지극한 진리의 씨앗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뿌려졌다. 그리스도는 씨를 뿌린 이셨으며, 여전히 그 씨앗을 가꾸고 계신다. 그 후 그분은 열매를 거두시고 영원토록 그 열매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때 그분은 더 이상 “내가 배고프다”거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니, 마침내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이 태초부터 그들을 사랑해 오신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 제자들아,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느냐? 바로 그분 자신이다.

15. 인류여, 다시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나다. 나를 알아라. 내가 드러내는 모습이 소박하다고 해서 나의 현존을 의심하지 말라. 나에게는 오만함이 있을 수 없다.

16. 내가 예전에 이 세상에서 걸었던 삶의 길을 통해 나를 알아보라. 내가 태어난 대로, 살아온 대로 겸손하게 죽었음을 기억하라.

17. 나는 새로운 발견들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시대에 인류 가운데 현존하며, 너희가 한때 내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겸손함으로 너희 가운데 내 현존을 느끼게 하고 있다.

18.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육신이 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다시 마구간의 비참함 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 아니,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이 육신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은 영적이며, 보편적이며, 무한하다.

19. 만일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룬 모든 것이 의롭고, 허용되며, 선한 것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내려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인류가 나에게 바치는 모든 행위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오와 불의, 많은 일탈과 악행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일에 가장 깊이 몰두해 있을 때, 나의 보살피는 사랑이 그를 깨우쳐, 그가 어떤 의무를 잊었는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누구께 빚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0. 영과 영으로 나를 들을 수 없었던 물질화된 인류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나는 그들의 영적 은사와 능력을 빌려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내야만 했다.

21.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내려온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너희가 주님과 영과 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없었기에, 나는 한 단계 더 아래로, 즉 너희가 아직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곳, 신성한 곳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뇌 속에 자리 잡은 너희의 이성 기관을 활용하여, 나의 신성한 영감을 인간의 언어와 물질적인 소리로 전달해야만 했다.

22. 인간은 더 넓은 지식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맡기기 위해 그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만일 너희가 이 대변자들의 이성 기관을 통해 전해지는 나의 짧은 계시에 선택된 수단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매우 위대하다. 너희는 차라리 내 계시가 사람들에게 호화롭고 성대한 의식을 동반하여 전달되었기를 바랐을지 모르나, 그런 것들은 인상을 주었을지 몰라도, 실상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된 빛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

23. 내가 번개와 폭풍 속에서 내려와 내 능력을 실감나게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가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느냐! 그러나 그때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생각도 되살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버지께 대한 모든

사랑의 감정이 그분의 의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변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이시지만, 그 힘으로 너희를 정복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힘으로 너희를 지배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다른 힘, 곧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24. 오늘 우주에 말씀하시는 분은 신성한 영이시다. 그분께서 여러분이 다른 시절에는 명확히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에 빛을 비추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날의 여명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잘못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의심을 없애어 여러분의 영혼과 이성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가르침의 본질과 내 법의 정의로움을 알게 된 후에는, 너희의 관념이 너희에게 부과하고, 진리에 대한 미미한 인식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 온 한계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26. 더 이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너희로 하여금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고자 할 때에만, 너희 양심이 그 길을 막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인간에게 온전한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에게 주어진 부분만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27. 백성아: 내 오심이 전쟁과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 전염병, 그리고 혼돈 한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나의 임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내 재림에 대해 말해졌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세상이 죽음과 씨름하고, 지구가 죽음의 신음 속에서 떨며 요동치며 새로운 인류를 위한 길을 닦아내는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제3의 시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이다. 그 사랑은 정의와 형제애, 평화를 품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랑이다.

28. 이 시기에 나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얻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영적 제자가 되려면 내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특정 계명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을 영적 제자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특정 의식과 현현이 여러분을 지상에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9.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는 최선의

방법을 계시하며, 너희 아버지께 대한 주입된 두려움을 너희 마음에서 제거해 준다.

30.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의 너희 삶에 관한 오해와 편견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전해진 대로 영원한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해 주노니, 영혼은 육체의 고통이 초래하는 육체적 고문을 겪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혼의 고통은 양심의 빛 속에서 자신의 행실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비롯되는데, 양심은 영혼으로 하여금 저지른 모든 잘못과 불완전함을 완전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31. 너희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무지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너희로 하여금 이 길을 계속 걷게 해서는 안 된다.

32. 너희가 이 시대와 과거 시대의 나의 계시와 가르침을 깊이 살펴본다면, 결국 내가 언제나 겸손을 두르고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을 걷는 너희 동료들이 와서, “주님께서 너희가 보여주는 이 가난과 이 낮음 가운데 계시 수는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현현하셨으며,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의 탄생 이후 수세기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가 세상에 드러내신 그 겸손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33. 너희 중에는 신도들이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겉모습과 화려함, 눈에 띄는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임 장소들이 있는데, 그들은 겉모습을 갈망함으로써 영적 가르침이 담고 있는 기적들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34. 가르치고, 바로잡고, 계시하는 것 — 이것이 바로 너희를 빛의 고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내 사명이다. 그러나 너희가 약속의 땅 문턱에 다다르기 전에, 믿음과 사랑에 대한 공로를 쌓아야 할 것이다.

35.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때 제자들 안에서 싹을 틔웠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났다. 그분의 가르침은 퍼져 나갔고, 그 의미는 온 세상에 전해졌다. 오늘날의 이 가르침 또한 그렇게 퍼져 나갈 것이며, 이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36.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치유의 향유를 받아라. 청중 여러분, 스승으로서 내가 전하는 아버지의 다정한 어루만짐과 메시지를 받아라. 이는 너희와 너희 가족을 위한 것이다.

37. 나의 임재는 너희에게 어루만져 주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간다.

38. 어떤 이들은 내가 곧 오실 것을 예감하고, 어떤 이들은 영적인 시선으로 나를 보며, 또 다른 이들은 예민한 감수성을 통해 내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간을 알아차립니다. 이 축복받은 시간에 모두는 마음속으로 “스승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평화가 그들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39. 삶의 끝없는 사막을 헤매는 영혼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보물도, 더 간절히 바라는 오아시스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보물이며, 훗날 너희는 이 보물을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

40. 또한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평화의 축복받은 망토를 덮어줄 수 있는 수단을 보여 주는데, 그 수단은 생각, 기도, 말, 행실이다.

41. 지금 이 순간, 내 말씀이 주는 평화로 하나가 된 너희의 모습을 보듯이,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 앞에 닥칠 투쟁의 날들 속에서, 내가 미묘한 방식으로 내 임재를 느끼게 해 줄 때, 너희가 마음속에서 나를 듣게 될 때에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나의 어루만짐과 나의 본질, 나의 치유하는 향유가 너희에게 결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2. 확고한 마음과 이해심을 가지고 한 교훈에서 다음 교훈으로, 한 시기로부터 다음 시기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 사역과의 조화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내 법과 명령에 대한 너희의 순종과 기꺼운 마음은 너희에게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는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울게 할 가시도 없을 것이다.

43.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가 평화와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도록 가르친 모든 미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라.

44.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지방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너희가 아직 익지 않은 열매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생명과 용기를 주기 위해 사랑의 비와 내 지혜의 빛, 그리고 신성한 태양의 광선을 보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가르침의 나무에 달린 열매처럼 완전히 익게 되면, 너희를 지탱하던 가지를 흔드는 바람에 따라 떨어지게 될 것이다.

45. 내가 더 이상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너희는 나의 영적 가르침 속에서 더 큰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과거에 그 가르침을 제한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이 신성한 일을 인물, 장소, 사물에 국한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이고 무한하므로, 물질적 영역과 인간적 영역을 초월해 있다.

46. 이제 너희는 나의 사업을 더 이상 인물, 장소, 사물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신성함 속에서, 무한히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며, 너희 존재의 높은 차원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7.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마치고, 그곳에서 이 업적을 목상하며 황홀경에 빠지고, 너희 이해력의 빛과 통찰을 누릴 때, 내 업적이 너희에게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것인가?

48. 너희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위대한 진리와 그 행복을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지만, 너희의 직관력과 상상력은 그 실체를 발견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49. 사다리의 각 가로대, 각 계단, 각 거처는 영혼에게 더 큰 빛과 더 완전한 행복을 선사한다. 그러나 영혼의 가장 높은 평화, 가장 완전한 행복은 영혼들이 겪는 모든 일시적인 삶의 세계를 초월해 있다.

50. 너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미리 느끼는 듯한 때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나 그 행복감은 이 생을 마친 후 너희가 넘어갈 다음 세상에 대한 미약한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51. 이 시대에 나의 씨앗은 이론과 해석의 짐을 지지 않은 마음과 정신으로 다가온 이들에게 가장 빨리 싹텄다. 그들은 나의 말씀에 있어 마치 처녀지와 같았으며, 나는 세상을 향해 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였다.

52. 다른 이들은 거짓이 섞인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나의 빛은 그들을 점차 오류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한 선한 것을 확고히 해 주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독초나 잡초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곳에 밀이 자라기도 하는데, 나는 그것이 익어 나중엔 그 알곡이 배가되도록 가꾸어 준다.

53. 어떤 이들이든, 다른 이들이든 — 나는 그들 모두를 나의 제자로 변화시켰으며, 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통합하였다. 이 백성은 그들의 행실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 가르침의 힘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의 심장이 더 격렬하게 뛰게 만든다. 내 이름으로 불신자들과 박해자들을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며, 그 싸움은 거대할 것이며, 너희 이름을 글에서 너희를 스캔들과 비방의 원인으로 단죄하는 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릴 것이다.

54. 나는 이러한 시련들이 닥쳤을 때 너희가 놀라지 않도록 미리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드러낼 때 바로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너희에게 말해 둔다.

55. 나의 모든 군대는 싸울 준비를 할 것이며, 나의 모든 종들은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56.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이 될 것은 이곳의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다. 자연의 힘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말할” 것이며 신성한 공의를 대변할 것이고, “영적 세계”는 현존하여 이 물질주의적인 인류의 무지의 눈가리개를 찢어낼 것이다 — 영원을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삶의 모든 부름과 현현에 대해 눈과 귀, 그리고 이성을 닫아두기를 고집하는 바로 그 사람들 말이다.

57. 바로 그들이 따르고 있다고 믿으며 이해한다고 여기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른 세계와 삶의 차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셨다 — 낯선 육체를 차지하며 살아가려는 영혼들의 혼란을 해소해 주신 분, — 바로 그분께서 사명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통해 무덤 속에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던 영혼들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어,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끌어올리신 분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현현을 믿게 하기 위해, 나는 그 존재들이 그들의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였다.

58. 내가 그 문을 열었다. 오직 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로 묶는 끈이시기 때문이다.

59. 너희는 나의 빛의 군단, 나의 평화의 대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타인의 고통을 위해 흘리는 너희 눈물의 방울들은 너희 아버지의 치유하는 향유와 합쳐져, 이슬방울처럼 슬픔에 잠긴 마음 위로 내려올 것이다.

60. 백성아, 모든 병을 고치는 참된 치유의 향유는 사랑에서 솟아난다.

61. 영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성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체의 병을 고치거나 인간의 사소한 곤란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비들과 영혼의 큰 두려움, 혼란, 양심의 가책을 해소할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62. 그 연고는 큰 시련을 풀어 주고, 빛을 밝혀 주며, 고통을 덜어 주고, 옳아매는 사슬을 녹여 버린다.

63. 과학이 포기한 사람은 이 연고와 접촉함으로써 건강과 생명으로 돌아올 것이며, 떠났던 영혼은 자신을 부르는 형제의 사랑의 말에 이끌려 돌아올 것이다.

64. 이 시기가 절정에 달하면, 사람들은 사방에서 영적 힘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며, 전례 없는 현상들과 사건들, 그리고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만한 과학자들은 말문을 잃게 될 것이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무능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다.

65. 사람들은 눈을 그리스도께 돌릴 것이며, 그제야 자신의 행적을 되돌아보며, 제2의 시대에 그토록 많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지금 돌아오셔서 현존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고 계신 분과 동일하신 분임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66. 나는 너희가 영적인 삶으로 들어서기를 원하며, 자기 절제와 검소함이 있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모든 영적 사건에 대해 예민해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많은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희에게는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7. 나는 제자들의 준비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그토록 커져서,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으며 오로지 그들의 영향력만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 즉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혼란과 고통의 삶을 사는 존재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68. 너희 백성아, 통합을 추구하라. 만약 너희가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 인류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필요한, 그 더 높은 세계의 빛의 존재들이 어떻게 너희를 통해 비취질 수 있겠느냐?

69. 나는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가르쳤으나, 너희가 자신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며, 그 기도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너희의 간구에 따라 주었던 시대는 지났음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나는 너희가 제자로서 활동하며, 기도할 때 너희의

영과 마음을 내게 바치되, 내가 그 안에서 읽으시고 내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기를 원한다.

70. 지극히 인내심 깊은 스승의 사랑으로 감싸인 나의 지혜로운 말씀은, 영성주의가 담고 있는 위대함을 너희가 단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었으며, 인간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어 천상의 영역과 융합되는 광활한 영적 지평을 너희가 바라보게 하였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 297

1. 백성아: 네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소망은 고귀하다.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네 행위의 결과를 즉시 알고자 하는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수확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미숙한 열매를 따는 데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사역의 결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자는 이 영적 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깨닫고, 그 후 자신의 일을 너희 뒤를 이어 올 이들에게 맡기고 신뢰하라. 그들은 너희가 시작한 밭 가꾸기를 계속하며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들 뒤에는 또 다른 이들이 올 것이며, 그 뒤에는 또 다른 이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믿음의 열매와 영성화로의 회심이라는 수확을 거두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 열매를 맺는 것을 목격하는 이들은, 이것이 단지 마지막으로 온 이들의 공로만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온 이들의 공로와 노력, 희생이 결합되어 스승께서 모든 이에게 맡기신 영적 사역을 승리로 이끈 결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4. 한 세대만으로는 온전한 사역을 완수할 수 없음을 알라. 또한 지금은 수확의 때가 아님을 알라.

5. 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내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반항적인 육신을 단련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세상의 변화가 즉시 일어나기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6. 또한 이 일을 혼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그토록 영적으로 중요한 사역을 완수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할 길을 안내해 주고, 씨앗을 심어야 할 길과 장소를 알려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선구자들은 다른 세계, 다른 고향에서 온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로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여러분을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평화와 사랑, 형제애를 실천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순수하고, 더 큰 지식과 경험을 지닌 영혼들이며,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멈춰 서지 못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 여러분이 씨앗을 방치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7.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여러분의 힘에만 맡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8. 이 사역을 신뢰하고, 그 위대함을 바라보라. 이것이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사역이 아니며, 이 인류의 새로운 세계관이 아니라, 예로부터 인간 영혼의 길을 비추어 온 영원한 빛임을 깨달아라. 그 진리 안에서 모든 불완전함과 불순함, 그리고 죄는 사라질 것이다.

9. 나는 나의 진리로부터 사랑과 정의, 지혜가 스며든 가르침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잠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킴으로써 그 힘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리라.

10. 사람의 죄가 단지 일시적이며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인데, 왜 그 사람을 파멸이나 영원한 고통으로 정죄하겠느냐? 내 신성한 본성을 품고 있는 존재를 왜 정죄하겠느냐?

11. 비록 잠시나 더 오랜 시간 동안 물질에 대한 집착과 악에 대한 성향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그 마음속에 내 은총을 닿게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그 존재는 이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영혼 안에 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12.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할 본성, 즉 그가 잃어버리고 종종 헛되이 찾아 헤매었던 본질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찾을 수 있도록, 즉 외적인 것, 육체적 형상을 바라보는 데 주저하지 않고 너희 영혼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너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13. 제자들아, 영적인 것을 찾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외적인 예배 의식을 행하는 데서 오는 광신주의에서도 해방될 것이다.

14. 그러면 너희는 영적 사업의 위대함이 집회실이나 상징,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의미와 정의로 가득 찬 궁극적인 목표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5. 보편적이고 무한한 이 사업을 제한하려 하지 말고, 너희의 영적 성장에 한계를 두지도 말라. 선한 행실과 학문의 길에 깊이 빠져들수록, 너희는 더 큰 계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 신성한 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피조물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존재 속에서 그것이 고동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16. 이것이 바로 내가 영성주의 제자에게 가르치는 단순함이며, 그도 스승처럼 단순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제자는 신비로운 힘이나 비범한 능력으로 누군가를 감명시키려 하지 말고, 말의 진실과 행위의 힘으로 설득하고 회심시켜야 한다.

17. 진정한 제자는 그 소박함으로 인해 위대해질 것이다. 그는 스승을 이해하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할 것이다.

18. 삶은 각자가 자신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넓은 바다와 같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안전한 항구로 항할 방법을 모색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목표나 경험이 부족하여 배가 전복되기도 한다.

19.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그 가르침 속에 구원의 항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내가 왜 너희에게 부정확한 가르침이나 모호한 말, 혹은 깊이가 제한된 계시를 전하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새로운 광신주의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나, 너희는 양심이 쉴 새 없이 괴롭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자비와 사랑의 법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것을 허위로 위장하려 할 때 더욱 그러하다.

20. 내 말을 들어라, 백성아, 귀 기울여라, 제자들아: 나는 지금 너희에게 빛을 주며, 쇠사슬과 속박, 그리고 어둠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 일을 또 다른 종교로 만들거나, 예전처럼 형상과 의식으로 채우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 결코!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그것을 새로운 광신주의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라.

21. 너희의 이성과 함께 영혼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짓된 두려움과 편견의 홍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그것들로부터 해방시켜, 너희가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보고 빛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었느냐?

22. 너희가 준비하지 않고, 불순함이 계속해서 너희 안에서 드러난다면, 너희의 빛은 물질주의 뒤에 갇혀 숨겨진 채로 남을 것이며, 너희는 이 위대한 계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처럼, 동료 인간들 앞에서 무지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3. 제자들아, 너희 형제의 ‘티’를 바라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는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24. 이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용해 다양한 교파에 속한 이웃들의 행실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모든 길 위에는 고귀하고 희생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 나를 찾는 마음들이 있다. 그럼에도 제자는 왜 때로는 서로 모순되고, 갈등을 일으키며,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다양한 세계관을 내가 허용하는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에 대해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허용된 이유는, 정확히 똑같은 이해와 같은 빛, 같은 믿음을 가진 두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너희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결코 율법의 길을 걷도록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길로 초대받았을 뿐이므로, 진리를 갈망하며 진정한 공덕을 쌓을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25.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의 사명은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며, 팔을 뻗어 너희의 능력이나 은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 즉 너희의 치유력이나 말씀,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2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면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으리라. 깨달은 영혼은 오직 이기적인 마음만을 달래주는 그런 사소한 허영으로 만족할 수 없느니라.

27. 제 눈에는 제자들이 형제들에게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헌신적이며, 가장 끈기 있는 사람들로 보일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사명 수행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28.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일, 그리하여 너희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이끌어 주는 일은, 비록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조용히 행하는 일이다.

29. “너희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라”고 나는 그 제2의 시대에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내 영의 빛이 모든 것을 밝혀 주는 이 시점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위선 없이 겸손하라. 타인의 고통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웃이 누리는 선한 일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하라.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가르침을 느끼는 자만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0. 백성들아: 너희에게 발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다른 이들이어야만 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너희만이 너희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며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그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31. 나는 길이며, 너희는 그 길을 따라 다가오는 순례자들이다.

32. 너희가 산 정상에 도달하면, 뒤를 돌아보며 너희 영혼이 겪어 온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33. 길은 멀다. 누가 이미 모든 것을 겪어 보았다고, 모든 비밀을 안다고, 그리고 보고 듣는 것 너머에 있는 모든 것에 깊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34. 스승이 너희의 노력을 알아보거나, 너희가 그 길에서 이룬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아니, 백성들아. 나는 너희의 공로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는 정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록 여러분이 인간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에서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즉, 무한한 세계에서 육체적 감각을 넘어 존재하는 것을 더 많이 찾을수록, 인식하고 배워야 할 새로운 배움의 영역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5.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자연을 맡겨 주었듯이, 너희가 영혼을 통해 그 너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연을 초월한 세계의 존재를 너희에게 드러내 주었다. 나는 너희가 영적인 삶을 알게 되도록 탐구하고 연구하게 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적은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배움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 무한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며, 하루의 일을 마칠 때 만족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외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라.

36. 나의 가르침은 영혼이 정체되게 하지 않으며, 인간의 발전을 가로막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두려움과 편견에서 해방시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빛의 길을 보게 한다.

37. 과학과 연구의 정점에 도달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내일 그들이 지식에 대한 갈망에 형제애라는 이상을 더할 때 비로소 도달하게 될 과학의 시작 단계에 불과한 이 인류를 바라보라.

38. 오늘날 사람들은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온 삶과 모든 노력이 영의 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 목표는 자신의 영이 창조주의 영과 교감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39.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봉하는 숭배는 유물론이다.

40. 신앙 교리와 종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고집하는 한, 세상은 계속해서 증오를 키울 것이며 진정한 신 숭배를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할 열쇠나 비밀, 그리고 영생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 다른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언제 비로소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단결하여 서로를 향한 사랑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겠는가?

41. 그러므로 모든 교파, 모든 인간적 이념, 모든 종파를 초월하는 영성주의의 진정한 목적을 명심하라.

42.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깊이 연구해 보라. 그러면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43. 이 가르침의 진리 앞에서 차이, 소외, 원한, 저항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라. 그 빛 앞에서 너희는 모두 동등하게 보이며, 그 사랑 앞에서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이며, 그 정의 앞에서 너희는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44. 이 말씀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관습과 종교적 광신을 뒤로 하고, 각자가 나에게 바치려 했던 숭배의 형식이 아닌, 영으로 계신 나에게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근원에 이르면, 나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며,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고, 서로 화해하게 할 것입니다.

45. 생각해 보라: 만일 너희 모두가 이 생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인류는 이미 이기심을 버렸을 것이며,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원과 소명을 이해했다면, 각자는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모든 행실을 실천했을 것이다.

46. 이제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두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신 숭배 방식으로 통합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생각의 통합과 영적 유대 속에서만, 여러분은 진보와 조화,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7. 이제 너희는 어떤 종교도 인류의 평화와 영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대신, 어떤 이들에게는 경전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영감을 통해 전해지는 나의 신성한 메시지가 인류의 구원, 통합, 그리고 영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48. 영성주의는 불평등을 만들지 않으며, 영성주의는 인류가 필요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이자, 사랑이자, 정의이자, 빛이기 때문이다.

49.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내가 다른 교파를 따르는 동료 인간들에 대한 혐오나 악의를 너희 마음에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아. 바로 여러분이 먼저 형제애와 조화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애정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50. 모든 종교 공동체는 이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경배한다고 주장하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영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

51. 사람들이 너희를 길 잃은 자라고 부른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손을 내밀어라. 너희에게는 진실된 이 일이, 다른 이들에게는 종교들이 인정받기 위해 부여받은 성스러움이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져 거짓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52.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이 대변자들의 말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고 믿는다면, 동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가르침은 그토록 설득력이 있고, 내 메시지에는 그토록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 너희가 이 무기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안다면 결코 패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3. 너희가 열정적으로 진리와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그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빛을 향해 나아갈 자유가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54. 백성아, 너희는 오랫동안 내 식탁에서 먹고 마셨다. 아직도 영적인 굶주림을 느낀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날마다 음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무엇을 마시게 하느냐? 너희의 다툼과 오해에서 비롯된 담즙과 식초뿐이구나!

55. 이 은총의 날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신성한 광채가 너희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너희가 내 임재를 느끼고 너희 삶을 변화시키게 하라.

56. 비록 내가 심판자로 왔지만, 진실은 너희가 심판자의 말씀 안에서 찾으려 할 때,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57. 나는 너희의 깨달음이 커질수록,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도 그만큼 커질 것임을 안다.

58. 내가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느냐?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참된 생명을 사랑하라.

59.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너희의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이 어디로든 너희를 따라다니며, 너희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거나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너희의 잘못이 클수록, 너희에 대한 나의 자비도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라.

60. 사람들의 악의는 나의 사랑을 물리치려 하지만, 사랑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편적인 힘이자 신성한 권능이므로, 그 악의는 사랑에 대항할 수 없다.

61.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의 증거는, 인류가 죄의 심연 속에서 길을 잃은 이 시기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존재를 드러냈을 때 너희에게 준 바로 그 증거이다. 나의 사랑은 인간의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낄 수는 없으나, 오직 연민만을 느낄 뿐이다.

62. 나를 알아보고, 내게로 와서 내 자비의 수정처럼 맑은 샘물에서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내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63. 너희가 마음속이든 영혼 속이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어떤 고통, 어떤 갈망, 근심, 혹은 비밀을 내 앞에서 숨길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영적으로 기도하는 법, 내 앞에서 내면적으로 고백하는 법, 나의 예지력과 자비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너희 마음에 그토록 절실히 부족한 평화가 흘러들게 될 것이다.

64. 나는 너희에게 기도가 영혼의 언어이며, 이를 통해 너희 마음이 나에게 말하고, 탄식하며, 간구하며, 울고, 힘을 얻는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때로는 너희 존재가 기쁨으로 가득 차거나 평화로 넘쳐흐를 때, 기도는 내 왕국의 높은 곳까지 닿는 영적인 찬송가가 된다.

65. 나를 신뢰하라, 백성아, 나를 신뢰하라, 인류여. 이 땅에는 너희의 구원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민족,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라.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 진리를 찾으라. 그러면 언젠가 너희는 모두 하나의 '계곡'에서, 하나이자 동일한 빛 아래 하나로 연합될 것이다.

66. 사람들, 국가들, 인종들, 그리고 민족들, 이 모든 이들은 인간의 영혼이 지상의 속박에 지쳐 일어나 물질주의의 사슬을 끊고 영적 해방의 환호성을 지를 때, 신성한 부름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7. 오늘 여러분에게는 내 말씀의 성취가, 이 인류의 도덕적·영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먼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을 닦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 말씀의 성취를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68. 인간의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토록 뜨거워져, 이 눈물의 골짜기를 조화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며, 전쟁을 막기 위해 자기 희생과 초인적인 노력을 기꺼이 감수할 때가 올 것이다.

69.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삶에서 고통의 잔을 치워내며, 과거 세대들이 맹목적인 권력 추구와 물질주의, 경솔함 속에서 파괴해 버린 모든 것을 재건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대한 진정한 숭배를 지켜낼 사람들이 될 것이다 — 광신이나 겉치레적이고 무의미한 의식이 없는 바로 그 숭배를 말이다. 그들은 인류에게, 인간 법칙과 영적 법칙 사이의 조화, 그리고 그 법칙들의 실천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70. 너희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너희 자녀들이 고귀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 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너희는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다. 내가 너희의 교육과 보살핌에 맡긴 이들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그래야 때가 되어 영이 물질의 지배에 맞서 결정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믿음으로 굳건하며, 내 말씀이 전하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의 몸, 하나의 민족, 하나의 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영은 그 길을 가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섰을 때처럼, 벽을 허물고 장애물을 극복할 것입니다.

71.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자녀들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한 채 떠나게 된다면, 너희 영혼은 저 세상에서 지상에 홀로 남겨진 이들의 운명을 애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가올 재앙과 역병의 침입에 맞서 방어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재앙과 역병은 지상의 민족들을 징벌하기 위해 닥쳐올 것이다.

72. 영계에 도착했을 때 달콤한 열매를 거두는 대신 가시덤불과 켄치풀만 마주하게 될 영혼의 속죄와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73.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때에 피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전해 주는 가르침의 빛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니까요.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가르침 298

1. 육체의 고통이든 영혼의 고통이든 모든 고통을 치유하라. 너희에게는 이웃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 자신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건강을 전해 줄 수 있겠느냐? 너희 영혼이 근심과 고통, 양심의 가책, 그리고 저급한

정욕으로 뒤엉켜 있다면, 그곳에서 어떤 평화가 흘러나올 수 있겠느냐?

2. 너희가 마음속에 쌓아 둔 것만이야말로 너희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다.

3. 오늘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를 가능한 한 많이 쌓아 두어야 하며, 적대감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때가 되어 너희의 사명을 수행할 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 빛, 그리고 치유하는 힘은 너희의 존재와 하나가 되어 — 너희가 단순히 안수함으로만 병자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너희의 말과 생각, 시선을 통해 건강과 평화, 그리고 힘을 전달하게 될 것이며, 많은 경우 너희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이러한 힘이 발산될 것이다.

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다 — 너희는 또한 그 은사를 드러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나를 향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감정의 순수함, 그리고 이타심을 통해 그 힘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 비록 나를 통해 은총을 받았더라도 — 아무런 선한 것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는 고귀하고 순수하며 고양된 감정을 통해서만 꽃피고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5. 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에 기적의 흔적을 남기는 이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꾼”들은 *나의* 기적을 마치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돌립니다.

6.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그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아직 없는 이가 있는데, 이는 준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크고, 이웃을 향한 자비를 느낍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내하며 더 완전해지도록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7. 내가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는 자에게서 그 은사를 빼앗는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지시한 목적에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그 은사를 행사할 능력을 잃게 된다.

8. 영적 은사가야말로 구원을 얻는 수단이자 자신을 방어할 유일한 무기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서 그 은사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만일 나의 공의가 너희가 믿는 대로 행했다면, 나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양심의 빛을 빼앗았을 것이며, 많은 사람의 두뇌에서 지성을 박탈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은사를 박탈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구원을 얻고 완전함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떤 이들은 이성을 잃고, 어떤 이들은 생명이나 어떤 능력을 일찍 잃는다고 내게 말한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속한 것을 빼앗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맹목으로 인해, 그들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것을 스스로 빼앗고 있는 것이다.

9. 이 모든 일 속에 나의 공의를 사랑하시는 손길이 깃들여 있지 않느냐?

10. 그러나 내가 나의 완전한 공의를 행하는 방식을 조금만 관찰해 본다면, 너희는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며, 어떤 이에게는 빛을, 어떤 이에게는 평화를, 또 다른 이에게는 생명을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정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11.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니, 내 가르침에는 단 한 장도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내일 어떤 의심도, 어떤 불확실함도 갖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12. 나는 너희를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잘 아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며, 인류의 축복과 영적 발전을 위해 내가 너희 마음에 심어 놓은 이 축복받은 씨앗을 온전한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뿌리고 전파할 준비가 된 백성으로 만들겠다.

13.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르침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너희에게 오늘 내 곁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으라고 말하였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이웃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14. 너희의 불완전함과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찾아오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결코 믿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이 세상에서 너희가 악을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그리고 너희의 심판이 닥쳤을 때, 오직 너희의 공로만이 고통스러운 속죄로부터 너희를 지켜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 이 가르침이 너희에게 설명해 준 바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결코 잊지 말라!

16.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너희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드러내었고, 다양한 형태로 너희를 시험하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길 위의 바위들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으나, 너희의 믿음을 발휘하여 다시 일어서기도 했다.

17. 나의 가르침은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말씀은 너희를 고양시킵니다. 이는 너희가 나의 임재와, 이 목소리의 매개자들을 통한 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8. 너희 영혼은 너희 몸 안에서 이 계시를 통해 나의 임재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준 감수성을 발견함으로써 만족을 얻었다.

19. 과거의 경전을 통해 이 시대를 예고했던 예언들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들이 내 계시를 직접 목격한다 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며, 그 예언들의 성취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발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다.

반면, 오늘날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예언한 예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이미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 선지자들과 깨달은 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영 안에서 나의 오심을 감지하였고, 사람들의 이해력에 그 내용을 쏟아붓기 위해 펼쳐진 책을 보았으며, 사람들 곁에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오실 새로운 산을 보았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를 느꼈던 것처럼, 각자에게 정해진 각성의 때가 오면 한 민족 또 한 민족,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차례로 다가올 것이다.

21. 내가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너희에게 허락한 그 형태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나는 모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법을 알 것이다.

2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영적인 씨앗을 온 지구상에 퍼뜨리고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23. 내가 계시하신 이 시간은 이 백성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르침은 길고도 상세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세대가 떠나고 다른 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씨앗이 싹트고, 익으며,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24. 가르침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내가 매년 설교에서 너희가 장차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밝혀주고 있음을 알아두라.

25. 나의 사역에는 위대한 최종 목표가 있으며, 바로 나의 말씀이 너희를 그 목표로 인도한다.

26.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은 백성의 대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시련이 여러분을 약한 상태로 덮칠 것이기에, 여러분은 분열된 상황을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가하는 고통과 타격으로 인해, 내가 여러분에게 계시를 시작한 첫날부터 말해 온 평화와 연합, 선의의 깃발이라는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27.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고통이 닥치기 전에 형제애로 하나 되어 모인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의 형제애를 꿈꾸었으나 아직 통합의 조짐을 보지 못한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있다. 바로 이들이 조용히 내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잠시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28. 다른 이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왜 마음이 정화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백성아, 너희는 아직 모든 열락에서 깨끗해지지 않았으며, 고통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너희 본성 속에는 아직 시련을 겪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며, 영적 영혼과 마음이 굳건해지려면 그 부분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29. 너희가 단지 나를 듣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너희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때에는 너희는 영적·도덕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30. 제자들아, 너희가 싸우는 목표는 더 이상 고통이 닿지 않는 그 영적 경지에 이르는 것임을 알라. 그리고 이 목표는 공로와 투쟁, 시련, 희생, 그리고 포기함을 통해 달성된다.

31. 너희가 때때로 주변 사람들 중에서 발견하는 인내, 믿음, 겸손, 그리고 순종의 사례들을 주목하라. 그들은 인류에게 미덕의 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보낸 영혼들이다. 겉보기에는 이 피조물들의 운명이 비참해 보이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왔음을 알고 있다.

32. 너희는 역사 속에서 내 사자들과 제자들의 위대한 본보기를 받아왔으니, 그 이름들은 너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작은 본보기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3. 너희는 종종 위대한 업적을 이루곤 하는데, 이는 아버지께 바치는 헌사이며, 그분을 기리기에도 합당하고,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들이다. 여러분은 그 일의 가치나 그 행위의 공로를 항상 깨닫지는 못할 것이며, 이는 마음이 그 공로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씨앗이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알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 얼마나 자주 영혼은 고상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평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34. 제자들아, 너희는 고난 속에서 굳건해졌으나, 이제는 영성화를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인간 생활이 그 고난과 근심, 유혹으로 너희를 사로잡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방법을 발견할 줄 안다면, 그러한 속박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영혼에게 확장성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와, 나의 업적에 대한 묵상, 고귀한 일에 몰두하며, 불행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35. 이를 이룬 자는 물질 세계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빛과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36.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길로, 너희가 물질주의와 세상의 고난, 고통, 유혹, 그리고 악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7. 나는 너희가 영성화를 통해 진리의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너희 아버지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와 명상, 선한 행실로 너희를 초대한다. 오직 그곳에서야 비로소 너희는 영적인 의무와 인간적인 의무를 모두 훌륭히 이행할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8.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한,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나 고통의 잔이 너희 마음에 그 내용물을 쏟아 부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거부감을 드러내지 마라. 지구는 영혼이 정화되고, 더 높은 고향을 얻기 위해 공덕을 쌓는 “계곡”입니다. 그곳에 거하기 위해 너희 영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너희가 안다면 말이죠.

39. 너희는 너희의 사역을 이어받을 후손들을 위해 길을 닦고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희가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또 다른 이들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40. 너희가 이곳의 이 길을 밟았을 때, 너희 입술에는 이전 세대들이 맺은 열매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긴 선물이었다. 곧 너희를 대신하여 올 후손들을 위해, 너희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된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1. 깨어나라, 백성들아! 저 세상은 이 땅 위에서의 너희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
지상에서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 저 세상들은 너희의 행실을 알고 있다! 그들이 이 인류가 적대감과 욕망의 바다에 빠져 침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심히 동요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42. 안심하라,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희의 아버지를 믿고, 너희를 사랑하며 영의 왕국에서 너희를 지켜주는 이들을 신뢰하라.

43.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 시기에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일에 헌신한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간만으로도 너희가 다가올 새로운 시대로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을 준비를 갖추기에 충분할 것이다.

44. 내가 계시를 전한 지난 3년을, 내가 제2시대에 내 가르침을 전파했던 그 시절을 상징하는 기간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당시 나를 따랐던 제자들의 사랑과 의지력, 헌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신성한 스승의 제자, 진리의 사도가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45. 그 당시 나를 직접 따르도록 선택된 자들은 열두 명이었으며, 그 열두 명 중 단 한 명만이 나의 작별이 다가오던 시련의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다.

46. 오늘 나는 수많은 제자들을 내 식탁에 앉혔으니, 그들이 끊임없이 내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이 계시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강인한 자들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스승을 배반하지도, 스스로를 배반하지도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져야 한다.

47.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백성아. 그 때가 왔을 때 내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깨어 있으라. 육신은 연약하여 한순간의 약함 속에서 영혼을 배반할 수

있으니, 나는 너희가 나중에 인간으로서나 영적 존재로서 한순간의 혼란이나 약함 때문에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48. 불순종의 결과가 즉시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조만간 너희는 너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시간이 흘러도 나의 공의가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너희의 잘못이 아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심판자로서 무자비하다는 것과, 너희의 심판의 때가 오면 너희가 양심의 빛을 향해 눈을 뜨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49. 그 누구도 이 심판을 자초하지 말며, 그 누구도 고통과 공포, 양심의 가책, 그리고 절망이 담긴 이 잔을 갈망하지 말라. 너희 양심이 끊임없이 그녀를 “불순종하는 자”, “배신자”, “배은망덕한 자”라고 끊임없이 부를 때, 너희 영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50. 너희가 여전히 착오나 불순종, 혹은 편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며, 너희를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너희는 곧 나의 계시의 끝자락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모든 지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했는가? 너희가 내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말씀을 영원히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너희 자신을 영원히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51.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너희에게 말한다. 내 영이나 내 사역은 그 어떤 인간의 오류도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 많은 해를 입힐 수 있으며, 나는 너희가 그러한 해를 피하기를 바란다.

52. 너희는 제2시대에 내 제자 중 한 사람의 순간적인 약함이 그의 스승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알고 있다. 스승은 제자들의 품에서 뜯겨 나갔고, 그분의 입술에서 수없이 흘러나오던 사랑의 말씀은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 주었던 그 축복받은 육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버림받음의 그림자가 자신들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적인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류였습니다.

53.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그 배신자 제자의 실수가 나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믿느냐? 너희는 그 잘못이 내가 예정하신 것을 바꾸었다고 믿느냐? —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사역과 진리, 그리고 사명은 지극한 완전함 속에서 성취되었으며,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보여 드러야 할 모든 예정된 삶의 상황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신의 뜻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 종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 뜻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54. 내가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위해 모든 이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수년 동안 수많은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해 온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성실하고 준비된 대변자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할 것이다.

55. 이스라엘아, 생명나무 아래에 머무는 무리가 얼마나 적은지 깨달아라. 어떤 이들은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길에서 유혹에 휘말렸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좋은 조언을 주고, 스승으로서 너희를 가르친다.

56. 너희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내 발자취를 따르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며, 귀머거리가 내 사랑의 부르심을 듣게 하고, 절름발이가 걸어서 나를 따르게 하며, 인류가 정오의 빛을 보게 하라.

57. 나는 지금 사람들을 준비시켜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나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리라.

58. 엘리야가 너희를 양우리로 인도한 그 순간부터, 너희는 영성화와 영혼의 승천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 왔다. 너희는 내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옷을 주었고, 너희가 내게 바친 누더기를 벗겨내며, 너희 영혼을 깨끗한 옷으로 단장시켰다. 나는 너희 영혼에 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표식을 새기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가 속한 대열이니, 내 사명에 대해 순종과 복종을 보이도록 하라.” 그러자 너희는 내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59. 그렇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깨우쳐 주었으니, 너희가 무지하지 않게 하고, 강한 자로서 내 가르침을 실천하며, 너희 마음속에 나를 모시고 악과 단절하며, 물질주의에 눈이 멀어 길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치유제를 주었으니, 너희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며, 그들을 나에게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

60. 나는 이 시대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인류를 구원하며 심연에서 끌어내어, 첫 페이지부터 현재의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시대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 온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왔다. 여기 내 사랑과 내 무한한 지혜가 있다. 나를 이해하고 싶은 자는 내 안에서 살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싶은 자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고통에 휩싸이지 않고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영성화를 통해 자신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61. 이것이 바로 네 사명이다, 이스라엘아. 준비하라.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온전한 주의력을 다해 스승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너희 각자는 내일,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열린 책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62. 너희의 사명 수행은 단지 모임 장소의 네 벽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니, 이스라엘아, 나의 꿰뚫어 보는 시선은 너희의 모든 행실을 지켜보고 있으며, 너희가 잠시라도 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너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에 내가 그것을 허락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불순종할 때면 걸음마다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63. 아버지께로 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꿰뚫어 보는 시선이 보는 자만심과 허영심, 그리고 모든 결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64. 나는 겸손하고 무지한 자를 사용하기를 기뻐했다. 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다스렸다. 나는 그에게 나의 율법을 맡겼고, 그에게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였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네 이웃들에게 이 부름을 전하고,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라. 내가 그들에게 영적 승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사명이 위대하고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영적 여정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이다. 너희에게는 내가 있고, 너희는 나를 듣고 느꼈으며, 내가 너희를

격려하며 “걱정하지 마라. 나의 자비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일꾼”에게 한 조각의 땅을 주어, 그 땅을 가꾸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쓰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꾼은 맛이 좋고 내게로 올 자격이 있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다시 그 땅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65. 나의 사업은 흠 없이 남을 것이며, 나의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을 것이다.

66. 이 백성의 오점과 신성모독은 나의 공의로 말미암아 지워질 것이며, 너희는 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67.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며, 내 뜻에 따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있다. 너희 양심에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양심은 너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항상 알려 줄 것이다.

68.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야 이 시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에 빠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내가 명한 바를 배반함으로써 내 뜻에 대항하여 일어나, 사건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일은 신성한 것이므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오만하게 내 뜻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 내면에서 그 고집의 결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299

1. 제자: 스승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스승님의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입맞춤을 해 주십니다.

2.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그 축복받은 밤을 너희가 이 며칠 동안 기념하며 느끼는 영적 기쁨이 내게 전해집니다.

3. 너희가 형제적 사랑으로 더욱 굳게 단합하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아이들에게 다정함을 베풀 때,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내신 완전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인류에게 빛과 평화가 되어야 할 것을 거기서 꺼내 주었다.

4. 나는 모든 이가 나의 현존을 느끼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적어도 이 기념의 날들 동안 마음을 감수성 있게 열고 영적으로 고양시킬 줄 안다면, 그들은 어떤 장소에서든, 모든 피조물의 길 위에서, 가정 속에서, 고통이 깃든 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 모든 이가 마음속에서 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모든 자녀들의 길 위에 사랑의 선물을 남겨 둔다.

5. 나는 무한히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다. 비록 내가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을 들려주더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

6. 메시아께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던 그 새벽을 사람들이 기념하는 오늘, 나는 온 인류가 나의 영적 현존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나를 기뻐하기를, 청년들이 잠시 멈춰 서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인간이 되신 분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이 일들을 되새기며 어린 시절의 행복한 날들을 떠올릴 때 눈물을 흘리는 어른들이 마음속으로 나의 평화를 느끼기를 바란다.

7. 여러분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셨던 어머니의 품, 부모님의 사랑과 어루만짐, 행복했지만 짧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후 세상에서 차츰 잃어버린 모든 것들—부모님, 어린 시절, 기쁨, 순수함—을 떠올릴 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할 것입니다.

8. 여러분은 많은 이들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차가워져 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9.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 순간 기도하여, 너희를 잊은 이들이 너희를 기억하게 하고, '영적 계곡'으로 날아간 이들이 너희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이 사랑의 날에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라.

10.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기적이 일어난 그날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 또한 주님의 신성한 업적을 묵상하며 이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1.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행성에서 나의 오심과 나의 임재, 그리고 나의 말씀을 가장 뚜렷하게 체험한 이들입니다. 전달자를 통해 인간화된 나의 목소리는 너희 영혼에 빛을 밝혀 주었고, 비밀을 밝혀 주었으며, 영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계시해 주었고, 그것을 들은 이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3시대의 제자들"이라 불리며, 아버지는 너희에게 언제나 가장 영적인 경배를 기대하신다.

12. 너희는 이제 점차 내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내가 걸었던 발자취를 떠올리려 할 때, 너희는 어떤 의식도, 예식도, 세속적인 축제 없이 그렇게 한다. 너희는 기쁨을 내면적으로 간직하며, 그것을 표현할 때는 내 말씀을 경청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영혼과 마음을 쏟음으로써 그렇게 한다.

13. 오, 축복받고 사랑받는 백성아: 이 거룩한 기억들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것들이 너희 삶의 길과 빛이 되게 하라. 만일 너희가 사람들이 이러한 기념 행사에서 신성에 대한 존중의 한계를 넘어 신성 모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듯이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 나도 그들에게 내 빛을 비추어 주리라.

예언된 대로 영적인 격변이 인류를 뒤흔들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깨어나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를 위한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비범한 시련과 사건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갱신으로 부르는 심판의 외침과 같을 것이다.

14. 이미 오늘부터 나는 너희가 각 민족들이 나에게 올려 보내는 간구 기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준비를 가르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힘을 주어, 시련의 순간에 낙담하거나 직관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리라.

15. 나는 너희가 영혼 속에 참된 빛을 품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 삶의 여정에서 닥치는 시련과 심각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16. 나는 너희를 축복하며, 또한 “말씀”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 그분의 자궁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여인이 되신 너희 하늘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품이 함께할 것임을 말해 둔다.

17. 그분은 스승을 깊이 이해하셨기에, 그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인간의 어머니가 되신 분은 바로 그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 그녀는 단지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신성한 사랑은 만물을 감싸는 위로의 망토이며,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녀의 현존은 다정함과 중보기도입니다. 그녀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녀 안에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인도할 하늘의 사다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 나의 영은 각 가정에 들어가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모든 마음을 평화로 채워 주십니다.

20. 오늘 아침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영적 메시지는, 내 계시의 마지막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21.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전하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이 평화를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화야말로 너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22. 영혼의 평화는, 그 상태에서 너희가 나의 지혜의 빛과, 평화가 부족하여 혼란에 빠진 마음이 파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상태이다.

23. 사람은 영혼의 평화와 마음의 평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은 폭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을 끈기 있게 실천함으로써 얻는 은총입니다.

24.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씨앗을 맡기니, 너희가 이 땅에 그것을 퍼뜨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씨앗을 퍼뜨릴 이들은 너희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다른 공동체들 속에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25.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말씀의 영감과 영적 계시를 간절히 경청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는 그것들이 사람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이해력을 단련시켜 주므로, 그들은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으로 동료 인간들에게 이를 드러내는 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6. 인간은 불멸의 영의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으며, 해방에 대한 소망과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갈망을 통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7. 지금은 인간이 자신의 지성이 지닌 능력과 힘을 깨닫는 시기이다. 인간은 단지 자신의 영혼이 이 힘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님께서 가르침의 책에서 명하신 일들을 성취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

28.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너희는 인간이 — 영혼이 투쟁하고 방해받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 명예를 떨쳐버리고, 마음속의 전통을 뿌리 뽑으며, 종교적 광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모든 이들이 행해 온 바와 같다.

29. 나는 모든 이를 위해 그들의 길 위에 교차점을 마련해 두었으니,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마주치게 될 것이며, 이상과 투쟁,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3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계 곳곳에는 영성주의자들이 흩어져 있으니, 그들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성숙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지구의 영성주의자들 간의 연합은 새로운 교회를 조직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의 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일치는 사상적, 이념적, 그리고 활동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힘은 무적일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 영 안에 있는 영원한 근원에서 그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31.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나의 진리를 불어넣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과 이성에서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도록 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나의 빛과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2. 너희 모두는 영적 가르침이 인간의 철학으로 오염되지 않고, 너희의 영적 능력을 통해 설명되고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3. 이미 옛날부터 사람들은 나의 계시와 가르침에 자신들의 세계관, 철학, 이론을 섞어 넣었으며, 그로 인해 인류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34. 나는 그 길을 찾은 자들이 그 길을 알기 쉽게 가르치고, 동료 인간들이 그 길을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 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에 걸림돌을 놓아, 나를 찾는 자들이 내게로 올 수 없게 막지 말기를 바란다.

35. 의식을 고수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형상이나 사물, 형상으로 의인화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그들이 영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동료 인간을 무시함으로써 민족들 간의 전쟁을 조장하는 자들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36. 너희 모두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더 순수하시며, 그 신성한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37.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너희가 그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다면, 이것을 말한 이는 한 인간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의 오류를 지적해 주는 너희의 스승임을 명심하라.

38. 권력에 대한 탐욕과 광신, 그리고 고집이 마치 한 번 터지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홍수와 같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39. 나는 진리에 근거한 누구의 신앙적 신념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류가 있는 곳에서는 그 오류를 바로잡는다.

40. 지금부터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너희 영혼의 삶을 화해시키고 조화를 이루라. 누구도 자신이 형제보다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음의 순간에 너희의 발전 수준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것은 바로 나의 목소리일 것이다.

41. 그곳에서, 양심 앞에 서는 그 짧은 깨달음의 순간에, 많은 이들이 상을 받지만, 많은 이들은 또한 자신의 위대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2. 너희는 구원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형제애의 길을 따라 내게로 오라. 그것이 유일한 길이며,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은 내가 가장 높은 계명에 기록된 바로 그 길로,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43. 인류여, 너희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들, 마음속에 평화를 받아들이고 하나 되고 행복한 가족처럼 모습을 드러내라. 나는 알고 있다. 그 시절 나의 탄생을 기념할 때 모든 마음이 진심 어린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찰과 침착을 위한 시간을 내어, 기쁨이 내면에서 우러나오게 하고, 기념의 축제가 영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44. 오늘날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념일을 세속적이고 의미 없는 축제로 만들어, 영적 기쁨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과는 거리가 먼,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 왔습니다.

45. 만일 사람들이 이 날을,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사람이 되신 사실 그 자체가 신성한 사랑의 확고한 증거임을 묵상하며, 그날을 성령께 바치는 데에 활용한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믿음은 너희 존재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그 믿음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끄는 길을 안내해 줄 별이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은 선함으로 그토록 가득 차게 되어, 삶의 여정에서 궁핍한 이들에게 자선과 위로, 그리고 따뜻한 정을 아낌없이 베풀게 될 것이다. 너희는 형제자매 이상의 유대감을 느끼며, 너희를 모욕한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버림받은 이들, 즉 부모도, 거처도, 사랑도 없는 아이들을 볼 때 연민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여러분은 전쟁이 인간 삶의 모든 선하고 고귀하며 거룩한 것을 파괴해 버린, 평화가 없는 민족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순수하게 내게 닿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 중 이토록 많은 이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46.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러할 것이다. 너희가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기도하며 연민을 가졌으니, 너희 집으로 모여 식탁에 앉아 그 축복받은 시간에 기뻐하라.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기쁨이 진실하다면, 그 기쁨에서 평화와 희망의 기운이 흘러나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의 숨결처럼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47. 아무도 내가 너희가 일 년 중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거행하는 가장 순수한 축제를 너희 마음에서 지워버리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단지 너희에게 세상에 마땅한 것을 세상에 주고, 영혼에게 마땅한 것을 영혼에게 주도록 가르치고자 할 뿐이다. 너희가 인간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축제를

거행한다면 — 왜 이 축제를 영혼에게 맡기지 않는가? 그리하여 영혼이 어린아이가 되어 내게 사랑의 선물을 바치러 오게 하고, 목자들의 소박함을 얻어 나를 경배하며, 진정한 지혜의 주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지식을 바칠 수 있도록 현자들의 겸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까?

48. 나는 이 며칠 동안 사람들의 삶을 감싸고 있는 기쁨을 꺾고 싶지 않다. 이는 단지 전통의 힘 때문만이 아니라, 내 자비가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내 빛이 여러분을 비추며, 내 사랑이 망토처럼 여러분을 감싸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희망과 기쁨, 그리고 다정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끼게 되며, 무언가를 베풀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로 충만해집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 감정과 영감을 항상 진정한 너그러움과 순수함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이유인 영혼이 그 순간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 정화되어 구원받도록 허락하지 않은 채, 그 기쁨을 세상의 쾌락 속에서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신 그 신성한 사랑은,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 하기 위해, 각 사람의 삶의 여정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49. 내 영의 평화가 이 평화의 밤에 다정함의 망토처럼 모든 사람 위에 펼쳐지며, 마리아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사랑스러운 입맞춤 또한 그녀의 모든 자녀들에게 닿습니다.

50. 제자들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매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51. 너희가 그 축복받은 밤을 기념하는 이 은혜의 날, 메시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이 날에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곳에만 나타나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이에게 내 존재를 느끼게 하노라.

52. 나는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성인들에게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노라. 나는 모든 종교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며, 각 공동체가 가진 빛에 따라 그들에게 나의 현존을 드러내노라. 그러나 누구도 내 방문을 받지 못한 채 남겨두지 않으리라.

53. 이것이 바로 너희가 너희 스승에 대해 품고 있는 모든 기억 중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기억이다. 아이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어른들의 마음은 구세주에 대한 평화와 희망으로 넘쳐흐른다.

54. 이 말씀을 들을 은총을 받은 너희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마음의 가장 순수한 곳에서 이 축제를 기념하는 소수에 속한다. 이처럼 너희는 어떤 모독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이성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곧, 주님 앞에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기념은, 너희가 스승의 본보기를 너희 삶에 적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이다.

55. 모든 이웃을 생각하라. 너희 영혼을 온 지구로 뻗어 나가게 하라. 그러나 사랑과 자비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들을 생각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기도와 생각, 소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56. 나는 이 인류의 영적 각성이 시작될 시기를 위해 너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 시련과 사건들, 그리고 부름들이 사람들의 길 위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릴 것이다.

57. 나는 이미 너희에게 경고했으니, 종교와 민족 간의 세계관 대립이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낙담하지 말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이 다툼은 사람들 사이에 화합과 조화,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58. 그때 싸움이 더욱 격렬해지면, 너희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위협이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주인과 통치자들에게 억압받던 민족들 가운데서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시기에 내 새로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온 땅에 전파되는 나의 가르침이 온전한 광채를 발하게 될 것이다.

59. 오늘날 내 말씀은 너희에게 용기를 주며, 동시에 너희 영혼의 시련은 너희에게 굳건함을 주어, 너희가 매질과 모욕, 배신 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60. 너희 중 많은 이들이 가족의 품에서 반대와 불신, 조롱을 겪었기에 큰 괴로움을 안고 나를 따르고 있다. 너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사와, 그분이 너희를 보내신 사명을 의심해 왔다.

61. 어떤 이들은 집에서 쫓겨났고, 다른 이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6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족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 이들은 너희만이 아니었느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사례를 상기시켜 주마.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큰 선지자임을 알아차린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 상인들에게 팔려갔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그 청년을 감싸 주셨고, 그는 노예로

이집트에 도착한 후, 조상들의 율법에 대한 믿음과 끈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무장하여 파라오 곁에서 그 백성의 조언자, 대신, 그리고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63. 요셉의 영혼은 덕을 지키는 데 충실했으며, 그가 그 나라를 거치며 남긴 발자취는 축복과 풍요, 번영, 그리고 평화의 흔적이었다.

64. 요셉은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잊지 않았으며, 비록 형제들이 그를 팔아넘기고 형제애를 배반함으로써 그의 마음에 수치의 가시를 꽂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신성한 정의의 순간이 찾아왔다. 야곱이 아들과 함께 살던 가나안 땅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지역은 비참함과 굶주림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집트의 곡창지대는 밀로 넘쳐나고 있었다.

65. 그들이 잊어버리고 죽은 줄로만 여겼던 요셉의 형제들은 밀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길을 떠났으나, 누구 앞에 서야 할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의의 시간이 찾아왔으나, 그것은 벌하고 굴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 오해하고 상처를 입혔던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정의가 어디 있었겠는가?

대범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축복과 용서를 아낌없이 베풀었고, 형제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요셉이 어렸을 때 했던 예언들을 떠올리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66. 내 자녀들아, 이해했느냐? 그렇다면 환난의 날에도 굳건히 버티고, 실망과 고독을 이겨내라. 결국 정의의 시간이 올 것이며, 너희를 배신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회개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7. 너희는 너희를 모욕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요셉의 고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요셉이 서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울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아라. 이 장면은 나의 자비로운 정의의 반영이다. 요셉은 그의 덕행으로 인해 서 있었고, 반면 그의 형제들은 회개의 무게에 눌러 무릎을 꿇고 있었다.

68.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인 요셉의 그 씨앗이 너희 가운데 있어 싹트기를 원한다.

69. 너희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을 막 시작하셨을 때 이집트로 피난가셔야만 했다. 이는 백성들이 그분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라는 징조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왕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의심했고, 믿지 않는 눈으로 초라한 구유에서 시골의 마구간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들의 생각에 그곳은 왕에게 어울리는 침대나 잠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70. 내가 찾아간 백성에게서 나를 보호해 줄 거처를 얻을 수 없었기에, 나는 이집트와 같은 백성의 품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이 겪어야 했던 유일한 고통은 아니었다.

71. 내가 이집트에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살 때, 끊임없이 조롱을 받았고 불신과 시기심 어린 말들로 상처를 입었다.

72. 나는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 오해를 받았다. 내 삶과 행적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 중 단 한 명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설교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나는 나사렛을 떠나며 이렇게 말해야만 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 그의 말이 들리려면 고향을 떠나야만 한다.”

73. 이 또한 내가 고난의 잔에서 마신 마지막 고통은 아니었다. 더 큰 고통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던 자들 중 한 명, 이전에는 내 형제와도 같았던 자가 나를 서른 은전 값에 내 대의의 적들에게 팔아넘겼을 때, 그가 내게 가한 고통이었다.

74. 나 또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린 자들의 당황한 시선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나도 영적 존재로서 놀라워하는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 내가 죽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었다.

75. 나는 이곳, 나의 왕국에 있으며, 나를 잊어버린 모든 이들—나를 배반하고 조롱했던 모든 이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76. 나는 이곳에 있으며, 그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77. 나는 마지막 아침 기도 시간 중 하나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미 나의 계시의 마지막 해가 다가오고 있다. 며칠, 몇 시간만 더 지나면, 내가 예고했고 내 백성이 두려워하던 그 해가 너희 가운데 시작될 것이다.

78.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에게 쏟아 부으려고 예정해 둔 모든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인가?

79.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드리고, 나의 일을 너희 눈앞에 보여 줄 것이며, 이는 마치 잔치의 빛나는 식탁과 같을 것이다.

80. 나는 그 식탁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그 위에는 영의 가장 훌륭한 열매와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질 것이다. 그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 누구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81. 이 식탁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새로운 메시지, 즉 사람들을 깨우는 기쁜 소식—인류 가운데서 영의 불멸의 씨앗을 드러내는 빛—이 전해질 것이다.

82. 아벨의 순수함,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야곱의 강인함, 다윗의 영감, 솔로몬의 지혜, 나의 선지자들의 진실함, 나의 사도들의 고양, 요한의 영성화가 빛을 발할 것이다.

83.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나의 이름을 입에 올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빛과 진리, 지식, 사랑, 그리고 정의의 씨앗을 너희 삶의 모든 길에 뿌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84. 나는 이 가르침을 영적인 선물로 너희에게 준다. 너희 스승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거행한 기념식에서 너희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를 기억하며, 이를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00

1. 너희는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며, 영적 지식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기 위해 내 말씀이 내려올 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2.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많이 울었으니, 너희 영혼을 위로하라.

3. 보라,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영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싸울 힘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가 나를 알기 전부터 이미 나는 무한함 속에서 너희를 비추었고, 너희 마음에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와의 하나이시므로, 나는 언제나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세상이 예수 안에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인류에게는 여러 시대가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 내 가르침을 들은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영적 성숙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너희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진리에 대한 충실한 증언을 해야 할 이들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이교가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씀은 스승의 십자가를 품에 안을 세대를 기다리며, 양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4. 그 후, 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길을 나선 것은 단지 열두 제자와 소수의 무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풍습과 삶, 그리고 신 숭배를 변화시킨 민족들과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맞이하며, 새로운 메시지의 빛에 도달했기에,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이다.

보고 들은 모든 사람이 이 계시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이 빛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지만, 다른 이들은 — 비록 원한다 해도 — 수수께끼처럼 감춰진 많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지상에 올 것이며, 내가 계시를 전하던 시절에 극소수만이 받아들였던 그 빛이, 이제 수많은 군중과 민족, 국가들의 이해력 속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5. 이 시대에 나를 그들의 영혼에 받아들인 이들은 나의 제자로서 이곳에 남게 될 것이며, 영성주의가 평화와 지혜의

가르침으로 꽃피게 될 이들이 나타날 때까지 대대로 충실히 전해질 이 신성한 유산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6. 이 시대에 나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다.

7. 나는 생명의 빵, 즉 가장 훌륭한 양식을 누리도록 많은 이들을 내 식탁으로 불러 초대했다. 나는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씨앗을 기다리는 발이 매우 광활하기 때문이다.

8.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노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하며,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너희가 영원히 무지한 상태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 동료들이, 한 모임 장소의 은둔과 겸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백성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 진리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주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9. 온갖 종류의 남녀들이 너희의 간증을 갈망하며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누렸던 행운, 즉 대변자들의 이성을 통해 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행운을 누리지 못한 너희 동료들이, 내 계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상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간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10. 너희가 시간의 일부를 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쓴다면, 내가 내려와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으리라. 그때가 되면 너희의 명상, 숙고, 그리고 내면의 자기 성찰을 통해 너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1.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해하는 데 매우 더딘 탓에, 나는 내 가르침을 극한까지 확장하여 너희를 도와야만 했다.

12. 너희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단지 이웃들에게 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아니, 그것은 쉬운 일이며 큰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 말씀이 기억 속이나 기록물에 남아 있어, 앞서 말한 대로 그대로 되풀이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의 본질을 실감나게 하는 사랑의 행위로 진정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그 말씀을 철저히하면서도 소박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행위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당당히 “제3시대의 내 말씀의 증인”이라 부를 수 있으려면, 진정한 영성화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3. 너희가 그들에게 내가 가르쳐 준 행실을 실천한다면, 진리를 가장 심하게 의심하던 자들조차도 얼마나 온유하게 그 진리 앞에 굴복하겠느냐!

14. 너희가 진정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그들에게 너희의 자비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을 깊이 숙고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싸움을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제3시대의 하나님의 증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 것이다.

15. 백성아, 너희 각자가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그것을 수행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16. 내가 작별을 준비하는 동안,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의 영적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17. 나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기억 속에 간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며, 이 진리를 뒷받침할 논거 없이 사람들에게 맞서야 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작별을 준비할 때, 때가 되면 이 민족의 품 안에서 제3시대의 가르침과 변혁을 담은 책이 만들어지도록 명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전해져, 그 안에서 나의 가르침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며, 나의 진리를 증언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18. 내 말씀을 보존할 저술들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너희는 진정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 이 책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들었으나 많은 교훈과 구절들을 잊어버린 이들은, 나로부터 신성한 메시지를 받았던 순간들을 감동과 기쁨으로 회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듣지 못한 이들은 내 가르침의 심오한 의미를 경탄하며, 그곳에서 무한한 하늘나라를 엿보게 될 것이다.

20. 제자가 철저하고 성실한 공부를 마치고 영적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물질적인 책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준비하는 매 순간마다, 그의 입술은 내 말씀을 정확히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 영 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 영의 의식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21. 이 순간을 기다리며 깨어 있던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영과 진리 안에서 활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빛의 세계로 승천하여, 그곳에서 힘을 얻고 돌아올 것이다.

22. 그때 너희가 내 말씀을 갈망하며 이리 다가올 때, 너희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신성한 본질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23. 영적인 잔치에 참여한 후, 세상의 삶은 더 건널 만해지고, 십자가는 더 가벼워지며, 시련은 더 온화해 보일 것이다.

24. 그렇다, 나의 자녀들아, 영적인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는 땅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25. 아, 너희가 영적인 계곡에서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너희를 따르고, 곁에서 돕고, 영감을 주는지 알기만 한다면! 그러나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26. 너희를 향한 자비를 품은 이들의 영향력과 도움을 분명히 느끼고 싶다면, 믿음과 그들의 영감에 대한 순종, 신뢰, 감수성, 그리고 기도에 적합한 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삶의 여정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7. 내 말씀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굳어진 너희 마음을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너희도 이웃의 스승이 되었을 때, 위로의 말과 사랑의 행실로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28. 진실함과 사랑, 그리고 정직함의 증거를 마주하고도 설득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 중 누가 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날, 내가 그를 맞이했던 그 말들—그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준 그 다정하고도 독특한,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29. 나는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몰아내도록 바로잡아 준다. 이기심은 영혼을 가장 깊이 끌어내리는 악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양심을 통해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 형제자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기억하고, ‘제2의 시대’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의 여정에서 사랑의 행실과 용서를 베풀게 하려 한다.

30.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거웠고, 그 길은 매우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으며, 오르막길은 험준했으나, 그럼에도 나는 내 자신의 고통을 잊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였으며, 나를 처형한 자들에게도 축복을 내렸다.

31. ‘세 시대’의 빛을 영으로 받아들인 너희 백성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고통이 있는지 깨달아라. 인류를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선한 행실로 그들을 가꾸고, 믿음과 희망으로 그들을 깨우치며, 평화로 그들을 가득 채워라.

32.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과 사랑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영성화의 군대처럼 해야 할 수 없이 거대한 군대이자, 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수호자들이 될 백성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수많은 거짓에 맞서 나의 진리를 관철시키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33. 머지않아 세상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겪어 온 그 어떤 전쟁과도 다른, 세계관, 철학, 교리, 이념, 신앙적 신념, 그리고 종교 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34. 백성아, 너는 이 시기를 대비해야 하며, 네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35. 물질주의의 파도는 치솟아 — 요동치는 바다, 즉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인간의 불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바다가 될 것이다. 단 한 척의 배만이 그 정욕과 탐욕, 그리고 인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할 것이며, 그 배는 바로 내 율법의 배일 것이다. 그 때가 올 때 강인한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잠든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약한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종교적 광신주의의 토대에 신뢰를 둔 민족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그 격렬한 파도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36. 오, 인류여, 그 전투를 예감하지 못하느냐? 그 시간이 왔을 때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하도록 내 말씀이 너희를 움직이지 않느냐? 내 빛은 모든 이 안에 있으나,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본다. 나의 빛은 예감, 영감, 직관, 꿈, 그리고 암시를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영적인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모든 신성한 징조에 무관심하다.

37. 머지않아 너희는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진실과 일치했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38. 나의 가르침과 나의 이름은 모든 공격과 박해의 표적이 될 것이며, 진리의 적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또한 일어나서 믿음을 수호하는 이들에게 한 빛의 검이 될 것이며, 무고한 이들이 피난처를 찾을 방법이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은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받고, 다른 이들에게는 저주받을 것이다.

39. 인간의 모든 능력이 해방될 것이다: 지성, 감정, 열정; 그들의 정신적 능력은 깨어 있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40. 그때 얼마나 큰 혼란이 닥칠 것인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이들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수많은 가정과 마음속에서 사랑과 희망의 등불이 꺼질 것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세상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41. 이 혼란을 마주하며,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백성아: 너희는 과연 어떤 사명을 다할 것인가? 설마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보물을 숨길 것인가? 너희는 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잠그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내 제자로서 부여한 권위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너희가 이 회오리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준비시켜 왔으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의 웅변이나 지식에 위축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책과 직함, 이름들은 인간의 허영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전파할 것은 영원한 진리들이다.

42. 너희 가운데 혼란의 물결이 일면서, 너희 사이에 불화와 비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잠들어 있던 이들이 깨어나고, 너희가 마침내 내 사역의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시련이 백성에게 닥치는 것이 필요했다.

43. 백성아, 이 내적 투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이는 너희의 각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너희는 일상과 전통을 새로운 숭배 대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말하노니, 영성주의는 그 어떤 일상, 습관, 전통, 혹은 외적인 의식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44. 너희를 놀라게 한 이 시련 속에서, 어떤 이들은 너희가 진정한 영성화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깨어났다. 이들은 한동안 물러나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결국 마치 법인 양 여기는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백성이 내면적으로 명상하고 숙고하며, 관찰하고 스스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투쟁의 휴지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 후, 내 가르침의 본질이 빛을 발하고, 내 사역이 온전한 순수성과 영성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투쟁이 다시금 가장 강력한 힘으로 불붙을 것이다.

45.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대다수는 진리에 눈을 뜰 것이며, 내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 숭배 행위를 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해와 개선을 이룰 때까지 형제자매들의 가운데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그 후에야 다시 백성들에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46. 시련이 너희를 뒤흔들고 깨우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 스스로는 일상적인 관성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47.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영성이 깃들기 전까지는, 너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조화와 평화는 겉으로만 그럴듯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험을 받고 정화될 것이다. 너희는 이 시대에 내가 전한 말씀의 증인으로 남게 될 것임을, 그리고 너희의 증언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실해야 함을 명심하라.

48. 오늘은 고통이 너희를 정화시키고 있다. 내일은 너희의 영성화가 그렇게 할 것이다!

49. 내 가르침이 끝나고 너희가 시련을 겪은 후에도 너희 사이에 혼란과 고통이 계속된다면, 너희는 나 앞에서 그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 겪고 있는 시련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느냐? 평화를 갈망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씀이 요구하는 진실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은 조화로 이끄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50. 이 시대에 내가 이 대변자들을 통해 내 뜻을 전할 때, 과거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빛과 계시를 제한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51. 인류가 심연의 가장자리나 파멸의 기로에 서 있던 시련의 시간에, 나는 이쪽도 저쪽도 모두를 보내었습니다.

52.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내 말씀을 전하게 한 이들도 역시 예언자들이니, 그들의 입술에서 잠든 자를 깨우고 길에서 벗어난 자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53. 모든 시대에 예언자들의 말씀은 어둠 속의 밝은 나팔 소리 같았다. 많은 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으나, 모두가 그것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왜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항상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 말했고, 신성한 심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회개하고, 너희의 오점을 씻어내고, 뉘우쳐라.”

54. 초기 시대의 예언자들은 직관적이었으며, 그들의 입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을 예고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시려면 아직 수세기가 더 걸려야 했지만, 예언자들은 이미 그분의 오심과 인간으로서의 삶과 죽음이 어떠할지를 말하고 있었다.

55. 제3시대의 새로운 제자이자 예언자로서 너희는 얼마나 많은 빛을 받았는가! 이제 너희는 여러 지방과 민족을 방문하며,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이해력, 발전 단계에 맞춰 말할 줄 알게 됨으로써 너희의 직관을 입증하기 시작한다.

56. 어떤 이들은 너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회개를 설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회개는 갱신을 의미하며, 기도는 참회와 믿음을, 자비는 형제애와 사랑의 표현이다.

57. 잊지 말고 항상 명심하라. 너희의 의롭고 덕스러운 삶이 바로 너희가 이웃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즉, 그들은 너희의 사생활까지도 살피고 관찰하여, 너희가 전하는 가르침에 대한 확증을 너희의 행실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58. 겸손하고 소박하며 검소하되, 언제나 확고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열정을 드러내십시오.

59. 이 제3의 시대에 내 계시의 수탁자인 이 백성은 아직 빛의 전령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나의 재림에 관한 진리와 나의 계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자 관심을 갖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묻기 위해 찾아올 것이니, 너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6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장 적대적인 언론 매체 속에서도 너희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누군가—비록 단 한 사람의 마음일지라도—가 있을 것이다.

61. 영적으로 깨어나 내면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꽃피우라. 그러면 너희는 투쟁 속이나 시련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62. 오늘날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하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민족들이 너희를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는 각국에서 큰 시련과 재앙이 뚜렷이 드러나고, 영성주의자들이 전염병과 알려지지 않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 일어날 것이다.

63. 그곳에서는 병자들이 침상에 누워, 진심과 이웃 사랑의 향유로 그들을 '기름 부어' 주기 위해 오시는 사자이자 일꾼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다. 그곳에서는 문이 활짝 열린 집들이 제자들을 기다리며, 제자들의 존재를 통해 그 마음속에 평화와 빛이 들어오게 할 것이다.

64. 내가 너희에게 준 징조들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우연의 결과로 치부했던 오늘날의 세대들은, 나의 도래와 계시 기간 동안의 나의 현존, 그리고 나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수반했던 사건들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실로 과거에 이미 약속되었던 징조들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 없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며, 그들의 말은 진실에 부합할 것이다.

65. 사랑하는 인류여, 너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내 딸이며, 내가 광야에서 찾아가 위로하고, 감옥에서 위로해 준 자이다. 내 임재를 느껴라. 그러면 네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노라.

66. 믿으라, 희망을 가져라! 시련은 컸고, 네 속죄의 날들은 길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네 앞에는 더 맑은 길이 보일 것이며, 머지않아 네가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던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301

1. 오, 아버지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셨고, 너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영혼들이여, 내 말씀을 기뻐하라!

2. 이곳에 모인 이 무리들은 신자와 불신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 모두는 사랑을 갈망하고 빛과 진리를 목말라 하는 영혼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양식을 얻어 강해지는 반면, 불신자들은 영생의 양식을 외면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와 무지, 광신주의의 삶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어, 이를 떨쳐내지 못하면 내 존재를 깨닫고 느낄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영혼 깊은 곳에 집중하여 나의 본질을 느낄 수 있겠는가? 결국 그들은 그 장소에 나의 현존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 비록 그곳에 있었음에도 —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생각과 관심사, 걱정과 열정이 그들을 붙잡아 둔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왔고, 분명히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나는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 즉 고통의 잔을 마시고 노예와 굴욕의 빵을 먹는 이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사람들은 자신의 허영과 광신을 극복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그들을 오도하여, 내 메시지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4. 너희는 내가 이 내 자녀들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내가 그들을 부르던 길에서 벗어나면, 내가 그들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백성아. 나의 영은 지칠 줄 모르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고, 그들을 시험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내 말씀에서 들은 것이 옳았으며, 나의 부르심이 진리였음을 보여 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돌아올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다른 이들은 저 시기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다.

5. 나는 너희에게 영의 빵과 포도주를 바치니, 먹으라, 마시라, 백성아. 제3시대의 양식을 받아 그것으로 힘을 얻으라. 이 빵을 먹는 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는 깨어날 것이며, 눈을 빛으로 뜨고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6. 오랫동안 나는 이 형태로 너희에게 말해 왔으나, 내가 이 가르침과 계시의 장을 마무리할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의 사역이나 나의 신성한 가르침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영적 준비의 시기는 끝날 것이다.

7. 이 시기에 대변자를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백성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행실로 받은 가르침을 증언하는 사명을 띠고 지상에 남게 될 것이다.

8. 내 말씀은 이 제3의 시대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래로 사랑과 자비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의로움을 담고 있어 너희를 심판하고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끝이 다가옴에 따라 그 의로움이 더욱 강해지는 동시에 그 온유함이 너희 마음을 꿰뚫고 있음을 깨달아라.

9. 나는 너희가 나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너희가 투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기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마음에 천상의 감동을 남기고, 그 안에 쓴맛이 남지 않게 하여, 너희가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며, 내 말씀이 너희 기억 속에서 각성의 외침과 축복, 영감과 치유제로 솟아오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면의 감동을 느끼며 이 가르침의 시간을 되새기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때 비로소 생명의 책의 봉인을 풀고 바로

제6장에서 그 책을 너희 눈앞에 펼쳐 보이신 분이 진정으로 스승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희는 빛과 영의 시대인 제3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집어든 분이 엘리야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0. 물질적 삶 너머의 영적 존재에 대한 인류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과거에 너희에게 아버지의 사자들이 몇 차례 현현하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너희는 그들을 “천사”라고 불렀다.

그 초기 계시들에 이어, 내가 예수님을 통해 행한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는 너희가 나의 비밀 보물 창고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나는 다음 사항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의 지상 도래를 알린 빛의 존재들의 출현; “빙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미친 혼란스러운 영들의 영향; 내 ‘변모’ 순간에 입증된, 영혼이 육신을 떠나 다시 돌아오는 현상; 그리고 무지의 어둠에 둘러싸여 참된 왕국으로 올라가지 못한 존재들의 물질화,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자들처럼 말이다.

11. 그 교훈들은 얼마나 심오했는가! 그러나 그 교훈들에 담긴 빛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치 그 당시 위선적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영적 지식을 악의 세력 탓으로 돌렸다. 그들이 당시 예수께서 악마와 계약을 맺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내가 영으로 — 이는 나의 참된 본질이니 — 너희에게 영적 영혼의 삶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는 이 시대에도 너희는 똑같은 일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가르침은 더 상세하고, 더 명확하며, 더 깊이 있는 것으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바에 대해 직접 체험을 쌓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12. 어떤 이들은 내가 현 시대에 이 백성에게 허락한 것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그리고 동일한 수단을 사용한 영적 세계의 계시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았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였기에, 더 이상 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시기에 얻고 경험한 것은, 미래에 영성주의자들이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영혼과 이성을 해방시킨 뒤, 너희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룩했을 때 겪게 될 일들의 아주 작은 예고에 불과하다. 내일을 위해 예정된 이러한 계시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인류의 발전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광신에 사로잡혀

이에 저항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이성적이지 못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13. 모든 시대는 사람들에게 이성과 영혼을 위한 새롭고 경이로운 깨달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으니, 여러분 모두가 나의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14. “동료 인간들에게 자비를, 또 자비를 베풀라”고 엘리야가 그 시절에 너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은 스스로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사실, 너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는 은총과 지식을 쌓아 가고, 내가 너희 영혼에 채워 준 은사를 꽃피운다면, 너희는 영원히 베풀 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풍요가 고갈되는 것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15. 여기 내 영이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 중 몇 가지를 들자면, 모든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고 영혼의 모든 슬픔을 없애 주는 치유의 연고; 너희를 위한 끊임없는 평화, 그리고 너희가 마음속에 평화를 품지 못한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너희의 길을 비추고, 발걸음을 인도하며, 고귀한 생각과 지성의 고상한 업적을 고무하여 과학의 심오한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혼의 빛;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도를 전합니다 — 바로 여러분을 신과 연결시켜 주고, 여러분을 나의 메시지와 계시의 전달자나 도구로 만들어 주는 그 기도입니다. 또한 직관과 예지력이 비롯되는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의 영에 부여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각자가 걸어야 할 길의 일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6. 이러한 은사와 그 밖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토록 많은 은총을 지니고 있으면서 누가 자신이 궁핍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유물로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영혼 속에 이토록 훌륭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다정한 이슬이 내려왔을 때 꽃받침이 열리는 것처럼, 내 신성한 광채와 접촉할 때 너희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된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가시 덤불 길을 올라갈 만큼 강해졌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자비를 구하며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에게 베풀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내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7. 제2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에게 공감하며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고 생생한 예로 보여주었다.

18. 나는 빵이 부족할 때 그것을 늘려 주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으며, 병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었고, 무력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켰으며,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한 마디 말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영혼들을 빛으로 채워 주었다. 너희도 준비만 한다면, 이 모든 일 중 일부나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일들을 너희를 위한 본보기로 행했으니, 이는 너희도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서툴다고 느낀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나를 알아보라. 내가 너희 존재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일깨워, 너희가 다시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분께 이르도록 모든 것을 주신 너희 아버지께 모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9. 엘리야가 너희에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라”고 말한 것을 잊지 말라. 무엇보다도 너희는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 제3시대의 만나가 땅에 닿지 않고 너희에게 내려오는 것은, 그것이 너희 영혼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21. 백성아, 너희는 인류의 거울이니, 그러므로 나는 인류를 대신하여 너희를 받아들인다. 여기 너희 가운데서 나는 고통과 연약함, 믿음의 부족, 불화, 분열, 그리고 전쟁을 발견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며, 지금 소수에게 주는 것을 내일 너희는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 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2. 나는 너희가 하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노라. 너희는 오늘 당장이라도 일어나 내 말씀을 전파할 수 없으리라. 너희가 화합과 조화를 지키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너희 양심이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설교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민족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나의 가르침을 평화와 형제애, 영성의 깃발처럼 널리 전파할 때가 올 것이다.

23. 너희는 삶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으나, 이제 귀환을 시작할 때가 왔다.

24. 너희는 경험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왔다. 맹목과 무지인 그 순수함은 너희가 경험의 빛을 얻음으로써 사라졌다. 게다가

너희는 더러워졌으며, 이를 씻어내고 정화하기 위해 시련과 고통이 주어졌다.

25. 무지한 자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도 알지 못합니다. 경험을 쌓는 자는 그 길을 알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26. 이를 통해 너희는 고통과 삶의 시련, 유혹, 그리고 너희 영혼이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긴 여정에서 겪는 모든 힘들고 쓰라린 경험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7. 이것이 바로 삶이 여러분에게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안겨주는 이유이며, 이를 해결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8. 그러므로 이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 너희에게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희망과 이상주의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끊임없이 산상수훈을 되풀이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삶의 투쟁이 가진 의미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되어 삶의 용기를 잃게 될 것이며, 영원히 고통받도록 정해진 운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통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29. 나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고집스럽게 계속 나의 어린 자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을 보내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른다.

30. 나는 너희의 탄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언제나 너희의 기도를 받아들였으나, 너희가 바라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반드시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또한 너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임무는 기도의 망토를 펼치고, 선한 생각으로 길을 밝히며, 어둠을 몰아내어, 내가 그들에게 나의 평화를 보내는 순간이 왔을 때 너희 이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1. 내 정의 앞에서 가치를 지닌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가 아니라, 너희의 노력이다. 왜냐하면 그 노력을 통해 너희는 성장과 경험, 그리고 완전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2. 내가 너희에게 어디든지 빛을 전하라는 임무를 맡겼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햇불과 같아야 한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이다. 그렇다면 산을 옮기고 땅을 밝히는 믿음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겠느냐?

33. 너희가 내 말씀에 담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그 안에 담긴 선을 전파하기 위해 단호한 발걸음으로 서둘러 길을 나설 것이다. 너희는 부모가 죽어 애정 어린 보살핌도, 양육자도 없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34. 너희는 사람들이 막 삶에 눈을 뜬 마음의 믿음을 죽여 버렸기 때문에, 이상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35.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햇불이 무엇이며, 내가 너희에게 불어넣은 이상이 무엇인지 이해하느냐?

36. “네, 스승님,” 너희의 영혼이 내게 대답하리라. “우리는 그 햇불이 인류가 빠져든 그 긴 밤의 어둠을 몰아내는 스승님의 가르침의 빛임을 이해했습니다.”

37. 축복받으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천국은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는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니.

38. 너희의 의무는 너희의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가, 방향을 잃은 삶의 길에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아버지께 대해 이야기하며,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이다. 그 임재는 그들에게 파멸로 끌려가지 않도록 할 용기와 힘을 줄 것이다.

39. 너희의 임무는 고아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멀리 계시지 않으며, 이 땅에서 그들의 버팀목이자 피난처였던 이들을 잃은 바로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자애와 보호의 망토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고 말해 주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어디에서나 그 천상의 온기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40. 삶의 여정에서 굳건히 서 있는 모든 이에게, 나는 가난한 고아들, 즉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며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노라.

41. 또한 나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격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평화의 왕국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나는 너희가 삶의 시련을 그 진정한 의미로 깨달음으로써 십자가의 짐을 가볍게 지도록 가르치니, 이는 너희가 무의미하게 고통받지 않고 오직 배우고, 경험을 쌓으며, 진정으로 정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42. 건강하고 거룩한 기쁨으로 힘을 얻고, 이미 내 영혼이 깃든 아이들의 존재를 기뻐하십시오. 이 아이들은 내가 인류를 위해 이 시대에 예고했던 자들이며, 그들의 평화와 빛의 사명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들의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깨어 있으라. 그들 안에서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 세대의 희망이자 토대이며, 그들의 소명은 약속된 왕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징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43. 인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룰 것이고, 그들의 업적은 그들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정당하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44. 오늘날 너희는 아직 너희가 겪는 시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그것들을 불필요하고, 불공평하며, 불합리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너희가 늙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 영적 영역에 거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시련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의와 분별력이 담겨 있었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45. 오늘 나는 너희가 성취하지 못한 채 뒤로 남겨둔 것들, 즉 너희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또한 미래를 너희에게 밝혀주지도 않겠다. 나는 오직 너희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헌신을 보고자 할 뿐이다. 너희 삶의 단 한 시간도, 단 한 번의 행동이나 생각도 내 영이 너희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가르치기 위해 함께하지 않는 순간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 숨 쉬기를 원하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모든 시련 속에서 나를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조언자로 찾기를 바란다.

46. 그리고 너희가 현재 속죄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 내면에서 의로운 싸움을 벌여야 함을 명심하라. 모든 반항에 대해 너희는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가져야 하고, 모든 시련에 대해 많은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단계별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47. 목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깝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큰 기회를 베풀어 주리라는 것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48. 너희가 나와 하나 되는 법을 안다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 스스로가 나로부터 영감을 받고 인도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49. 너희가 하나 되는 그날, 너희의 생각은 온 땅을 감싸고, 너희의 사랑은 다른 나라들로 퍼져 나가 그곳에 스며들 것이며, 인류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리고 사로잡힌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50. 그러나 이 시기에 너희는 사자들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 오늘 몇몇만이 보았던 이 빛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드러날 것이며,

항무지뿐이었던 곳—그 버려지고 경작되지 않은 들판들—에서 생명이 솟아오르고, 영의 빛이 비추며, 영혼이 꽃피게 될 것이다.

51.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삶 속에서 귀담아듣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조용히 연구하는, 내 좋은 제자가 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내 가르침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가 스스로 강해졌다고, 즉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너희 주위로 모으고, 요한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제자들을 양성한 다음, 그들을 내게 넘겨주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성장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리라.

52.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늘 너희는 부모의 보살핌 아래 하나로 뭉친 가족처럼 내 곁에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세상의 길로 흩어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역을 위해 싸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백성은 내 사랑이 비춰져야 할 거울이며, 너희는 형제애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53. 내가 너희 마음의 가장 예민한 현을 건드리는 것은, 나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너희가 고통과 비참함, 고아 같은 외로움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다.

54. 나의 빛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나의 신성한 광선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계시가 끝나는 때에도 그 빛은 너희 영혼을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55. 너희가 투쟁을 시작하고,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될 때 — 그들이 너희를 거짓자요 사기꾼이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때 — 이 빛이 너희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느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될지!

56. 그때 내 빛이 너희 마음속에서 말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아는 바를 말하며, 나의 가르침을 되풀이하라.”

57.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 들은 말 때문에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 일은 내게 맡기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진리를 말할 때 결코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8. 너희는 모든 이의 신앙과 종교를 존중해야 하며, 전지전능하신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어떤 숭배 방식이나 신앙

고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너희를 내 모든 자녀로 삼았음을 명심하라.

59. 너희는 이 가르침을 사랑으로 전파해야 한다. 그 사랑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며, 물질적인 삶을 넘어 더 완전한 세계로 승화될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어야 한다.

60. 인간의 영혼을 비추어, 그 영혼이 길을 찾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으라. 왜냐하면 무지했던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광활한 여정 속에서 시련과 투쟁의 빛을 경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61. 언젠가 많은 동료 인간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의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 달라. 우리는 너희가 양식을 가지고 있고, 행복하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이 너희를 비추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인도해 줄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눠 달라.”

62. 이것이 바로 전쟁과 적대감이 끝나고 어둠의 왕국이 멸망할 때, 평화와 형제애의 시작이 될 것이다.

63. 오늘 너희는 아직 영적인 빵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가 이기심과 허영심의 마지막 잔재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리라.

64.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었으니, 바로 형제애에 대해 말하는 가르침이다. 생명의 책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며, 너희 양심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스승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다.

65. 이 선포에 참석했으나 마음이 물질적인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자와, 세상의 쾌락을 생각했던 자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반면,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 스승의 말씀을 듣는 기쁨에 폭 빠져 있던 사람은 마음속에 보물을 품고 갔으며, 그의 영적 부는 날마다 늘어날 것이며, 머지않아 이웃들에게 자신의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66. 나는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사랑과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302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1. 나의 신성을 따르는 제자들아: 나의 가르침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나의 신성한 영이 너희를 맞이하는 이 인사에 놀라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 형태로 너희 가운데서 계시하는 마지막 해에, 내가 오시는 순간에 내 존재를 드러내리라.

2. 너희가 영성화의 길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일상적인 관행을 깨고 예배 의식을 통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역시 아버지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계시하는 날들을 특별한 날짜로 표시하지는 않을 것이니, 나는 시간 위에, 시간을 초월하여 서 있기 때문이다.

3.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며칠이 지난 그 두 번째 시대에, 나의 제자 세 명이 발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나신 스승님을 추모할 수 있는 외딴 양치기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슬픔에 찢긴 마음을 안고 걸으며 영혼 속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가는 길에서 한 여행자를 만나 함께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그토록 뚜렷한 슬픔의 이유를 묻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 등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일을 가슴 벅찬 말로 털어놓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두막에 다다라 안으로 들어갔고,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각과 기억의 교감 속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나그네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놀라움에 휩싸인 제자들은 즉시 스승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4. 그들은 그분의 빛나는 얼굴과,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생명으로 충만한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부터 그분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시며,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 축복받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는 너희가 그 제자들처럼 나를 듣기를 원한다. 오늘의 계시를 통해 내 말씀이 끝난 후, 너희는 — 더 이상 육신의 귀로가 아니라 너희의 영을 통해 — 너희에게 영원히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신성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5. 너희 모두는 나의 제자들이다. 가장 늦게 온 자들도, 나를 처음으로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영에서 나온 지는 오래되었으며, 그 시점부터 나는 그들을 위한 스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3의 시대에, 그들이 목소리의 매개체를 통해 인간으로 현현한 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을 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나로부터 무수히 많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 그 자체를, 여러분에게 지극한 지혜의 책과도 같이 되도록 창조하였다. 그 페이지 수는 셀 수 없이 많고, 내용은 심오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도 그 전모를 알기에는 부족하며, 이해하기에는 더욱 부족합니다. 그 분량은 방대하며, 생명과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완전한 존재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지혜로 가득 찬 이 책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 그러하듯, 단순하고 명료하게 쓰여 있습니다.

6. 첫 번째 교훈, 즉 첫 번째 페이지는 가장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페이지가 이어지며, 내가 인간에게 제시한 이 위대한 ‘삶의 책’이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장이 펼쳐져, 그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삶과 소명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 내 뜻이 허락하는 한 — 미래를 이해하게 하려 함이다.

7. 제3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류에게는 성령의 시대, 즉 영성을 실천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 그 여정에서 너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겪어야만 했는가!

8. 나는 이 시대에 너희 영혼이 내 씨앗을 심기에 비옥한 밭이 될 만큼의 발전 단계에 이르렀음을 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 영혼이 진리를 갈망하고 굶주리고 있음을 발견한다. 너희의 영혼은 고통과 고난, 실망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성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의 율법을 따르며, 모든 미덕이 솟아나는 참된 사랑을 꽃피우는 것이다.

9. 과학을 통해 인간의 뇌가 탐구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열정과 세속적인 소유물, 이 세상에 대한 지배 속에서 위대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함은 내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덧없는 위대함이며, 인간의 허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들에 의해 변화된 이 삶을 내가 정화할 것입니다. 이미 내 성령의 빛이 진리의 씨앗으로서 모든 영혼 위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 모든 자녀들

안에서 “의 각성이 이루어지려면, 그들은 또 다른 시련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10. 사람들은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나의 율법을 숨기며, 나의 신성한 계명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나의 공의의 엄격함에 저항해 왔다. 그들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나의 사자들을 조롱했으나, 나의 권능은 무한하다.

나는 인간들에게 내 모든 권능을 쏟아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내 눈에는 아직 매우 미숙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후에야 나를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꺾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내 신성한 속성을 지닌 존재—이 두 발로 서서, 고개를 높이 들고, 만족감으로 가득 차며, 영혼 속에 진정한 위대함을, 온 존재 속에 진정한 존엄성을 지닌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11.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자녀, 즉 창조주의 거울이자 형상인 피조물을 보고자 하는 모습이다. 나는 그저 그들을 그들의 오류와 죄, 불완전함에서 해방시켜 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희망의 빛과 나에 대한 신뢰를 통해 그 영혼을 돕겠으며, 그의 발 앞에 심연이 벌어질 때마다 그가 추락하지 않도록 내 손을 내밀어 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닥칠 것이니, 그것은 전 세계적인 대격변이 될 것이며, 이 혼돈 속에서 과거의 시대들처럼 풀려나는 것은 창조의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 영혼 또한 흔들리고 투쟁하며, 이 전투 속에서 전 세계적 혼돈의 일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12. 그 시작은 이미 너희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싸움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13. 모든 나쁜 씨앗은 뿌리째 뽑힐 것이며, 나의 정의는 오직 좋은 씨앗만을 남겨두어 이 땅을 다시 한 번 정화할 것이다. 시험이 끝난 후, 인류에게 새로운 삶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나쁜 씨앗으로 여겨 빼앗은 모든 이들을, 나는 영혼으로서 너희가 내세라고 부르는 그 축복받은 곳으로 데려가겠다. 나는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회개를 통해 모든 잘못을 속죄하게 될 것이다.

14. 이 시대에 영혼들 안에는 빛이 너무나 가득하여, 단 한 순간의 진정한 회개만으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심을 품고, 새롭게 태어나 내 율법을 따르기로 다짐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나에 의해 일으켜 세워진 모든 이들이 이러한 준비를

갖추게 되면, 나는 그들을 이 행성으로 다시 보내리니 — 어떤 이들은 길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은 파괴된 것을 재건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시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보내리니. 그리하여 모든 이에게 나의 사랑의 정의가 임할 것이다.

인류의 초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순수함과 단순함이 지배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발전과 자유 의지에 따라 죄도 더욱 많아졌고, 점점 더 빠르게 퍼져 나갔다. 그들의 미덕이 아니라, 내 법에 대한 위반들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노아를 준비시켰으니, 그에게 영과 영으로 나를 드러내었노라. 이는 인류 태초부터 내가 사람들과 맺어 온 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수에게만 주어졌던 이 은총은, 앞으로 올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의 대화, 즉 기도와 영감을 통한 대화, 그리고 사랑과 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주어지는 영감은 내 모든 자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5. 내가 노아에게 말하였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모든 죄에서 정화하리라. 이를 위해 나는 대홍수를 내리리라. 방주를 짓고, 네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 네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 한 쌍씩을 그 안에 태우라.” 노아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재앙은 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악한 씨앗은 뿌리째 뽑혀 나갔고, 선한 씨앗은 내 곡창에 간직되어, 그로부터 나는 내 의의 빛을 품고 내 율법을 지키며 선한 품행을 실천하는 법을 아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였다.

16. 너희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오, 나의 자녀들아. 그들의 영혼은 나의 의해 보존되었고, 심판자이신 그들의 양심 앞에서 깨어났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17. (대홍수의) 물결이 더 이상 땅을 덮지 않게 된 그날,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 창공에 평화의 무지개를 빛나게 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 “제3의 시대”의 인류여, 너희는 바로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며 정화된 바로 그 백성이다: 너희는 머지않아 새로운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선택한 백성과, 이 시대에 내가 내 뜻을 알게 한 온 인류를 경고하기 위해 왔다. 잘 들어라, 나의 자녀들아: 여기 방주가 있으니, 그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18. 오 이스라엘아, 너에게 방주는 내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에 내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방주 안에 있게 될 것이며, 강해질 것이며, 내 사랑의 보호를 느낄 것이다.

19. 그리고 온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하노니, 방주는 나의 사랑의 법이다. 이웃과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이 미덕을 축복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이 제3의 시대에 영적으로 구원의 방주를 찾게 하리라 — 단지 인간적인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평안까지 얻게 하리라. 종파 대 종파, 종교 대 종교 간의 싸움이 격화될 큰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20. 이 분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너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남은 사람들의 영혼을 준비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모든 이, 심지어 피조물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조차도 — 어린아이의 나이에 있더라도 — 깨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이는 너희 모두가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깨닫고, 모든 영혼을 갱신으로 부르는 신성한 정의에 대한 너희의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폭풍우가 지나가면, 너희는 다시 하늘에서 나와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곱 가지 색을 띤 지상의 무지개가 아니라, 육신을 입은 영혼과 육신을 벗은 영혼 모두에게 드러나는 성령의 총명한 빛이 될 것이다.

성령의 음성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평화이며,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나는 너희와 나의 성령, 나의 율법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자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통해 무지의 사슬에서 해방될 것이며, 나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뼈 속 깊이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는 내 빛을 마주하고 깨어난 영혼들, 세상의 길로 돌아가 내 율법을 실천하며 미덕과 진리를 심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영혼들이 육신을 입고 올 것이다.

21.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미래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져다줄지 알고 있기에 너희 아버지께 지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시간을 수년이나 심지어 수세기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에게 사랑과 신뢰의 헌사를 바치고, 내 가르침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는 언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22. 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삶이 아무리 쓰라리더라도 너희에게는 그 삶이 즐겁게 느껴질 것이며, 내 율법을 지키고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얻은 힘 덕분에 어떤 고통도 너희를 괴롭힐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더 이상 십자가의 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 생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릴 것이며, 죽음을 친구이자 자매, 곧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 삶에서 고통과 비참함, 재앙의 날들을 단축해 주기 위해 오는 이로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조차도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영원의 문턱을 넘어가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 너희 영혼조차 알지 못하는 그 저 세상으로. 비록 너희가 이미 그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더라도, 다가올 시기에 도달하게 될 가장 높은 차원에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23. 너희는 이미 그곳의 몇몇 지역을 알고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백성아.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집에는 무한한 수의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24. 투쟁과 시련으로 가득 찬 그 삶이 너희 영혼에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심지어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너희의 상상일 뿐이며, 너희로 하여금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5. 이 지상 생활이 — 모든 면에서 경이롭고 완전하지만 — 단지 내세의 상징이자 희미한 반영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삶의 차원들을 온전한 모습 그대로 상상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 이스라엘아, 그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게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의 색깔이 어떤지 이해시키려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로 환생한 너희의 영혼이 걸음마다 기적을 발견하고, 청소년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성숙한 나이에 도 창조물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다가, 노년에 이르러 이 삶을 떠나며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듯이, 너희의 영혼은 이 삶을 — 다음 삶을 위해 준비된 채 — 떠나서 영원토록 놀라움에서 놀라움으로, 교훈에서 교훈으로, 기적에서 기적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창조주를 그분의 무한한 영광 속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26. 그는 그분의 법칙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속성들을 대체로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백성아. 창조주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분의 영예로운 자리에 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예로운 자리에서, 완전한 사랑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모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언제나 그분이 아끼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제자로 여기실 것이며, 결코 종이나 피고인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주님의 피고나 종으로 느끼지 않고, 그분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로서 느끼는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27. 나는 이 세상에서든 다른 어떤 세상에서든 노예를 원하지 않으며, 하인이나 가신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피고인을 원하지 않으며, 내가 내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28. 백성들아, 이 가르침을 통해 나는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 가운데 내 임재를 증언한다. 나의 말씀으로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다. 내 모든 가르침에 담긴 비유적인 의미를 깨닫고, 내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그 본질을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원하시는 바는, 인간 사이에 혼돈이 닥쳤을 때, 너희가 이미 준비되어 온전한 상태로 나를 맞이하여, 전복되는 자들—파멸로 치닫는 자들과 죄를 짓고 제때 회개하는 자들에게—구원의 외침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9. 오로지 너희의 안전만을 추구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행하여, 그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미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너희 입술을 다물고 내 계시를 사람들에게 숨긴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때 난파당한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30.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너희 자신을 잊고 오직 타인만을 생각해야 한다. 피부색, 혈통, 언어, 혹은 세계관을 가리지 않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는 모든 이웃 속에서 너희 아버지의 형상을 보아야 하며, 그 형상은 보편적이며 그분의 모든 자녀 안에 존재한다.

31. 너희의 모든 이웃 안에서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음을 기억하라. 내 자녀 중 그 누구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니,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창조하지 않았으니, 나는 오직 죄만을 죽일 뿐이기 때문이다.

32. 너희가 유혹자나 악마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조차도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혼란스럽거나 불완전한 존재들에 불과하며, 아버지는 그분의 고귀한 뜻과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지혜롭게 그들을 이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오늘날 영혼이 어둠에 가려져 있고,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 존재들조차도, 때가 되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오 이스라엘아, 주님의 모든 피조물이 나를 영원히 찬양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리라.

33. 너희 모두는 구원받을 것이며, 지옥의 불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 읽었을 때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말에서 비유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며, 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내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불완전함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하나, 내 자녀들 앞에서 이를 자랑하지는 않는다. 너희가 오늘날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이 확실하듯이, 나는 내 사랑과 빛을 통해 너희를 완전함으로 이끌 것이다.

34. 제자들아, 너희는 1950년 말, 내가 현재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내 말씀을 거두어들일 때, 내가 너희를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마음으로 남겨둘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전하겠지만, 그것들은 훨씬 더 정밀해질 것이며, 나아가 영과 영 사이의 대화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너희가 나의 법에 대한 순종 안에서 더욱 단결할수록, 너희는 완전한 영적 대화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35. 내 계시가 너희 가운데서 이 단계가 일단 끝나면, 나는 너희에게 성찰과 준비, 탐구의 시간을 허락하리라. 그러나 이 연구를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며, 너희는 항상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기억과 기록 속에서 나의 가르침을 찾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그 순간 너희는 나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후 너희가 나의 말씀을 파악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각 교훈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이는 내가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36. 나는 너희 모두가 내 사역의 모든 근본적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를 원한다. 광신주의와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를

원하며, 너희 가운데 미신이 없기를 원한다. 또한 너희가 의식과 불필요한 예식 없이, 오직 나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소박한 예배를 나에게 드리기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시작할 때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가 영성화를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37. 의식, 제단, 교회 종소리의 시대는 이제 인류 사이에서 끝나가고 있다. 우상 숭배와 종교적 광신주의는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될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예고해 온 그 투쟁과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폭풍우가 지나가고 모든 영혼에 평화가 되돌아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기리기 위해 왕궁을 짓지 않을 것이며, 종소리에 이끌려 군중이 모이지도 않을 것이며,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대중을 지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겸손과 형제애, 영성의 시대가 올 것이며, 이는 인류에게 영적 은사의 평등을 가져다줄 것이다.

38. 오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화하라! 내 가르침의 내용에는 수정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 너머에 있는 나의 일을 항상 바라보라. 너희의 모든 외적인 예배와 의례, 전통은 그것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39. 모든 것을 포용하는 나의 영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창조한 모든 것 안에 존재한다. 모든 것 속에 나의 역사가 현존하며, 모든 삶의 차원에서 나의 완전함을 증언하고 있다. 나의 신성한 작품은 내 오른편에 거하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존재들부터, 간신히 감지될 정도의 미생물, 식물이나 광물, 원자나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형체를 부여하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이를 통해 나는 너희에게 내가 창조한 모든 것 — 물질적 존재부터 이미 완전함에 도달한 영들까지 — 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작품이다.

40. 너희는 나의 우주적 현존 앞에서 스스로를 작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제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작고 연약한 것은 오직 너희의 육신일 뿐이며, 너희의 영혼은 강해질 것이요, 나는 그 영혼을 사용할 것이다. 오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를 선물로 주신 것은, 너희가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아시기 때문이며, 아버지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41. 스승이신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명을 수행해야 할 자들을 골라내시는 법을 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들이 나의 부름을 듣고 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내게로 왔으나, 나에게 충실하게 남아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42. 내가 은총을 베푸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믿음과 사랑의 등불을 꺼버리고, 내게 등을 돌리며,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있는가. 나도 지금 그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부르며, 그들에게도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 속죄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오직 충실한 자들과 굳건한 자들을 통해서만 다른 이들도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유인 앞에 약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43. 나의 완전하심은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며, 나는 그들이 자기 성찰과 구원을 얻도록 내 빛을 그들에게 베푼다.

44. 너희의 영적인 기도를 하늘로 올려라. 그러나 너희 자신이나 너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내 사랑스러운 어루만짐을 거부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라. 그러나 너희는 이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으며, 비록 너희의 길에서 큰 시련을 마주하더라도 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공의가 너희에게 보내는 시련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너희 자신의 약점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내 사랑이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가 그 길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45. 이 순간, 너희의 아버지께 마음을 합하고, 인류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46. 나는 너희가 창공의 별처럼 되어, 그곳에서 빛과 사랑, 용서와 자비의 광선을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내려보내기를 원한다. 오,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47. 너희의 영적 영혼조차도 그 자체의 힘을 헤아릴 수 없듯이, 너희가 인류를 감싸 안은 형제애의 포옹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백성아, 네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노니, 이것이 바로 너희 영의 가장 고귀한 사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입술이 위로를 줄 수 없고, 너희 손으로 병자들을 만져 '기름 부음'을 줄 수도 없다면, 너희의 기도는 너희 영혼을 위한 날개가 되어, 그들을 가장 먼 곳까지 데려가, 그들에게 나의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인류를 위해 깨어 기도했으니, 나도 너희를 위해 깨어 있을 것이며,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고통과 궁핍을 발견하면 위로해 주고 선물을 남겨 주리니, 그 선물은 바로 너희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인내해야 한다. 나를 시험하지 말고, 재촉하지 마라.

48. 비록 너희가 나에게 청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노니, 이는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들이며 고난이 너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49.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내게 와서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저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50. 너희의 삶과 길, 그리고 너희의 식탁에도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303

1. 백성들아: 이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의 마지막 해가 시작되므로, 나는 너희가 양심의 빛 속에서 심오하고 면밀하게 스스로를 성찰하여,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을 때 영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너희는 나의 사역 중에서 무엇을 이해했으며, 이 길에서 어떤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느냐?” 그때 너희가 마음 깊은 곳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얻지 못한다면, 너희는 나의 말씀 속에서 너희 행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내 계시의 마지막 해에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양심을 통해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해가 끝날 때, 너희가 노력의 결실이자 헌물로 순종과 이해, 그리고 영성화의 열매를 내게 바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 1950년을 아우르는 기간은 세상을 불안하게 할 사건들로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큰 충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류의 영적 신앙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강대국들도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과학은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징후들 앞에서 경악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삶 전반은 사람들이 낯설고 이례적이라고 부를 만한 사실과 사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4. 너희는 이 모든 일이, — 사람들에게 — 눈에 보이고 실감 나는 사건들을 통해 내 계시의 마지막 해를 표징하기 위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이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를 주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의 의심과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5. 1950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뒤흔들 모든 시련과 사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그 ‘두 번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비유하는 것이 될 것이다.

6. 너희가 진정으로 준비하고 올해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어둠, 즉 그 암흑의 세력들 — 민족들과 제도를 몰아칠 폭풍우들 — 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인류가 영적으로 나의 임재를 느끼고 직관적으로 제3시대의 빛을 목격하게 될 그 순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언제일까? 내 계시의 마지막 순간 —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영적으로 찢어지고, 인류가 그때 내 빛을 보고 진리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다.

7.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아. 내 자비가 너희를 감싸줄 것이며, 너희의 기도와 사명 수행은 역경 속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 갑옷과 같을 것이니라.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끝날 때 홀로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 존재를 장식해 준 나의 은사 중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무리를 이끄는 법을 배운 자는 계속해서 마음을 이끌 것이며, 지성의 능력으로 나의 광선을 받아들인 자는 큰 영감을 얻을 것이다. 영적 세계의 도구나 목소리의 매개체가 되었던 자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 해석, 치유, 또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자는 영성화와 믿음으로 무장하여 진정으로 준비할 때, 그 은사의 힘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8.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굳건한 백성을 이루고, 너희를 찾아오는 모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라. 과학자나 그들이 지닌 직함, 혹은 영적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너희를 시험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미숙하거나 하찮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라.

9. 지금 내 계시가 전해지는 이 시기에 이 모임의 집들이 가득 찼다면, 나는 그 후에는 더 이상 이 공간들이 부족하기를 원한다. 이는 바로 이 백성이 떠나 세계로 뻗어나갈 적절한 시기가 왔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 나는 너희가 마음속으로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 권능과 위엄, 그리고 본질로 가득 찬 주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빛으로 이끌어 오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 누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행렬을 이곳으로 이끌어 올 기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아, 너희는 어찌 이토록 믿음이 약한 자들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긴 은사들이 확실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은사들을 통해 행한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지 않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장차 너희는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며, 그 일들은 너희가 나의 가장 높은 계명인 일치와 순종, 그리고 영성화를 성취하는 기적이 일어나기에 충분할 것이다.

1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씀이 대변자를 통해 들려오는 그 순간, 이 백성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적 계곡에서 마찬가지로 신성한 빛을 필요로 하는 모든 존재들이 떨게 된다.

12. 그들에게 닿는 것은 인간 말의 소리 자체가 아니라, 내 메시지의 의미와 영감이다. 내 목소리는 보편적이며, 그 메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주하는 모든 세계와 거처에 닿기 때문이다.

13. 나는 모든 세계에 내 빛의 한 줄기를 보내노라. 너희에게는 이 빛을 인간의 말의 형태로 전하게 하였으니, 다른 거처들에는 영감을 통해 전해지듯이 말이다.

14. 그 신성한 광선의 빛 속에서 모든 영들은 그 빛으로 하늘의 사다리를 만들어, 너희 모두가 내 신성의 영적 입자인 너희 모두에게 약속된 영적 왕국이라는 동일한 지점으로 인도받으며 하나가 될 것이다.

15. 지상에서 육체적 유대로 너희와 연결되어 있었고, 오늘날 너희 세계 너머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들이 듣는 그 목소리가 지상의 일부 사람들에게도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환희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으며, 여러분을 잊지 않았고, 지상의 계곡에 잠시 더 머무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애정과 축복은 끊임없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16. 그곳에는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친구, 또는 은인이었던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은 단순히 여러분의 형제자매일 뿐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거나 오히려 더 커졌으며, 여러분을 돕고 보호하는 그들의 힘 또한 더 커졌습니다.

17.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억과 기도는 그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달콤한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결코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둠 속에 사는 존재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는 마치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심판하고 판결을 내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웃의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토록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경향이 있다면, 하물며 어떤 영혼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 의미는 얼마나 더 클까요?

18.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은 오직 기도를 통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선행을 통해 그들을 돕는 것뿐입니다.

19. 그들이 어떤 물질적인 방식으로든, 예를 들어 누군가의 뇌를 점령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너희 삶에 나타나기를 갈망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준 영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 특정한 기념일을 정하지도 마라. 영적인 것은 세속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영적인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 매 순간이 모두 적절한 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0. 너희가 종종 혼란을 겪는 존재들로 상상해 온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로 지상에 있을 때 스스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빛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애썼던 자들인가! 그들을 위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들이 영의 계곡으로 떠났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마라. 그들은 진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떠나야 할 순간보다 잠시 앞서 떠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길을 닦아줄 수 있도록 내가 정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묘지에는 갈 이유가 없으며, 무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무지, 물질주의, 그리고 맹목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직접 말해야만 합니까?

21. 너희가 울고 있는 이들의 영혼은 살아 있다. 그러나 너희는 땅속에 묻힌 그 육신을 죽은 것으로 고집하고 있다. 너희는 그들이 잃어버린 존재라고 여기지만, 그들은 진리와 생명에 대한 증언을 전하기 위해 사랑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은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분의 투쟁과 고통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림돌을 치워주고,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22. 무지함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과 타인에게 불공평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대하도록 강요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은, 내 가르침 중 어느 하나라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무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23. 나의 말씀은 너희 모두를 감싸 안아야 할 빛의 광선이라, 너희가 나의 사랑의 불꽃 속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한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따를 때, 나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너희 모두는 그 순간부터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것이다.

24. 내 영의 빛은 너희 존재의 핵심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드러내 주었다. 그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눈치채지 못한 채 품고 있던 모든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깨닫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너희의 유산을 알게 되어 위대한 영이 될 때가 왔음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다.

25. 때때로 나는 너희에게 계시를 주었다. 처음에는 율법이었고, 나중에는 나의 가르침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너희의 영적 사명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었다.

26. 너희는 내가 세 번이나 사람들 곁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옳다. 인류의 첫 시대에 정의의 법을 계시하신 그 아버지; 제2 시대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육신으로 오게 하셨으며,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그분은, 모든 시대에 걸쳐 그 신성한 비유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 비유의 의미는 너희의 영적 성장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 주며,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오직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영, 한 분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 주었다.

27. 내가 너희에게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결국 내가 너희가 기뻐하는 것보다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가 웃는 것보다 우는 모습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오직 영혼을 타락시키거나 너희 몸에 해로운 것들만을 의미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영과 마음에 유익하고, 너희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

28. 인간의 삶에 내재된 시련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짐을 더 사랑스럽고 가볍게 만들어 주는 온갖 영적·육체적 기쁨으로 그 삶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

29. 나는 가정의 온기 속에서 삶의 가장 큰 기쁨을 찾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섬기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치와 조화, 그리고 평화는 우주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적 가족과 맺고 계신 조화와 같기 때문이다.

30. 이러한 가정에서는 영혼의 빛이 비추고, 내 왕국의 평화가 깃들어 있으며, 고통이 닥쳐도 견디기 더 쉬워지고 시련의 순간들도 덜 쓰라립니다. 그 안에서 타인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데서 만족을 찾고, 이웃의 건전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들은 더욱 공로가 큼니다. 이들은 기쁨의 사도들이며,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족과 기쁨의 순간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법을 안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매일 그런 순간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너희의 감정과 삶에 대한 사고방식을 더 너그러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32.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는 빛으로 가득 차 있어, 너희의 길을 비추고 너희 존재에 상향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며, 이는 너희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며 내가 너희의 삶에 축복으로 내려준 모든 것을 건전하게 누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인류는 고통의 그림자와 싸우고, 잘못된 쾌락과 허황된 만족에 대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고군분투를 해야 합니다. 인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종교적 광신주의와 싸워야 할 것이며, 모든 것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파멸로 치닫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운명론과 싸워야 할 것이며, 영혼을 악덕과 고통, 절망, 그리고 어둠의 심연으로 몰아넣는 감각적 쾌락, 즉 덧없는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물질주의와도 싸워야 할 것이다.

33. 내가 너희에게 나의 빛을 주는 것은, 너희가 어둠을 벗어나 너희가 눈물의 골짜기로 만들어 버린 이 행성에서 마침내 영혼과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기쁨 곁에 비하면 다른 모든 즐거움은 하찮고 미미할 뿐이다.

34. 나는 지금 너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내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그들을 깨어 있게 했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시켰다.

세상은 제2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남긴 경험을 통해, 그 누구도 신성한 공의를 의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으로부터 희망과 지식의 빛을 받으려 했던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예언의 은사, 신성한 지식,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약 너희가 그 영혼들의 행방을 내게 묻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들이 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마치 흙먼지처럼 보일 뿐인 생명 세계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리라.

그러나 내 말씀과 약속이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내 왕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금과 세상, 육체와 권력을 갈망했기 때문에 세상의 끝까지 육신을 입고 환생하는 자들에 속한다고 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공의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영적 속죄를 위해, 보잘것없는 부와 거짓된 권력을 지닌 이 세상이 주어졌다.

35. 그들은 한동안 신성한 정의의 심판을 받았으나, 진리의 왕국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에서 추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의 빛을 풍성히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이 이제 충분한지 묻고, 지금이 바로 ‘제3의 시대’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바로 내가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언급했을 때 말했던 그 시대들이 완성되는 바로 그 시대이다.

36. 너희 모두는 나와 약속이 있으며, 나를 듣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나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37. 모든 것은 아직 심판받지 않은 모든 행위가 저울질되는 나의 정의의 저울 위에 올려질 것이다. 나의 임재와 나의 권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혼돈이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것이 제 궤도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38. 오, 백성들아, 너희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세상을 위해 깨어 기도한다면, 너희를 보호해 줄 보이지 않는 망토가 있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줄 알았기 때문이다.

39. 내가 내 임재와 내 권능, 그리고 내 공의를 실감나게 드러내리리라고 다시 한 번 말하노라. 내가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삶에서 거룩한 모든 것을 모독하도록 허용했다면, 나는 그 타락에 한계를 정하리라. 내가 그에게 자유 의지의 길을 걷게 했다면,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그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그가 세상에서 권력과 위대함을 향한 갈망을 지나치게 충족시키는 것을 허용했다면, 나는 그의 길을 막아 그가 양심을 통해 자신의 행실을 판단하고, 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0. 나는 고통과 파괴, 그리고 죽음이 너희 삶 속에서 실감 나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쓰라린 열매를 통해 너희가 가꿔온 나무의 종류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는 또한 그 고통이 사라지고 영혼이 회복되어 제 정신을 차리도록 할 것이니, 그로부터 사랑의 찬가가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승화의 흰 옷을 영혼에 입었을 때,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졌고 기록되기도 했다.

41. 그때 모든 이가 구원받을 것이며, 모든 이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이가 위로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디에 있으며, 영원한 저주와 끝없는 불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42. 나는 죽음도 지옥도 창조하지 않았다. 내 영이 창조에 대한 구상을 형성했을 때, 나는 오직 사랑만을 느꼈고, 내 품에서는 오직 생명만이 솟아났기 때문이다. 만약 죽음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 덧없는 것이기에 — 인간의 작품일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이미 인간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43. 여기 너희의 스승이 계시니, 선택받은 백성아, 다시금 너희에게 길을 보여 주리라. 나는 너희를 싸우고 나의 대의를 수호할 줄 아는 용감한 전사들로 만들리라.

44. 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너희는 땅 위를 걸어 다니며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길을 잃은 자들, 즉 인류의 파괴자가 되어버린 자들에게 나의 성령의 빛으로 이 길을 안내함으로써 말이다. 너희는 이 영생의 양식, 곧 너희가 먹어 온 이 “젖과 꿀”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이다.

45. 너희는 내가 피부색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선택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 모두가 참된 하느님을 알게 하고, 세상의 혼란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 모두에게 부름을 보냈다. 너희는 내가 유산을 남기고, 내 은사를 부여하며, 인류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야 할 수 없이 귀중한 보석을 남겨 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46. 나는 너희가 내세에 들어가 내 현존을 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증언할 수 있도록 너희의 영적 눈을 깨끗이

씻어주고 준비시켰다. 나는 너희가 결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를 통해 인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황금 글자로 쓰인 책인 나의 지혜를 너희에게 맡겼다.

47. 나는 너희를 나의 예언자로 변화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저편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또한 다가올 세대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48. 이 제3의 시대에 스승께서는 너희에게 부르심을 보내시고,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셨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 육신을 입고 왔고, 다른 이들은 영적 존재로서 왔으나, 너희 모두는 생명의 감로주를 누렸다.

49.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오신다”고 말한다.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너희가 “하늘 높은 곳”이라 함이 순수하고, 완전하며, 영원하고, 지혜로운 것을 뜻한다면, 너희 말은 옳다. 그러나 “하늘 높이”를 너희 위에 무한히 뻗어 있는 물질적인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너희는 오해에 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곳에 있으며, 나는 어디에나 계시고, 나의 영은 모든 것을 채우고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50. 너희가 내가 “내려온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옳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존재를 드러낼 때, 나는 완전한 곳에서 불완전한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인 너희가 나를 실감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인간 형태를 취하고 물질화하기까지 한다.

51.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머지않아 내가 현재 너희에게 가르치는 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될 것이다.

52. 현재 나는 인류를 대표하여 이곳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내가 인류를 언급할 때, 나는 단지 현재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영적 시대를 거쳐 지구에 거주해 온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이 여섯 시대에 너희에게 전한 메시지들은 바로 내가 “인장”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한 바로 그것이며, 너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중 하나가 아직 풀려야만 다른 모든 것들의 의미나 중요성—즉 영혼의 삶과 발전, 그리고 완전함에 대한 그 고귀한 의미—이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53. 지혜의 원천이자, 고갈되지 않는 지식의 샘으로서, 나는 인류에게 이 말씀의 유산을 남기겠으니, 인류를 통해 신성하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의 지극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4. 이미 그 씨앗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씨앗이 싹을 틔우면, 나는 영의 발을 비옥하게 할 물을 보내리라. 그러면 너희는 인류의 마음속에서 영성이 꽃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5. 오늘날 초심자의 수는 적고, 제자의 수는 더욱 적다. 그러나 그들은 배가되어 지구의 모든 곳과 지역으로 퍼져 나가, 인류에게 ‘여섯 번째 인’이라 불리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언할 것이다. 이는 지구상에서 인류가 겪는 여섯 번째 영적 단계이기 때문이며, 또한 ‘제3의 시대’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내 영과 인간의 영이 세 번째로 소통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기에 엘리야가 여러 길을 걷던 너희를 하나로 모아주었다.

나는 너희가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너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었다.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56. 나는 또한 친구로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의 시련 속에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너희 마음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나에게로 들어 올리면, 나를 느끼게 될 것이며 영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57. 나는 이 시기에 너희에게 말씀하여 율법을 상기시키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게 하려 했다. 나는 영적 세계가 너희와 함께 살도록 허락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조언하고, 곁에서 돕고, 너희를 보호하게 했다. 이 영적 존재들은 그들의 영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싸우고 활동한다.

58.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하여, 너희 모두가 나를 이해하고, 너희 모두가 내 성령의 빛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이 이성이라는 기관을 통해 나를 듣지 않게 될 때,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준비되어 나서서, 너희의 말과 선한 모범으로 나의 임재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59. 사람들은 너희에게 와서,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너희 스승께서 인류를 위해 너희에게 맡기신 영적 만찬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내 말씀에 담긴 진의와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

60. 진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 너희가 그 말씀으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 주게 하리라.

신앙 고백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거짓말에 노예가 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사랑을 통해 너희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으며, 내 손에는 너희가 나를 믿도록 강요할 채찍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아버지이자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61. 나의 신성한 영광을 구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 나는 너희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인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의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그 은사를 너희에게 맡겼다. 엘리야와 나의 영적 세계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지 않게 하리라.

62. 이 메시지에 마음을 여는 선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한 뜻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빛과 평화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304

1. 길을 찾아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말씀을 통해 방향을 찾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나는 그 길이며, 너희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요, 이 길을 따라 산 정상에 도달할 자들이다. 그 높은 곳에서 너희는 너희 영혼이 성장하는 동안 걸어온 모든 여정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2. 너희가 마주치는 모든 장애물이나 바위는 시련이 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면 너희에게 공덕이 주어질 것이다.

3. 누가 자연의 신비를 이해했다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의 신비인 저 너머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신성한 비밀의 영역에 도달하여 그 뜻을 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누가 자신의 영적 본성과 물질적 본성을 조화롭게 하여 자신의 행동을 그에 맞추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었는가?

4. 너희는 여전히 목적 없이 방황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너희가 가진 지식이 인류를 섬길 준비를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적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으며, 여전히 나와 그리고 너희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도 알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도 없을 것이다. 먼저 진리의 길로 자신의 발걸음을 돌리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인류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5.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스승이 내 사역 안에서 너희의 일을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영성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한계가 없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갈 때마다 내 사역의 위대함을 깨닫기 위한 더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임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6. 나는 인간에게 자연의 구성과 그 현상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지성을 부여하였으며, 그가 우주의 일부를 바라보고 영적 생명의 현현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왜냐하면 나의 가르침은 영혼을 가로막지도 않고,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해방시키고 깨우쳐 주며, 그가 탐구하고, 숙고하고, 연구하며 노력하도록 한다. 그러나 인간이 지적 탐구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7. 모든 것은 영혼의 발전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 너희는 내일 인류가 나와 영과 영으로 연결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오늘날 세상은 서로 다른 세계관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으며, 오직 나의 성령의 빛만이 그들을 비추어, 그들이 나의 영감을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영성화시켜 줄 순수한 이상들을 펼치게 할 수 있다.

8. 나의 영적 가르침은 진정한 이해와 영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나는 그 연합의 중심이자,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9. 너희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문제들을 안고 내게로 와야 한다. 나는 너희의 고통 대신, 고귀하고 내게 합당한 존재로 느껴지는 기쁨을 주며,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

10. 모든 사람은 나의 성령의 빛을 통해 정화될 것이며, 그 빛은 그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평화는 공고해질 것이며, 모든 이가 하나의 힘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하나가 될 것이며, 그 어떤 종교도 이루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영감이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모든 이에게 나에게로 나아갈 동등한 기회를 준다. 나의 영적 가르침은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11. 오, 인류여, 비록 지금 네 귀가 나를 듣지 못하고 네 눈이 어두운 눈가리개로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네가 성령의 빛을 보고 나의 말씀을 신성한 음악처럼 듣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12. 이스라엘아, 너희가 받은 은총의 선물을 모든 동료 인간들도 얻을 자격이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혼란에 빠진 자를 보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라. 너희는 모두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은 이 계시의 진리를 부정할 것이며, 또한 내가 이 시대에 다시금 너희를 위한 길을 닦아 주었음과, 너희 가운데 내 은총을 쏟아 부었음, 그리고 내 신성한 자비로 준비된 대변자에게 내 우주적 광선이 머무르고 있음을 부정할 것이다. 그들은 내 신성이 어떻게 불완전한 피조물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지, 내가 그 피조물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알리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오래된 숭배 행위와 종교 공동체의 의식, 즉 눈에 보이는 형태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인가? 혹시 너희는 오직 형상과 의식적인 숭배 행위를 통해서만 나에 대한 믿음을 느끼고자 하는가?

13. 너희가 나를 전능자이자 창조주이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 권위로 믿는다면 — 내가 온 창조물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이들의 이성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14. 나는 너희가 숨 쉬는 공기 속에서, 세계들이 존재하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너희 행성으로 광선을 보내는 태양 속에서, 너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모두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낸다.

15. 선택받은 백성아,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으로 일에 임하지 말라. 손을 내밀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를 찾는 동료들의 손을 잡아라. 그들에게 말을 걸어, 너희가 가진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러나 너희도 어떤 방향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기꺼이 경청하라. 아무도 스스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너희 모두는 나의 지혜와 이웃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6. 영성주의자로서 너희는 이웃이 어떤 종교 공동체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그들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를 준비시켰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고귀한 행실이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며, 이기심 없이 이를 깊이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너희가 이해받게 될 것이다.

17. 나의 백성들아, 영성주의에는 눈에 띄는 형식이 없으며, 그러한 표현이나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신비로운 것이 드러나는 한, 너희는 진정한 영성주의자가 될 수 없다. 인상을 주기 위해 필요했던 외형적 구성, 표현, 형식, 사물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내 말씀은 너희가 나를 깨닫고 완전함으로 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8. 1950년이 지나면, 진정한 영성가는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오직 내 자비를 필요한 곳에 전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19. 내일이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극소수만이 들어왔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은 널리 이해될 것이다.

20. 1950년이 끝날 때 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남아 있는 소수의 씨앗만으로도 미래에 열매가 익기에 충분할 것이다.

21.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광활한 바다 속의 별과 같고 등대와 같다. 너희의 옷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마음을 정화하여 여섯 번째 촛대의 햇불이 밤낮으로 모든 영혼을 비추는 성소로 만들어라.

22. 나처럼 되라 — 겸손하고 마음속 깊이 온유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수정처럼 맑은 물의 강처럼 되라. 너희 손에 단 하나의 열매를 품으라. 단 한 권의 책에 담긴 가르침을 인류를 위한 구명정처럼 내세우라.

23.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며, 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나는 내 말씀의 끝로 너희를 바위 조각처럼 다듬고, 성령의 빛 속에 너희를 흠뻑 적서 주리라.

24.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의 유혹에서 돌아서라. 내가 너희를 준비시켰으니, 내일 너희가 너희 스승과 같아지도록 하리라.

25.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 가운데서 내 계시를 전하는 마지막 날에는 심지어 “돌들”조차 울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이에게 내 평화의 입맞춤을 느끼게 하고, 각자를 내 품에 꼭 안아 주리라. 그리고 그 후, 너희가 준비된 것을 보게 되면, 나는 “구름” 위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기 사막이 있으니, 그것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세상에 전하라.”

26. 오, 제자들아! 나는 내일 이야기를 하며 너희를 격려하노니, 내가 떠나는 순간 너희가 슬픔에 잠겨 흐느끼지 않도록 하라. 나는 너희가 그 후로 슬퍼하기를 원치 않으니 — 너희가 가르침을 전하며, 샘의 수정처럼 맑은 물을 넘치게 나누고 인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는 모습을 보고자 함이라.

27. 나의 선지자들처럼 증언하고, 내가 성령으로서 너희 안에 계심을 선포하라. 너희는 더 이상 목소리를 통해 나를 듣지는 못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갈 것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나를 느끼고 영감을 받으며 모든 시련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므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과 영 사이에서 너희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내가 모든 나의 자녀들과 함께할 것이므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28. 오늘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써, 성령으로서 너희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며, 본질과 현존과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있노라.

29. 오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일부를 이루는 무리들아. 땅에서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들이신 여성들아, 내게로 오라. 처녀들아, 청년들아, 어린이들아, 그리고 성인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내 평화의 입맞춤을 줄 것이니.

30. 너희 영혼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너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이이기 때문이다. 나는 육신을 입은 영혼과 육신을 입지 않은 영혼 모두에게 은혜를 쏟아붓는 주시는 이이다.

31.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영적인 길에서 점점 더 성장해 왔고, 여러 번의 환생을 거치며 많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제3의 시대에 너희는 신성한 스승의 제자들이 되어, 너희가 영적으로 위대해지고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아는 자가 되도록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준 교훈을 배우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가올 시대에 그 지식과, 내 사역에 대한 깨달음, 연합, 투쟁, 순종, 그리고 나의 신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위대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이러한 영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상은 내 사역을 단지 지구상의 또 하나의 가르침으로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32. 내 백성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새롭게 되고, 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고양되어야 할 때이다.

33. 그러나 나는 이 제3의 시대에 성령의 빛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 헛되이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정화하고 흠을 없애 준 첫 번째 사람들이며, 너희가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준비를 갖추도록, 그리고 사도로서, 인류의 형제자매로서 높이 서도록, 인류를 위해 창공의 별들처럼 빛나도록, 그리하여 너희 동료 인간들이 나와 과거 시대의 사자들을 통해 주어진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민족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서 위상을 얻게 될 것이니, 그들도 영생의 양식으로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34. 나는 너희를 예언과 나의 가르침, 신성한 계시, 그리고 나의 임재에 대한 증언이 담긴 열린 책으로 삼으리라. 이 책은 그 지식을 찾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는 빛과 진리로 많은 질문에 답할 것이다. 너희는 위선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사역을 수호하고 세상이 그것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35. 이 가르침은 오직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일단 스승의 본보기에 따라 준비가 되면, 너희의 말과 행실로 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로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너희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학문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지혜 앞에 그들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36. 사람들의 이성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나의 사자들, 나의 사도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장차 스승으로 나타날 이들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37. 이스라엘 백성아, 깊이 생각하여 모든 광신과 물질주의의 허영에서 벗어나, 너희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38. 내 백성이 내 뜻대로 일어나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매우 큰 시련이 닥칠 것이며, 그 시련은 그들의 힘에 상응하는 만큼 강할 것이니,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39. 나는 너희 각 사람의 몸속에 내 영의 일부인 빛의 원자를 심어 두었으며, 때가 되면 이 모든 입자들은 내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머지 인류 속에 환생한 영혼들은 너희와 같으며, 그들 중에도 나를 찾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도 나에게 질문하기 위해 나에게로 올라오는 법을 알고 있다.

다른 이들은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격동의 원인을 묻기 위해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당신의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까?” 영혼들은 나에게 이렇게 외치지만, 그들은 현재 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 그들이 제3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그들이 육신을 가진 자와 육신을 갖지 않은 자 모두를 위한 부활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해 왔으며,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의 영혼이 나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시다.

40. 이 시대에 나의 뜻은 모든 이가 내게로 오고, 영적인 곳에서 나를 찾게 하여, 그곳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41. 이 시기에, 이스라엘아, 너는 공덕을 쌓고, 네 본보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와 교제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42. 내가 너희의 잘못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게는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너희가 내 앞에서 순수한 그릇이 되기 위해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말씀을 주었으니, 그 말씀 안에 너희가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다. 나는 너희가 너희 영혼에 관한 것과 인간적인 삶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리하여 너희는 신성한 계명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영혼이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도록 가르치며, 너희가 더 이상 물질주의의 무게나, 내 사역에 도입한 습관적인 숭배 행위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힘과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43. 너희가 순수함과 비물질화를 이룰수록, 너희의 신에 대한 숭배는 더욱 영적으로 변할 것이며, 나의 사역 안에서 행하는 너희의 예배 의식은 덜 복잡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사역 안에서 너희 뜻대로 제멋대로 행하며 영성화를 따르지 않았고, 기도를 올릴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단지 글로 기록된 기도를 말로만 나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 다름 바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의식과 예배 방식, 전통은 사람들이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이 달랐는가? 무엇이 너희를 다른 이들과 다르게 만들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말씀을 물질화했고, 내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예배 행위는 인류와 마찬가지로 감각에 얽매이게 되었고, 너희의 상징들도 똑같았으며, 너희는 내 사역 안에서 그들의 불화와 이득 추구도 드러냈다.

44. 그러니 인류가 어떻게 너희를 믿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가 동료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들이 너희의 행동을 통해 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행실이 매우 더디고 감각에 얽매여 있음을 보시고는 더 이상 너희를 관대히 대하지 않으셨으며, 그리하여 너희가 연합하여 모이도록 명하시고, 끝을 향해 가는 그분의 말씀으로 너희를 놀라게 하셨다. 그리고 더 이상 양보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라고, 너희의 예배 행위를 정화하라고 명하셨으니, 그것들은 영적인 것보다 감각적인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사역은 영적이며, 나의 사역은 영혼을 고양시키고, 너희의 인간적인 삶을 새롭게 하여, “육체”와 영혼이 고귀한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의 뜻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심연으로 추락하여 그곳에서 나의 사역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45. 그러므로 내 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에는 물질주의로 인해 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각성의 시간이 왔음을, 아버지께서 그들을 일상과 낯은 관습에서 끌어내셨음을 그들의 영혼이 깨달았기에, 경외심과 순종으로 이 계명을 따랐으며 그분께 감사드렸다.

46. 이 모든 시련은 일상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너희를 뒤흔들었도다, 백성아. 너희는 잘못된 예배 의식에 빠져 너희의 이성과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47. 백성아,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너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나를 듣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한 나의 계시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끝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1950년이 되면, 그 이후로는 너희가 나의 영적 세계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48. 나는 너희가 이 때문에 영혼에 고통을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를 준비시켜 강인한 영혼이 되게 하였으니, 내일 너희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지치고 기진맥진한 여행자에게 그들을 드리우는 나무와 같게 하려 함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이 순간, 너희가 제2시대에 내게 주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내 영에게 안겨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와 불순종, 실패의 십자가를 다시 내 어깨에 얹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순종과 의무 이행, 갱신, 영성화, 그리고 너희의 고양을 보고자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나와 영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9. 이스라엘아, 이제 더 이상 잠잘 때가 아니다. 너는 완전히 깨어나 인류를 깨우는 사명에 전념해야 한다. 내 빛이 모든 이성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녀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내 율법이 먼지 쌓인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노라. 그러나 너, 선택받은 백성아, 너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위해 ‘지켜야’ 한다.

50. 너는 광신적 태도 없이 세상에 영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51.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실천하라. 이를 날마다 더욱 완성해 나가야 한다. 너희와 인류가 나와 소통하는 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대감을 통해 너희는 나의 영감과 사명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영혼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며, 너희의 영적인 팔이 나를 감싸 안도록 허락할 것이다.

52. 너희가 나와 영과 영으로 교감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너희의 은사가 펼쳐질 것이며, 너희의 종교적 실천 속에서 이 은사들은 영광과 영성 속에서 꽃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영적인 차원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며, 너희의 예배는 완전해질 것이다.

53. 인간의 이성을 통한 이 계시는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떠난 후 너희가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끼거나, 죽음이 너희를 덮치거나, 너희 가운데 약함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 1950년 이후 너희는 스스로를 준비하며 영과 영으로 나를 찾고, 조화와 나의 평화 가운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이 행성에 사는 동안에도 내 왕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영성화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며, 너희가 나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의식이나 예식, 혹은 물질적인 상징도 필요하지 않음을 세상에 증명할 것이다 — 너희의 경배 방식이 고상하고 영적이며,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삶의 길과 마음, 영혼에 빛을 비추는 햇불임을 세상에 증명할 것이다.

54. 나의 계시가 전해진 이 시간은, 너희가 영혼의 갱신과 고양으로 이끄는 그 수준의 영성화에 도달하기에 충분했다.

55. 나는 지금 너희가 그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는 너희의 손을 잡고 그 목표를 향해 이끌고 있으며, 나의 영적 세계가 너희를 돕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들이 너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발걸음이 안전하도록 돌보아,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는 데 더 이상 의심이 없도록, 그리고 수년, 수세기에 걸쳐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물려서게 할 어떤 것도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가 사막을 횡단할 때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었기에, 이제 너희는 나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다.

56.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계시를 마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때 너희는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떠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 지상은 너희의 목적지가 아니며, 너희를 위한 안식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앞으로 닥칠 싸움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은사를 통해 스승이 되고, 나의 사도가 되며,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 인류를 이루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나의 빛을 전하는 거대한 햇불이 되기를 원한다.

57. 너희는 내 곁에 있어 내 평화를 누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내 가르침을 듣고 있다. 그러나 혼란 속에 빠져 매우 쓰라린 잔을 마시고 있는 너희의 이웃들과 이 세상, 이 세상에 만연한 혼란을 잊지 말라. 나는 너희가 무감각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세상의 탄식 소리가 너희에게도 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58. 너희는 나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사역 안에서 행하는 방식이 더욱 완전하고 영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엘리야와 나의 영적 세계가 준비한 대로, 너희가 내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파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내 왕국은 모든 이를 기다리고 있으며, 너희 모두는 너희의 공로와 영혼 속의 검손을 통해 내게로 와야 한다.

59. 너희는 종종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스승이시여, 아버지시여, 그토록 섬세하고 심오한 당신의 사역을, 왜 그토록 죄 많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이토록 큰 책임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이 백성을 그토록 서툴고 무지한 것으로 보시면서도, 왜 그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두셨습니까? 왜 그토록 많은 시련과 정화, 광신과 우상 숭배를 겪어 온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노니: 바로 너희가 시련 속에서 크게 정화되어 나를 알아본 백성이기 때문이다. 시련은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끌었으며, 그리하여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들에게 선택받고 은총을 받은 백성으로 소개하여, 그들이 너희를 통해 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알게 됨으로써 갱신되고 영성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에게 더 큰 애정을 품어서도, 나머지 인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서도 아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은사와 은총의 소유자로 삼은 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눈에는 더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정화의 과정을 겪은 것은, 너희가 가장 많이 죄를 지었고, 가장 많은 잘못을 저지른 백성이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너희가 가장 큰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60. 백성아, 네 양심을 되돌아보고, 네가 과연 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네 공로가 내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 충분한지 깨달아라. 네 과거를 되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행한 일들이 내가 너를 내 오른편에 앉힐 만큼 합당한지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과거를 되돌아본 후, 내 은혜와 은사, 자비와 율법을 누릴 자격을 얻었는지 내게 말해 보아라.

“아니요,” 너희 마음이 내게 말하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은망덕한 백성, 곧 주님께 항상 불순종해 온 백성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 영 안에 품은 큰 소망으로 너희에게 내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것은 너희가 언젠가 순수한 생각을 가진 백성이 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며, 영혼이 크게 고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61. 진리의 씨앗을 꽃피울 것은 바로 너희의 손주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너희 가족들에게, 그다음 인류 전체에 그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62. 이스라엘아, 1950년 이후로는 너에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너의 예배 의식과 지식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너의 행위는 더 영적으로, 너의 생각과 기도는 더 고상해질 것이며, 너는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더 이상 물질주의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3. 나는 너희가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예민하게 만든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듯이, 내일은 너희가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인류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내일은 너희가 그들에게 나아가,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64. 믿음도, 희망도, 하나님도 없는 이 인류 가운데서 너희가 수행해야 할 투쟁과 사역은 거대할 것이다. 비록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있지만, 그들은 나를 느끼지 못했고 나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감각적인 방식으로 나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영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므로 나를 거부하고 잊어버린다. 곧 너희가 나의 사도로서 나서서, 너희의 강력하고 영적인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믿음과 영성화로 이끌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65. 오늘날, 1950년 이후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실 마음은 열두 개만이 아니다. 오늘날은 내가 인류가 그들을 통해 나의 사역을 알게 하도록 온전한 희망과 신뢰를 둔, 나의 축복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144,000명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66. 너희는 인류 가운데서 강한 자들이 되어 너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나 나의 영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며, 영적으로 너희에게

나의 본질과 임재, 그리고 능력을 맡겨 주리라 — 온 창조계에 드러나는 사랑, 곧 영적인 사랑을 너희가 느끼고 실천하는 만큼 말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305

1. 인류의 영적 삶은 세 시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대에는 내가 아버지로서 나를 드러냈고, 두 번째 시대에는 스승으로서 나를 나타냈으며, 세 번째 시대에는 심판자로서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이것이 내가 인간들에게 계시한 세 단계이며, 이 기간 동안 너희는 나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오직 단 하나의 신성한 영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세 신이나 세 인격을 찾아내려 애쓰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날 너희는, 너희가 신비로 감추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단순화한 형태로 받아들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성전”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나, 이 사업은 수 세기 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는 이를 완성하여 너희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

3.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이 선포식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제2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경전과 서적을 통해 내가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지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영적 메시지가 알려질 것이며, 선의의 사람들은 이를 따르려고 노력할 것이다.

4. 이 겸손하고 소박하지만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찬 책에서 사람들은 모든 의문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과거에 부분적으로만 계시되었던 가르침의 보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고대 문헌에 상징으로 숨겨진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한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5. 이 영적 메시지를 받은 후 그 내용의 진실을 확신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과 우상 숭배, 광신주의와 싸우고, 자신의 이성과 마음을 온갖 불순물로부터 정화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니,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을 기다리는 영원을 얻기 위해 싸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으로만 숭배를 계속하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기만 고집하며, 영혼의 성장이나 발전을 믿지 않는 자들—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뒤처지게 될 것이며, 자신의 뒤처짐과 무지를 깨닫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6. 모든 것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완성되고, 펼쳐지는 동안—도대체 왜 너희의 영혼은 수세기 동안 정체된 채 머물러야 하겠느냐?

7. 인간이 이룬 모든 업적을 선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영적 영혼이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삶이 그 영혼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영혼이 가장 고귀한 사명을 소홀히 하고, 세속적인 목표에 몰두하며, 너희가 만들어낸 그 삶의 황홀경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8. 너희는 과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배웠으므로, 창조된 모든 존재 안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발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오랫동안 영혼을 방치해 온 그 후진성과 정체 상태에 영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언젠가 자연이 그 비밀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자연의 힘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종이자 협력자, 형제가 되는 날이 인류에게 올 것입니다.

9. 나는 그 영혼을 지구로 보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노예나 희생양, 혹은 고통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정욕, 악덕, 그리고 무지의 노예이다.

10. 그는 영적 고양이 부족함으로 인해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겪는 고통, 실수, 그리고 운명의 타격에 희생양이 된다. 그는 삶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유산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궁핍한 것이다.

11. 이 인류는 먼저 깨어나야만 영적 삶의 책에서 공부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후 곧 이 사상 세계를 대대로 전수함으로써 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받은 씨앗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 인류가 언젠가 영성화에 도달하여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영혼과 이성과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왔다.

12. 인간의 악함이 절정에 달한 이 제3의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용서의 시대가 될 것이다.

13.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과 적대감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라고 부르는 동료 인간들을 파멸시키려 준비하는 동안,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행실을 판단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을 심판해야 할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14. 그 심판의 순간, 양심이 심문을 받고 그 빛이 비추어 이성과 마음을 밝혀줄 때,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이를 갈며 나에게 말하리라. “주님,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악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제가 그토록 가증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15. 심판의 그 순간에 깨어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용서의 빛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축복받은 화해의 날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랑의 가르침의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며, 비록 가장 죄 많은 자라 할지라도 내 자녀 한 명 한 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될 것이다.

16. 그렇다,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모든 이를 끝없이 사랑한다. 왜냐하면 큰 죄인 뒤에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나의 빛이 필요한 영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17.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나에게는 나의 모든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18. 나는 이 가르침을 희망과 구원의 망토처럼 온 땅에 펼쳐, 모든 이에게 과거의 빛과 현재의 빛을 조금씩 갚아 나갈 기회를 주겠으니, 그들이 다시는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느낄 때까지 말이다.

19. 오랫동안 너희는 나를 느끼지 못했고, 나를 잃어버렸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만날 기회를 준다. 나는 자신의 길에서 나를 다시 찾는 자는 결코 다시는 나를 잃지 않을 것임을 안다.

20. 죄인들아, 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라. 내 면전에 이르렀을 때, 내 목소리가 너희를 동료들 앞에서 심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는 내게로 왔을 때, 누가 보고, 듣고, 비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진 여인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정화된 죄인임을 알았기에 평온했다.

21. 그녀의 회개와 사랑을 본보기로 삼으라.

22. 나는 모든 이의 양심 속에 내 목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아버지, 스승, 심판자로서의 그 목소리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심장이 더 빨리 뛰게 할 것이다. 내 목소리는 모든 피조물의 내면에서 들릴 것이니, 이는 너희 영혼이 이러한 형태로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23. 감옥의 고요한 방 안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며, 그곳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믿었느냐? 아니, 믿음이 약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살인자인지, 도둑질했는지 묻지 않겠다. 나는 나의 사랑으로 죄를 지은 자를 구원하고, 넘어진 자를 격려하며, 중상모략이나 불의, 혹은 오해의 희생양이 된 무고한 자를 구원하리라.”

24. 전쟁의 소란 속에서도 내 목소리는 분명히 들릴 것이며, 그 소리는 너무나도 강렬하여 내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의 무기가 침묵하게 될 것이다.

25. 병원과 병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나는 마찬가지로 내 존재를 느끼게 하고 내 목소리를 들려줄 것이며,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병자들을 ‘기름 부어’ 위로할 것이다. 나는 동료 인간들에게 잊혀진 채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 위에 평화와 위로의 망토를 덮어 주겠으며, 그들의 고통 위에 신성한 향유를 쏟아 부어 그들을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나의 영적 임재를 증언하게 하리라.

26.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나를 느낄 것이며, 둘 다 나의 임재를 증언할 것이다.

27. 내가 난로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남편을 불러 말할 것이다. “왜 너는 사랑스럽고 이해심 깊지 않은가? 왜 너희 결혼 생활에 생명을 불어넣는 불꽃인 사랑의 불을 피우지 않는가?”

내가 그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그를 깜짝 놀라게 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버렸느냐? 성배에 남아 있던 쓴 약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실 힘이 없었느냐?” 내가 너를 세운 그 길로 돌아가라. 오직 그곳에서만 네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용기를 보상해 줄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8. 나는 아내의 마음속 가장 감수성 깊은 현을 어루만지며 그녀에게 묻겠다. “여인아, 네 의무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네가 갈망하는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착각하지 마라. 네 공로는 내가 네 어깨에 얹은 십자가를 자기 부인과 인내로 끝까지 지는 데에 있을 것이다.”

29. 내가 나의 신성한 임재를 느끼게 하지 않고, 화해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촉구하지 않는 마음은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30. 나는 내 본질을 담을 준비된 마음을 찾고 있다. 이는 마치 영으로 사람의 내면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바로 그 성전에서, 나는 성소가 정화될 때까지 너희의 죄를 마치 신성모독적인 상인들인 양 쫓아내야 한다.

31.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말씀을 이해하게 하려고 채찍을 들고 오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고양되는 이상 속에서 힘을 얻도록 생명의 양식을 가져온다.

32. 세상이 내가 고통과 죄의 심연 속에 그들을 버렸다고 여기고 있는 동안, 나는 결코 너희를 저버릴 수 없는 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주기 위해 왔으며, 그 사랑은 아버지처럼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33. 때로는 신성한 다정함이 가득한 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혼란스러워하며, 내가 너희를 굴복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엄격함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들에게 이런 방식의 가르침을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제3의 시대”에는 — 비록 너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 인류의 갱신과 구원은 어렵지 않을 것이니, 구원의 역사는 신성한 일이기 때문이다.

35. 사람들을 빛과 진리의 길로 다시 인도할 것은 바로 나의 사랑일 것이다. 모든 마음속으로 은밀히 스며들어, 모든 영혼을 어루만지고, 모든 양심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사랑은, 단단한 바위를 감수성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완고한 죄인들을 선과 평화, 선의를 지닌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이다.

36.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보다 너희 영혼의 발전을 더 잘 아는 이가 없기 때문이며, 나는 오늘날의 인간이 비록 극심한 물질주의와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큰 죄에 이르기까지 발전한 정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보기에 ‘육신’과 물질적인 삶에 빠져 사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나의 사랑이 전하는 다정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는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그토록 갈망해 온 진리의 길을 따라 나를 따르기 위해 재빨리 내게로 올 것임을.

37. 나는 태초 때처럼 그에게 돌에 새겨진 율법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가 나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의 힘을 통해 내 임재를 드러낼 필요도 없다. 고통스러운 삶과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날 필요조차 없다.

38. 그런 시대는 지났으며, 인간의 영혼은 발전했다. 더 이상 과거 시대의 어린아이처럼, 나를 믿고 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신성한 것을 손으로 만지고 육체적 감각으로 인지해야만 했던 시대는 아니다.

39. 물질주의와 영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 부족 뒤에, 인간은 빛의 영혼, 즉 영의 영혼을 숨기고 있다. 이 영혼은 먼 길을 걸어왔고 큰 시련을 이겨내어, 그에게 불굴의 의지와 경험, 그리고 지식을 안겨주었다. 그가 양심과 내면의 대화를 나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 자신의 존재 핵심에서 참된 지성소를 발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곳에서 주님의 무한한

음성이 영원하고 지혜로운 정의의 법칙으로서, 언제나 빛나고 안전한 길로서 흘러나온다.

40. 만일 인류에게 그러한 영적 성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인류가 해방에 임박해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이 시기를 위해 너희에게 영과 영의 대화에 관한 계시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41. 너희 세상이 겪고 있는 시련들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이며, 물질주의 시대의 몰락이자 죽음의 몸부림이다. 왜냐하면 물질주의는 너희의 과학 속에, 너희의 목표 속에, 그리고 너희의 정욕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질주의는 나에게 대한 너희의 숭배는 물론 너희의 모든 행실까지 좌우해 왔다.

42. 세상에 대한 사랑, 세속적인 것에 대한 탐욕, 육체의 욕망, 모든 저급한 욕망에 대한 쾌락, 이기심, 자기애, 그리고 오만함은 너희가 너희의 지성과 인간적인 의지에 따라 삶을 창조해 온 원동력이었으며, 나는 너희의 경험이 온전해지도록 그 열매를 너희가 거두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 끝나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 속에서 물질주의로 특징지어질지라도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로운 시대는 영성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양심과 영의 의지가 지상에서 사랑으로 너그러운 존재들의 세상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녀들의 영 안에서 아버지의 영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늘날 너희 존재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이 무한을 활동의 무대로 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3.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박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으며, 내 말씀에는 그 어떤 비밀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에게 숨길 비밀이 없다. 나는 내 보물 창고를 열어 두었으니,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를 헤쳐 나가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그 안에서 찾기를 바란다.

44. 인간의 영혼은 발전해 왔고, 그 능력도 꽃피었으며, 이제 내 업적을 연구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45. 영감의 은사, (내면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깨달음의 은사는, 빛이 너희 영혼에 쏟아졌으므로,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 모두 안에 있다.

46.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를 위해 닦아 놓은 바로 그 길을 따라 내게로 오는 것이 너희의 운명임을 알라. 나의 모범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시련의 순간에 스승을 떠올리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과거의 지상 생애에서) 영적인 영역에 이르기 위해, 육신이 죽어가는 임종 시에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외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빛에 대한 갈망과 영성화에 대한 열망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다.

47. 너희의 목자는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켜 주었다. 그는 제2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던 그분과 같은 분이며,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많은 이들이 준비를 받기 위해 그분께로 나아왔던 바로 그분이다.

48.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 이는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내 오실 때마다 나를 앞서가는 그의 사명은 언제나 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49. 오늘 너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너희가 목격한 기적들 앞에서 너희 영혼은 경외심을 느꼈다. 너희 영혼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였고, 나의 말씀 속에서 의심을 달래기 위해 필요한 답을 찾았으니, 바로 그 길을 계속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빛이다. 그리고 그곳, 무한한 곳에서 너희는 너희를 기다리는 집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너희를 맞이하여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50. 진리를 향해 눈을 뜨십시오. 지금은 비밀을 감추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밀을 밝혀내야 할 때입니다.

51. 두려움이 너희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두려움이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믿음과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의 공로가 참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2. 이 빛의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가져다줄 것이니,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53.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눈앞에 보여 주신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4. 아, 내 말씀을 해석할 줄 모르는 너희 사람들아. 내가 너희가 그 진의를 파헤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지 못하느냐?

55. 비록 그 당시 내가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하다. “세속적인 눈으로 신성을 보려고 애쓰지 않고, 영적인 시선인

믿음의 빛을 통해 그것을 볼 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 감각으로 영적인 것을 만지거나 인지하려는 의도 없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한 자는 복이 있다.”

56. 제자들아,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을 때, 내가 “육체”의 시선과 감각을 가리킨 것임을 깨달아라. 그렇게 믿은 사람은 영혼으로 나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57. 너희는 이제 믿음, 즉 영적 영혼의 그 높은 시야를 통해서만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 능력을 초월한 이해력으로 깨닫게 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적 지혜로 깨달음을 얻은 영혼이 바로 그 이해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8. 오늘날에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영혼으로 느끼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모든 인간의 교묘한 지략을 초월하는 그 지성으로 깨닫기 위해 자신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59. 사람 안에 신성에 대한 참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은, 그가 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혹은 무엇이 그가 이런 방식으로 직접 체험한 것을 부인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영으로 보거나 느끼는 법을 결코 알지 못하고, 보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데 만족함으로써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은, 비록 믿는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 시련이 닥치면 의심하고,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결국에는 종종 부정하게 되는 자들이다.

60.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옛날부터 너희에게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해 온 것이다.

61. 너희의 진보나 상향적 발전은 너희로 하여금 내 진리를 발견하고, 영적인 영역은 물론 내 모든 작품 속에서 나의 신성한 현존을 감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어디서나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62. 영혼으로, 심지어 육신으로까지 나를 느낄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자신의 온 존재에 섬세함을 불어넣은 자들이며, 진정으로 영화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63. 인류가 행해 온 불순한 종교적 의식이 영적 발전을 얼마나 지체시켰는가!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영적 믿음이 이루어내는 기적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자연스러운 영향마저 방해받았다.

64. 사람들이 나의 은혜와 응답,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의 증거를 받는 것은, 믿음이나 진정한 영성화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들의 미성숙함과 비참함, 무지에 대한 나의 연민 때문인 것이다.

65. 나는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분노할 것임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적 혼란 속에서 인간 본성 외에도 영적 본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거나, 비록 인간의 영혼을 믿기는 하지만 전통과 신앙적 신념에 얽매여 영혼을 위한 끝없이 긴 발전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일 것이다.

66. 또한 나는 너희를 뒤흔들고, 세상이 빠져 있는 깊은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의의 말씀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데 써 왔으며, 자유의지의 은사를 세속적인 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아직 힘이 남아 있음을 보며, 그 힘을 활용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의 이상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 세상의 기초는 참된 믿음이어야 하며, 그 목표는 사랑과 정의를 통해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대를 통틀어 나의 가르침이 아니었는가?

67. 나의 교훈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깊이 숙고한 후에, 너희의 영에게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라. 너희를 초월한 어떤 것에 대해 가장 먼저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희의 이성도, 너희의 마음도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신성한 빛이 생각이 되어 너희의 이성에도달하고, 그것을 무한한 아름다움과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68. 여기, 너희를 기다리는 데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이 가까이 다가와 영적인 갈망을 불어넣으시며, 그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을 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69.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 거의 이천 년이 지났으나, 내가 단 한 순간도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았고, 단 한 순간도 세상에 말을 걸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70. 그 당시 나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이제 나는 세상이 다시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야만 했다.

71. 이제 너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이며, 너희의 영 앞에 나타나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영 안의 스승이다.

72. 예수는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육신, 즉 육신으로 오신 형상이었고, 나사렛은 내가 인간으로서 자라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며, 청년기를 시작했던 마을이었다. 나사렛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그 품을 내어준 축복받은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그 육신이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중에 나를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던 것이다.

73. 오늘 나는 나사렛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세상, 즉 내가 그 시절에 이미 너희에게 선포했던 영의 왕국에 거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거리도 없는 나의 목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준다.

74. 오, 백성들아,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여, 너희가 이러한 형태로 내 말씀의 선포를 받게 될 마지막 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너희를 내가 축복하노라.

75. 머지않아 나는 더 이상 이 대변자들을 통해 황홀한 상태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결코 너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감의 형태로 내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76. 내가 그 ‘두 번째 시대’에 그들 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한 번 인간의 목소리를 들려주니, 그 혼란이 훨씬 더 커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에게 다시금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예고했던 때가 왔음을 보고, 나의 진리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그 길로 인도함으로써 빛의 사역을 시작한다. 그 길에서 그들은 알아야 할 모든 비밀을 풀어야 하며, 모든 설명과 해명을 찾아야 한다.

77. 이제 시작된 이 시기는 의미 깊은 때이며, 인간과 영적 존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시기이다.

78. 그리고 나의 계시가 끝나는 올해 역시 이 백성에게 무한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이 해에 나는 너희가 용기와 확고함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규범과 빛, 사명, 그리고 지식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79.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빛나며, 이해하기 쉬웠으니, 너희가 결코 오류나 무지의 바위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80. 그 의미를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여, 너희가 내 안을 품고, 각자 안에 조연자, 인도자, 의사가 깃들게 하라.

81.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영적인 자선을 실천한다면, 너희는 머지않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순수하고 고상한 생각을 통해 나의 영과 교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 계시의 시기가 왜 한계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평화와 공덕을 통해 내 영감을 갈망하며 스스로를 고양하기보다는, 아래 세상에서 끊임없이 음성 전달자가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8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속에 씨앗이었던 내 말씀의 열매는, 내 뜻에 따라 영과 영 사이의 대화여야 한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그 씨앗을 맡겼고, 그것을 뿌리는 법도 이미 가르쳐 주었다. 이제 너희에게는 그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가꾸어 나가는 임무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기대하며, 내 영 안에서 자녀들이 내 곁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그들의 영적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정을 느끼기 위함이니, 마치 내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목마르다, 너희의 사랑을 갈망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306

1. 너희는 생명의 샘에서 마시기 위해 모였는데, 그 수정처럼 맑은 물이 너희 영혼에 쏟아지고 있다. 너희가 내 말씀의 계시를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너희가 이러한 형태로 나의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여정을 꽤 멀리 걸어왔다는 증거이다.

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영적 계곡’에서도,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에서도 여러 번 머물렀던 바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가 언제 영적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이 세상의 흙을 처음 밟았는지도 말해야 한다. 너희가 내가 너희가 이곳에 몇 번이나 왔는지, 그리고 다른 환생에서 누구였는지를 밝혀주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당장은 알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너희가 여정의 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의 사역은 선과 사랑, 형제애의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함으로써, 너희가 영적 지식의 정점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준다.

3. 이 “제3의 시대”에 나의 사역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나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144,000명의 영혼을 선택하였고, 신성한 빛의 입맞춤으로 그들을 표식 지었다 — 유다의 입맞춤도 아니며, 너희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언약의 인장도 아니다. 나의 표식은 성령께서 이 ‘제3의 시대’에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새겨주신 표징이다. 이 표식을 지닌 자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대”에 내가 선택한 열두 사람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지금 말하는 바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의심과 연약함, 혼란의 순간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키스로 나를 처형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나를 배반한 자도 있었다.

4. 이 시대의 선택받은 자들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사십사천 명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5.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백성아. 이 땅의 여정은 위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빛과 어둠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내 일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싸우고 기도하며, 내 말씀을 따르고 준비하라. 진리를 배반할 때, 너희는 원치 않거나 무의식적으로도 배신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6. 양심과 자유 의지 사이, 영에게 고유한 고귀한 것들에 대한 경향과 육신 속에서 육신에 내재된 낮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너희의 영혼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선이 악을, 영혼이 “육신”을, 빛이 어둠을 이기는 최고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공덕을 쌓을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7. 이 표징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 임무, 그리고 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유혹이나 질병으로부터의 보장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 내 선택받은 자들은 과연 어떤 공로를 세울 수 있겠는가? 너희의 영은 내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곳 백성들 가운데 그 선택받은 자들의 수에 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내가 그 표징을 통해 베푸는 은사로 인류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안전함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나, 나를 향해 그들을 부르시기를 간구하게 만드는 허영심이 더 큰 동기가 되고 있다. 나는 이 나의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내 말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이다.

8. 그 표징은 사랑과 존경, 열정과 겸손으로 그것을 지니는 자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표식이다. 그러면 그는 그 표징이 신성한 은총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은총은 그를 고통 *위에서* 하게 하고, 큰 시련 속에서 그를 깨우치며, 깊은 깨달음을 드러내 주고, 그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영혼이 더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이다.

9. 그 표식은 그것을 지닌 이를 영적 세계와 연결해 주는 사슬 고리와 같으며, 너희 세상에서 영적 세계의 생각과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표식을 받은 자가 나의 사자이며, 나의 전령이자 나의 도구라고 말한다.

10. 표식을 받은 자의 사명과 내 사역에 대한 책임은 크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혼자가 아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수호천사가 있다.

11.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법을 알았던 자는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제3의 시대’에 선택받은 자의 신성한 표식을 지니고자 하지 않았던 그 선택받은 자의 길은 얼마나 험하고 쓰라렸는지. 나를 듣는 모든 이에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의롭고 순종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영혼에게 가장 빛나는 환생인 이 생명이 헛되지 않게 되고, 나중에 잃어버린 시간과 활용하지 못한 재능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다.

12. 표식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너희 모두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라. 너희 모두는 나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13. 나는 너희에게 그 법을 상기시켜 준다. 그 법은 너희의 정신에서 지워질 수도, 너희의 마음에서 잊혀질 수도, 의문시될 수도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 법은 모든 사람이 내면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빛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지성, 즉 우주적 지성에 의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14. 삶의 모든 행위가 진리와 정의에 근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의 영이 너희를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말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은 결코 무위하거나 무관심했던 적이 없다. 내면의 빛을 거부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며, 또한 너희의 이성이다. 너희는 세상의 지식, 즉 외적인 빛의 찬란함에 매료되어 버린 것이다.

15. 내가 너희의 첫사랑이 되어야 했음에도, 너희는 나를 마지막 사랑으로 밀어내 버렸다. 환상과 꿈, 세속적인 사랑과 너희의 정욕이 너희를 너무 약하게 만들어, 나를 사랑할 힘을 잃게 했기 때문이다.

16. 너희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고통을 통해 너희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으나, 매 순간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너희 영혼은 여전히

활기차다. 그 안의 피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며, 영혼은 육체처럼 늙지도 않고, 마음처럼 지치지도 않기 때문이다.

17. 너희는 모든 피조물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믿었으나, 결국 너희가 나에게 남긴 것은 너희의 마지막 사랑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8. 너희가 노년에 이르러 자연스러운 이유로 마음속의 열정과 갈망이 사라졌음을 느낄 때, 너희는 나를 향해 눈을 돌리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젊고 강하다고 느끼는 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이라고 자주 믿어왔음에도 말입니다.”

19. 내가 너희 삶에서 너희의 마지막 사랑이 되겠다고 말했을 때, 내가 진실을 말했음을 깨닫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 삶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나 외에는 아무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올바른 것만을 사랑할 것이며, 삶에서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며, 실망도 겪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써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삶과 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궁핍을 초월하게 되었으며, 환상으로부터 보호받았고, 빛과 평화와 지혜의 세상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20. 때때로 너희는 내 율법을 가능한 한 지키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불행,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혹스러워하곤 하는데, 사랑하는 백성아,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오직 이곳, 눈물의 골짜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이곳은 영혼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자 정화하는 강이며, 영혼을 단련하는 학교이다.

21. 그런데 왜 시련을 벌이라고 믿는가? 시련은 벌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더 많은 빛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할 경험이라고 믿는 편이 낫다. 내가 너희가 기도를 실천하고, 믿음을 불태우며,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여 위로와 평화를 보내주는 것을 보게 하려고, 얼마나 자주 너희를 시련에 처하게 하는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나를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잊었다거나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며 배은망덕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되어, 결국 너희만큼이나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의 문을 두드리곤 한다.

22. 내가 세상에 나의 자비를 거두어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나는 한동안 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의 지식과 힘을 믿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세상을 뒤덮을 고통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들의 영혼은 미성숙하고 연약하며, 배은망덕하고 완고한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재빨리 내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23. 너희가 행한 어떤 행위라도, 비록 그것이 너희가 저지른 악한 행위라 할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빛을 비추지 않을 수 없는 나, 나는 세상이 혼돈에서 벗어날 때, 그 정신 속에 추락하기 전보다 더 많은 빛을 갖게 하리라.

24.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니, 그것은 너희 무지의 열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존재 안에 빛이 비추게 된다면 — 너희가 자신의 경험과 양심을 무시하고 고의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 제자들아, 너희는 그토록 쓰라린 잔을 마시게 했던 그 실수에 다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25. 너희가 겪는 시련을 ‘처벌’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너희에게 경험을 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참된 지식으로 풍요롭게 하고, 양심과 화해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라.

26. 너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만을 극복하고, 점차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며, 너희의 무능함이 진리 위에 신비의 베일을 드리워 놓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적들을 매 순간 인식해 나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라.

여기 내 빛이 있으니, 이 빛은 너희에게 비밀로 감춰진 것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희 눈앞에 숨어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알아보려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너희 자신임을 말해 준다.

27. 내가 병원, 감옥, 슬픔에 잠긴 가정, 파탄 난 결혼 생활, 고아들, 혹은 영적으로 굶주린 이들을 바라볼 때 — 왜 그곳에서 너희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의 은사도 주었고 치유하는 법도 가르쳤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너희가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의 존재만으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 왔다.

28. 삶은 매일 너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제공해 주는가!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29. 악의적인 시선이나 험담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만을 품은 이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은 영적으로 나를 병상의 곁으로 모시고,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 다가가 믿음과 지식, 그리고 위로의 빛을 전해 주는 이들이다.

30. 슬픔에 잠긴 이들을 기억하는 자들과,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의 마음은 내 영과 가까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31. 너희 자신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이웃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자신의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고 다니며, 항상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만 말한다면, 세상에는 너희보다 훨씬 더 크게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진정한 길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걷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들, 자신의 내면에 빛의 불꽃 하나조차 품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너희의 길을 지날 때, 그들을 돕기 위해 잠시라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희처럼 신을 모독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짐을 견디고 있는지요!

32. 너희는 자신을 조금 넘어, 너희의 집과 감정을 조금 더 너머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 마음속에 선함이 깨어나 영혼이 넘쳐흐르며, 너희 양심에 새겨진 가장 높은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그 이유로 이웃을 도울 수 없다 해도, 슬퍼하지 마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비치고 평화가 깃들게 하리라. 동정심이 솟아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은, 너희가 궁핍한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동전 한 닢, 빵 한 조각, 물 한 잔을 줄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니, 차라리 너희가 주는 것을 내어주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33. 오, 인류여, 언제쯤 사랑의 힘을 알게 되겠느냐? 오늘까지 너희는 생명의 근원인 그 힘을 단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다.

34.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나라를 두루 다니며 마을과 도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난한 이들에게 동전을 건네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나 자신도 동전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수 없었던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고, 빛과 위로, 기쁨으로 가득 찬 길을 선사했다.

어느 날,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사막까지 나를 따라왔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었고 그들이 굶주리고 있음을 보고는 몇 개의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여 나누어 주었다. 군중들은 그토록 적은 양이 모두에게 충분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으며, 회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인류에게 남을 영원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35. 아, 만약 지상의 민족들이 형제애로 빵을 나누기만 한다면, 비록 그것이 단지 나의 가르침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 그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선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떤 놀라운 현현들을 경험하게 될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며, 여전히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를 이방인이라 부른다.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원망하며, 거의 항상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추기는 전쟁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다른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조장하며, 많은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면서도, 다른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합니다.

36. 사랑과 믿음, 선의가 없는 이 메마른 들판 위에, 나는 자비를 자비롭고 결실을 맺게 하는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나의 정의는 폭풍우처럼 모든 악을 쓸어내고, 나쁜 나무들을 쓰러뜨리며, 들판과 도시들을 정화하고, 이 인류의 잠든 영혼을 깨워, 다가올 시대를 위해 나의 사랑이 준비해 둔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들이 수 있게 할 것이다.

37. 너희가 이제 접어든 1950년은 — 영원 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대로 —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루어진 나의 영적 계시의 한 단계가 끝나는 해를 나타낸다. 이 해에 사람들의 영혼은 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에 들어갈 것이다.

38. 1950년은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인류에게 위대한 계시와 사건들을 안겨줄 새로운 시대의 여명입니다.

39. 제자들아, 지난 한 해는 너희에게 어떤 경험을 남겼느냐? 나의 계시가 끝나는 이 해를 맞아, 너희는 어떤 결심을 했느냐?

40. 너희는 기도하고,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나에게 간구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1. 계속 기도하되,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내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래야만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 너희의 예배 의식에 도입했던 것들 중, 너희에게 진전을 가져다주기보다는 오히려 관성에 갇히게 했던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42. 너희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 목소리가 너희에게 용기를 주어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통을 깨뜨릴 수 있게 할 것이다.

43.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제 내가 너희를 서로 더 가깝게 이끌고, 너희 모임에서 멀어진 이들에게 부름을 보내겠다. 그들을 단 한 번만 부르라. 그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드러내 주리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귀를 막는다면, 그 일을 내게 맡겨라.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했던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뿐이니까.

44. 내가 이 마지막 해에 너희에게 주는 내 말씀은, 내가 이 계시 기간 동안 너희에게 전한 모든 메시지의 정수가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는 삶의 모든 단계에 대한 가르침과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싸움이 시작될 때 너희가 무기를 갖추게 될 것이다.

45. 너희 이웃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연합과 조화를 촉구했다고 전하라. 그 형제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너희가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겉으로만 연합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분열되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너희가 단결해야 한다고 말하라. 너희를 향한 박해와 적대감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나중에 자신의 불순종을 후회하며 울거나,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더 이상 남지 않았을 때 한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46. 내가 빛을 비추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라. 그러므로 아무도 내가 내 말씀으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47. 내 목소리는 예언적이었으며, 내 말씀은 미래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것이 미리 예견되었고, 모든 것이 미리 보아졌으니, 너희는 단지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48.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비록 대다수가 나의 계명에 불순종할지라도, 이

빛은 비추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진리는 결코 악으로 인해 가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49. 내 말씀의 진리를 계속해서 전파하기 위해 그들을 도구로 삼기에, 순종적이고, 행동력이 있으며, 영적이며, 겸손한 소수의 마음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50.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새로운 고난의 잔을 건네줄 것임을 너희가 이미 지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혼란과 어둠이 이 백성 위에 닥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이 어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지 못하므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지시를 무시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다.

5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혼란의 어둠 속에 빛의 틈이 생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나를 따르려는 모든 이가 그 길을 발견하고 영성화의 길로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52. 이 백성은 내일 자신들을 뒤흔들어 깊은 무기력에서 깨어나게 할 시련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53. 예나 지금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으니, 이는 내가 제때에 자신의 사명을 다할 준비가 된 자들만을 선택하기 때문이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언젠가 선택받을 그 때를 기다릴 줄 알도록 빛을 주기 위함이다.

54. 아직 임무를 맡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부름만 받은 자들 중, 이 십자가의 짐을 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성숙을 갖추지 못했고, 나의 영감을 받아들일 만한 필요한 깨달음도 얻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제자들과 일꾼들의 대열에 합류했는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선택받은 자들의 대열에 들어선 후 무엇을 했는가?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분위기를 오염시키며, 나쁜 성향으로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거짓말을 하고, 불화를 조장하며, 내 이름과 내가 제자들에게 부여한 영적 은사를 이용해 이윤을 챙겼다.

55. 누구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하지 마라. 너희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꿰뚫어 보는 심판자의 시선만이 그들을 놓치지 않으며, 나는 그들의 양심에 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말하게 하리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제때에 너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속히 나의 식탁에 앉혀 화해와 용서의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56. 사랑하는 제자들아: 지금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축복받은 시간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는 준비를 마쳤고, 나를 듣는 군중은 모여들었으며, 생각으로 내게로 올라왔다.

57. 나는 너희가 나의 계시의 기적을 목격하고,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의 사랑과 시선, 그리고 나의 본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너희를 이렇게 보고자 한다.

5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 준비의 이 순간에 나의 임재를 누리는 이는 너희만이 아니다. 내 영이 임재하지 않는 종교는 없으며, 나에게 바쳐진 행위도 있을 수 없다. 바로 그 청중들이 감동받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들이 구한 것을 주려 한다.

59. 만약 세상의 민족들과 종교 공동체들이 이미 그들의 영적 은사를 꽃피웠더라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임재를 감지하며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섬세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와 광신적인 의식을 행하는데에 그들의 감각과 능력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를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다.

60. 만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묻는다면, “스승님, 여러 종교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지금 스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스승님을 느끼고, 듣고, 볼 수 있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대답하리라. “모두가 영성화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이미 모든 감각적인 종교적 수행과 모든 광신적인 믿음에서 멀어졌을 것이다.

61. 나는 그들에게 시련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에게 교훈이 된다. 때로는 그들의 믿음을 보상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은혜를 나에게 바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추구할 때, 나의 신성한 정의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한다.

62. 그들이 내가 시련을 통해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나에게 대한 믿음과 희망을 보며, 나는 그들의 잘못과 무지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나의 자비를 베푼다.

63. 지금은 내 영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과 영혼, 이성과 마음에 말씀하시는 때이다. 내 목소리는 생각과 시련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들을 인도하거나 가르쳐야 할 자들은 잠들어 있으며, 세상이 결코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64. 사랑하는 백성아, 명심하라. 너희가 내 말씀의 기쁜 소식을 다른 나라로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65.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한다. “내 모국어로도 표현하기가 서툴러서, 어떻게 다른 언어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아, 내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아! 너희는 제2시대의 사도들이 여러 언어를 말하기 위해 신체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오, 내 자녀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켰으니, 그들이 말했고 내게서 배운 언어는 사랑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위로하고, 병자를 고치며, 평화를 세우고, 빛을 전하고, 진리를 계시하며,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말보다 행위로 더 많이 그렇게 했다.

사랑은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행함을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종 인간의 말이 필요 없는 빛의 영혼도 그렇게 말합니다.

66. 내가 너희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가르침이 흘러나오는지 이미 깨닫고 있느냐? 내 선포가 이어지는 동안 이 입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 나오는지 보십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시간마다, 언제나 너희 곁에서 행하는 행위의 수와 비교하면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말보다 행함을 통해 너희에게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지혜롭고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다. 너희는 인간의 말을 통해서만 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에,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언어로 내 말씀을 인간적인 형태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307

1. 너희의 마음에 안식을, 너희 영혼에 평화를 주는 것은 바로 나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정한 가장 큰 것은 평화이다. 이 보물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이 영적 상태를 아는 자는 이를 세상의 가장 큰 재산과 보물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2. 너희가 나에게 평화를 얻고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그 비결이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고 말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신성한 뜻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너희가 내 율법과 가르침을 너희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대답하리라.

3. 어떤 이들은 내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실망하기도 한다. 그들은 내가 이 세상의 보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데, 그들뿐만이 아니다.

누가 평화를 알겠는가? 어떤 인간이 자신이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내 백성아. 그러므로 나는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선물로 가져온 것, 곧 평화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많은 이들을 본다.

여러분이 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은총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빛의 왕국에서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예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너희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갈망하는 데 그치고, 온갖 수단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약간의 마음의 평안과 안락함, 만족감을 얻으려 애쓰지만, 결코 진정한 영혼의 평화를 얻지는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주님의 뜻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만이 그것을 얻게 한다.

5. 세상에는 내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사람, 내 가르침을 잘 해석해 줄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비록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더라도, 영적으로 후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 참된 가르침으로 깨우쳐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6. 날마다 — 교회 홀과 성당, 대성당에서 — 내 이름을 부르며 내 말씀을 되풀이하지만, 내면이 감동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빛에 전율하는 사람도 없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진 힘이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데 있다고 믿지만,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7.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며, 생동감 넘치고, 삶과 밀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므로, 그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8. 불쌍한 인류여 - 빛이 그토록 가까이 있음에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평화가 손에 닿을 듯함에도 두려움에 떨며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신성한 빛을 볼 수 없으니, 무자비하게 그들의 눈을 가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나, 내가 너희를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고, 내가 그 당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영원한 진리였으며, 너희가 그 신성한 말씀을 과거 시대의 낡은 가르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너희를 돕기 위해 온다. 왜냐하면 내 모든 가르침의 본질이었던 사랑은 영원하며, 그 사랑 안에 이 방황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제멋대로인 정욕이 난무하는 시대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9. 또한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태초부터 현재까지 너희에게 계시된 모든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빛이다.

10. 인류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면 놀라게 될 것이며, 내가 이전에 가르쳐 온 무한한 사랑 -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랑 - 을 직접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어떤 곤경이나 물질적 어려움에 시달릴 때만 아버지께 의지했던 자신들이 아버지께 대해 배은망덕하고, 불충실하며, 무관심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내 빛을 직접 받게 될 것이며,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동료들이 그에게 제시한 길과는 매우 먼 길로 인도받을 것이다.

12. 나는 너희가 투쟁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내 사랑을 느끼게 해 주노라.

13. 제3의 시대는 영적 투쟁을 의미하며, 시련의 시험대이자 유산이기도 하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신성한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14. 내 발에서 일해 온 일꾼들에게, 나는 그들이 뿌린 씨앗을 가꾸어,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1950년 말, 즉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마지막 계시가 있을 그 은혜의 날에 내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그때 너희가 발에서 수확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황금 이삭을 가져오기를 원하노. 그러면 내가 너희의 수확물을 받아 축복하며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씨앗이 바로 너희가 앞으로도 내 발에 계속 뿌려야 할 씨앗이다.”

15. 제자들아, 너희가 이 길에서 잘 싸웠을 때 동시에 기쁨을 거두었고, 고난의 잔을 마셨을 때 그로 인해 너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시련을 겪은 후에 나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 백성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베풀기 위해 구하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6. 너희가 내 말씀 없이 지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리하여 너희가 내 가르침을 전하고, 행함과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그것을 설명하는 이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17. 너희가 확고한 발걸음으로 행동의 시기, 즉 투쟁의 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나 사람들이 광야나 요단 계곡, 혹은 산으로 나를 따랐을 때, 내가 그들에게 기도하게 했던 그 소박함으로 기도하라.

18.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영성주의자인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너희의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19. 내가 떠날 때 너희 공동체에 혼란이 생겨 일시적으로 너희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해도 놀라지 마라. 너희 모두가 내 계명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한동안은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미 나는 내 뜻을 이해하고 사랑과 선의로 이를 따르는 이들을 축복하노니, 내가 그들의 영혼에 내 영감을 풍성히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행동을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모든 일에서 나의 사역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두를 다시 하나로 모을 시련이 닥쳤을 때, 형제자매들에 대한 자책이나 허영, 우월감 없이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20. 다가올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의 구름이 너희 마음의 평화를 가렸다. 너희가 느끼는 이 고통이, 너희가

불충실해지는 자들—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하는 자들—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1. 나에게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 나는 이미 지금부터 말하노니,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기 전에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충실할 이들에게는, 그들을 기다리는 싸움이 거대할 것이며, 다른 이들이 너희 양심에 새겨져 있어 너희 모두가 알고 있는 신성한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한, 너희는 불화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것을 견디고, 고통을 겪으며, 희망을 품어야 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22. 인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이 백성의 연합과 영적 싸움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니라.

23. 제자들아, 빛과 힘으로 충만해져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24. 사랑으로 너희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법을 배우라. 그 안에 제자의 공로가 있다. 확고한 발걸음으로 너희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와 인류를 축복하며 갈보리 산 정상에 도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음과 순종으로 내 길에 머무르는 법을 아는 자는 넘어지지도, 길을 잃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삶의 여정 내내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평화를 경험할 것이다.

25. 왜 어떤 이들은 죄 많은 삶을 살아온 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왜 많은 이들이 더러움 속에서 살며, 가시덤불 위를 걸어도 더럽혀지거나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가?

26.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고 단순한 가르침을 전하노니, 너희가 죄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살며,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가면서도 상처 입지 않고, 잔혹한 행위와 추악한 일들을 목격하면서도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비참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가운데 머물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능한 모든 선을 베풀고, 모든 길에 선의 씨앗을 뿌리기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7. 인간의 죄로 인해 지상의 낙원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으므로, 인간은 자신들의 오점을 씻어내고, 이를 통해 삶에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한다.

28. 제자들아, 내가 이 가르침들을 통해 너희에게 나의 신성한 계획을 점점 더 명확히 밝히고 너희의 사명을 알려주고 있음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그리하여 너희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29. 나의 가르침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롱하고, 거부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며, 모든 시대에 진리를 대적해 온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0. 이 백성이 갑자기 닥칠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기 위해서는, 내 율법의 길 위에서 발걸음을 굳건히 다져야 하며,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을 환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구명정처럼 성령에 대한 참된 숭배를 추구해야 하며, 그들의 마음은 인간의 삶에서 두 번째 성전인 가족에 대한 헌신 속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31. 오늘 나는 특히 내일 자신의 존재로 새로운 가정의 삶을 밝게 비춰야 할 소녀들에게 말하노니, 아내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영이 내면의 성전을 비추는 것처럼 그 성소를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2. 새로운 삶이 너희를 당황하게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라. 너희 자녀들이 걸을 길을 지금부터 마련하라. 그 영혼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형체를 갖추고 인간의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너희 품에 다가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33. 나의 회복 계획과, 갱신과 정의의 사역에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34. 이 시기에 너희의 발걸음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에서 돌아서라. 수많은 여성이 파멸하고, 수많은 성소가 더럽혀지며, 수많은 등불이 꺼져 가는 죄 많은 도시들을 위해 기도하라.

35. 너희의 모범을 통해, 인류에게서 영성 결핍이 초래하는 결과를 막아줄 생명과 진리와 빛의 씨앗을 퍼뜨리라.

36. 이 민족의 처녀들이여, 깨어나서 싸울 준비를 하라! 마음의 정욕에 눈이 멀지 말고, 허상에 현혹되지 말라. 직관과 영감, 감수성과 섬세한 마음을 펼치십시오. 진리 안에서 강해지면, 인생의 싸움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피로 사랑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 즉 생명의 정수인 그 사랑으로 너희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너희를 관통하게 하며, 그 사랑을 깊이 느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 가르침이 너희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바이다.

37.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피난처이므로 복이 있도다. 어머니의 마음이 복되도다. 그 마음은 자녀들에게 다정함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신의 망토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처녀들도 복이 있도다. 그들의

다정함은 인간을 초월한 약혼과 모성애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의무를 뒤로하고 영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깨달은 이는 얼마나 적은가.

38. 모든 여성과 남성이 이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사명을 가진 것은 아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들에게 족쇄와 같으며, 자녀를 키우는 일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한 영혼들도 있다.

39. 언제쯤 이 인류가 하나이고 참된 가족을 이루게 될까? 그 안에서 모든 이가 —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앉거나 기도하며 나를 향해 일어설 때 —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기쁨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까?

40. 너희는 아직 그 순종과 동의, 그리고 조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어떤 이들은 길을 잃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자신의 소명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41. 내가 이 목소리의 매개자들의 지성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한 영적 가르침이 지상에 널리 퍼져야만 어둠이 영성화의 빛 앞에 물러나고, 인류가 진리의 물을 마실 수 있다.

42. 오늘날 나의 가르침은 너희를 투쟁에 대비시키는 데 그치고 있으며, 나의 예언은 오직 큰 시련만을 예고할 뿐이다. 나의 말씀은 너희를 경고하고, 바로잡으며, 인도한다. 그러나 인간이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는 은혜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의 존재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신성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 인간의 표현 방식이나 억양 없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해하는 바로 그 말씀 말이다.

43. 그 말씀은 더 이상 심판이나 책망, 경고 따위를 동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메시지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다.

44. 너희는 그 시대의 도래를 경험하고 싶어 하겠지만, 아직 인내해야 할 것이다. 수동적인 기대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말이다.

45.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영성화에 이르는 길을 계시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야말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교감을 열어줄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46.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를 얻기 위해 세상의 죄에 맞설 공덕을 쌓아라. 노력을 배가하고, 필요하다면 자기 희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라. 너희의 잔이 쓰다면 인내하라.

47. 나를 신뢰하라. 너희는 나의 제자이며, 나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가 믿었다면, 너희의 믿음이

크다면, 시련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지고 역경을 헤쳐 나가라.
너희가 나를 증언하면, 나도 너희를 증언하리라.

48. 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으나, 너희는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백성이다. 지상의 다른 민족들은 이 시대의 계시를 알지 못하며, 제3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사명은 더욱 크다. 너희는 경종을 울리는 자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9. 비록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 재림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예언을 찾아 성경을 탐구하며, 오늘날 인류를 짓누르는 시련들이 주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내 신성한 광채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임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나를 드러낸 방식과, 온 우주의 물질과 모든 영혼을 비추는 나의 방식을 알지 못한다.

50. 기쁜 소식은 내가 계시하시는 동안 나를 들었던 자들의 입을 통해 열방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나의 오심을 알게 되고, 나의 메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계시가 시작된 시기와 끝난 시기를 알게 되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의 임재를 예고하는 시련과 사건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5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경험했던 그 형태로 더 이상 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 이곳에서도,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내 말씀의 증언을 온 땅에 전파하고, 인류가 내 메시지를 믿는 데에 그 공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때 왕들조차도 내가 태어난 비참한 처지를 보고 놀랐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그 소박한 방식을 모두가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놀라게 될 것이다.

53. 내 메시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참되다고 확증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부정하려 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 증언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러한 현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영혼 속에 잠들어 있던 은사와 능력이 깨어나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육체()는 이미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발달 단계와 민감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54. 어린이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질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영적인 것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를 인간의 더 높은 삶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이 이미 심오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성과 여성들이 영적인 환상과 예언적인 꿈을 꾸며, 치유의 은사가 온 땅에 퍼질 때 일어날 것입니다.

55. 영적 은사의 각성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이들은 얼마나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비판과 비난, 조롱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리라.

56. 사랑하는 증인들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오랫동안 오직 만지고, 보고, 제한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어 온 이 물질주의적인 인류가, 영적으로 변하여 영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57. 세상의 주인들과 권력자들은 내 재림의 진실을 깨닫게 될 때 큰 당혹감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왜 왔는지 자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는 큰 환호가 터져 나올 것이니, 그들의 마음이 이제 억압받는 자들과 사랑과 정의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품어 온 자들을 위한 은혜와 자유, 평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58. 너희가 오늘날 여전히 사회적 무의미함으로 한정하고, 너희의 비천함 속에 숨겨져 있다고 여기는 이 사역은, 신성한 빛의 광채로 빛나며 온 땅을 비추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며, 마음속에 믿음을 불태우고, 사람들의 이해력 앞에서 참된 생명의 책, 진리의 책을 펼쳐 보일 것이다.

59. 백성들아: 내 계시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온 이유 중 하나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나를 들은 너희가 마음속에 내 말씀을 간직하고 책에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는 사자와 대리자가 될 것이다.

60. 이제 곧 너희는 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니, 나의 계시는 1950년에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61. 머지않아 새로운 시기가 열릴 것이며, 그 안에서 너희는 은사가 꽃피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야 영감이 흘러나오고, (내면의) 말씀의 은사가 작용하며, 예언의 은사가 완성되고, 너희 마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62. 너희는 세 가지 성서를 하나의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며, 너희의 여정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 백성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너희의 영적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 그리하여 너희 이웃들이 너희의 삶의 방식과 말을 보고 들을 때, 너희를 새로운 세상을 위한 씨앗으로, 새로운 인류의 기초가 될 세대로 인식하게 하라.

63. 이 세대와 머지않아 올 세대를 지상에서 인도할 특권을 누린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아, 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 나는 그들이 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들 가운데서는 예언자들이 일어나, 옛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들이 시련의 시간에 전령처럼, 어둠 한가운데의 횃불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그들의 예언으로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64. 영적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수호천사처럼 이 피조물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내가 너희에게 예고하고 약속한 이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서 자녀처럼 받아들이는 이들을 도울 것이다.

65. 백성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나를 듣는 영적 기쁨에 몸을 맡기며, 내 말씀 속에 너희가 십자가의 짐을 견디는 데 필요한 모든 평화와 기쁨, 그리고 위로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66. 나의 사랑이 너희를 감싸고, 나의 평화가 너희를 어루만지며, 나의 영이 너희를 초대하노니, 고통받고 있으며 이 땅에서 한 방울의 치유도, 위로와 사랑의 말 한마디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308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매일 영적 기도를 실천하고, 너희 자신을 완성하고자 하는 온전한 선의를 그 안에 쏟아부어라. 명심하라: 너희가 스승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 순간에 무한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 외에도, 이는 너희가 나의 신성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그 영감 속에서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파악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떤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불분명한 점을 해소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축복받은 영적 교감의 시간 속에서 너희의 모든 감각이 밝아질 것이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와 의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2. 지금, 여러분의 세상이 온갖 위험을 품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전투에서 무적의 존재가 되게 해 줄 무기를 갖게 될 것이며, 모든 시련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너희는 아직 너희 자신의 빛으로 길을 비출 능력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빛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일단 너희가 내 가르침을 너희 삶에 적용하게 되면, 너희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길을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파멸시키지도,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한때 내가 너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말했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은 세상 너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영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든 세계와 하늘, 그리고 거처들의 삶을 비추며, 모든 존재와 피조물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주적 빛이다.

5. 너희는 빛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너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난과 오류, 눈물로 가득 찬 삶의 어둠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내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있노라. 너희의 세상을 비추며, 너희를 그 산을 오를 것을 초대하노라. 그 산 정상에 오르면, 너희가 땅에서 헛되이 쌓으려 했던 온전한 평화와 그 행복, 그리고 그 풍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6.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피조물들아, 나의 용서가 너희를 감싸고, 나의 빛은 마치 밤에 침실로 몰래 들어오는 도둑처럼 모든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아버지로서의 나의 현존을 너희가 느낄 수 있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7. 사랑하는 백성아, 나는 너희의 고통과 눈물을 축복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아직 사랑과 순종으로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않았기에, 시련 속에서 종종 불만을 드러내고 심지어 반항하기까지 한다.

8. 보라,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지만, 제자로서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의 잔을 비워야 한다. 세상에 너희의 약함을 드러내지 말고, 너희의 불운을 떠벌리지도 말라. 내가 골고다로 향하는 고난의 길에서 내 처형자들에게 저항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았다. 그 입술은 오직 축복을 내리시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9. 공로가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인내를 가지고 고통받음으로써 그 고통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고 가장 깊은 교훈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의 시련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내 눈에는 여러분이 어떤 공로도 쌓지 못한 것이며, 조금 더 성장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니,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그 시련을 다시 겪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대신, 그 길을 나아가며 너희의 고통을 축복한다면, 너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즉시 보이지 않는 손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 입술에서 고통의 잔을 치워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 주님의 뜻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오점을 씻어 줄 것임을 알기에 그 고통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그가 영적인 산을 오르기 위해 발걸음을 굳건히 내딛게 하기 때문이다.

11. 너희가 고통의 잔을 바닥까지 비워야 할 필요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려는 결심과 의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나는 너희가 겪는 시련의 가장 힘든 순간을 피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지극히 사랑하던 아들 이삭의 목숨을 요구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족장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고통을 이겨내며, 여러분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순종과 믿음, 사랑, 겸손의 시험 속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증명했기에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더 높은 권능이 그의 손을 막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저지했을 때, 아브라함의 내적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그는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찬양하며 그분의 지혜를 경탄했는가!

12. 그러니,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시련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임재를 느끼며, 모든 어렵고 괴로운 순간에 나의 자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베풀어 온 위대한 가르침의 본보기를 명심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너희는 내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온전한 영적 감수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 삶의 매 순간마다 이루어 가는 사랑과 정의의 일들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13. 너희는 무지함으로 인해, 그 시련들이 너희 영혼에 가져다준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거부해 왔는가! 너희의 저항과 믿음의 부족, 혹은 비겁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가!

14.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너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평화이며, 행복이며, 빛이다.

그러나 너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고통이 구원의 잔처럼 너희 입술에 닿았다면, 인내로 그 잔을 비우고 축복하라 — 그 고통을 통해 너희가 정화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진리의 계시를 얻을 수 있음을 알면서 말이다.

15. 믿음이 약한 남자와 여자들아, 시련 속에서 왜 용기를 잃는가? 내가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 외로운 자 곁에 서서 병든 자를 문병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가?

16. 인생에서 많이 울어본 남녀 여러분—이 교훈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달콤한 위안이 스며드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를 것이며, 여러분이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수성이 여러분의 마음속 혈거워진 현을 울리게 하여, 고통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그리고 평화로운 순간들 속에서도 나의 영적 현존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17. 이 순간들 속에서 모든 탄식과 고통을 나에게 맡겨 두십시오. 울고 흐느끼십시오. 울음을 통해 너희 영혼은 짓누르던 짐을 떨쳐 버릴 것이며, 그 후 마음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18. 울어라, 사랑하는 백성아. 울음은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내뿜는 가장 진실한 기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일, 너희가 고통을 이겨내고 영성화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울음이 너희의 가장 훌륭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축복하기 위해 나에게 다가가는 영혼의 평화가 될 것이다.

19. 오늘 나는 영 안에서 너희 곁에 나타나 영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 내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백성들은 나를 인간으로 보았고 나의 이름인 ‘예수’를 알았습니다. 내가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리스도이셨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2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는 너희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니, 그분은 아버지와의 하나이시므로 모든 세계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22. 너희 세상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자궁에서 육신을 입은 이는 예수, 곧 인간이었으며, 인류가 나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도구이자 대변자였던 축복받은 육신이었다.

23.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나,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계셨다. 나는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를 굳건하게 하며 영감을 주었다. 그는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예정되었으며, 그를 영적으로 살리신 분께 봉헌된 그의 생명과 몸과 피가,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 선포하실 모든 것을 확증하게 될 것이었다.

24. 예수님은 인간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 흠이나 부정함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성육신한 것은 바로 신성한 말씀인 “그 말씀”이었습니다. 30세가 되어 성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분 안에 거하시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진리, 그리고 사랑의 온전한 위엄을 드러내셨다.

25. 신성한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나올 그 시간을 기다려 온 사랑이 넘치고 겸손한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는 세례의 물을 받기 위해 요단강 기슭에서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정화를 갈망하여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나의 백성들아. 혹시 어떤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가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인간이 사라져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될 그 시간이 왔음을 아셨으며,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될 행동을 통해 그 시간을 표명하고자 하셨습니다.

26. 그 상징적인 물은 씻어내야 할 어떤 흠도 없었지만, 인류의 본보기가 된 그 육신을 세상과의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그분이 자발적으로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인간의 말로 말씀하시는 신성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27.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영생의 말씀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랍비, 스승, 사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28. 3년 동안 나는 예수의 입을 통해 세상에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나 생각 중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이성애에 의해 왜곡된 적이 없었고, 그분의 행동 중 내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예수와 그리스도, 즉 인간과 영이 하나였기 때문이며, 이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의 하나이신 것과 같다.

29. 제자들아, 이제 나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며 너희에게 말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육신이 아니며, 또한 나는 이 시대에 육신을 입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모두와 같은 불완전한 피조물을 통해 내가 말할 때, 나의 음성 전달자들의 서툰 불완전한 표현 방식을 넘어, 나의 신성한 뜻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나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0. 내 말씀의 진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간적 표현 방식의 불완전함에서 분리해 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말씀과 제2시대의 행적을 연구하면서도, 언제는 사람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지, 언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는 자들과 달리, 나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 사랑으로 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라. 그래야 나중에 너희가 나의 계시에 대해 증언해야 할 때, 이웃들에게 진실하고 소박하게 말할 줄 알게 될 것이다.

32.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너희의 행실을 보여주고, 너희의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에 대해서도 나와 이야기한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며 영원히 너희를 지켜보는 아버지인 나는, 너희가 모든 행동에서 미덕과 정의를 얻도록 계속 나아가고 열정적으로 싸우도록 격려한다.

33. 너희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내 법에 대한 가장 엄격한 순종으로 행하고자 하며, 너희가 바로 내 제자라는 책임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다. 너희는 지상에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 일들이 너희의 모든 시간과 주의를 빼앗지 않도록 준비하여,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을 영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바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너희는 주어진 생애가 너희 영혼에 걸맞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에 딱 충분하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은사를 깨닫게 되면, 너희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해 일할 준비를 하게 되리라. 그러면 너희 안에는 기쁨이, 너희 아버지께는 만족이 있으리라.

34. 나는 너희를 부르셨고, 이 가르침의 온전한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순수한 그릇으로 너희를 준비시켰다. 너희가 이 그릇을 채웠을 때, 너희는 그것을 이웃들에게 가져가 그들도 너희의 기쁨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눈앞에 펼쳐진 넓은 지평선, 곧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로 끝나는 길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다면, 너희 존재 속에 비치는 만족과 평화를 안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불평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류의 일부가 영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온전히 헌신했을 것이며, 바로 이 회복의 사역에서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부를 돕기 위해서였다.

35. 힘이 솟는다고 느껴지기 전에는 흠어지지 말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공부하여, 동료들의 길에서 등대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제2시대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그들도 스승과 함께 생활하며 내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내 기적을 목격한 후, 내 사역을 이어가기에는 자신들이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꼈기에, 내게 더 오래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그토록 사랑하던 스승이 떠나고, 그들에게 이루기 어려운 임무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받아들여 갔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짓누르는 고통을 보았고, 나의 말씀은 그들의 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향유처럼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며,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의 빛은 너희를 비추기 위해 언제나 내려올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나의 은혜를 누렸던 특정한 기간 동안만 왔을 뿐이며, 이 말씀 또한 끝이 나고, 그 후에는 사람의 중재 없이 영에서 영으로 계속 흘러갈 것이다.

36. 나는 너희가 이러한 계시의 소멸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오히려 너희가 내 말씀을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이 형태가 끝나고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형태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너희를 나에게 더욱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37. 너희의 영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순간의 엄숙함에 온전히 몸을 맡기라. 나의 광채가 한 대변자를 비추고, 나의 말씀이 흘러내려 너희 마음 깊은 곳, 곧 내가 사랑 어린 정성으로 가꾸는 정원에 닿는다. 나의 말씀은 그 정원을 적셔 비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물이며, 그 후 사랑을 갈망하는 이 인류의 밭에 새로운 씨앗을 뿌려주는 물이다.

38. 내가 너희를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길의 끝에 이르러, 너희가 내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법을 알았기에 너희의 업적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39. 1950년이 저물어 가니, 내 계시의 끝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그 후 회오리바람이 닥쳐 그 거대한 나무를 채찍질하여, 생명이 없는 마른 잎과 나쁜 열매들이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다.

40. 내 백성에게 닥칠 이 큰 시련으로 인해, 많은 마음이 그들에게 수액을 공급해 주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마른 잎사귀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믿음이나 사랑의 부족, 혼란, 혹은 이상(理想)의 부재로 인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빈자리는 나중에 열정적인 신자들과 선한 뜻을 가진 제자들에 의해 채워질 것이다.

41. 새로운 제자들은 오늘날 내 사역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어떤 이들은 첫 순간부터 겸손하고 열정적일 것이며,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내 음성을 듣자마자 나를 따를 것이며, 그리하여 내가 제2시대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만났던 것과 같을 것이다.

42. 또한 내 사역을 반대하고 내 백성을 맹렬히 박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나의 위대한 씨 뿌리는 자들, 가장 충성스럽고 너그러운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회심은 사울, 곧 나의 사랑하는 바울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그는 스승께 대한 사랑의 헌신으로, 나를 배반한 자가 열두 제자 가운데 남긴 빈 자리를 채워 주었던 자이다.

43.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새로운 무리의 사람들이 내 백성에게 합류하여,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부인하거나 배반한 자들이 남긴 빈 자리를 메워야 할 것이다.

44. 오, 시련의 순간에 나에게 불충실해질 너희 마음들아! 너희 영혼 속에 내 말씀의 불멸의 씨앗을 간직하라. 그래야 언젠가 그 말씀 안에서 너희의 구원을 찾을 수 있으리라!

45. 그리고 내게 충실할 자들, 곧 끝까지 나를 따를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너희는 준비해야 하며, 내 말씀의 본질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거나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니라.

46. 내 제자 베드로가 사울에게 죽을 지경까지 쫓기던 일을 잊지 말라. 나는 그 충실한 사도에게 그가 시련 속에서 홀로 있지 않음을, 그리고 내 능력을 신뢰한다면 내가 그를 박해자들로부터 지켜 줄 것임을 증명해 주었다. 사울은 베드로를 체포하려 찾아다니다가 내 신성한 빛에 휩싸였다. 나의 빛은 사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는데, 그는 — 나의 임재 앞에서 땅에 쓰러지고, 나의 사랑에 정복되어, 나의 제자에게 가하려 했던 일을 끝맺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서 온 존재의 변화를 느끼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 서둘러 베드로를 찾아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고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청하기 위해서였다.

47.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는데, 그 이름의 변화는 그 사람의 완전한 영적 변화, 즉 그의 완전한 회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48. 이 시대에도 나는 내 백성에게, 그 제자들처럼 진정으로 나를 신뢰한다면, 비방하는 자나 박해하는 자들로부터조차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들의 길 한가운데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내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목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말하여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던 바로 그 목소리이다.

너희는 얼마나 많은 회심의 사례를 목격하게 될까! 너희 눈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목격하게 될까! 그러나 너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깨어 기도하라, 백성아. 폭풍우가 나무를 뒤흔들겠지만, 나는 너희 모두가 그 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9. 너희 기억력의 약함을 걱정하지 마라. 능력이 약하다고 해서, 내 말씀의 대부분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며 걱정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련의 순간에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법을 안다면, 겉보기에는 잊혀진 내 말씀이 너희 기억 속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50. 명상의 고요함과 내적 집중 속에서, 너희는 마치 그 말씀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실제로 그 의미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51. 이 경험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투쟁하는 때 순간마다 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올라올 것이며, 내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2. 선구자 로케 로하스는 엘리야의 영감에 이끌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다. “너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아, 이 말씀에는 진리와 빛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너희에게 확신하건대, 아무리

마음이 굳고 완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53. 자비를 베푸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마라. 그래야만 영적 왕국의 문 앞에 턱없이 부족한 공로만을 가지고 서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54.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 전체에 걸쳐 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라.

55. 사랑의 실천이 너희의 모든 노력 중에서 최우선이 되도록 유의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말라. 이 미덕을 통해 너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것이며, 동시에 모든 고귀한 영혼이 갈망하는 모든 지혜와 힘, 그리고 고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6. 이웃에 대한 자비를 베풀으로써 너희는 영혼을 정화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빚을 갚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고양시킬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너희 모두가 두드리게 될 그 문에 다다랐을 때, 너희의 행복은 지극히 클 것이니, 이는 영의 세계가 너희에게 보내는 환영의 외침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너희를 축복하고, 갱신과 영성화의 사역으로 부르실 것이다.

57. 오라, 너희 수많은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내 말씀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우라. 오셔서 내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 주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그리하여 너희 중 가장 가난한 자조차도 영적으로 귀중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니, 그 보물은 너희의 자비를 통해 생명과 건강, 위로와 평화, 지혜로 변모될 수 있다.

58. 누구도 물질적인 가난을 이유로 자비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무지, 믿음의 부족, 그리고 영적 소심함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다.

59. 여기, 내 백성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으니, 내 왕국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보물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60. 내 말씀은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한 강과 같아서, 너희의 땅에 이르러 밭에 물을 대고 비옥하게 한다. 그 말씀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여, 너희가 죄라고 부르는 과오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길을 걸어가라.

61. 먼저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더구나 그들과 함께 울거나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이 인류를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통합하는 사명을 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62. 너희는 이미 1950년에 와 있다. 이 형태로 내가 전하는 마지막 해이다. 너희는 나를 자주 들었으며, 나의 메시지가 끝나면 나에게 관한 모든 것이 다 전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너희는 수동적인 태도를 뒤로 하고 이 축복받은 발에서 적극적인 일꾼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단지 내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그것을 듣거나 묵상하는 데 그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 영혼이 얽매임이나 속박, 사슬에서 벗어나 이 시대에 모습을 드러내고, 너희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때가 되었다.

63. 이 영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온 많은 이들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스승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영적 세계의 조언이 들려오는 이 모임 장소를 학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오로지 이러한 모임 장소에서만 활동하는 데 그쳐 온 일꾼들은, 머지않아 내 영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빛과 사랑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지구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64. 너희는 앞으로 서로之间에 많은 다툼을 겪어야 할 것이며, 나는 너희가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자주 시험해야 할 것이다.

65. 이 시험들은 너희의 연합을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 백성 가운데 영적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들이 거두는 열매는 무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66.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나중에 온 인류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때에 말해 주었으며, 첫날부터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노라. “너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309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1. 오, 제자들아, 나의 가르침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너희는 너희 존재의 가장 순수한 곳에서 나를 느꼈고, 나는 너희 영혼과 대화했다. 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 영혼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도록 너희를 훈련시키고 있다.

2.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헤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희 영혼이 그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의심과 불확실성을 떨쳐내야 하며, 오직 나의 계시, 나의 가르침, 그리고 나의 영감만이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가르침을 통해 깨어난 영혼들은, 지칠 줄 모르고 나의 가르침을 경청했기 때문에 어린 제자에서 진정한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내 말씀 중 단 한 마디라도 놓치면 이를 안타까워합니다. 바로 그들이 미래의 투쟁을 예감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내 자비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인류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큰 책임을 깨달은 모든 이들은, 여기에서 음성을 전하는 자를 통해 내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너희가 삶 속에서 차츰 겪게 될 모든 시련과 교훈, 사건들을 설명하고 해석해 줄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음성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알리는 방법은 무수히 많으며, 이곳에서의 방식은 단지 그중 하나일 뿐, 이를 통해 나는 인간적인 형태로 내 가르침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나를 드러내며, 낮이나 밤을 기다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가갈 특정 시간이나 정해진 시기도 없다. 나는 영원히 모든 피조물 안에 존재한다.

3. 나의 우주적 현존은 모든 것을 채우고 있으며, 우주의 그 어떤 장소나 공간에도 공허함이 없으니, 모든 것이 나로 가득 차 있다.

4. 너희의 영혼은 언제나 나와 연결되어 왔으나, 그러나 오늘날까지 너희는 이 연결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 자신을 통해 나를 드러내어, 너희를 영원한 “말씀”의 대변자로 삼았다. 이는 이 계시로부터 영과 영의 교감에 이르기까지 단 한 걸음에 불과함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함이며, 너희가 나의 신성과의 가장 높은 차원의 연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대변자를 통한 이 계시의 시기는 끝나야 한다.

5. 너희가 더 이상 이러한 계시의 형태로 나를 모시지 않게 되면,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며 너희 영혼을 고양시킬 것이며, 내가

너희가 나를 찾는 이 방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너희에게 계시해 줄지 보라! 나의 신성한 영감은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과거를 보게 될 것이니, 더 이상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밝은 대낮의 빛 속에서 말이다. 너희는 너희가 걸어온 발걸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어떤 것이 옳았고 어떤 것이 그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고귀한 열망 속에서 이스라엘은 강해질 것이며, 이 힘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전해져, 마침내 모든 인류가 영에서 영으로 나를 찾게 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6. 세상을 바라보고 탐구하라. 그러면 그 물질주의와 저급한 정욕, 타락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영성화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나, 스승께서는 너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과거에 본보기를 남겨 두셨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살기 위해 사람이 되었을 때, 인류에게 너무나 고귀한 가르침을 세상에 전했기에, 심지어 내 제자들에게조차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은 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한 모범을 남겼고, 내가 그 백성의 마음에 심어 놓은 사랑의 메시지가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서 영성화를 실천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는 그들의 물질주의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후들을 보일 것이다. 자연 그 자체로부터 그 비밀을 전해 받은 진보적인 과학자들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자연의 힘은 자연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맞서게 될 것이다. 자연은 그 열매를 악한 목적을 위해 내어주기를 거부할 것이며, 망상과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손으로 풀어놓은 권력 추구의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폭풍우, 전염병, 재앙.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들 자신의 손인가? 아니면 사랑의 열쇠가 아닌 다른 열쇠로 내 비밀을 열어젖히며 모독한 인간의 과학인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오직 나의 천상의 정의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될 뿐이다!

8. 진실로, 제3시대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통곡 소리는 땅의 모든 곳에서 들릴 것이다. 고통의 잔에 담긴 누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마셔질 것이며,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마셔야 할 것이다. 고통은 날마다 더 심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미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니 —

순수한 씨앗에 대한 굶주림과 수정처럼 맑은 물, 진리와 영원에 대한 갈증이다.

9.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너희의 임무는 무엇인가?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성주의는 단지 너희 입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너희는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하고, 정신적·도덕적·실천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광신주의나 비밀주의에 빠지지 말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며, 영적 영혼에게 마땅한 가치와 위치를 부여하여, 그것이 덧없는 육신을 초월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너희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 모범이 사람들 사이에서 결실을 맺게 하라.

10. 나는 내 사역 안에서 너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며, 그 발걸음이 배가되도록 돌보겠다. 그래야 나중에 세상의 넓은 길이 너희 앞에 펼쳐질 때, 너희가 그 길을 따라 내 평화와 새로운 계시의 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리라. 내 뜻은, 내 신성한 가르침을 받은 너희 영혼이 인류를 위한 갱신의 길을 개척하고, 사람들이 숭고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 영성을 얻음으로써 치유되는 이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때를 위해 너희는 필수적인 준비를 갖추고 영혼에 강인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희가 나아가는 길에서 물려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11. 그때가 되면, 오늘날 너희를 뒤흔들고 길을 막고 있는 시련들은 너희 얼굴을 상하게 할 수 없는 산들바람처럼 보일 뿐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 율법을 따르며 얻은 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준비하며, 내 말씀의 진의를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여라. 우선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고, 내가 너희 안에서 스승이자 아버지, 빛으로서 드러나도록 허락하라.

12. 모든 영혼은 각자의 사명을 다할 것이며, 나는 그 모든 영혼을 활용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만이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받았으며,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다른 삶의 차원에서 우주의 통합에 기여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3. 평화라는 이상과 기도, 사랑, 선의를 도구로 삼아 나서는 이들이 많을 것이며, 이러한 미덕들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줄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 승리할 것이다.

14. 너희 이웃과 나의 신성한 공의를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의 법은 종종 사람들에게 비난받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고귀한 뜻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15. 평화를 갈망하고 목마르며 근심 속에 사는 이들은, 민족들을 비참과 파멸로 이끄는 자들에게 내리칠 나의 정의의 홀의 타격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신성한 정의는 완전하며, 나는 나의 사랑을 통해 너희에게 이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16. 내 말씀을 깊이 헤아려라. 그래야만 많은 이들과 같이, 내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을 내리면서도, 반대로 중대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겉보기에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신성한 정의의 행위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겉보기에는 사소한 잘못만을 저지른 자를 강력한 심판으로 벌하는 것은, 내가 영혼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이들의 중대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큰 잘못이 영혼에게 그만큼 큰 회개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7.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심지어 마음속으로라도 민족들 사이에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내 정의가 내리기를 바라지 마라. 그들 역시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이며, 나의 피조물이라는 점만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은 큰 죄악을 큰 속죄를 통해 갚아야 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손가락질하며 평화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너희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자들이라고 지목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장차 다가올 시대에 위대한 평화의 주창자이자 인류의 위대한 은인이 될 것이다.

18. 수백만 희생자들의 피가 땅 위에서 나의 신성한 공의를 외치고 있으나, 인간의 사법 체계를 넘어 모든 영혼과 모든 마음에 닿는 것은 바로 나의 공의일 것이다. 인간의 사법은 용서하지도, 구원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나의 사법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치고, 고양시키고, 깨우쳐 준다; 그리고 인류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바로 그 자들을, 나는 그들을 큰 속죄의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구원하고 구해낼 것이다.

그 과정은 그들이 정화되고 양심의 목소리에 완전히 깨어나, 자신들의 행위의 가장 깊은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시련의 용광로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희생자들과 민족들에게 겪게 했던 바로 그 길을 그들도 걷게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영혼의 순수함에 도달하여, 이 땅으로 돌아와 파괴된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 너희는 내가 내 자녀들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 내 공의로움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관대하고 나약한 재판관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때부터, 나는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공의를 드러내었노라.

가인과 아벨이 나에게 번제를 드릴 때, 나는 그들 각자의 제물을 살펴보았다. 아벨의 제물은 순수하고 진실했으나, 가인의 제물은 허영에 찬 것이었다. 나는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했다. 그러나 가인은 이를 그렇게 받아들이자, 증오와 분노에 차서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

나는 그에게 그 생명과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이에 대한 나의 불만을 나타내 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나의 죄는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큼니다. 제가 형을 죽였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제가 형을 죽였던 것처럼 이 길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그는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그에게 용서를 베풀었다는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 죄를 속죄하고, 오명을 씻어내며, 그 숭고하고 신성한 용서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 가인에게 말한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자신의 양심, 즉 내가 나의 모든 인간 피조물 안에 심어 놓은 그 내면의 재판관의 목소리였다. 그와 같은 목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이며, 그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 재판관이기에 무자비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가인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명료함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카인이 형제의 피를 흘렸을 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21. 그러므로 이 시기에 나는 사람들의 사법 제도가 동료 인간들의 죄과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심판의 전에서 나의 모든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며, 그곳에서 나의 심판은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판결을 내릴 것이니, 이는 그들이 양심에 대한 회개가 수반하는 고통을 통해 속죄하게 하기 위함이다. 비로소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22.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환생에 대한 확증을 가져다주었다. 인류는 비록 모든 시대에 걸쳐 이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영혼은 이 비밀을 “육신”에게 드러내 보였으나, 항상 불신하고 연약한 육신은 이를 의심해 왔다.

저 세상에서 온 존재들이 인간에게 이 계시를 전하기 위해 왔으나, 오직 소수에게서만 믿음을 얻었을 뿐이며, 이들은 자신의 신앙적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고 무지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예감과 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이를 고백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그에 대한 확증을 전하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 왔다. 영혼의 환생 속에서 나의 완전한 사랑의 법칙이 드러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땅에서 단 한 번만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그리고 영혼들이 저지른 악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육체를 통해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베풀어 주었는가! 그러나 너희의 육체는 이 가르침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짙은 장막이다.

23. 내가 너희가 시대를 거쳐 누구였는지에 대해 알게 허락한 것은 극히 적다. 이는 너희가 진정한 영적 성숙에 이르기 전에 육신으로 내 신성한 결단의 성소, 즉 내 깊은 속마음 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영적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단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헛된 추측을 부추기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영적 여정에서 너희에게 무익한 단 한 걸음조차 내딛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를 원하며, 너희의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듣고, 그것만이 너희에게 계시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오로지 인간의 만족만을 위한 모든 것은 너희가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 영적 유산의 거룩하고 은밀한 부분을 나타내므로, 그 앞에는 언제나 베일이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24. 이 인류가 영성화, 즉 나의 법칙을 실천하는 데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이미 인간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위대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 단, 나의 뜻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말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아, 내 가르침이 보여주는 진정한 영성화의 길로 들어서라. 그래야 너희가 군중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그들이 파멸을 면하게 하는 선한 예언자들이 되라.

나는 적절한 시기에 그 불신자들의 전생 일부를 너희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의 사명을 돕겠다. 그러나 이는 너희가 그들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시를 통해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다.

25.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일깨워 줄 것이며, 한 번의 인간 생애만으로는 나의 영원한 교훈을 다 알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26. 너희가 온 힘을 다해 이 싸움을 벌인다면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 누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 확신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생전에 행한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내 운명으로 정하신 것이었다. 이제 나는 다른 세계로 나아가, 발전의 무한한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교훈들을 이해하기에는 너희가 가진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이들은 영적 길에서 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교훈에서 교훈으로, 삶의 세계에서 삶의 세계로 나아가며 영원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 너희가 더 높은 삶의 차원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정의 그 자체인 양심이 너희에게 그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믿느냐?

27. 순종하고, 노력하며, 나의 신성한 뜻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라.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이 인류의 변화, 나의 법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인류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역사 기록에도 아직 기록되지 않은, 거대한 투쟁과 거대한 전쟁을 목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과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너희가 스스로를 정화해야 한다면 — 성령의 가르침을

마주하고도 깨어나지 못한 자들, 내 율법을 모독한 자들, 자신의 사명을 잊은 자들, 전통에 얽매여 무지의 사슬을 짊어진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28. 당혹감과 고통, 그리고 회개는 자신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마치 용광로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에게도 내가 도울 것이며,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에게 나의 용서를 알려 주는 나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단지 내가 그들을 이전에 모독하고 경멸했던 그 길로 보내어, 그들의 죄과를 속죄하고 나의 사랑에 합당하게 되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나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이를 허락하리라.

2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며 말하노니, 오늘 너희가 사람의 피와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영원한 존재 속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은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지적했듯이, 오직 나만이 나의 높은 뜻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다.

30. 이제 너희는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구하고 평가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너희가 이웃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고, 눈감고, 무감각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르침으로 너희를 감수성 있게 만들었으니, 때가 되면 너희가 모든 이웃에게 가르침과 이해, 사랑, 용서, 그리고 위로를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를 등대이자 빛나는 별, 그리고 충실한 친구로 삼아, 너희가 가정과 사회 기관, 그리고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그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하겠다.

31.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서로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 가운데 보편적인 형제애가 꽃피고, 이것이 너희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를 원한다.

32. 너희가 인간의 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 가르침과 너희의 영성화를 그 법보다 우선시하라. 내 법에 순종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인간 법으로 인해 너희에게 닥치는 가장 심각한 갈등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그러나 불의를 물리치고 타락을 대적하라 — 살인적인 무기로도, 증오로도 아닌, 나의 사랑의 씨앗으로 싸워라. 너희는 그 싸움에서 혼자가 아닐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인류 중에는 이미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역경 속에서 강해지며 — 나와 의 연합을

목표로 나아가는 민족들이 있다. 이 영혼들은 누구인가? 당장은 너희가 그들을 알 필요는 없다.

33.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고, 서로 사랑하며, 저 세상에서 이 보편적 형제애라는 이상 아래 하나로 합쳐지라. 내가 너희를 영적 산으로 부르리니, 그곳에서 나는 이들과 저들, 즉 평화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리라. 그들에게 힘과 내 계시에 대한 믿음을 주어, 그 은총을 받은 채로 그들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리라. 앞으로도 영혼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 어떤 이들은 들꽃으로, 또 어떤 이들은 사막의 가시덤불로.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들은 하나의 이상으로 하나로 뭉칠 것이며, 저 세상에서 너희 사랑의 꽃들은 하나로 합쳐져, 나에게 드리는 사랑의 제물로 나아갈 것이다.

34. 오 제자들아, 이 계시들의 마지막 해에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기가 끝나면 너희의 영성화는 매우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광신과 우상 숭배의 희생양이 되겠느냐? 너희 중 몇이나 비밀주의의 길로만 나아가겠으며, 또 몇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내 사역에 본래 속하지 않은 것을 덧붙이려 하겠느냐? 깨어 기도하라, 오 백성들아! 그러나 너희의 종교적 실천이 더 순수하고 소박할수록, 그리고 내 법칙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을수록, 너희 영혼이 이를 완전함도 그만큼 더 커질 것임을 잊지 말라. 의식과 예식을 줄이고 영성을 더 키우며,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더 베풀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35.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의 시대가 닥칠 것이다. 의식과 예식은 극에 달할 것이며,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다. 다양한 종교와 종파의 성직자들과 사제들은 신도들을 열광의 지경으로 몰아갈 것이다. 내가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것이 인류 사이에 폭풍과 같을 것이며, 그 혼돈 속에서 영혼들은 마치 난파당한 사람들처럼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항구나 구명보트에 있다고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36. 모든 영혼이 혼란에 휩싸이고, 어디에서도 평화의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가장 저명한 인물들, 뛰어난 지성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지도자들, 인류에게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들조차 나침반도, 평화도, 빛도 없는 난파선 승객들임을 깨닫게 될 때, 그 놀라움이 매우 클 것이다.

그때 어둠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이 혼돈 한가운데서 구원을 찾아 나선 영혼들이 일어설 것이며, 어두운 뇌우 구름 너머로 그들은 새로운 생명과도 같은, 새로운 여명처럼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빛은 성령의 빛이요, 온 우주를 비추고 자녀들의 귀환을 기다리며 거친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37. 이 시련의 시기가 지나면 인류에게 영의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발로 과거의 우상들을 짓밟을 것이며, 실망한 나머지 허영과 호화, 거짓된 화려함이 가득한 모임의 장소를 파괴할 것이다. 학문적인 저서를 쓴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을 불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38. 그 때에는 너희 중 가장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지금 이 소박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서 나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씨와 영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며, 그들 중에는 그들이 나(의 음성을 전하는 자)를 들었을 때 미쳤다고 여겼던 이들 중 일부도 있을 것이다. 오늘 내 메시지를 의심하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중에 내 말씀이 곳곳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베드로처럼 울게 될 것인가.

39. 그때까지 계속해서 준비하라. 내 가르침으로 너희 영혼을 굳건히 하라. 그 가르침은 너희에게 오직 해방과 영성화를 통한 구원만을 요구하므로, 그 누구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태초부터 내가 제시해 온 길이며, 그 길을 따라 모든 정화된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길 위에는 모든 미덕의 근원인 신성한 법이 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담고 있는 펼쳐진 책, 곧 생명의 책이 있다. 나는 너희를 이 길로 다시 한 번 초대했다.

40. 산꼭대기에서 나는 세 번째로 너희에게 말하며 이르노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다시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라.”

41. 기억하라: 내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묻혔을 때, 당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그들의 믿음이 불타오르고 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굳건해지려면, 그들의 눈이 나를 다시 보고 그들의 귀가 나를 다시 들어야만 했다.

42.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 제자들 가운데는 나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단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요한,

그 충성스럽고 용감하며 열정적이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나는 마리아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을 때, 그가 앞으로 그 흠 없는 마음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녀의 곁에서 앞으로 닥칠 싸움을 위해 더욱 힘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들, 즉 다른 제자들이 하나둘씩 사형 집행인의 치명타 아래 쓰러지며, 그들의 피와 목숨으로 그들이 전파했던 온전한 진리와 스승의 이름을 확증해 나갈 때, 요한은 죽음을 이기고 순교를 면했다. 그가 황무지로 추방되자, 그를 쫓아낸 자들은 그들이 그를 내쫓은 그 섬에서,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시대들을 *관통*하는 위대한 계시가 내려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계시는 그가 차츰차츰 겪어 나가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과 성취될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예언이었습니다.

43. 요한은 형제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스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후, 그들과 떨어져 홀로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인류를 위해 기도했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44. 기도와 침묵, 내면으로의 침잠, 그의 존재의 순수함, 그리고 생각의 선함은 기적을 이루어 냈으니, 바로 그 사람, 그 영혼이 다른 영혼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천 년이 걸리는 발전을 짧은 시간 안에 이룬 것이다.

45. 그렇다, 제자들아, 요한은 장차 다가올 시대에 인간의 영혼이 이를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요한이 말하고 보고 들은 그 황홀경은, 너희가 이 시대에 경험하게 될 일들의 계시였다. 상징으로 묘사된 영적 환상들은 ‘예언의 은사’, 즉 영적인 시야를 통해 보였던 것이다.

46. 그의 뇌에 닿아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신성한 음성과 영적 세계의 목소리는, 너희가 이 시대에 음성 전달자와 은사자들을 통해 경험하게 될 계시의 선구적인 징조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함으로써, 인류에게 ‘’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불순물과 물질주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이루어질 영과 영의 대화를 계시했습니다.

47. 사람들은 언제쯤 내 사랑하는 제자가 글로 남긴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까? 그의 계시가 기록된 방식은 기이하고, 그 의미는 신비로우며, 그의 말س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오하다. 과연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요한의 계시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내용에 깊이 빠져들고, 해석하고, 관찰하며

연구한다. 어떤 이들은 진리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계시록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온 세상에 선포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더 이상 탐구하기에는 너무 지쳐서, 결국 그 메시지에 담긴 신성한 의미를 모두 부정해 버리기도 한다.

48. “제3의 시대”의 제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진정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 그 계시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다면, 영과 영 사이의 기도, 즉 요한이 유배 중에 행했던 바로 그 기도에 익숙해져야 한다. 먼저 너희는 신성한 계시가 비록 세속적인 형상과 이미지로 표현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의 영혼, 즉 그 영혼의 발전과 고군분투, 유혹과 타락, 신성 모독과 불순종에 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나의 의로움과 지혜, 나의 왕국, 나의 사랑의 증거와 인간과의 교감, 인간의 각성과 갱신, 그리고 마침내 영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49. 나는 너희가 영혼의 발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영적 삶의 여정을 시대별로 나누어 그곳에서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50. 그러니 제자들아, 이 계시가 너희의 영적 삶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너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고 고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단지 세속적인 사건들만을 근거로 이를 해석하려 한다면,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1. 비록 많은 세속적 사건들이 그 계시의 성취와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안에 담긴 사건들과 징조들이 또한 형상, 비유, 그리고 예시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가 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영혼의 순결을 통해 나에게로 올라가는 길에서 너희의 소명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나의 제자 요한은 인류보다 수천 년 앞서 주님과 영과 영의 대화를 나누며 너희에게 빛나는 본보기를 남겼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목 차

가르침 277	구절 번호
영적 사명	1
영적 이스라엘	14
영적 분석	28
영적 영감	32
계시와 예언	35
인류의 후진성	42
영혼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다	47
가르침 278	구절 번호
영적 능력의 각성	2
진정한 영적 기도	16
고해 성사의 오류	18

전쟁의 종식을 예언한 말씀들	24
시련의 의미	31
완벽한 영적 소통	42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	59
신비의 의미	61
가르침 279	구절 번호
영적 기도	1
예언의 성취	9
속죄의 시기	17
주님의 재림의 시기	39
영성	65
신성한 정복과 인간의 정복의 차이	75
가르침 280	구절 번호
제3시대의 메시지	2
인간 스스로가 내리는 심판	11
과도기	20
아버지의 조언	31
제3시대의 사도들의 사명	49
상징들은 사라질 것이다	65
새로운 만나	71
가르침 281	구절 번호
새로운 영적 현현의 목적	1
영적 기도	23
평화의 기초	29
행실, 말, 생각의 조화	42
영적 분석	46
진정한 가치	63
가르침 282	구절 번호
성령의 능력	3
인간의 번덕스러움과 연약함	9
인간의 무지와 영의 참된 지혜	17

인간은 영적 현현의 매개체이다	31
약속된 위로자	57
진정한 영적 기도	61
가르침 283	구절 번호
운명의 진정한 의미	10
이스라엘과 그 사명	15
영성은 종교성과 다르다	23
양심에 이끌리는 과학	48
모두를 위한 영적 영감의 준비	51
자연이란 무엇인가?	57
가르침 284	구절 번호
“생명의 책”의 구성	11
영적 및 물질적 충족	24
그리워하던 “평화의 왕국”	31
44,000명의 준비된 영혼들	34
제3의 시대	38
여섯 번째 봉인이 풀리다	46
가르침 285	구절 번호
우리 내면의 평화	1
고통의 이점	6
기도는 영적인 수고이다	10
제3의 시대와 영적 삶	18
감각을 숭배하지 않는 영적 발달	43
영성주의자들의 투쟁	54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62
인간의 존재 이유	69
진리는 신성한 본질이다	81
가르침 286	구절 번호
육신을 입은 영혼과 비육화된 영적 영혼들 간의 조화	2
영적 고양	9
1866년 9월 1일, 제3시대의 여명	14

예수, 모세, 엘리야의 사명	15
고통에 대하여	27
선지자들이 예고한 때	45
영적 각성	57
가르침 287	구절 번호
창조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영적 여정	6
낙원의 의미 (161,7 참조)	12
본능과 양심	25
자비란 무엇인가	31
행복으로 가는 길	37
영적 자비	54
야곱의 사다리	59
가르침 288	구절 번호
성령을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	1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비유 (161,7 참조)	29
진리의 신성한 번개	36
영적 존재들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따라 육신을 입는다	46
반복되는 환생	56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방랑자	62
가르침 289	구절 번호
진정한 영적 가치로의 각성	3
영적 세계의 존재	17
시대의 성취	31
평화의 왕국이 다가옴	57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66
1950년의 중요성	67
가르침 290	절 번호
화신에서의 발전	4
인간의 잘못된 해석과 신성한 진리	13
영혼과 혈통의 관점에서 본 가족의 의미	40
환생에 대한 계시	53
영적 해방의 시대	58

가르침 291	구절 번호
평정심과 성실함, 성취의 기초	2
사랑의 법칙	8
진리를 깨닫는 것	9
1950년의 영적 중요성	44
1950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 말씀을 선포할 것임을 알라	57
14만 4천 명과 그들의 사명	63
정신적 의사소통	81
가르침 292	구절 번호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3
보편적 조화를 향하여	5
정신적 수용력과 영적 수용력	15
새로운 이스라엘	28
영성주의의 부상	31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33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내자	46
여러분의 행성의 운명	53
주님의 재림	65
가르침 293	구절 번호
영과 영의 교감을 위한 준비	11
“삼위일체”	19
신성한 사랑에 상응하는 인간의 가치는 공로이다	44
새로운 신의 도래는 우리를 물질주의의 벽 위로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56
하나님께서서는 종교 간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61
양심의 목소리	73
가르침 294	구절 번호
영성의 시간	1
영적 해방	24
“저 세상”	32
영혼과 육체의 관계	37
영과 영이 소통하는 시간	44

가르침 295	구절 번호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의 의미	1
인류의 큰 착각	2
유혹들	13
허영의 위험	18
영 안에서 “말씀”의 귀환	26
죽은 자들을 위한 기념일에 대한 해설	34
영성과 과학	36
인간의 영적 영혼은 창조주의 형상이다	44
자유 의지와 양심	49
환생과 영적 삶	52
지구상의 세 시대	56
가르침 296	절 번호
인간의 영적 진화	2
하나님의 새로운 재림	20
양심이 우리의 탐구를 이끌어야 한다	26
영원한 저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30
평화의 보물	39
제3시대의 신성한 사역의 위대함	45
영적 삶의 현현	55
사랑의 힘	60
가르침 297	구절 번호
영적 사역의 의미와 목적	2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6
종교와 종파 내의 유물론	39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예언들	68
가르침 298	구절 번호
영적 은사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고양시킨다	1
영혼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	19
영적 세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41
가르침 299	구절 번호
1949년 크리스마스	2
철학적 오염이 없는 영성	32
요셉의 본보기	60

가르침 300	절 번호
영성주의의 증거	3
제3시대의 저술의 중요성	17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33
영성에 대한 준비	36
모든 시대의 예언자들	50
가르침 301	구절 번호
영적 준비의 단계	2
영의 빵과 포도주	5
여섯 번째 봉인	9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	10
성령의 은사	14
시련의 이유	24
청소년을 향한 영성가들의 사명	33
가르침 302 (1950)	절 번호
영성화로 가는 길	2
엠마오의 오두막에서	3
신성한 교훈들	5
환생의 이유	14
대홍수	15
영적 방주의 의미	17
무수한 영적 거처들	23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	31
우상 숭배의 소멸	36
가르침 303	구절 번호
영적 준비	1
영적 존재들 간의 관계	11
광신주의와 무지에 대하여 묘지에서	20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때이다	24
오락에 대하여	27
시대의 완성과 심판	35
죽음과 영원한 저주, 연옥은 어디에 있는가	41
일곱 봉인	52
가르침 304	구절 번호
영의 성장은 준비와 의지가 필요하다	1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13
시련은 실수에 상응한다	38
1950년 이후의 영적 소통	51
가르침 305 (1950년 1월 1일)	절 번호
세 시대와 그 기록된 메시지	1
인류를 향한 영적 부름	2
영혼은 근원이다	6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모든 이에게 용서가 주어진다	12
신성한 진동의 보편성	22
영적 성전의 신성한 순수함	30
인류의 영적 각성	36
물질주의 시대의 최후	41
엘리아스의 사명	47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야 합니다	51
그릇된 믿음	59
신의 자비와 영적 진화	64
양심은 이성과 마음보다 우위에 있다	67
예수와 그리스도	71
1950년의 중요성	74
가르침 306	절 번호
144,000명의 선택받은 영적 존재들	1
영적 특징	3
영원한 영적 가치와 덧없는 물질적 가치	14
시련의 축복	20
자비를 베풀 기회 (히브리서 13:16)	27
자비가 없는 곳에는 전쟁이 지배한다	35
1950년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다	38
부름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	53
종교성이 아니라 영성	59
보편적인 언어	65
가르침 307	절 번호
평화는 가장 높은 영적 가치이다	1
실천 속의 영성화	6
처녀들에게 보내는 말씀	31
진정한 영적 가족	36
준비	42
멕시코에서의 영적 현현	49
영적 은사의 전개	54
가르침 308 (1950)	절 번호

영적 산으로의 상승	5
시련에 대한 순종	7
예수와 그리스도 - 인간과 영	20
베드로와 사울-바울	42
준비의 경험	48
자비	52
가르침 309	절 번호
보편적인 신의 현존	3
영성과 물질주의의 몰락	6
평화의 사자	10
신의 정의	14
카인과 아벨의 교훈	19
환생의 완전한 법칙	22
보편적 형제애	31
나침반 없는 난파선 승객들	35
영혼의 자유	37
베드로의 본보기	38
사도 요한의 파트모스 유배	42

1866-1950년 멕시코에서의 신성한 가르침 참고 문헌

라이히틀 출판사, D-56329 세인트 고아르, 전화: +49 (0)6741 1720
『진정한 삶의 책』,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3의 성서』(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판도 있음)
멕시코의 신성한 계시(간략한 소개)
삶의 문제에 관한 신성한 계시
제3의 시대를 위한 예언들

삶을 위한 도서 서비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
신성한 사랑,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El Amor Divino -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진정한 삶의 책』,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3의 성서

유니콘 재단, D-88709 메어스부르크
전화: +49 (0)7532 808162, 이메일: info@unicon-stiftung.de
『진정한 삶의 책』 소개 (무료)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C.
오리노코 54번지 5호, 콜로니아 자카후이츠코, 03550 멕시코 시티
『진정한 삶의 책』, 제1권~제12권
『제3의 성서』
및 멕시코의 이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타 서적들

웹사이트

www.drei-offenbarungen.net
www.reichl-verlag.de
www.unicon-stiftung.de
www.drittes-testament.de
www.drittetestament.wordpress.com (다국어)
www.tercera-era.net (스페인어)
www.144000.net (다국어)
www.dritte-zeit.net